

제 10회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상 시상식 자료집



인사의 글

리창호(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기독교윤리실천 사회복지위원회가 2003년부터 지역사회 속에서 섬김과 나눔의 사명을 잘 수행하는 모범적인 교회를 찾아내고 알리는 교회상이 어느덧 10번째가 되었습니다. 교회상의 목적은 단순히 교회에 상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지역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수행하는 교회를 발굴하여 세상에 알리며, 한국 교회로 하여금 지역사회와 이웃을 품고 함께하는 일에 더 많은 교회들에게 알리고,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 시작된 운동입니다.



그동안 100여개 교회들이 수상함을 통하여, 본 사회복지위원회는 더 좋은 지역사회, 곧,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기쁨 마음으로 협력하여 헌신해 왔습니다. 본 심사위원들은 사회복지 전문직에 종사하는 대학교수, 목회현장에 있는 목회자, 사회복지실천현장에 있는 리더들이 자원봉사로 참여하여 그동안의 열매들을 맺어 왔습니다.

지난 10년은 한국사회의 사회복지 부분에서도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습니다. 지역사회를 향한 복지프로그램들이 각 교회들마다 활성화되어 이제는 지역복지의 중심이 되어 있는 교회들도 많아졌습니다. 교회가 사회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기여하고자 복지재단을 설립한 교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와 사회복지는 밀접한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돌봄과 나눔이 필요한 지역사회의 현장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세워진 교회들을 중심으로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감으로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이뤄나가는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번 제10회 교회상에 신청해 주신 교회들을 실사와 최종심사를 통하여 선별하였지만 대부분 신청해 주신 교회들, 모두 모범적으로 지역사회를 향한 사회복지실

천을 잘 수행하고 있는 교회들이었습니다. 선정되지 못한 교회들에게도 아낌없는
지지와 격려를 드립니다.

저희 기윤실 사회복지위원회는 계속하여 교회의 이웃사랑 실천 활동을 격려하며, 교회
시설 개방운동과 교회사회복지프로그램을 자료화하여 보급, 확산시킴과 모범적인
교회들을 사회에 알리며,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교회가 견고히 세워져 나가는
일에 헌신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는 향후 교회상 대상자를 직접
발굴해서 교회상에 대한 품격을 더욱 높이도록 병행해서 시행할 계획을 세우겠습
니다. 감사합니다!

제10회 교회상 심사 총평

김동배(기윤실 사회복지위원회 공동위원장,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교회가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고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제정한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회 상(賞)> 사업을 10년 동안 꾸준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동참해 주신 여러 교회와 목사님들, 또한 아낌없이 후원해 주신 소망글로벌 강석창 사장님 및 회사 임직원 여러분들, 교회상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후보 교회들을 추천해 주신 각 교단 관계자 분들,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서 심사에 참여해주신 심사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상 제정 10 주년이 된 금년에는 전국 7개 교단의 총 21개 교회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기윤실 사회복지 관련 전문가 13명의 심사위원은 1차 서류심사를 시작으로 하여 2차 교회 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9개 교단으로부터 추천받은 명예 심사위원을 모시고 특수목회사역을 포함하여 12개 교회를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심사과정과 선정기준에 따른 심사평을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심사과정

제10회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상(賞)

교회는 지역 사회의 보다 밀접한 관계 속에서 지역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기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기윤실 사회복지위원회는 이러한 이웃을 내 품과 같이 품고, 살기 좋은 지역 사회 만들기에 함께 온 교회들을 칭찬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회상(賞)'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상을 통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모범적으로 지역사회를 살린 교회들을 격려하고, 다른 교회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도록 하여 교회의 자립·사회복지사업이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심사기준

교회와 교인의 지역사회와 함께 사회공헌을 실천하는 자세, 운영의 전문성과 합리성, 지역사회에의 영향 등 이 세 분야에 대해 상세한 자력·수립·유지는 프로그램 예산 중 사회적 관련 비용과 직원의 교회·지역사회에 대한 배려, 자원 운영 부분에서는 대표적인 프로그램 선원의 직질, 인성, 운영의 합리성과 진실성,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정도 등이 주요 직질성, 사업 가치도, 부처에 대해서는 교회 신자의 신앙 정도, 교인들의 이해와 참여도, 대표원인 프로그램의 과외효과,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기준으로 삼아 평가합니다.

- ① 신청기간 2023년 7월 10일 ~ 9월 10일
- ② 신청자격 지역사회를 살리는 일에 열의 있는 교회
- ③ 접수방법 홈페이지(www.cbw.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 접수
*신청서는 지정된 양식에 맞춰 작성하여 "제10회 교회상(賞) 신청서"로 제목을 붙여 보내주세요.
*신청서 접수 시 반드시 제출하신 경우 접수확인번호를 보내주세요.
(주소: 140-001 서울 서초구 반포동 27번지 세브란스 병원 401호 기윤실 사회복지위원회)
- ④ 심사과정 1차 서류 심사 7월 17일까지
2차 현장 심사 7월 19일(토) 20일(일) 21일(월)까지
- ⑤ 심사내역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특수지역 분야 (총 10교당)
(특수지역교회는 사회적서비스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2025년 1차 배척될 경우 유예처 운영인 교회)
- ⑥ 심사절차 1월 10일(토) 제정
교회사목위원회 직할 100인원, 기념품은 5천여 원
- ⑦ 추천 기윤실 사회복지위원회
- ⑧ 후원 소망글로벌
- ⑨ 문의 후원금 214-80001000 / 010-0462-2100 / 백광수 목사 019-230-0417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전체 심사과정은 3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1단계는 기윤실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들 가운데 사회복지 관련 전문가 14명이 21개 교회 전체에 대해 서류심사를 했습니다. 서류 심사는 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지역주민을 위해 실시한 사회복지 관련 프로그램 소개, 지역주민을 위한 교회시설의 개방 정도, 운영의 합리성과 전문성, 지역사회 복지 관련 기관과의 협력 정도, 교회 총 예산 중 사회복지 예산의 비중, 목회자의 교회사회복지에 대한 비전 등이었습니다. 서류심사 결과 1개 교회를 제외하고 20개 교회가 통과되었습니다.

2단계는 20개 교회에 대해 1교회 당 2인의 위원들

이 현장실사를 하였습니다.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현장을 방문하기 위해 실사 위원들이 하루 혹은 이들의 시간을 내어 주었습니다. 현장 실사는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사회복지 사업에 대한 의지, 운영, 기여도 이 세 분야에 대해 100점 만점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3단계는 2단계 현장실사 점수를 가지고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실사에 참가했던 전문가 위원들이 다시 모여서 접수된 교회의 지역형태를 고려해, 대도시 부문 2개 교회, 중소도시 부문 4개 교회, 농어촌 부문 3개, 특수목회지역 부문 1교회, 특별상 2교회가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명예심사위원들은 선정된 12개 교회에 대해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최종 인준해 주었습니다.

2. 심사평

전반적으로 볼 때, 이제 교회 상 10년을 맞이하여 고무적인 현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심사기준과 관련해 볼 때 선정된 교회들의 사회복지활동이 대체로 상승해 가는 경향을 볼 수 있었습니다. 대단히 바람직한 현상이라 하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업에 대한 의지에 있어서 1) 교회 총 예산 중 사회복지 관련 예산의 비중을 보면, 대교회의 경우는 전체현금 가운데 적어도 10% 이상, 작은 교회의 경우 30% 이상을 사용하며, 특별헌금 형식의 예산도 별도로 책정되어 있는 교회가 많았습니다. 담임목회자 혹은 사회복지 담당부서는 교회 각 부서가 어떻게 사회복지 관련 예산을 짜는지 점검하고, 예산만이 아니라 봉사활동도 병행해 나갈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더욱 필요합니다. 2) 목회자의 교회사회복지에 대한 비전과 관련해서는 담임목사님의 목회철학으로서 나눔과 섬김을 강조하는 교회일수록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이루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목회자의 교회사회복지에 대한 비전이 성도들로 하여금 복지에 대한 생각을 보다 적극적으로 갖도록 하여, 지역사회를 위해 보다 개방적인 활동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사업운영에 있어서 3) 프로그램 선정의 적절성은 지역사회 문제와 얼마나 관련되어 있는가 하는 측면을 보았는데, 점차 지역사회 주민들의 욕구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것들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지역주민에 대한 욕구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4) 프로그램의 실효성과 충실도를 보면, 대다수 교회들이 정해진



교회들은 사회복지사 및 사회복지에 관한 경험이 매우 풍부한 사람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에 보다 많은 투자가 필요합니다. 6) 평가 방법의 활용도를 보면, 정기적이며 지속적인 평가 실시와 함께, 평가 내용을 프로그램 개선에 적극 활용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셋째, 사업의 기여도에 있어서 7) 교회 시설의 개방 정도를 보면, 대예배실까지 지역 주민을 위해 개방하는 교회들이 점차 많아져 가고 있었습니다. 지역사회 주민들이 교회와 일치감을 가질 때까지 계속해서 시설개방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8) 본 교회 교인들의 이해와 참여도를 보면, 모든 교회 교인들이 교회사회복지에 열성적으로 참여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더 다양한 연령층으로 참여의 폭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9) 프로그램의 지속기간과 파급효과의 경우는 교회 창립 때부터, 혹은 지역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서부터 꾸준히 비전을 갖고 사업을 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래 지속된 프로그램이라도 그 형식과 내용을 지역사회 변화에 맞게 계속 수정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10)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 정도는 시설개방이 잘 이루어지고 모든 교회 교인들이 열성적으로 참여하는 교회일수록 그 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유관기관과의 협력은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본 상의 시상 목적이 교회가 얼마나 지역사회와 밀착되어 있느냐 하는 것인데, 여전히 몇 몇 신청교회는 사회복지가 주된 사업이고 교회는 그에 부속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향후 본 상의 시상목적에 대한 보다 정확한 홍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3. 마무리 글

3단계 과정을 거쳐 선정을 하는 과정에 많은 고민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각 교회마다 너무나 훌륭한 복지프로그램을 수행하여 지역사회에 좋은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가운데, 여러 훌륭한 교회들이 아깝게 선정되지 못했음을 심사위원들 모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깝

계획에 따라 창의적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부분적이긴 하지만 과학적인 평가까지 하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몇 년에 한번 씩은 외부 평가자에게 의뢰하여 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운영의 합리성과 전문성을 보면, 선정된

게 선정되지 못한 교회들은 내년에 다시 이 교회 상에 꼭 신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을 너무 잘 실천하여, 대단한 사회복지활동을 하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상에 신청을 하지 않는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많은 훌륭한 교회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주변에 권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기윤실 사회복지위원회는 계속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회 상> 사업을 발전시켜 교회의 이웃사랑 실천 활동을 격려, 후원하며, 교회 시설의 개방운동, 그리고 사회복지프로그램을 자료화하여 보급, 확산시킴으로써 교회사회복지를 이 땅에 굳건히 뿌리 내리는 데 헌신할 것을 주님과 교회 앞에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 번 참여해 주신 모든 교회와 목회자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명예심사위원 - 교단별 사회복지 담당자>

- 구세군대한본영 이수근 사관(사회복지부장)
- 기독교대한감리회 신복현 목사(사회선교부)
-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심현승 목사(사회복지위원장)
- 기독교한국침례회 김일엽 목사(사회부장)
-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이인영 목사(사회복지위원장)
-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이승열 목사(사회봉사부 총무)
- 대한예수교장로회(백석) 윤희화 목사(사회복지위원장)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유병근 목사(사회복지위원회 회계)
- 한국기독교장로회 이준모 목사(복지선교부장)

<심사위원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회복지위원>

- 고기숙, 권오용, 김동배, 김현호, 두준기, 두재영, 라창호, 박정수, 원명순, 이만동, 장원종, 장인복, 조태례, 조홍식

■ 목차

[1부] 제 10회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회상
수상교회

	구세군진보교회	13
농어촌	동련교회	23
	풍기성내교회	27
	계명성교회	32
	과천교회	35
중소도시	전주동신교회	40
	화전벌말교회	43
	영신교회	46
대도시	창동염광교회	49
	수원중앙침례교회	55
특별상	열방교회	60
특수목회	작은샘골사랑의교회	64

목차

- 73 **가난한 이웃과 함께하는 지역참여활동**
- 제 9회 대도시 부문 수상 강남교회 사역보고
- 79 **취약계층자활지원사업**
- 제 7회 중소도시 부문 수상 거룩한 빛 광성교회 사역보고
- 90 **희망푸드뱅크센터**
- 제 2회 대도시 부문 수상 고척교회 사역보고
- 99 **임산부 학교**
- 제 7회 중소도시 부문 수상 광양대광교회 사역보고
- 119 **지역사회의 효도 손 빨래방**
- 제 8회 농어촌 부문 수상 금산평안교회 사역보고
- 123 **태국근로자 사역**
- 제 2회 중소도시 부문 수상 낙원교회 사역보고
- 134 **지역사회 문화 활동센터**
- 제 9회 중소도시 부문 수상 녹양교회 사역보고
- 151 **복일노인대학**
- 제 4회 중소도시 부문 수상 익산복일교회 사역보고
- 167 **큰사랑 행복한 홈스쿨**
- 제 8회 대도시 부문 수상 큰사랑교회 사역보고
- 183 **전문요양원과 재가노인복지센터**
- 제 4회 중소도시 부문 수상 평안교회 사역보고
- 192 **효성1004마을축제**
- 제 3회 대도시 부문 수상 효성중앙감리교회 사역보고
- 200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회상 자료**

[2부]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회상
1~9회 수상교회
사역보고

[3] 부록

[1부]

제 10회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회상 수상교회

농어촌

구세군진보교회

동련교회

풍기성내교회

중소도시

계명성교회

과천교회

전주동신교회

화전벌말교회

대도시

영신교회

창동염광교회

특별상

수원중앙침례교회

열방교회

특수목회

작은샘골사랑의교회

구세군진보교회

- 제 10회 농어촌 부문 수상 -



[목회자의 교회사회복지에 대한 비전]

구세군 진보교회를 섬기고 있는 담임사관은 섬기는 단체가 사회복지와 복음사역을 병행하는 일을 하기에 목회를 하는 가운데 교회사회 복지를 하기 위해 2001년도에 사회복지를 전공했다. 그 후에 무료급식을 하기 위해 프로포절을 신청하여 선정되기도 했고 가는 사역지마다 교회와 사회복지를 병행하여 목회를 하였다. 담임사관의 비전은 즉 『마음은 하나님께 손길은 이웃에게』라는 슬로건이다. 이 비전은 성경적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로 생각하고 먼저 목회자가 솔선수범하여 섬기는 사역에 선두에 서서 나아가며 성도들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동참하고 있다.

[대표적인 교회 복지사역 프로그램]

■ 청송 효나눔 복지센터

1. 시행동기 및 역사

청송군은 도처에 산악이 기복하며, 특히 동은 태백산맥, 주왕산 등험한 산악지대로서 영덕군, 포항시와 경계를 이루며, 남쪽은 보현산맥이 영천시와 경계를 이루고, 보현산맥의 지맥인 삼도산맥이 군의 중앙을 횡단하여 동서로 흘러 연행산을 연하여 안동시와 경계를 이루어 지형이 남북으로 양단되고 용전천은 부동면과 부남면에서 흐르는 지류를 합하여 청송읍과 파천면을 경유하여 영양에서 진보면을 지나 임하댐으로 유입되는 반변천과 합류하고, 보현 산맥에서 발원한 보현천은 현서면과 안덕면을 경유하여 현동면을 관류하는 지류를 합하여 임하댐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수자원에서는 『댐건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의거하여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을 위해 효나눔 복지센터를 2008년에 개소하여 2년을 잘 운영하였다. 수

자원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위탁을 할 수 있도록 2010년 12월22일에 청송 효나눔복지센터 수탁운영자 모집공고가 발표되었다.

그동안 85년의 역사를 갖고서 지역에서 복음전도 및 지역복지를 위해 섬기고 있던 구세군 진보교회(담임사관 노성우)도 수탁 운영자로 신청을 하게 되었다. 구세군 진보교회는 그동안 무의탁노인 및 소년 소년가정들을 위해 반찬배달사업을 5년동안 계속 해 왔고 알콜중독자 및 노인 요양병원인 청송진보병원을 8년전부터 계속 방문하였다. 그 뿐 아니라 지역사회 복지를 위해 청소년 선도 등의 일들도 감당했다. 그런 중에 이러한 발표를 듣고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위해 수탁신청을 하게 되었다.

수탁자 선정위원회에서는 2011년 1월12일 임하담 안동권 관리단 사무실에서 신청한 법인 관계자들로 하여금 사업계획을 설명하게 하고 적격심사 하였다. 그 후 구세군 유지재단법인이 3년간 위탁운영하기로 결정이 되었다. 이에 구세군 대한 본영으로 공문을 보내어 전문사역자를 보내 달라고 신청을 하게 되었고 2011년 2월 25일자로 효나눔 센터장 사관 동부인을 파송해 주었다.

구세군 진보교회에서는 부족한 가운데서도 효나눔센터장 사관 주택을 얻어서 도배 및 이사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맞이했고 효나눔 센터는 2011년 3월부터 구세군 유지재단 법인으로 하여 3년간 운영하게 되었다.

2. 목적과 목표

1) 목적

(1) 현재 청송군 진보면내에는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70%를 차지한다. 수자원공사에서 『댐건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의거하여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노인들을 위해 복지사업을 계획하던 중 청송군에서 부지를 마련해 주고 수자원에서 효나눔 복지센터를 건립하고 2008년에 개소하여 2년을 잘 운영하였다. 이 시설은 만65세 이면 누구든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2) 청송군 진보면을 중심으로 인근지역에 있는 어르신들 중 만성질환의 서민가정의 노인을 선별하여 요양보호사들이 방문하여 전문적으로 케어하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정의 평안과 사회적 복지욕구 충족을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구세군의 슬로건인 『마음은 하나님께 손길은 이웃에게』 라는 중심으로 어르신들에게 사랑으로 섬기며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역 어르신들을 섬기는 데 센터장 이하 모든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

2) 목표

(1) 가족과 사회 의존성에 대한 여러 차원의 부양부담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2) 치매, 중풍 및 노인성 질환, 장애인에 대한 기능회복을 위한 정상적 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한다.

(3)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기능을 회복도록 한다.

(4) 어르신들의 지지적인 환경에서 각종 전문적 프로그램 경험과 상호교류를 통해 삶의 기쁨을 증진시킨다.

(5) 부양자들에게 노인부양에 대한 지식과 보호기술 등을 습득, 가족 내 보호방법 및 기술을 강화한다.

(6) 가족구성원의 정상적 사회활동을 보장하여 안정적 생활을 유지도록 한다.

3. 시설 인력

1) 인력 구성

(단위 : 명)

구분	센터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사무	물리치료사	조리사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원	총계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간보호		
현재	1	1	1	1	1	1	6	0	1	3	16

2) 직원들의 업무분장 및 인력관리

구분	업무내용	비고
센터장	-효나눔센터 운영 총괄 -효나눔센터 중, 장기 경영계획수립 -운영위원 회의소집 및 조정 -대외협력 업무(법인, 청송군청, 관련단체)	
사무국장	-월간/연간 센터 프로그램사업 계획 및 평가 -효나눔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 평가 -장비 기능보강 및 시설유지관리 책임 -외부기관 협력 네트워크 / 실습자 관리	
사회복지사	-특별행사 기획 및 진행(바자회, 어버이, 노인의날) -홍보(홈페이지 관리 및 지역신문, 소식지 발간) -방문요양 서비스 및 주간보호 서비스 기획 및 관리	
사무원	-회계경리 사무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전산회계프로그램 입력 및 문서활동 -재정보고 활동(법인, 수자원공사)	

물리치료사	-물리치료실, 체력단련실, 관리업무 및 기획 및 진행 -주간보호이용자 및 센터 방문 어르신 물리치료 진행 -서비스 기획 업무	
조리사	-식단표 계획 및 관리 -효도급식 및 밑반찬서비스 조리책임 -주방 식당에 위생관리. 청결유지	
요양보호사	-재가방문 요양서비스 제공 -밑반찬서비스 지원 -방문일지기록 및 상황보고	
자원봉사원	-주방, 식당에 위생관리 -센터 청결유지/ 시설 비품 및 소모품관리	

3) 종사자들의 전문성 향상 방안

- (1) 직원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및 직무훈련을 실시한다.
- (2) 직원들의 전문성 증진 및 업무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및 자기 개발 기회를 갖도록 시간 배분 및 자원을 지원한다.
- (3) 사회복지연구위원회 구성을 통해 주간보호센터 운영에 따른 정책개발 및 연구, 복지의 제를 만들어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실무진들의 자기개발 능력을 향상시킨다.

3.1 재정

- 1) 운영비는 수자원공사 안동권관리단에서 1년마다 430백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 2) 운영비로 노무비, 경상경비, 비경상경비, 사업비로 지출하고 있다.
- 3) 구세군 유지재단에서도 매년 정해진 부담금을 지원하여 도움을 주고 있다.
- 4) 구세군 진보교회에서는 센터장 사택을 마련해 주었고 가정단, 자선봉사단에서 매월 2회 씩 봉사 및 간식을 지원하고 있다.

4. 프로그램 내용(구세군 진보교회에서 동참하는 프로그램)

1) 어르신 사회 교육 프로그램

I. 목 적

노년기의 역할과 기능의 감소 및 급격한 사회변화로 인한 가정·사회와의 고립감과 소외감을 교양강좌 및 취미강좌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최소화하고 건전한 여가생활을 유도하여 노후생활의 즐거움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삶의 질 향상의 기회제공을 그 목적으로 한다.

II. 목 표

- 교양강좌 및 취미강좌를 통한 소외감 해소 교양강좌 취미강좌 등을 실시 동년배들과의 모임활동으로 대인관계 형성을 유도
- 건전한 여가생활로의 유도 각종 강좌 및 야유회 실시로 건전한 여가생활로의 유도
- 대상자 욕구에 부응하는 프로그램 구성

III.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사업의 기간	2011년 9월 1일 ~ 2011년 12월 31일	
이용대상	청송군 노인 (독거노인, 차상위 계층노인가정 및 수급권자)	
예상인원	15명 x 14프로그램 x 4주	월 840명
이용방법	전화상담, 방문신청	
사업의 일시	연 중	복지관이용시간
사업의 장소	복지관 프로그램실	
기 타 사 항	전문 강사 초빙(한글강사: 이미애 사관)	수급권자무료
세부프로그램	우리가락교실/ 우리풍물교실/ 노인체조교실/ 종이접기/ 한글교실/ 사군자/ 노인노래교실	

IV. 기대효과

- 지역 어르신들의 소외감이나 고독감을 감소시킴으로써 긍정적이고 건전한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
- 자신이 할 수 있는 취미거리를 찾을 수 있게 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생활을 유도하여 삶에 대한 자신감을 불어넣어 줄 수 있다.
- 동년배들과의 친밀한 인간관계를 형성하여 외로이 지내는 노인들 상호간의 안부를 파악할 수 있다



V. 세부사업계획

사업 분류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기대효과
사회 교육 사업	우리가락교실	우리 전통가락을 익히고 신명나게 배워봄으로써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의 개선과 삶의 활력소 제공	건전한 정서발달 유도 우리 가락을 배우면서 삶의 활력소를 찾음
	풍물교실	전통악기(팽과리, 장구, 소고, 북 등) 를 통해 우리 가락을 익힌다.	전통악기를 통해 건전한 정서발달과 삶의 활력소를 찾음
	노인 건강체조교실	건강증진 요구에 따라 여러 가지 건강 체조 교실 운영 및 노인의 신체적 특성에 맞게 프로그램 운영	심신단련 및 건강증진 도모
	한글교실	지역의 문맹인들에게 학습을 통해 한글을 터득하게 한다.	한글 터득하여 한글능력을 향상시킨다.
	사군자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매란국죽)를 이용하여 묵화의 기본부터 활용까지 지도함	올바른 여가 활동과 정서적 안정감 도모
	종이접기	여러 가지를 접어 집안을 장식하는 예쁜 소품도 만들어보고 종이접기의 기호와 기본형을 배워 취미 활동을 함	손의 움직임을 통해 노인 치매예방 및 정서적인 풍족함을 줌
	노인노래교실	여가 활동으로 다양한 가요를 배워봄 트로트, 민요, 가요, 등 다양한 장르의 노래를 전문 강사를 초청하여 배움	건전한 여가활동 주변 사람들과의 친목 도모

2) 이 • 미용 서비스

I. 목 적

이미용 서비스를 실시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키고, 신체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II. 목 표

-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킨다.
- 신체적 청결을 유지시켜 건강증진 및 사회생활의 영역을 증대시킨다.

III.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사업의 기간	2011년 3월 1일 ~ 2011년 12월 31일	
이용대상	청송군 65세 노인	
예상인원	월 50명	
이용방법	전화상담, 방문신청	
사업의 일시	이발(월 2회)	
사업의 장소	복지관 내 미용실	
기 타 사 항	자원봉사자 개발(매월2회에 구세군 진보교회 성도들이 동참하여 이.미용 봉사에 머리감기에 동참함)	

IV. 사업내용

- 지역 내 저소득 노인들에게 정기적으로 컷트 및 파마 등의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
- 재가 복지 대상자 노인들이 복지관의 미용실을 무료로 이용하도록 함

V. 기대효과

- 청결한 위생상태 유지
- 무료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 줄 수 있고, 신체의 청결을 유지함으로써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다.
- 소외되기 쉬운 대상자들이 지역의 자원을 이용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참여를 유도하여 사회통합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3) 경로 식당 운영

I. 목 적

경로식당 서비스를 통해 지역사회 내 모든 어르신들이 결식을 예방하고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킴으로서 대상자의 신체적·심리적·사회적 건강 증진을 도모하여 총체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II. 목 표

- 지역 내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요보호 노인과 모든 노인들에게 매일 점심시간마다 무료급식을 제공하여 결식을 예방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지속적인 경로식당 이용 유도를 통해 효과적인 사례관리를 실천함
- 다른 재가복지서비스와의 연계성을 향상시킴

III. 사업 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사업의 기간	2011년 3월 1일 ~ 2011년 12월 31일	
이용대상	청송군 요보호 노인 및 65세 노인	
예상인원	200명 x 월 20회	
이용방법	내방을 통한 이용신청	
사업의 일시	월 ~ 금 점심식사 제공	주 5 회 운영
사업의 장소	복지관 구내식당	
기 타 사 항	기본 1식 3찬과 주1회 분식을 원칙으로 하며 비정기적인 특식과 간식을 제공한다.	
	구세군 진보교회에서는 매월 2회 이.미용 봉사 및 경로식당에서 배식 봉사를 하고 있다.	

IV. 사업 내용

기관 내 경로식당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5회, 12시부터 1시까지 저소득 노인에게 무료 중식을 제공함

V. 기대효과

- 영양 결핍이 우려되는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 대상자들의 건강유지 및 증진 및 대상자 간의 교류 및 정기적인 자원봉사자의 만남을 통하여 노년기에 느끼는 소외감 감소 및 지역에 경로사상을 고취하고 지역자원 개발 활성화를 유도
- 경제적 부담감 감소

5. 협력기관

청송 효나눔복지센터를 2011년 3월부터 구세군 유지재단법인으로 위탁받았지만 구세군 유

지재단 법인은 수탁법인이기때문에 제일 먼저 수자원공사 안동권관리단과 협력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모든 일들을 보고하고 협조관계로 발전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밖에도 지역단위 유관단체들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복지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협력하고 있다.

1. 개인, 집단 주민, 가족 구성원
2. 기독교 단체(진보지역 교역자회)
3. 종교 단체 : 개신교회 및 구세군 교회
4. 지역 복지시설 (복지관, 보육시설, 경로당, 공부방등)
5. 공공기관 : (청송군, 경찰서, 파출소, 소방파출소, 우체국, 기타)
6. 시민단체 및 사회봉사기관(적십자봉사단체, 로타리클럽)
7. 의료기관(지역내 병원)
8. 지역신문, 홍보지, 소식지, 홈페이지 등
9. 안동지역 대학교(동아리, 사회복지학과) 연계

이제 구세군 유지재단 법인에서 위탁받은 햇수가 1년정도 밖에 되지 않지만 그 곳을 드나드는 주민들은 농산물로 지역 봉사기관단체들은 간식으로 협력을 해 주고 있다. 앞으로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만큼 사랑받는 기관이 되어 점차적으로 협력하는 사람과 기관들도 더하여 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6.파급효과

1) 효나눔센터에서의 효과

청송효나눔 복지센터는 청송군 진보면에 소재하고 있지만 청송읍. 파천면. 진보면에서 오시는 어르신들도 많다. 하루에 점심식사를 하고 가시는 분만해도 평균 200명을 차지한다. 다시 말하면 지역 인근에 있는 노인들 원 만한 분들은 효나눔 복지센터를 통해 케어를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감사한 것은 효나눔센터를 이용하시는 노인들이나 자녀들 중 농사를 짓는 분들이 김장을 돕기 위해 배추를 지원해 주셨고 그밖에 감자, 고추도 보내주시는 아름다운 미담거리들도 많다.

2) 구세군 진보교회에서의 성도들의 움직임

구세군 진보교회 담임사관이 사회복지를 전공하였고 전문시설 사역도 하였던 가운데 교회에서 지역을 위한 섬기는 사역이 많다. 특히, 효나눔센터는 구세군 유지재단법인에서 운영한다 하니 성도들의 관심과 호응이 열정적이다.

매달마다 센터에서의 경노식당 및 이.미용실 봉사를 위한 봉사자를 강단에서 광고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다. 그것을 계기로 월별로 봉사자 명단을 작성하여 참여를 시키고 있다. 그런데 이제까지 누락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7. 평가 및 추후계획

* 2011년 3월부터 구세군 유지재단 법인이 효나눔센터를 위탁하여 오면서 처음에는 그 시설을 이용하시는 노인들 가운데 시설운영에 불평하시는 몇분들로 인해 오해가 있기도 했다. 그러나 오해받은 부분들로 수자원 안동권 관리단에서 대대적인 감사로 더 인정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구세군 진보교회(담임사관 노성우)는 효나눔센터를 위탁받은 공로가 있지만 직접 담임사관이 관여하지 않고 구세군 본영에 사회복지 전문사관을 보내달라고 신청하여 본영에서 파송한 사관 동부인이 센터를 섬기고 있다. 다만 구세군 진보교회는 센터에서 요청하는 봉사 프로그램에 30명이 동참하고 있다. 효나눔 센터장 내외는 헌신적으로 효나눔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그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프로포잘)을 개발하여 지역 노인들에게 보다 더 많은 도움을 주고 케어를 할 수 있어서 지역주민들에게 인정을 많이 받고 있다. 앞으로도 구세군 진보교회는 바울선교회를 통해 더 많은 봉사와 재정지원을 하기 위해 2012년 예산에도 편성한 가운데 있다.

* 기타 이용자의 편익증진을 위한 방안 등

앞으로 2년 내로 경상북도 공동모금회를 통하여 지원 사업으로 셔틀버스를 구입할 경우에는 센터를 이용치 못하는 청송군 내(청송읍, 파천면, 진보면) 오지의 어르신들을 위해 셔틀버스를 운행하여 그 차가 이동복지관과 어르신 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동련교회

- 제 10회 농어촌 부문 수상 -



[교회 소개 및 사회복지를 하는 계기나 이유]

본 교회는 창립 112주년을 맞은 면소재지 외곽에 위치한 농촌교회이다.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셨던 예수님처럼 교회는 지역사회의 사정과 어려운 사람들을 살피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교회는 일찍이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사역에 나름대로 힘써왔다. 먼저 1909년 개화운동의 시세에 따라 초등학교인 계동학교를 세웠으며 1919년에는 3.1독립운동에 참여하였다.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가난한 농촌경제를 도우며 농촌이 자립할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였다. ①동련신용협동조합(1970년)창립. ②장학위원회(1971년). ③양곡조합설립(1976년). ④묘지관리사업(1983년) ⑤계절무료탁아소운영(1988년) ⑥출산장려위원회등을 두어 교인들의 출산을 장려하였다. 노인복지선교는 고령화 시대에 교회가 반드시 감당해야 될 과업임을 깨닫고 1998년부터 시작하여 2008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면서 오늘의 복지체제를 이루고 있다.

[대표적인 교회 복지사역 프로그램]

■ 어르신초청큰잔치

1. 시행동기 및 역사

힘들고 어려운 세대를 살아온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초청하여 무리한 일상에서 벗어나 한바탕 웃고 즐길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존경의 뜻을 전하고픈 마음으로 2006년을 시작으로 매년 실시하여 제8회를 맞이하였다.

2. 사업목적 및 목표

지역사회 어르신을 대상으로 어르신초청큰잔치를 수행함으로 어르신들과 소통의 장을 만



들고 더 나아가 어르신들이 무료를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한바탕 어우러짐으로 건강한 여가를 보낼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해 주고자 한다.

1) 어르신들의 참여의 기회 확대 및 정서적지지

- 레크레이션등 어르신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시행

2) 지역사회 어르신들과의 상호 교류의 장 마련

- 지역사회 어르신들과 만남의 기회 제공
- 젊은 봉사자들과 교류할 수 있는 장 마련

3) 어르신과의 유대관계를 통한 경로정신 함양

3. 시설.인력.재정

1) 시설 : 동련교회 본당

2) 인력 : 북익산노인복지센터 직원15명. 동련교회 봉사자 30명. 여성 라이온스 회원 10명

3) 재정 : 6,000,000원

4. 프로그램 내용

프로그램명	활동(수행방법)	
만남의 장	지역사회어르신들의 만남 및 소통의 시간	다과 .차
공연 및 행운권추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체육지도사를 통한 율동과 스트레칭.어울림 •신나는 예술버스의 공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뻘애로 나라(이순만):작은 서커스 - 전통 예약원 누리 춤터(이중규) : 전통춤판 '풍류도' - 전북국악협회 전북지회(김학근) : 열쑤 우리것이 좋은 것이여(판소리 .민요중창) • 어르신들의 장기자랑 • 행운권추첨 	
오찬마당	영양가 있는 간식과 점심을 준비.	간식.점심

5. 협력기관

참사랑봉사회(코레일 전북본부 봉사단). 여성 라이온스 클럽회원.

6. 파급효과

어르신들은 본인이 주체가 되어 본 행사의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봉사자들과 어울림으로 교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지역사회어르신들을 모시고 해마다 어르신 초청큰잔치를 수행해 왔으며 해가 거듭될수록 어르신들의 참여도가 높아지고 행사후의 어르신들의 만족도 또한 높아지고 있다.

7. 평가 및 추후계획

지역사회 어르신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바탕 웃음으로 사회적 존재로서 끊임없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하는 자존감 형성과 정서적 지원을 통해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매해 기다리는 만남의 장으로 자리매김을 함으로 어르신들의 기대에 부흥하기 위해서라도 본 행사는 지속 될 거라 생각한다.

■ 사랑의 김장나누기

1. 시행동기 및 역사

2006년 겨울을 시작으로 지역사회의 어렵고 소외된 어르신들 가정과 경로당에 매년 마다 1000포기상당의 김장을 담아 찾아보였다.

2. 사업의 목적 및 목표

소외되고 어려운 가정과 지역사회의 경로당에 마음을 전하고 섬김으로 서로의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다.

3. 시설·인력·재정

1) 시설 : 동련교회 계동관

2) 인력 : 북익산노인복지센터 직원 15명, 동련교회 봉사자 30여명, 지역사회봉사자 10여명

3) 재정 : 4,000,000원

4. 프로그램 내용

동련교회여신도회의 바자회등을 통한 기금마련과 후원자들의 손길을 통해 이루어진다.

몇 년전의 배추값폭등 가운데서도 여러 후원자들의 자발적인 손길에 부족함없이 김장을 담그게 되고 여러



어려운 어르신들께 보내주었다.1000여포기의 배추를 뽑고 씻고 간 절이고 양념하고 포장까지 많은 사람의 수고와 사랑이 묻어나는 가운데 배달까지 완벽한 시스템이 갖추어져있다.

5. 협력기관

지역사회내의 교회, 북익산노인복지센터

6. 파급효과

지역사회의 어렵고 소외된 어르신들에게 마음을 전하고 섬김을 보여줌으로 혼자가 아닌 우리라는 자존감 형성과 유대관계를 강화 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수 있다.

7. 평가 및 추후계획

힘들면 힘들수록 서로 격려하고 사랑의 손길이 필요하다. 해마다 우리 동련교회는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기위해 노력하고 계획하고 있다.



풍기성내교회

- 제 10회 농어촌 부문 수상 -



[목회자의 목회원리]

1907년 한국 교회 평양 대 부흥회 역사가 일어났던 그 해, 경상북도 풍기 소백산 기슭에 성내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의 씨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한 세기동안 "겨자씨 한 알이 땅에 심어져서 싹이 트고 자란 후에 큰 나무가 된 것"처럼, 이제는 성내교회가 가까운 이웃과 먼 나라에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성내교회의 담임으로 부임한 최갑도 목사의 목회원리는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입니다. 이 원리에는 칼뱅 개혁교회의 유산인 '오직 하나님의 주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계시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은 모세에게 '스스로 있는 자'(출 3:15)로 밝히셨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언약을 예언자들을 통해 선포하셨으며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하셨습니다.

이러한 신앙고백에 기반 한 교회는, 마치 사람이 숨을 쉬듯이, 모이고 흩어지는 것을 반복하면서 그 생체 리듬을 유지합니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흩어져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흩어지는 교회는 세상을 위하여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이 선교입니다. 이를 위해서 평신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체로 교역자는 교회 안에서 교역활동을 하고 평신도는 사회에서 생업을 위해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란 본디 "에클레시아(ecclesia)" 곧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뜻인데, 평신도와 교역자들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점에서 양 자 사이엔 차별이 없고 둘 다 부르심을 입은 주체입니다. 지난날의 선교는 '교회의 선교'였습니다. 교회란 사람을 데려오는 선교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이 선교의 주체이시고 그분의 구원역사에 교회가 동참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 사람과 만물(피조 세계) 사이에 화해와 치유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살롬을 증거하며 구원역사에 참여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인식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이제까지는 선교가 교회(성장)의 도구로 사용되었는데, 이제부터는 교회가 선교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점입니다. 즉, 교회가 하나님 선교의 일꾼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선교가 아니라 선교를 위한 교회, 이것에 담임목사인 제가 하나님 선교 이해를 바탕으로 한 교회의 존재방식입니다. '하나님 - 교회 - 세상'이란 구조가 아니라 '하나님 - 세상 - 교회'의 구조입니다. 이 구조는 세상을 향해 열려 있고 또 세상을 섬기는 교회를 뜻합니다.

[대표적인 교회 복지사업 프로그램]

■ 무료급식(사랑방) 사업

1. 시행동기 및 역사

1988년 최갑도 담임목사의 부임 이래 새로이 시작된 봉사와 섬김의 사업 가운데 하나가 무료급식이다. 어른들, 생활이 어려운 주민, 취약계층에게 한 끼 식사로 따뜻한 그리스도의 온정을 나누기 위해 시작하였다.

1996년 11월 8일 풍기읍 서부리 가정집에서 지역 독거노인들을 위한 무료급식을 시작하다가 점차 급식소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져서 1998년 12월 6일 원풍식당으로 옮겨 운영하였으며, 2004년 7월 28일 사회복지관을 건축하여 1층에 “사랑방”이라는 공간으로 옮겨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

2. 목적 및 목표

1) 목 적

굶주린 모든 이들에게 한 끼 식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며, 더 어려운 지역공동체를 돕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2) 목 표

좋은 지역사회 만들기

그리스도의 사랑과 나눔을 실천

육적 양식 제공 및 영의 양식 제공을 통한 구원사업

3. 시설, 인력, 재정

1) 시설 : 시설은 어르신들이 식사할 수 있는 공간, 남·여화장실, 주방, 창고(부식재료 보관)



2) 인력 : 사회복지사 1명, 조리사 1명, 봉사자(교인 및 지역사회 자원 - 대학교 동아리, 부녀회, 봉사단체)

3) 재정 : 2011년 결산액 51,260,000원

4. 프로그램 내용

1) 식사제공 : 매주 월요일~토요일 점심식사 제공

2) 예배 : 매주 목요일 오전 11:30분~12:00

3) 기타 : 매월 생일잔치 및 선물증정, 명절 선물, 윗놀이, 교육(건강, 신앙, 교양), 기독교 절기행사

5. 협력기관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동양대학교 사랑나눔 동아리, 여전도회 및 남선교회, 풍기JC. 대한적십자사, 풍기IC 직원, 기타

6. 파급효과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지역주민과 60세 이상 노인들에게 무료식사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노인을 공경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하고 있다. 특히 매주일 예배를 통해 어르신들의 영혼구원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 많은 어르신들이 교회에 등록하여 세례를 받고 있다

7. 평가 및 추후계획

건강하고 따뜻한 노후를 보내시라고 시작한 무료급식이라는 사랑 나눔 실천을 통해 교회가 지역민에게 한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고, 이웃간 소통의 폭을 넓혀 지역 선교 여건을 더 좋게 갖출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교인들과 지역주민들에게 봉사와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함으로써 교회가 지역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을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 추후계획으로는 지역에 있는 많은 자원들과 연계하여 더 나은 환경에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섬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목회간호 사역

1. 시행동기 및 역사

목회간호는 목회자의 사역을 도우며 지역사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2000년 3월 5일 개회예배와 목회 간호사역 설명회를 시작으로 1층 성전에 목회간호사실을 설치 운영하였으며, 2004년 7월 28일 교회100주년을 준비하며 사회복지관을 건립하여 사회복지관 3층으로 목회간호사실을 이전하였다가 이용자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위해 2008년 6월 16일 교육관 1층으로 다시 자리를 이전하여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2. 목적 및 목표

목회간호는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대로 복음전파, 가르침, 치유사역을 동시에 실시하여 전인치유에 이르고자 하는 것이다. 질병관리보다는 예방과 건강증진에 중점을 두며 신체적 건강과 영적건강을 함께 돌보는 것이다. 목회간호의 중심목표는 목회간호 사역을 통한 영혼구원과 신앙성숙을 도모하며, 교회와 지역사회 간의 교량 역할을 하고 교인과 주민의 영적, 육적 건강유지와 증진을 도모한다.



3. 시설, 인력, 재정

- 1) 시설 : 목회간호사실 및 상담실
- 2) 인력 : 목회간호사 1
- 3) 재정 : 운영비:2,000,000 인건비:16,000,000

4. 프로그램 내용

1). 교회 내 사역

- ① 심방사역 : 가정심방, 병원심방, 전화심방 등을 통한 건강 상담 및 신앙고취
- ② 성도를 위한 사역 : 영적지지, 응급처치, 응급약품지원, 건강상담 및 보건교육
- ③ 만성질환 관리 : 고혈압, 당뇨, 간 질환, 심장질환 등 건강 상담 및 교육
(혈압 체크, 혈당 테스트, 콜레스테롤 체크, 체성분분석 체크)
- ④ 병원선교 : 영주기독병원, 성누가병원, 장수한방병원, 성심요양병원, 영주시립병원
- ⑤ 특별 심방대상자 관리 : 구역별 거동 불편한 교우 및 독거노인
- ⑥ 의료연계서비스 : 적절한 의료기관 소개 및 안내, 진료예약 및 건강검진
- ⑦ 각종 교회행사 참여 : 기도회, 각종 수련회, 야유회, 장례예배 참석

2) 지역사회를 위한 사역

- ① 사랑방 사역 : 무료급식 제공시 건강검진 및 상담, 전도(매일 80-100명)
- ② 경로대학 : 수요일 주 1회 건강검진 및 보건교육 - 평균 140여명
- ③ 의료봉사사역 : 지역의료봉사 무료진료 ,지역사회의료기관 협력사업
- ④ 심방사역 : 전도대상자 가정방문(사회봉사관, 지역사회) - 수시
- ⑤ 특별대상자관리 : 독거노인 및 거동불편한 자
- ⑥ 성내선교교육원 : 세미나 시 건강검진 및 보건교육자료 제공

3) 보건교육 사역

- ① 보건교육 : 경북항공고등학교, 성내셋별유치원, 사랑방무료급식소, 성내경로대학
- ② 수시상담 : 개인 및 지역사회주민건강교육(단체)
- ③ 보건교육자료 비치

4) 기타

- ① 지역의 응급환자 돌봄 및 의료기관 연계
- ② 해외선교현장 방문 시 의료팀 운영

5. 협력기관

1) 목적

지역주민 및 교인들의 전문적이고 장기적인 의료행위를 필요로 할 경우 아래의 병원에 연계하여 준다(빠른 진료, 의료비 할인 혜택).

2) 협력기관

경희대학병원, 기쁨병원, 유엔아이아덴스치과, 동산의료원, 안동성소병원, 장수한방병원, 고려수지침, 국민체력센터, 경륜훈련원

6. 파급효과

보건교육 및 건강검진을 통하여 교인과 지역사회 주민의 질병을 예방하며 신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안정을 도모한다. 또한 교회에서 지역사회 주민을 향한 관심과 사랑이 표현됨으로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하나의 기관으로 존재한다.

7. 평가 및 추후계획

목회간호를 통하여 목회자의 사역을 도우며 지역사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기회가 된다. 추후계획으로는 인접한 성심요양병원 주일 예배를 실시하여 효과적인 병원선교를 실시함과 동시에 그들의 영적성숙을 도모하고자 한다.

계명성교회

- 제 10회 중소도시 부문 수상 -



[목회자의 교회사회복지에 대한 비전]

계명성교회는 1993년 2월 24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로서 사랑과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계명성교회는 광명지역에서 한 알의 밀알이 되고자 창립예배 때 하나님께 약속하였던 창립정신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

아웃을 섬기는 교회

광명시민을 사랑하는 교회

청소년에게 꿈을 심어 주는 교회

헌금의 50%를 구호와 선교를 위해 내어놓는 성령 충만한 교회

계명성 교회가 창립예배 때 하나님과 맺은 약속! 그것을 지키기 위해 지난 19년간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약속, 헌금의 50%를 구호와 선교를 위해 내어놓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계명성 교회는 2009년 7월부터 5년간 광명시노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 법인 전입금(연 1억, 총 5억) 지원을 통해 약속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교회 복지사업 프로그램]

■ 광명시노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

1. 시행동기

계명성교회 창립정신에 의거하여 18년간 지속적으로 헌신적인 사랑을 실천하며, 봉사하고 노력하여, 하나님과의 약속, 헌금의 50%를 구호와 선교를 위해 내어놓겠다는 실천의지로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매년1억씩 5년 동안 5억을 후원하기로 하고 중풍, 치매 어르신들을 보살피는 소하주간보호센터 운영, 광명시 최초로 어르신 복지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광명시노인종합복지관을 2009년 7월1일 개관하여 운영 중에 있다.

2. 목적 및 목표

- 하나님 사랑의 실천으로 광명시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함께 한다.
- 어르신과 지역주민이 하나되는 행복공동체를 만들어,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발전에 기여한다.

3. 시설, 인력, 재정

- 시설 : 복지관 건물(광명시 소하1동 소재)
- 인력 : 담임목사님을 운영위원장으로 하여 복지관 운영을 전담하는 관장, 부장, 사회복지사 등 총 4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회성도들이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다.
- 재정 : 교회예산 연 1억을 지원하고 있으며, 운영등과 관련하여서는 광명시청의 지원을 받고 있다. 또한 교회의 성도들이 후원자로 등록하여 참여하고, 후원사업을 통해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고 있다.



4. 파급효과

- 정기적인 자원활동과 후원활동을 통하여 교회의 건강한 나눔운동의 모범 사례가 됨
- 어르신들의 건강증진 및 여가활용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복지향상에도 도움이 됨.

5. 평가 및 추후계획

- 지속적으로 지역사회를 섬기는 건강한 교회로서의 자리매김과 나눔운동 확산
- 계명성교회에서는 복지관 운영을 더욱 더 활성화 시키고 확대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참여를 통해 더욱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 지역어르신 초청 식사 대접

1. 시행동기

계명성 설립이후 어버이날, 추수감사절, 이웃 초청 잔치에 오신 어르신들이 한 끼 따뜻한 밥에 감격해하시며 즐거워하심을 보고, 1997년 5월 1일부터 매주 목요일을 '어르신 식사 대접의 날'로 정하

고 경로당, 노인정 어르신들을 초청하여 식사 대접하는 것을 13년 동안 지속하고 있으며, 2012년 9월 현재 매주 목요일마다 광명시 전역에서 100여분의 어르신들이 계명성교회 무료식사를 대접하고 있다.



2. 목적 및 목표

광명시에 거주하시는 만 60세 이상의 저소득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중식을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을 감소하고, 안정적인 식생활이 되도록 한다.

3. 시설, 인력, 재정

- 시설 : 교회 식당의 모든 주방기기와 식당 활용
- 인력 : 영양사 1명, 봉사자 매주 10여명의 자원봉사자로 운영
- 재정 : 무료급식에 필요한 예산 전액을 교회예산에서 소요

4. 파급효과

- 무료식사 대접을 통하여 광명시 거주 어르신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된다.
- 무료식사 대접을 통하여 건강 및 정서적 안정을 통해 고립감을 극복하고, 긍정적인 삶의 가치를 부여 한다.

5. 평가 및 추후계획

향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더욱 많은 지역 내 어르신들에게 무료식사를 대접 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실시 예정

과천교회

- 제 10회 중소도시 부문 수상 -



[목회자의 교회사회복지에 대한 비전]

과천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에 소속된 교회로서 1950년에 창립되었다. 1979년 3대 담임 김찬중목사(현, 원로목사)가 부임하면서 지역사회 나눔과 섬김 사역이 시작되었고, 2010년 4대 담임 주현신 목사가 부임한 이래로 더욱 다양하고 활발하게 지역사회를 섬기고 있다.

과천교회의 지역사회를 위한 첫 시설은 1981년 시작된 천사유치원이며 현재 네 개 학급을 운영 중이다. 1987년

노년사역을 시작하여 현재 매주 400여 지역 어르신들을 모시고 주중 노인대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1990년 발달장애아동을 위한 소망부(현, 사랑부)를 조직하면서 과천교회 사회복지 사역의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장애인을 위한 전담조직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했고, 복지관을 비롯한 장애인 시설을 확충해갔다. 2000년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예바다부를 설립하여 수어통역예배를 시작하였고 농인을 대상으로 한글교실과 수어교실 등을 운영해왔다.

2006년 사회복지법인 하늘행복나눔재단(구. 사회복지법인 과천교회복지재단)을 세웠고, 과천시에서는 처음으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사랑의동산을 개원하였다. 또한 천사유치원과 과천시 아이돌봄지원센터와 시립공원마을어린이집 운영을 통해 지역 아이들을 위한 보육과 아동복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A+과천행복 노인복지센터(노인재가장기요양시설)를 개원하면서 지역사회 전 연령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12년에 접어들면서, 과천중학교내 학교폭력 왕따 자살위험 등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교회 인적 인프라를 통한 전문가 심리상담과 교육재능 기부를 통한 학습 멘토링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교회와 학교가 함께 대안교실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MOU를 체결했다. 그밖에도 장학사업, 사랑의 진료실, 안마봉사, 쪽방도배, 노숙인 섬김, 사랑의 쌀 나누기, 경로잔치, 지역봉사자 격려, 긴급구호봉사활동, 해피문화아카데미, 우리동네 오케스트라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 나눔과 섬김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대표적인 교회 복지사업 프로그램]

■ 사랑의 동산(장애인 주간보호시설)

1. 시행동기

사랑의 동산의 역사는 1990년 1월 7일 발달장애 아동을 위해 교회학교 내에 소망부(현. 사랑부)를 조직하면서 부터로 볼 수 있다. 과천에 장애인 복지관이 생기기 20년 전, 과천교회는 정신지체/발달장애 아동을 둔 부모들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주일에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및 전담 조직을 운영하기 시작한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자녀를 보살피느라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한 부모들은 교회가 주일 프로그램인 소망부에만 그치지 말고 평일에도 장애인들을 보호하며 교육할 수 있는 시설을 운영해 줄 것을 요청한다. 장애인 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한 교회는 2005년 6월 3일 중앙동 17-4번지의 대지와 주택을 구입하여 장애인복지를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시작한다. 그리하여 이듬해 2006년 2월 23일 “사회복지법인 하늘행복나눔재단”(구. 사회복지법인 과천교회복지재단)을 설립하고 6월30일 과천시 최초의 장애인 복지시설인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사랑의동산”을 개원한다.

2. 목적 및 목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 만들기

○ 이용 장애인의 자립능력을 향상하고 저하된 심신(心身)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과 사회에서 조화롭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 가족의 보호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가족이 안심하고 사회·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시설, 인력, 재정

(1) 시설: 과천시 중앙동 17-4번지 [대지(248㎡), 연건평(305,835㎡)]

(2) 인력: 사회복지사4명, 조리사1명

(3) 재정: 사업비 2억5천9백만원

4. 프로그램 내용

(1) 상담: 입퇴소상담, 사례회의, 장애인가족상담 등

(2) 생활재활: 생활지도, 요리활동, 생일잔치, 종교활동 등

- (3) 교육재활: 개별학습, 시청각교육, 미술활동, 음악활동, 작업활동 등
- (4) 보호: 중식제공, 간식제공, 의료제공, 송영서비스, 안전교육, 야간보호 등
- (5) 사회재활: 여행, 사회적응훈련 등
- (6) 여가활동: 체육활동
- (7) 기타: 부모모임 및 간담회, 직원교육, 자원봉사자관리, 후원자관리, 운영위원회의, 홍보, 실습생관리, 지역사회 연계 등

5. 협력기관

과천교회 여전도회, 과천시 장애인복지관,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샘안양병원, 선바위미술관, 과천문화원, 장애인고용촉진공단, 국민은행, 파리바게트, BBQ치킨 등

6. 파급효과

- 전문적 재활서비스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재활이 촉진된다.
- 가족구성원들의 가족기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 장애인의 지역 사회 내 통합과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

7. 평가 및 추후계획

국가가 모든 복지를 감당할 수 없기에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 시작한 장애인 사역이 지금에 이르러는 국가와 함께 지역사회 장애인 복지의 한 부분을 감당하고 있다. 과천교회는 장애인 가족과 함께하며 사회적기업을 통한 장애인 근로환경 조성을 준비 중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장애인 생활시설 건립을 통해 장애인 가족들이 지닌 삶의 부담을 교회가 지역사회와 함께 덜어나갈 것을 꿈꾸고 있다.



■ HAPPY 문화 아카데미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문화사역)

1. 시행동기

과천교회는 지역사회 평생학습환경 조성을 위해 해피문화아카데미를 시작했다. 그러던 중 주5일 수업제 전면실시에 대비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또한 교회를 지역사회에 개방하여 학생 뿐 아니라 교회 내/외 성인들의 여가 선용 및 참여와 건전한 기독교적 문화를 장려해 나가고 있다.

2. 목적 및 목표

다양한 체험과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여 학습능력 신장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그리고 지역사회를 향하여 열려 있는 교회로써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사회참여의 장을 넓히는데 있다.

Literacy	~할 수 있는 능력
Opportunity	기회의 균등
Variety	다양한 체험과 활동
Education	교육적 접근에 따른 학습신장

3. 시설, 인력, 재정

- (1) 시설: 과천교회 본관, 복지관, 교육관, 사랑의동산 등
- (2) 인력: 교회내 전담부서 조직 및 강좌별 전문강사
- (3) 재정: 문화사역위원회 3천2백만원 및 이용자 수강료 실비

4. 프로그램 내용

- (1) Music: 바이올린, 우크렐레, 색소폰, 드럼(청소년, 성인), 기타
- (2) Arts & Music: 성악, 퀼트, 어린이미술, 어린이동요, 연극연기, 발레, 미술치료
- (3) Traditional Arts: 서예, 생활도자기, 사물놀이, 어린이 국악(장구, 민요 등)
- (4) Language: 영어회화(성인, 청소년), 중국어(기초, 중급)
- (5) Leports: 탁구, 산악자전거, 축구, 테니스, 등산/트레킹
- (6) 하늘행복오케스트라: 바이올린, 첼로, 플룻, 클라리넷, 통기타
- (7) 에녹부(노인부) 취미교실: 성경반, 퍼즐반, 건강걷기반, 서예반, 건강관리반, 건강체조반, 장기바둑반, 장구반, 영어기초반, 종이접기반, 가요가곡반, 그리기반, 이야기반, 힐링요가반, 건강교실 등



5. 협력기관 : 뮤직홈

6. 파급효과

- 문화예술로 지역사회를 섬김으로써 하나님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 주5일 수업제 전면실시에 따른 나홀로 자녀에 대한 학습능력 신장

- 평생학습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7. 평가 및 추후계획

해피문화아카데미에서는 교회내 자원과 외부자원을 연결하여 지역사회 평생학습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건강하고 차별화된 강좌를 소개함으로써 성도들과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양질의 강의를 선보이고 있다. 지속적으로 다양한 강좌 개설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과천교회로 성장해 나갈 것이다.

<과천교회 사회봉사 역사>



- 1981년 천사유치원(구. 천사유아원) 개원
- 1986년 사랑의 무료진료실 개소[매주일 전문의 진료 및 처방]
- 1987년 에눅부(구. 노년부) 시작
- 1990년 사랑부(구. 소망부) 시작[정신지체, 발달장애아 대상]
- 1993년 천사선교원(어린이집) 개원
- 2000년 에바다부 시작[청각, 언어 장애인 대상]
- 2006년 사회복지법인 하늘행복나눔재단(구. 사회복지법인 과천교회복지재단)설립
- 2006년 사랑의동산 개원(장애인주간보호시설)
- 2008년 A+과천행복 노인복지센터 개원(노인재가장기요양시설)

- 2008년 늘푸른공부방 운영
- 2008년 충남 태안 기름유출지역 자원봉사활동(2회, 164명)
- 2009년 과천시 아이돌봄지원센터 수탁운영
- 2011년 과천 선마위 일대 수해지역 응급복구 지원(3일, 100명 자원봉사)
- 2012년 시립공원마을어린이집 수탁운영
- 2012년 과천중학교와 MOU 체결[대안교실 운영 계획]
- 매 년 장학사업, 사랑의쌀 나누기, 경로잔치, 지역봉사자 격려
- 매 월 과천호스피스회 지원, 쪽방도배, 노숙인섬김, 하나원섬김
- 매 주 해피문화아카데미(문화강좌), 노인대학(16개반), 안마봉사, 무료진료
과천중학교 대안교육 협력, 하늘행복오케스트라



전주동신교회

- 제 10회 중소도시 부문 수상 -



[목회자의 교회사회복지에 대한 비전]

전주동신교회는 지역속에 숨쉬는 교회, 지역을 돌보는 교회로 서기 위해, 지난 20년 동안 도움이 필요한 손길들에 다양한 방법의 접근을 찾아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고령화 시대의 지역사회를 돌보기 위해, 노인 대학, 노인 온천, 노인 식사 제공, 여행에 이르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또 개발해가고 있습니다.

혈벗은 지역을 섬기기 위해 추수감사절 쌀 나누기, 김장 나누기, 매주 반찬배달을 중단하지 않고 이어가고 있으며, 학비가 없어 학업을 중단해야 하는 아이들을 돕기 위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섬길 다양한 방법, 다양한 필요에 따라 저희 동신교회는 앞으로도 더 많은 것들을 찾아나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께서 저희 전주동신교회에 부여하신 사명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더욱더 노력할 것입니다.

더욱더 연구할 것입니다. 더욱더 낮은 곳,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곳으로 찾아갈 것입니다.

[대표적인 교회 복지사업 프로그램]

■ 교회 카페를 통한 지역사회와 이웃 섬김

1. 시행동기 및 역사

교회 주변이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 쉼을 위한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환경이었다 .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역 사회와 이웃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을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과정에 2008년 1월 교회에 카페를 아름답게 꾸며서 지역 주민 누구나 편안하게 차 한 잔과 읽고 싶은 책

을 입을 수 있도록 북카페-엘림하우-를 오픈하여 전 지역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목적 및 목표

교회 주변 뿐만 아니라 전 지역 주민에게 자유롭고 편안한 쉼터를 제공하고, 수익금은 지역 주민을 돕고 섬기는데 사용한다.

3. 시설, 인력, 재정

교회 1층에 카페가 위치하고 있어서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며, 모든 봉사자는 여전도회에서 자원봉사로 운영되고 있으며 수익금 전체는 이웃을 섬기고 불우한 이웃을 돕는데 선교비로 사용한다. 독거노인 반찬배달, 결식아동에게 장학금 전달 등 다양하게 쓰여진다.

4. 파급효과



교회 1층에 카페가 위치하고 있어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서 현재는 교인보다 지역 주민의 이용도가 훨씬 높다. 교인대 지역부민의 비율이 2대 8 정도로 교회가 지역주민들에게 친근한 공간이 되었으며, 맛있고 고급스런 차를 제공하므로 교회의 이미지가 한층 긍정적이다. 또한 수익금이 지역 사회를 위해 사용된다는 것을 많은 주민들이 알게 되어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지인들까지 함께 카페를 이용하는 이들도 있다.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고 돕는다는 긍정적 이미지가 증진되고 있어서 지역 선교에 큰 힘이 되고 있다.

5. 평가 및 추후계획

지역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과 다양한 메뉴를 더 저렴한 가격에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여 더 많은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할 계획이다.

Ⅰ 경로대학과 무료점심 식사

1. 시행동기 및 역사

어려운 시대와 사회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자기 희생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지역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과 교우들에게 즐거운 여가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경로대학을 1995년부터 시작하였으며, 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점심을 제공해 드리고 있다.

2. 목적 및 목표

지역 사회에 거주 하시는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정보 제공을 통하여 노년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는데 도움을 드리며 따뜻한 점심 식사 대접을 통하여 효와 이웃 사랑을 실천해 간다.

3. 시설, 인력, 재정

2011년 현재 매주 수요일 마다 열리는 경로대학에 297명이 출석하고 있으며, 1995년부터 누적합계 4,000여명이 경로대학에서 노년의 삶을 즐기고 계신다. 매년 2학기제로 운영되며 매주 다양한 분야의 강사를 초청하여 유익한 정보를 드리고 있다. 현재 8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사와 무료 점심대접 식당 봉사자는 모두 교인들 가운데 자원봉사자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봄, 가을로 유명한 명소를 찾아서 관광도 실시하고 있다.



4. 파급효과

1995년부터 매년 열리는 경로대학은 지역에 계시는 어르신들에게 입소문으로 퍼져 어른을 존중하고 잘 섬기는 교회로 소문이 나있다. 신자와 비신자 구분이 없이 교회를 칭찬하는 모습을 통하여 선교와 이웃 섬김의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더욱이 경로대학에 참여하는 부모님께서 자식들에게 동신교회를 자랑하고 새로 이사 온 이웃에게 '동신교회에 가라'는 예기를 듣고 교회에 오신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지역 어르신들의 섬김이 자연스럽게 전도로 이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5. 평가 및 추후계획

매주 다양한 강사를 초청하여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는 일이 쉽지 않으며 점점 늘어나는 무료 점심 식사 인원에 대하여 더 풍성한 먹을거리로 대접을 할 것이다.



화전벌말교회

- 제 10회 중소도시 부문 수상 -



[목회자의 교회사회복지에 대한 비전]

1. 주님의 새 계명은 하나님사랑, 이웃사랑입니다. 사회복지 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이웃사랑이라고 봅니다.
2. 우리교회는 '우리 동네는 우리가 책임진다.'는 구호를 외 치며 교인만을 위한 목사가 아니라 동네를 위한 목사가 되 어야 한다고 믿고, 가르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3. 선한 손을 펴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보일 때 영혼구원 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사회복지 는 교회의 존재이유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교회 복지사업 프로그램]

■ 마을청소

1. 시행동기 및 역사

첫 번째 동기는 동네 한 가운데 벽돌공장이 있는데 모래를 운반하는 차량에서 쏟아진 모래들이 길가에 쌓이게 된다. 비가 오면 하수도로 쓸려 내려가지만 건조할 때는 차가 지나가 거나, 바람이 불면 먼지가 날려 주민들이 입을 막고, 코를 막고 지나가는 모습을 보며 청소를 시작하게 되었다. 또 하나는 우리 동네 입구는 30사단 정문과 마주하고 있는데 면회객들이 왔다가는 주말이나, 주일에는 면회객들이 버리고 간 음식물 봉투들이 골목길 여기저기 버려져 있어 시작하게 되었다.

2004년 교회 개척 초기부터 시작한 프로그램으로 9년째 계속되고 있다. 인력도, 재정도 없는 개척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란 몹으로 할 수 있는 일이었기에 가능했다고 본다.

2. 목적 및 목표

이일을 하면서 은근이 교회가 동네를 위해 좋은 일을 한다는 소문이 나기를 바라기도 했고, 그로인해 전도의 길이 열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했다. 1년 4차례는 기본으로 하는데 대림절 1주-주님 맞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설날-고향을 찾는 이들에게 기분 좋은 명절이 되기를 바라며, 고난주간- 주님의 성전 정화의 정신을 생각하며 교회 대청소와 함께하며, 추석- 밝은 명절을 되기를 바라며 청소를 하고 있다.



3. 시설, 인력, 재정

사람은 모인대로 한다. 처음에는 나와 아내 그리고 아이들이 마대자루를 들고 다니며 빗자루와 삽으로 쓸어 담았고 몇 장의 마대와 쓰레기봉투 값 정도가 필요했다, 그 후 핸드카로 하다가 지금은 집사님의 1톤 트럭이 있어 생활 쓰레기까지 수거하여 12만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장에 버린다.

4. 프로그램 내용

청소는 주일오후에 하는데 청소가 있는 주일은 주일 오후예배를 일찍 마치고 3시면 교회로 모인다. 집이 먼 성도들은 교회 오면서 작업복을 가져와 갈아입는다. 조를 짜서 각자 맡은 구역으로 이동하여 청소를 하고 마대에 쓰레기를 담아 놓으면 트럭이 지나면서 실어다 버린다. 다 마친 다음에 상황에 따라 저녁을 먹고 헤어진다.

5. 협력기관

가끔 동사무소로부터 쓰레기봉투를 지원받기도 한다.

6. 파급효과

주님들 의식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 별 생각 없이 버리던 쓰레기들이 줄어들고 스스로 집 앞과 골목을 청소를 깨끗이 하는 것 같다.

7. 평가 및 추후계획

매우 만족하며 범위를 확대하여 계속 할 것이다.



Ⅰ 경로잔치

1. 시행동기 및 역사

개척초기에 ‘애들아 동해가자!’ 는 타이틀로 2박3일 학생들을 모집하여 국토순례 겸 해수욕장을 다녀왔는데 어르신들이 매우 부러워하고 교회에 기대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레 바로 시작하게 되었다. 30사단 군부대 앞이라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버스종점이 은평차고지로 옮겨가면서 교통이 나빠지게 되니 젊은 사람들이 하나 둘 떠나면서 어르신들만 많은 동네가 되었다. 당시 어르신들이 마을회관(경로당)에 모여 점심을 해 드셨는데 그 형편이 매우 궁핍한 형편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시작하게 되었다.



2. 목적 및 목표

교회의 사역이 다 그렇듯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요 교회의 이미지 개선을 바라며 시작을 했으나, 한기의 식사에도 즐거워하는 어르신들을 보며 더 자주 했으면 하는 생각이다.

3. 시설, 인력, 재정

모든 시설은 교회를 이용하고 교회에서 준비해서 경로당으로 가지고가 차려드린다. 인원은 모인대로 하며 매번 7-8명의 권사님 집사님들이 같이한다. 예산은 한 회에 약 250,000원 정도 소요된다.

4. 프로그램 내용

교회에서 광고하고 모이는 대로 준비한다. 전날 아내의 주도로 메뉴를 선정하고 거기에 맞춰 시장을 봐온다. 아침 7시에 교회에 집합하여 각자 맡은 메뉴를 요리한다.

5. 파급효과

어르신들은 말할 것도 없고 자녀들도 만나면 감사의 인사를 한다. 그리고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선전을 해준다.

6. 평가 및 추후계획

매우 잘한 일이며 할 수 있으면 매주 했으면 한다.



영신교회

- 제 10회 대도시 부문 수상 -



[목회자의 교회사회복지에 대한 비전]

사회복지는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교회의 본질적 사명의 하나이다. 사회복지의 기본정신은 섬김(serving)이며, 돌봄(caring)이며 나눔(sharing)이다. 이러한 섬김, 돌봄, 나눔은 신앙의 구체적인 표현이며,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이다.

21세기를 맞아 한국교회는 급변하는 사회 상황을 직시하고 오늘날 사회가 교회에 요구하고 있는 시대적 요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우리 영신교회는 창립 이래 37년의 세월동안 지역 사회를 섬기며 돌보는 나눔으로 그 역할을 부족하지만 열심히 감당하고 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영신늘푸른노인교실, 지역의 어르신을 섬기고 사랑의 건강식을 통해 배고프고 힘들게 살아가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돕고 길꽃 도서관을 통해 많은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 가질수 있도록 비전을 심어주고 영신 문화원을 통해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웃을 향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작은 실천을 하고 있다.

우리지역에 여전히 배고프고 힘들며 외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우리 영신교회가 그들에게 눈을 돌려 예수님이 섬겨주신 것처럼 겸손히 섬기고 돌보는 역할을 충실히 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리고 이웃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교회로 세워나갈 계획이다.



[대표적인 교회 복지사업 프로그램]

■ 노인 교실

1. 시행동기 및 역사

교회의 사명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소통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만약 세상과 등을 돌린다면 결국 교회는 고립된 섬이 될 것이며, 결국 사회가 교회에 등을 돌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러한 취지에서 지역 주님과 화합하고 사랑을 나누기 위해, 무엇보다 소외 받은 지역 노인들을 섬기기 위해 설립 하게 되었습니다. 본 노인교실은 2006년 2월 26일 개교하여서 현재까지 7년의 시간 동안 꾸준히 70~80명의 어르신들이 등록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2. 목적 및 목표

“건강하게 웃자 사랑하며 웃자 존경하며 웃자” 라는 교훈으로 65세 어르신들이 영신들푸른노인교실을 통하여 기쁨을 갖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영신들푸른노인교실은 강서구 방화동에 속한 노인들에게, 현대사회 속에서 고령에 이르면 느끼게 되는 고독과 소외감을 덜어 드리고, 변천하는 사회생활에 적응하여 젊은 세대와 바람직한 관계를 도모할 수 있도록 삶의 질을 높이고, 무엇보다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노인선교와 노인평생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3. 시설, 인력, 재정

시설 : 예배 시간을 제외하고 교회 공간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용시간을 비해 교회의 공간을 사용합니다.

인력 : 교회 내에 자발적으로 어르신들을 섬기길 원하는 성도님의 지원을 받아 인력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먼저, 실질적인 노인교실을 운영하는 팀(학장:이재욱 목사/부학장:김동운 장로/교무부장:최현자 권사/학생부장:최관옥 집사/회계 : 신삼덕 권사/서기:이민식 권사 등 여러 선생님, 총 16명)과 어르신들의 점심을 책임지는 향기반으로 운영합니다.

재정 : 영신들푸른노인교실은 지역사회의 후원과 교인들의 헌금으로 운영됩니다. 그리고 강서구청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재정을 확충합니다. 어르신들에게서 회비 등은 일절 받지 않고 무료로 운영됩니다.

4. 프로그램 내용

먼저, 다른 노인교실과 차별화 하여 담임제로 운영됩니다. 담임제는 어르신들을 반별로 편성하고 담임선생님들 돕으로써 선생님들과 어르신들이 서로 교류하고, 그 교류를 통해 어르신들이 사랑을 느끼게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둘째, 세부프로그램으로는 어르신들의 여가와 건강을 위해, 전체 2교시로 운영이 됩니다. 1교시는 모든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노래교실이며, 2교시는 어르신들의 취미와 기호에 따라 스스로 지원하게 하고 있습니다. 2교시에 운영되는 교실은 서예, 장구, 종이접기, 전통놀이, 클레이아트, 이야기반, 포크댄스, 한글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셋째, 특별히 분기별 혹은 필요에 따라 노인들을 위한 특강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넷째, 2학기 말미에는 발표회를 가짐으로 자녀들을 초청하여 어르신들이 노인교실 가운데 어떻게 보내었는지 소개하고 노인교실 가운데 배운 것을 자랑함으로 일년의 학기를 마감합니다.



5. 협력기관

강서구청, 길꽃어린이도서관, 지역의 6개 노인정, 영신교회

6. 파급효과

먼저, 설립목적과 같이 소외 받은 노인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도움을 줌으로써 소외 받은 어르신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둘째, 교회가 소외 받은 어르신들에게 관심을 가짐으로써 지역사회에 교회의 이미지를 개선되고 전도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어르신들과 소통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노인교실과 지역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미비하지만 어르신들의 일거리를 창출하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인교실 어르신들 가운데 유치원 및 독거노인들에게 이야기를 들려 주는 이야기 보따리 대원을 선정하여서 지역 사회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놀이와 짚공예 등의 강사가 되어 학생들 및 잃어버린 우리 문화를 계승 발전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실버순찰대를 창설하여 학생들이 등학교 할 때 그들을 지켜줌으로써 안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창의놀이를 개발하여 노인정에 보급하여 무료한 어르신들의 삶에 새로운 활력과 노인문화 개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7. 평가 및 추후계획

저희 노인교실의 접근은 감성적 접근입니다. 어르신들의 굳은 마음을 만져 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소외 받는 어르신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주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감성을 만져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교육을 통해 어르신들이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어르신들이 지역에서 일함으로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추후에는 좀 더 전문적인 노인교육과 개발을 통해 전문 노인 봉사자를 발굴하고 배양하여 지역사회에 지금보다 더 많은 도움과 헌신케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창동염광교회

- 제 10회 대도시 부문 수상 -



[목회자의 교회사회복지에 대한 비전]

올해로 창립40주년을 맞는 염광교회는 희년을 바라보며 구체적인 희년목회비전을 세웠으며, 복지관련 비전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섬김과 나눔의 봉사공동체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전략은 대략 다음과 같다.

1. 복지선교의 전문성 및 효과성 강화

- 복지선교사역의 연계성 강화(전체적인 기획 및 조정기능의 강화)

- 영역별 사역역량의 단계별 강화를 통한 복지선교사역의 전문성 및 효과성 강화

2. 복지선교센터 건립을 통한 염광 복지선교 사역의 브랜드화

3. 지역사회를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지선교->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보다는 지역의 복지현안에 교회의 재원으로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 복지선교 자원의 모집역량 극대화를 통해 지역사회를 섬기는 복지선교
- 단계별 복지선교 기금 모금을 위한 목표 계획수립

4. 지역사회를 감동시키는 섬김과 나눔

- 지역사회와 통(通)하는 관계망(Net-Work) 구축
- 정기적인 지역조사와 관계기관 및 전문가 교류를 통하여 지역복지이슈 파악
- 작은 감동을 실천하는 섬김과 나눔의 조직 [염광 사회봉사단]



[대표적인 교회 복지사업 프로그램]

■ 아자 장애인문화센터

1. 프로그램 개요

발달장애인의 현황 및 복지욕구 실태에 관한 한 조사연구에 의하면(1999. 믿음복지회) 조사에 응한 발달장애인 부모들의 약 88%가 여가 및 취미활동(33%), 일상생활훈련(54.9%)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물론 이는 일반 주간 및 단기보호 시설에 요구하는 프로그램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모들의 이러한 욕구(need)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우리교회에 장애인을 보내고 있는 부모님들의 욕구와 거의 일치하기 때문이다. 아울러서 부모님들과의 면담을 통해서 이러한 욕구와 기대가 절실함을 확인하였기에(현재는 경제적·사회적 부담으로 방치하고 있는 상태임) “토요문화교실(& 방과후교실)”을 기획하게 되었다.

2. 프로그램의 목적 및 목표

1) 프로그램의 목적

지역의 장애인들(그리고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여가 및 취미활동의 욕구(문화적 욕구)와 단기적 보호의 욕구를 사랑부의 토요문화학교를 통해 채워나감으로써 교회가 지역의 장애인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이는 보이지 않는 장애인 선교의 의미를 지닌다. 아울러서 장애학생들이 가진 달란트 계발하여 나감과 동시에 장애학생과 그 부모들의 문화적 욕구와 배움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자 한다. 또한 장애학생들의 사회적 적응능력을 향상시킴으로 장애학생들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프로그램의 목표

- ① 지역의 발달장애인들의 다양한 자기선택적 문화욕구 충족시킨다.
- ② 지역의 발달장애인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장애인 선교의 기회를 만들어 간다.
- ③ 발달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가진 달란트를 계발한다.
- ④ 발달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체력강화, 정서함양, 사회성(사회적응능력) 향상을 도모한다.
- ⑤ 발달장애를 가진 이들의 가족의 경제적, 정신적, 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킨다.

3. 프로그램의 실제(제18기 토요아자 장애인문화센터의 예)

1) 일시: 2012년 3월 24일(토)개강 ~ 2012년 6월 30일(토) 총 12주간

(시간: 매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 5시)

2) 장소: 창동염광교회 사랑부실 및 교육관 및 기타 지역주변시설

4. 파급효과

- 지역의 발달장애인에게 다양한 자기선택적 문화욕구 충족 -> 자기선택적 문화활동 증가
- 발달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가진 달란트를 계발 -> 챔버, 축구단, 합창단 등의 영역으로 확대
- 발달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체력강화, 정서함양, 사회성(사회적응능력) 향상
- 발달장애를 가진 이들의 가족의 경제적, 정신적, 사회적 부담을 경감

5. 평가 및 추후계획

1) **평가:** 복지관이나 기타 지역기관의 활동취약시간인 주말을 이용하여 지역 발달장애인들의 다양한 자기 선택적 문화욕구를 충족시키는 주말 장애인 문화센터로서 나름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지역복지기관의 활동취약시간에 활동함으로 복지서비스 시간대를 좀더 다양화 하였음.
- 발달장애인에 다양한 문화 활동의 기회 및 자리 제공
- 발달 장애인의 선택적 문화활동 증대

2) **향후계획:** 현재 문화센터가 다양한 문화활동 및 지속적인 문화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문화 동아리 및 문화관련 기관의 증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문화동아리 육성, 합창단, 챔버, 연극단 등의 활동 강화)

【 피어라희망센터(창동염광교회 장애인복지선교센터)】

1. 피어라희망센터는?

피어라희망센터는 다른 이들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성인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낮 시간 동안 전문인에 의한 재활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창동염광교회의 장애인주간보호시설입니다. 피어라희망센터는 장애인을 존귀히 여기시고, 함께하심으로 섬기셨던 예수님의 사랑으로 지역의 장애인들을 섬기는 장애인복지선교 전문기관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끊임없는 기도와 노력을 해갈 것입니다.

2. 피어라희망센터의 가치

- 1) 피어라희망센터는 발달장애인(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 등)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환대하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 2) 피어라희망센터는 각각의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음을 믿으며,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장애인들과 함께하는 이들 모두) 가진 고유한 재능과 능력을 키워나

가는 배움과 희망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3) 피어라희망센터는 발달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전문적인 돌봄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발달장애인들과 그 가족의 심신의 치유와 회복을 추구하는 장애인 복지선교전문기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4) 피어라희망센터는 발달장애인들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 건강한 생활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5) 피어라희망센터는 누구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교회와 지역사회 가운데 그 희망의 징표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증거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3. 피어라희망센터의 가치 성취를 위한 전략(주요사업)

1) 환영과 환대의 신앙 공동체가 되기 위한 전략

- ①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는 영접서비스 및 송영서비스
- ② 영적 안녕감을 누리는 예배서비스
- ③ 존재감을 느끼는 다양한 기념행사 등

2) 배움과 희망의 공동체가 되기 위한 전략

- ① 교육지도 활동을 통한 다양한 배움의 기회 제공
- ② 사회적응 훈련을 통한 다양한 사회활동의 기회 제공
- ③ 사회재활 프로그램을 통한 다양한 문화활동의 기회 제공
- ④ 직원, 자원봉사자, 가족 등의 교육을 통한 역량강화의 기회제공 등

3) 장애인복지선교 전문기관이 되기 위한 전략

- ① 개인의 신변자립을 위한 전문적인 재활 프로그램의 제공
(ADL 훈련, 감각통합, 재활운동 등의 프로그램)
- ② 다양한 전문적인 치료교육 프로그램의 제공
(음악치료, 미술치료, 원예치료, 연극치료, 치료레크레이션 등의 프로그램)
- ③ 자립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직업재활 프로그램의 제공
(직업평가, 직업재활훈련, 취업의 기회제공 등의 직업재활 프로그램)
- ④ 전문가들에 의한 평가와 사례관리 서비스의 제공 등

4) 건강한 생활공동체가 되기 위한 전략

- ① 건강관리, 이미용서비스등의 보건위생 서비스 제공
- ② 건강과 영양을 생각한 LOHAS(Lifestyle Of Health And Sustainability) 식단과 먹거리 제공

5) 지역사회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증거 공동체가 되기 위한 전략

- ①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와 교육사업
- ② 지역사회에 장애인과 함께하는 봉사활동의 기회제공
- ③ 후원과 봉사활동을 통한 나눔의 문화전파 등

[피어라희망센터(주간보호 복지재활팀) 주요사업요약]

- 환대와 영적서비스: 환대와 영접, 영적 안녕감을 위한 예배서비스, 자존감을 느끼게 하는 기념일 서비스 등
- 교육지도: 인지학습, 음악·미술·체육 등 다양한 영역의 교육지도 서비스
- 재활치료: ADL훈련, 감각통합, 음악치료, 미술치료, 원예치료, 치료레크레이션 등의 재활 치료 서비스
- 심리사회 재활: 사회적응훈련, 캠프, 야외활동, 동아리활동 등의 심리사회 재활 프로그램
- 직업재활: 직업평가, 직업훈련, 취업의 기회제공(로템카페) 등의 직업재활 프로그램
- 건강한 삶을 위한 서비스: 보건위생, 체력단련, 이미용서비스, 건강관리, LOHAS(Lifestyle Of Health And Sustainability) 식단 및 먹거리 제공 등
- 평가와 사례관리: 전문가에 의한 평가와 개인별 사례관리 서비스
- 기타: 부모교육 및 직원교육, 장애인식개선사업, 홍보와 후원 관리등의 사업

4. 피어라희망센터의 주요연혁

- 2005년 09월, 행복한 교실 시작(현재, 피어라희망센터로 발전)
- 2007년 11월,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립 연말당회결의
- 2008년 01~02월, 교회 1층 사랑부실 개조(주간보호시설로 리모델링)
- 2008년 03월,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직원 선발 및 시범운영
- 2008년 07월부터 본격적인 주간보호사업 실시
- 2008년 07월 17일,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피어라희망센터 시설설립신고
(도봉구청 신고증교부 / 주간보호시설 이용정원 20명)
- 2008년 07월 31일,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피어라희망센터 개소예배
- 2008년 11월, 연말당회 피어라희망 직업재활팀 신설 결의(로템카페 - 2명 직업재활훈련)
- 2009년 02월, 미국 테일러 대학 사회복지학과 해외 실습(총6명)
- 2009년 02월, 직업재활팀 2명선발(로템 직업재활 훈련)
- 2009년 03월, 직업재활팀 훈련활동 시작(로템 직업재활 훈련)
- 2010년 03월, 로템 제2기 직업재활팀 훈련활동 시작 (1기 2명취업, 3명 직업훈련)
- 2010년 03월, 주간보호센터 직업재활사업 시작(뽕튀기, 비누 등)
- 2010년 12월, 운영위원회 피망 베이커리 및 농장활동 추진 결의
- 2011년 02월, 베이커리 직업재활활동 시작(6명 훈련 시작)
- 2011년 03월, 피망 농장활동팀 구성 및 활동시작(주간보호에서 4명 선발)
- 2011년 04월, 피망베이커리 작업장 오픈식(장애인주일)

- 2011년 10월, 제주도 여행(2박3일)
- 2011년 12월, 제1회 피망콘서트(도봉구민회관): 후원콘서트
- 2012년 1월, 청학리 농장(1300여평) 임대계약
- 2012년 3월, 믿음반(주중 오후 방과후반-5명 선발) 개설

5. 파급효과

- 피어라희망센터(장애인복지센터)는지역내 재가 중증 발달장애인에게 복지·재활을 중심으로 한 주간보호 서비스와 직업훈련 및 직업활동을 중심으로 한 직업재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부모님들에게는 믿고 맡겨 양육부담 감소와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교회공동체가 지역의 장애인을 섬기는 다양한 사역을 실행하는 기관으로 지역사회 속에서 장애인복지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 교회의 자원으로 지역의 재가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주간보호 및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교회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 제고되고 있다. (구청이나 관계기관 및 장애인 부모 단체로부터 인정)

6. 평가 및 향후과제

1) 평가

- 장애인 복지시설과 장애인 복지프로그램 운영으로 향후 다양한 장애인 복지선교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역량확보 -> 교회 및 지역의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복지선교센터)으로 자리매김
- 교우들이 지역사회에 자랑할 수 있는 자랑거리가 되어가고 있음.
- 교회 및 지역 내 비장애인들에게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장애인식개선과 사회통합의 토대를 마련

2) 향후과제

- 다양한 복지선교사업 실행을 위한 법적인 요건 갖추기(법인화 작업이 필요함)
- 장애인복지선교사역을 위한 독자적인 공간의 확보 -> 향후 장애인복지선교센터의 설립
- 교회의 장애인복지선교 사역 전문가 양성 및 봉사자 양성



수원중앙침례교회

- 제 10회 특별상 수상 -



[목회자의 교회사회복지에 대한 비전]

많은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복지목회 또는 사회봉사가 교회의 중요한 사명으로 인식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사역의 현장에는 복지목회가 자리 잡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한국기독교의 시작이 복지목회,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목회, 교육과 의료복지 목회와 긴밀하게 결합되어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가져온 것을 볼 때,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을 향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시점에서 복지목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러므로 그동안 중요하다고 여겨지면서도 간과되었던 복지목회가 어떠한 면에서 중요한지를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복지목회는 균형 잡힌 교회의 사역 및 성장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성경을 통해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는 자로, 낮은 자로 오셨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세상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사람들, 도움이 필요하고 소외된 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우리가 일컫는 복지목회를 이미 행하셨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통해 자비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받은 은사를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람들에게 베풀 것을 말씀하셨다. 궁극적으로는 영혼을 얻게 하는 섬김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십자가에 내어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지, 영원한 복지인 천국시민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이미 너무나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지목회가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신다.

둘째, 복지목회는 목회분야의 선택할 수 있는 한 부분이 아니고, 목회자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자칫 여러 영역중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여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목회전반에 걸쳐서 우리의 복지가 사역과 삶으로 녹아져야 할 것이다.

셋째, 복지목회는 성도들의 신앙을 표현할 수 있는 중요한 현장을 가져다주고, 신앙을 성숙케 한다. 앞서 말한 것처럼 교회의 균형 잡힌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성도들 또한 균형 잡힌 성장이 이루어 질 수 없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말씀과 성경공부의 홍수 속에 있었지만,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아야 하는 삶의 현장은 빈약했기에 세상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에는 너무나 유약한 모습을 보여 왔다. 성도들로 하여금 구체적인 사랑과 복지를 실천할 수 있는 현장을 가져다주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큰 은혜와 능력을 맛보는 비결이 될 수 있다.

넷째, 복지목회는 교회의 교회됨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의 하나이다. 마태복음 5장 16절은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이 바로 착한 행실인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고 성경을 배울 때 보다,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세상에 나아갈 때 훨씬 더 많은 감동을 받는다. 무엇보다 교회의 복지목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

다섯째, 복지목회는 신앙과 삶을 지원하고 치료하는 전인적인 성장을 가져다준다. 그 동안의 목회를 보면 대부분이 영혼구원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을 해 왔다. 영혼구원에 초점을 맞춘 목회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고 전혀 문제가 없지만, 사회가 변화되고 그에 따라 갖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상처와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예수님의 목회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을 통해 낮아짐을 보여 주셨고, 우리 삶의 고통의 현장에 함께 해주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위로를 맛보고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동일하게 이 시대의 복지목회는 신앙의 성장과 더불어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변의 방관자가 아닌 삶의 한 가운데서 목회를 감당할 때 더욱 큰 능력과 부흥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중앙교회의 복지목회는 교회의 4대 프로젝트에 잘 나타나있다. 4대프로젝트는 예수프로젝트(영혼구원), 솔로몬프로젝트(사역체계구축), BK프로젝트(인재양성), 요셉프로젝트(섬김과 나눔)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섬김과 나눔으로 실천하는 요셉프로젝트이다.

요셉프로젝트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물질, 시간을 가지고 섬기며 살아가도록 돕는다. 장애인, 노인, 말기암 환우, 외국인, 노숙인 등 다양한 섬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늘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 교회는 이들을 섬김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알게 하고, 성도들은 섬기고 살아가는 삶의 축복을 깨닫게 된다. 이를 위해 중앙교회는 교회 내의 복지사역을 전담하는 부서와 함께 사회복지법인 수원중앙복지재단을 설립하여 교회를 넘어서 지역사회를 향한 사역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사역



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기관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여 교회가 감당하는 복지사역의 현장들을 바라보고, 동참하여, 중보와 후원으로 각 기관을 섬기고 있다.

지역사회의 사랑이 되는 교회, 지역에 교회가 함께 하는 것이 축복임을 경험하는 지역공동체,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이 교회에서 가장 큰 환영을 받는 교회, 세상으로부터 칭송과 존귀히 여김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교회가 바로 중앙교회가 걸어가야 할 사회 복지 목회의 방향이다.

이를 통하여 중앙교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과연 그 교회로 나아간다.

[대표적인 교회 복지사역 프로그램]

■ 사랑의 반찬 나누기

1. 시행동기 및 역사

교회 및 지역주민 중 반찬 지원의 욕구가 발견되고 지역사회에 지속적인 요청으로 반찬 지원서비스와 식재료지원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최근 양을 늘려 3~4일 이상 먹을 수 있는 반찬을 만들어 주 1회 제공하고 있습니다.

2. 목적 및 목표

지역주민 중 저소득가정, 장애인가정, 독거노인, 결손가정 등 식사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이웃을 위해 주 1회 반찬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함으로 영적 필요를 채운다.

3. 시설, 인력, 재정

- 시설 : 교회내 식당 사용
- 인력 : 전문 사역자 2명, 식당 인력 3명, 만들기 및 포장 봉사자 25명, 배달봉사자 58명
- 재정 : 교회 본예산 및 복지사역국 항목예산 사용

4. 프로그램 내용

- 주 1회, 매주 수요일 3가지 반찬을 만들어 포장합니다.
- 대상자 및 배달봉사자가 교회 식당에 방문하여 도시락을 수령합니다.
- 배달봉사자는 각 가정에 방문하여 사랑의 반찬을 전달합니다.
- 2개 기관(노숙인 쉼터, 장애인 일터), 5개 미자립 교회(직접 전도용으로 사용)에 도시락 80개 지원

- 기관 및 교회, 개인에게 매주 총 190개의 도시락을 제공합니다.
- 설날, 추석, 말복 등에 특별메뉴(불고기, 떡갈비, 삼계탕 등)을 제공합니다.

5. 협력기관

- 매교동 주민센터
- 수원휴먼서비스센터
- 버드내복지관
- 수원시 권선구청, 팔달구청
- 실버벨트방문요양원
- 수원시방문보건센터



6. 파급효과

지역사회의 위기 상황 속에 있는 가정을 매주 방문하여 도시락을 전달하여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해결 하게 되었고 건강 및 정서, 신앙 상태를 파악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자연스럽게 교회를 소개하고 직간접적 전도의 매개체 역할을 하여 영혼구원의 결실도 생겼다. 또한 지역 내 미자립 교회가 이웃을 직접 섬길 수 있도록 도시락을 교회에 지원하고 배달하게 하여 미자립교회가 사회복지사역에 동참할 수 있게 하였다.



7. 평가 및 추후계획

지역사회 관공서, 시운영기관 및 요양원 등을 통해 지속적인 지원 요청이 있어 장기적으로 사업을 확대하려고 하며 보다 많은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해 비교인 대상자를 40% 이상 유지하고자 합니다.



■ 중앙경로대학 - 예담대학

1. 시행동기 및 역사

지역사회내 어르신 수의 증가에 따른 정서 및 여가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독거어르신들을 위한 위기관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교회 내 인프라를 활용하여 경로대학을 시작하게 되었다.

2. 목적 및 목표

지역내 어르신의 삶을 윤택하게 하며 풍요롭게 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및 수업을 지원하고 죽음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 구원받게 한다.

3. 시설, 인력, 재정

- 시설 : 교회 대예배실, 소예배실, 교육관, 식당 사용
- 인력 : 전문 사역자 2명, 봉사자 69명
- 재정 : 교회 본예산 및 개인회비, 인근지역 복지관 지원

4. 프로그램 내용

- 연 2학기, 주 1회 중앙경로대학을 진행합니다.
- 문화교실 (사물놀이, 가요민요교실, 사군자교실, 섹스폰교실, 장기교실, 바둑교실) 운영
- 체육교실 (스포츠 댄스교실, 골프교실) 운영
- 성경교실 (찬양율동교실, 성경읽기교실, 성경쓰기교실) 운영
- 점심식사 제공하며 어르신들을 위한 생일잔치 진행합니다.
- 연 1회 경로잔치를 통해 정서지원하며 수원시 어르신 1,500명을 초청합니다.
- 연 1회 봄소풍 (단별 단합, 경로잔치, 바비큐 파티)을 진행합니다.
- 연 1회 수학여행 (2박 3일)을 진행합니다.
- 졸업작품 발표회를 진행하여 참여자의 동기부여 및 격려한다.

5. 협력기관

- 버드내복지관
- 각지역 노인정

6. 파급효과

지속적으로 참가자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내 복지관에서 우수프로그램으로 선정하여 복지관 회원들에게 참가비를 지원하고 있다. 참가하는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높고 지역 어르신들의 교제와 만남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7. 평가 및 추후계획

매회 참가자 설문조사를 통해 신규강좌를 개설하고 있으며 노년기 그리스도 공동체 의식 높이기 프로그램, 노년기 건강관리 프로그램, 노년기 가족관계 및 적응 프로그램 등의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 개발하여 포괄적인 노인복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열방교회

- 제 10회 특별상 수상 -



[목회자의 교회사회복지에 대한 비전]

열방교회는 2000년 10월 22일 이 땅의 많은 교회들 중 평범한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열방교회 7대 비전”을 통해 개척되어졌다.

1. 주님을 닮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양육하여 한국교회 갱신에 참여하는 교회.
2. 성령이 이끌어 가는 교회
3. 성경의 터 위에 세워진 복음적인 교회
4. 계급적 구조가 아닌 형제애가 넘치는 교회
5. 초대교회 같은 선교 지향적 교회
6.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교회
7. 예배, 성경공부, 기도,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는 교회

초대교회와 같이 세상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열방을 섬기는 교회, 다음세대를 준비하는 교회를 표어로 삼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실천적 신앙이 강조 되고 있는 교회이다.

현재 부지인 땅이 서울시로부터 구입할 당시 사회복지 사업으로 계획되었던 땅이었고 특별히 열방교회 근처에는 3개의 고등학교(백암, 양천, 금옥), 3개의 중학교(금옥, 오류, 강신) 5개의 초등학교(장수, 지양, 세곡, 신남, 매봉)가 밀집돼있는 국내 유일한 곳이다. 때문에 2003년부터 열방교회는 학생들과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고 진행하게 되었다.

열방교회는 구 성전 건물 부지 위에 2012년 올해 새롭게 건축을 하게 되었는데 교회 건물을 교회만의 건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 사회에 건물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세상과 소통하는 교회, 지역 주민들이 함께 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별히 교회가 현재 지역과 사회에 필요한 사회복지 정책이 필요함을 깨닫고 열방교회 내에 독립 부서

인 열방 블레싱 센터(열방교회 사회복지센터의 명칭)을 두고 모든 활동들을 관할하고 있다.

교회 근처에 학교가 많기 때문에 양천 지역의 많은 청소년들의 문화 발전을 위한 파트너로써 그 중요성을 공감하고, 상호지원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정식으로 각 학교들과 MOU를 체결하고 모든 시설을 지역사회와 학생들에게 개방하며 전 교인과 함께 매년 장학금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에 꼭 필요하고 실제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함을 깨닫고 '양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와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교회가 함께 장애인들을 위한 물질과 장소 및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보다 효과적으로 열방블레싱 센터의 재정을 확보하고 운영하기 위해 '홀리빈 카페'를 운영함으로 모든 수익금의 100%를 '양천 장애인 자립 생활센터' 와 '지역 학교에 장학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교회 복지사역 프로그램]

■ 체험 홈 지원 사업

1. 시행동기 및 역사

지역사회 내 실제 도움이 필요한 기관을 찾던 도중 양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체험 홈 사업의 후원자가 없어서 어려워하고 있어서 작년부터 지원하기 시작

2. 목적 및 목표

중증 장애인의 자립생활 훈련을 돕기 위해.

3. 시설, 인력, 재정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시영아파트 19동 708호에 관한 월세 보증금 4,000만원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시영아파트 14동 301호에 관한 전세 보증금 5,000만원

총 9,000만원 지원

4. 프로그램 내용

중증 장애인으로 일반 사회생활을 하지 못해서 집에 갇혀 있거나 시설에 있던 장애인들

에게 자활훈련을 시켜서 정상인들처럼 스스로 생활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5. 협력기관

사람사랑 양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6. 파급효과

중증 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와 모델이 되고 있음.

7. 평가 및 추후계획

지역에 중증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실제 적인 도움을 주고 있고, 차후 자원봉사자들을 세워 직접적인 도움을 주길 원하고, 카페를 통한 수익금을 양천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 지원하려고 함.



■ 백암 고등학교 장학금 지원 사업

1. 시행동기 및 역사

교회 바로 앞에 있는 백암고등학교 내에 있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학생들을 돕기 위해 4년전부터 시행.

2. 목적 및 목표

백암고등학교 내에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학생들을 돕기 위해.

3. 시설, 인력, 재정

전교인이 특별 새벽기도회 헌금을 모아 장학금으로 지원. 1,000만원 지원

4. 프로그램 내용

5. 협력기관 : 백암 고등학교

6. 파급효과

교인들의 특별 헌금을 통해 지역의 학생들을 돕는다는 사실에 교인들이 자랑스러워하고 있고, 주위에 더 많은 학교에 헌금을 통해 장학금을 지원 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음.

7. 평가 및 추후계획

지역에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학생들에게 실제 적인 도움을 주고 있고, 카페를 통한 수익금으로 지역에 있는 더 많은 학교에게 장학금 지원을 할 계획임.



작은샘골사랑의교회

- 제 10회 특수목회 부문 수상 -



[목회자의 교회사회복지에 대한 비전]

작은샘골 사랑의교회는 장애를 비롯한 여러 가지 사회적, 개인적 문제를 갖고 가족과 떨어져 살 수 밖에 없는 분들과 함께 모여 생활하는 자립생활신앙공동체교회로 출발하여 17년째 이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바라며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는 성경말씀 대로 조금이라도 힘이 있고 의지가 있다면 더 힘들고 연약한 지체를 도우며 도움 받기 보다는 도우며 사는, 그래서 장애가 있지만 그 장애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십자가가 되도록 힘써 왔습니다.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를 돕는 길은 도와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생활하며, 그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교회가 영농조합과 수련원과 전국장애인 은혜캠프와 복완주 경로대학, 그리고 작은샘골학교까지 할 수 있게 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지속적으로 사회복지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대표적인 교회 복지사업 프로그램]

■ 전국장애인 은혜캠프

1. 시행동기 및 역사

장애인들의 복음화와 행복한 삶의 질을 높이고 그들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2002년 제1회 전국장애인 은혜캠프를 시작하여 2012년 제10회를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2. 목적 및 목표

장애인과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참석하여 말씀과 생활을 통해 은혜를 받고 나누는 캠프를

통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성경의 진리를 실현하며, 특별히 복음성가 경연대회를 통해 차별없이 주님을 찬양하여 “장애인도 할 수 있다”는 성취를 만들고 있습니다.

3. 시설, 인력, 재정

작은샘골 사랑의교회는 교회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시설(대예배실, 소예배실, 교육관, 식당, 주차장, 운동장, 버스)을 제공하여 참여하기 원하는 전국의 장애인과 시설에 전교인과 자원봉사자 조직을 동원하여 10회째 매회 500명 이상의 인원이 참가하고 있으며(2012년에는 350명 참가) 매회 3천만원 정도의 재정을 여러 후원 조직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4. 프로그램 내용

시간 / 날짜	8월 14일(화)	8월 15일(수)	8월 16일(목)
06:00-07:00	경배 및 집수	아침 경건회 이름의 묵사	아침 경건회 조만영 선교사
07:00-09:00		세면 및 아침식사	
09:00-10:00		간 경 말씀준 영재	복음성가 경연대회
10:00-11:00		웃음치료	달는 예배 김학진 목사
11:00-12:00			
12:00-13:00		점심식사	단 제 사 진 행
13:00-14:00		공경제 훈련	
14:00-15:00			
15:00-16:00			
16:00-17:00		찬양권서트 바이어스	
17:00-19:00	저녁식사		
19:00-20:00	찬양권서트	찬양권서트	
20:00-21:00	스예집회 1 오병환 목사	스예집회 2 이종준 목사	
21:00-22:00	경배와 찬양 & 기도회	경배와 찬양 & 기도회	
22:00-23:00	/ 간식 및 취침	/ 간식 및 취침	

5. 협력기관

협력기관으로는 사)한반도 선교회, 사)한국장애인선교단체연합회, 한국복음성가협회, 한국장애인복지법정시설중앙회, GMB TV, CBS전북방송, 예수선교회, 실로암신문, 개척미자립교회목회자돕기운동 등 여러 기관들과 협력하여 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6. 파급효과

장애인들이 집이나 시설이 아닌 공간에서 성취감과 자존감을 높일 수 있고 특히 많은 학생청소년 자원봉사자들이 캠프에 참여하여 장애인에 대한 의식을 개선하여 향후 사회생활을 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바른 인식을 하게 될 것이며 장애인 복음성가 경연대회를 통해 입상한 사람 중에 교회와 경로대학, 군부대, 교도소등의 곳을 순회하며 찬양사역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7. 평가 및 추후계획

10회를 마친 장애인 은혜캠프는 언제나 협력하여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많은 장애인과 자원봉사자 및 협력기관의 협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말씀 집회로 이어가고자 합니다.

Ⅱ 북안주 경로대학

1. 시행동기 및 역사

2006년 5월 5일 지역사회 구성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노인 인구들의 행복한 삶의 여유를 통해 영혼 구원의 초청을 하고자 화산지역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6개면(동상, 비봉, 고산, 운주, 경천, 화산면) 어르신을 초청하여 현재까지 경로대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목적 및 목표

노년의 어르신들의 삶이 시골에서는 일의 연속으로 쉼을 얻지 못하여 피곤함과 외로움으로 지쳐 가기에, 건강하고 행복감을 잘 경험하지 못한 어르신들에게 매주 금요일 행복한 삶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영혼구원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3. 시설, 인력, 재정

작은샘골 사랑의교회는 교회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시설(대예배실, 교육관, 식당, 운동장, 버스)을 제공하여 6개면 어르신을 5개 반으로 운영하고 (재적 200명중 평균 120명 출석) 14명의 지도자(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전담 인력 4명)로 3월부터 12월까지 30주를 운영합니다. 1년 2천만원의 재정을 매주 60만원 정도의 예산(식사비 36만원-3천원*120명-, 버스유류비 10만원, 강사·재료비 14만원)으로 지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4. 프로그램 내용

9시부터 차량운행 10시부터 건강체조 10시 30분부터 행복강좌 11시 20분부터 문화공연 12시 10분부터 식사 제공 후 귀가

5. 협력기관

지역사회 교회(상운교회, 소농교회, 산북교회, 전주안디옥교회, 전주새힘교회, 전주신명교회, 김제언약기도원)들과 협력하여 다양한 강사와 자원봉사자를 지속적으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니다.

6. 파급효과

열악한 문화 환경으로 답답한 지역의 노년층에 건전한 노년 문화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밝고 행복한 노년을 향유하도록 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생기를 가져 오고 있습니다.

7. 평가 및 추후계획

지역사회 교회들과의 협력이 더욱 충실했으면 좋을 것 같아 다양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화산면 교회연합회) 점진적으로 자발적인 지역교회 출석인원이 늘어나 실제적인 영혼구원의 결과가 일어나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부]

1~9회 교회상 수상교회 사역보고

가난한 이웃과 함께하는 지역참여활동

- 제 9회 대도시 부문 수상 강남교회

취약계층자활지원사업

- 제 7회 중소도시 부문 수상 거룩한 빛 광성교회

희망푸드뱅크센터

- 제 2회 대도시 부문 수상 고척교회

임산부 학교

- 제 7회 중소도시 부문 수상 광양대광교회

지역사회의 효도 손 빨래방

- 제 8회 농어촌 부문 수상 금산평안교회

태국근로자 사역

- 제 2회 중소도시 부문 수상 낙원교회

지역사회 문화 활동센터

- 제 9회 중소도시 부문 수상 녹양교회

복일노인대학

- 제 4회 중소도시 부문 수상 익산복일교회

큰사랑 행복한 홈스쿨

- 제 8회 대도시 부문 수상 큰사랑교회

전문요양원과 재가노인복지센터

- 제 4회 중소도시 부문 수상 평안교회

효성1004마을축제

- 제 3회 대도시 부문 수상 효성중앙감리교회

가난한 이웃과 함께하는 지역참여활동

- 제 9회 대도시 부문 수상 강남교회 사역보고 -

1. 강남교회(한국기독교장로교) 현황과 조직 체계

1970년 4월 19일 창립(현 주소: 강서구 화곡6동 957-10)

1979년 5월 전병금 담임목사 취임.

2009년 6월 강서구 가양2동 소재 가양5종합사회복지관 위탁.

2011년 9월 제9회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회'로 수상(기운실에서 수상)

담임목사 전병금 외 부목사 5인, 교인수: 3,000 여명

2. 사업의 대상자의 특성과 프로그램의 필요성

지역적으로 강서구는 재정자립도 35.1%(2008년 재정지표)로 25개구에서 22위로 낮음에도 강서구 복지예산 점유비는 45.4%로 노원구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다. 그 이유는 인구대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9,951세대 18,743명으로 인구대비 3.3%로 전국 평균 3.0%보다 높은 비율이다. 또 강서구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영구임대주택 내의 수급자는 7,442세대 14,114명으로 강서구의 전체 수급자 인구대비 75.3%가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가양5복지관이 위치한 가양5단지에는 영구임대아파트는 총 2,411세대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 791세대 1,523명으로 강서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인구대비 8.1%가 거주하고 있으며, 일반세대 중에서도 차상위층 153세대, 한부모가정 27세대, 장애인 219세대 등이 있어, 상대적으로 생활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세대가 가양5단지에 50.6% 거주하고 있다.

3. 목적과 목표

목적	산출목표	성과목표
1. 빈곤위기가정 및 욕구 실태파악	1-1. 가양5단지 빈곤위기가정 실태 파악 -944case 파악 (가양5단지 내 수급자(791세대/1,523명) + 차상위 계층 인구(153세대/175명)=944세대, 1,698명)	빈곤위기가정의 문제유형별 생애주기별 욕구 및 서비스 파악
	1-2. 서비스내용 및 총량분석 -944case 분석	
2. 빈곤위기 가정지원을 통한 문제해결	2-1. 빈곤위기가정지원을 위한 다세움기금모금 -5,000,000원 기금모금(생계비 및 의료비지원)	빈곤위기가정에 대한 사회적기금 안전망 강화
	2-2. 빈곤위기가정지원 -자원활동 -후원활동	빈곤위기가정의 문제해결능력 향상

4. 이론적 배경

1) 가족중심 사례관리

아동, 청소년, 노인 등 개인의 욕구 혹은 문제에 초점을 맞춰 사정하고 개입 및 조정하던 개인 대상자 중심 사례관리에서 벗어나, 가족중심사례관리는 가족이 공통적인 문제와 욕구를 향유하고 있다는데 초점을 맞추고 가족 내부의 강점 및 자원을 파악함으로써 가족 성원들 스스로가 사례관리 대상자이자 사례관리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데 관심을 둔다. 클라이언트가 속한 환경체계 특히 가족체계를 중요시하고 상호체계 속에서 적응능력을 증진시키고 상호작용을 개선하는 것에 초점을 둔 이론이다.

2) 강점관점의 개념

강점관점이란 모든 클라이언트는 독특한 존재로 다양성을 존중하고 클라이언트의 결점보다는 강점에 초점을 두어 가능한 모든 자원을 활용하여 역량을 실천해 나가도록 돕고자 하는 것으로, 강점관점은 문제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해결점을 발견하고 강점을 강화시키는 데 주요 초점을 둔다. 문제기반을 둔 접근은 인간문제에 대한 사회 환경적 설명보다는 오히려 개인적인 설명을 강조하게 되고, 빈곤의 문제도 개인의 능력과 행동변화에 초점을 두었다. 강점관점의 근간은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사회적 현실을 경험하고 구성하는 방법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3) 해결중심모델 활용

해결중심모델은 치료초기 바로 해결에 초점을 두고 해결로 이동하는 것이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클라이언트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데 도움이 된다고 본다. 클라이언트의 삶에서 성공의 경험들을 다시 생활에서 재현하는 것을 해결로 보는 해결중심모델 역시 강점관점에서와 같이 클라이언트의 강점과 자원에 초점을 둔다. 즉 해결중심모델은 클라이언트의 강점에 기초하여 작업해 나가는 것이 해결책 구축의 가장 현저한 특징이다.

4) 사회자본이론의 적용

사회자본은 한 사람이 동원할 수 있는 각종 공식·비공식 네트워크로서 당사자의 사회적 자원을 늘려 당사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 즉, 사회관계 속에 내재된 자원의 총합으로써 사람들 간에 형성된 관계망에 기초하여 신뢰와 상호호혜성과 같은 문화적 요소를 결합하고 활용하여 생성된 자본형태를 말한다.

5. 사업내용

강남교회에서는 1년에 약 6천만원(5천만원은 복지관, 1천만원은 구립 어린이집에 지원함)을 물적으로 지원하고, 매주 교인들의 자원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또 강남교회가 위탁 받은 가양5복지관은 다년 간의 경험을 토대로 여러 전문적인 복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실행하여 빈곤위기가정을 맞춤형으로 보호하고 있다.

예를 들면 매일 130분의 어르신이 경로식당을 이용하지만, 지역의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주민들의 형편과 욕구를 파악한 후, 교인들의 자원활동의 지원을 받아 65세의 어르신 중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 42명에게 주 7회 식사를 배달한다. 배달하면서 어르신들의 생사를 확인하고 건강체크, 안부와 말벗서비스를 실천하도록 한다. 또 중증장애인과 치매어르신 부양가족 등 사각지대의 48명 주민에겐 영양식을 만들어 격주로 주 2회 배달한다. 특히 저염도, 저혈당의 건강식을 만들어 감으로써 주민들에게 감동을 주기도 한다.

강남교회는 직접적 전도활동은 아니지만 임대아파트에 위치한 복지관을 지원함으로써 복지관을 통한 주민들의 참여, 나눔,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이 땅에 공의를 실현하고 지역에서 공교회로서 공신력을 높여 지역문제해결과 지역공동체 형성에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다.

1) 2011년 이후 사업내용

구분	주요내용
사업 소개	<p>○ 가족기능강화사업 가족중심사례관리, 지역주민정신건강증진사업 “동네야 웃자” (정신장애인 이야기모임, 지역사회네트워크, 정신건강예방교육 및 집단상담, 지역아동 지원사업(저학년통합미술치료, 아동통합미술치료, 아동문화예술지원), 어르신가족치료, 학습부진 아동·청소년 가족지원사업(가족상담, 부모교육), 조손가정지원사업(조부모자조모임, 조손가정자생력키우기), 여성가정지원사업(자조모임운영, 가족통합활동), 교육복지사업(대안놀이활동, 학부모 모임조직, 사회지원망구축)</p> <p>○ 지역사회보호사업 빈곤위기가정통합사례관리, community care(요리나눔자조모임, 독거어르신자조모임, 이웃관계망사업), 경로식당서비스, 식사배달서비스, 일반찬 배달서비스, 영양식지원서비스, 어르신건강지원센터(물리치료서비스, 발마사지서비스, 한방수지침서비스, 건강체조서비스, 재활운동치료, 치매선별검사), 결연후원금지급, 후원물품지급, 가사지원서비스, 세탁서비스, 목욕서비스, 차량지원서비스, 생신축하나눔활동, 절기이웃나눔활동, 김장김치사업 “동네김장”</p> <p>○ 발산재가복지센터사업 통합사례관리, 경로식당서비스, 운동 및 건강관리(수지침, 물리치료, 건강생활지원), 여가 및 취미활동(노래교실, 테마특강, 요가교실, 건강체조교실), 학습활동(어르신한글교실), 이동목욕서비스(방문목욕)</p> <p>○ 지역사회조직사업 주민교육(주민지도력아카데미, 강서인문학커뮤니티), 주민조직화사업(주민만나기, 이웃나눔운동 공암나루터사랑샘, 육아품앗이조직화사업, 살림장터주민모임), 마을소담터 “도란도란” (도서관주민이용, 마을소담터운영 주민모임, 소담터지역문화활동), 우리동네어르신산타, 시설운영위원회, 어르신이용실운영, 경로당지원, 편의시설대여, 지역네트워크사업, 광복운동본부(단체장정기회의, 광복운동가연수, 허준마을주민축제), 서울지역복지활동가교육훈련사업(예비활동가교육, 실무행정역량강화교육, 활동가역량강화교육, 지역안 지역활동가학습교육, 서울권역네트워크구축, 사업수행기관네트워크), 사회복지실습지도, 자원활동관리육성(모집개발, 자원활동, 자원활동관리, 교육 및 간담회), 후원기금개발관리(후원기금개발, 후원자 관리), 지역홍보활동, 공암나루터이야기발간, 온라인홍보사업, 가양5학습조직, C0컨퍼런스, 지역조사, 사업평가회</p>

구분	주요내용
사업소개	<p>○ 교육문화사업 어르신평생교육센터(무료): 댄스스포츠교실, 발리댄스교실, 한국무용교실, 경기민요교실, 장구교실, 노래교실, 풍물교실, 어르신평생교육센터특별활동, 운동 및 건강관리활동(건강체조교실, 기체조교실, 요가교실), 학습활동(영어교실, 일본어교실, 컴퓨터교실, 미디어교실), 자치회, 테마특강</p> <p>사회교육사업(유료): 태권도교실, 피아노교실</p> <p>○ 자활사업 어르신일자리마련사업, 디딤돌사업, 공항공사일자리창출사업, 희망플러스사업(사례관리, 역량강화교육, 자조모임), 예술로희망드림</p>

6. 사업평가

1) 사역적 관점에서 평가

- 지역사회 내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정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복지지원망 구축
- 일회성이 아닌 정기적인 자원활동과 후원활동을 통하여 교회의 건강한 나눔운동의 모범 사례가 됨
- 저소득주민의 복잡하고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여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는 토대가 됨
- 지역사회를 섬기는데 교인들이 드러내지 않고 헌신적이어서 지역주민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음
- 강남교회와 가양5복지관이 함께 지역주민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협력하여 제공함으로써 강남교회와 가양5복지관이 지역에서 공신력과 지도력을 갖게 됨
- 가난한 주민들과 형성된 관계를 심화시킴을 통하여 추후에는 주민의 자조, 자립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사회를 대안적인 공동체로 변화시키는데 교회가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

2) 목표달성 평가

- ① 빈곤·위기가정에 대한 사례관리를 통합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이 증대
- ② 빈곤·위기가족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과 사례관리를 수행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빈곤위기

가족과 당면한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할 수 있었으며 향후 주민전달체계개편 도모
 ③ 민민네트워크, 민관네트워크의 지역네트워크가 구축되고 활동함으로써 연계협력의 활성화 및 통합적 사례관리 구현

7. 타기관과의 네트워크

- 1) 퇴거위기가정 지원을 위한 이슈화와 관심유도를 위해 지역사회 내 주거관련기관 및 주민, 교회, 기업 등 네트워킹 추진, 주민 중의 리더들과 지역속의 강서교구협의회 소속 교회들이 홍보와 대상자발굴을 지원하고, 한화기업에서 물적 지원을 받게 되었다.
- 2) 퇴거위기가정의 대한 주거안정비 긴급지원의 경우 주거·복지전문가(가양2동주민센터 주민생활 팀장, 통합관리센터 소장, 가양5단지관리사무소 임대과장 및 임대차장, 가양2동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 가양5복지관 운영위원장) 심의위원회를 구성, 민민네트워크, 민관네트워크 건설함
- 3) 모금을 위한 방송국(MBC 지금은 라디오 시대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과 네트워킹

8. 예산 집행

항목	예산액	집행금액	집행율(%)	비고
인테이크요원 양성교육	650,000	622,860	96	18명*3회교육 강사비와 다과비
실태조사 및 총량조사	500,000	327,960	66	25명이 341세대 선별후 면접실시 과정비용
다세움기금 퇴거위기4가정지원	6,000,000	6,359,250	106	퇴거위기 4가정에 주거안정비지원
방송후원으로 생계비 의료비 긴급지원	20,000,000	24,168,000	120	MBC지금은라디오시대' 를 통해 모금하여 1가정의 생계비 외 의료비 가정긴 급지원(부모가 장애와 질 병이 있고 두 자녀가 그 당시 화상을 당해 긴급지 원이 필요했다)
생계비긴급지원2명	2,000,000	2,000,000	100	소외계층대상자 2명에 게 각 100만 지원
영양식지원	7,600,000	7,311,200	96	영양식재료비* 주 2회 * 52주(1년)
총계	36,750,000	40,789,270	110	

취약계층자활지원사업

-제 7회 중소도시 부문 수상 기록한 빛 광성교회 사역보고-

1. 해피뱅크사업 배경

해피뱅크사업은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316 소재 『기록한 빛 광성교회』가 사회구원에 대한 교회의 사명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자 2007.10월 사회복지법인 해피월드복지재단(약 20억원 자산출연)을 설립하였고, 당 재단의 한 사업 분야로 저소득·저신용 취약계층에 대한 『마이크로크레딧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해 오고 있다.

동 사업은 2007년부터 교회 자체적으로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 및 삶의 기반을 잃고 방황하는 위기에 처한 가정을 적극 발굴하여 공흘지역 일환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단순히 일시적인 소액의 금전적 도움만으로는 현실적으로 홀로서기가 쉽지 않음을 인식하고 생업을 통한 자활·자립기반이 무엇보다도 우선될 때 실질적인 도움은 물론 한 가정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었다

따라서 동 사업을 보다 활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회 자체적인 후원금에 의한 지원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우리사회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원방안을 모색하던 중 그동안 자체적으로 운영한 『마이크로크레딧』 지원 실적을 인정받아 미소금융중앙재단(전, 소액서민금융재단)의 휴면예금기금 지원에 의한 『취약계층에 대한 창업지원사업』 지원기관으로 선정되었다.

2. 해피뱅크사업의 차별화 및 특징

해피뱅크사업은 『해피월드복지재단』의 설립취지 및 정관에 의거하여 소외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신을 바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동 사업의 특징은 제도 금융권은 물론 어떤 창업지원 기관에서도 금융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 구조적으로 우리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는 저신용자 및 신용관리상 흠이 있는 자(파산 및 면책, 개인회생, 신용회복, 국세체납, 부도, 연체 등)들에게 자활의지가 있고 운영 중인 사업 또는 예정사업의

사업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 신청자의 자활의지, 사업경험, 신청인의 각자 개별적인 상황 등을 토대로 한 상환능력 및 상환의지, 사업성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하는 점이 기존 금융권에서의 담보중심의 형식적이고 시스템적으로 요건을 심사하여 지원하는 점과 차별화를 이루고 있다.

현행 제도 금융권에서는 어떤 사유를 막론하고 한번 신용관리상 흠이 발생할 경우, 현재 이러한 사유가 해소되어 회복이 되었더라도 아예 접근이 불가능한 현실인바 재기의 의욕을 원천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현실을 감안 당 재단의 해피뱅크는 이러한 한계상황을 파악하고 이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일어설 수 있도록 희망과 용기를 심어 주는데 주된 목적과 동 제도의 핵심 취지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영세자영업자의 취약한 사업여건을 감안하여 창업컨설팅을 통한 창업 및 경영컨설팅을 통한 경영개선을 적극 지원, 창업 후에도 자활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현장밀착 사후관리 등으로 어둠의 그늘에 처한 자영업자에게 늘 미소가 머물게 하는 파수꾼이 되고 있다.

3. 기관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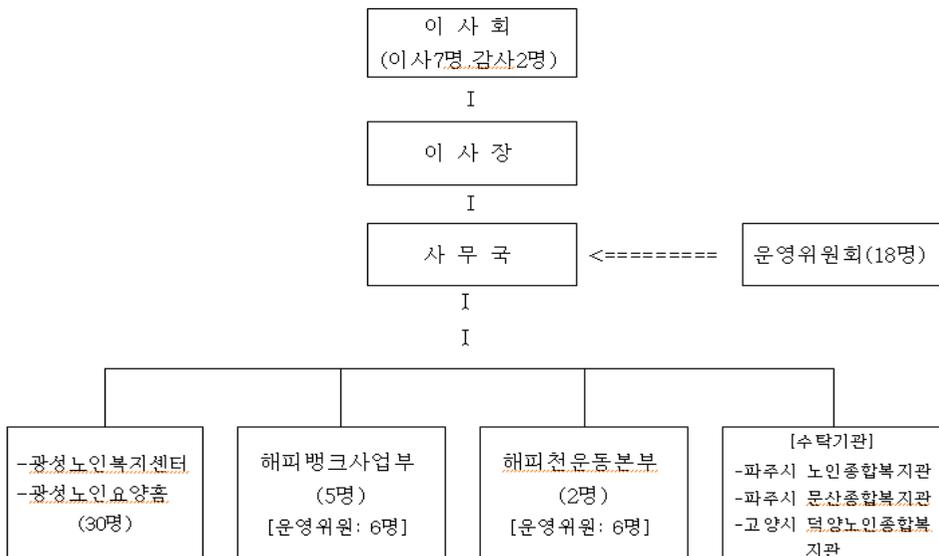
가. 주요연혁

년월일	내 용
2007. 10. 25	사회복지법인 광성복지재단 설립
2008. 02. 05	광성노인복지센터 개원 (재가노인복지사업)
2009. 02. 05	해피월드복지재단으로 명칭 변경
2009. 04. 00	휴먼예금관리재단과 복지지원사업계약체결 [취약계층 창업지원사업: 15억원]
2009. 06. 16	광성노인요양홈(노인의료복지시설) 개원
2010. 04. 30	미소금융중앙재단과 복지지원사업 계약체결 [취약계층 창업지원사업: 18억원]
2010. 09. 30	미소금융중앙재단과 복지지원사업 대상자 확대 [전통시장지원 추가: 5억원]
2010. 12. 16	미소금융지원 유공(단체) 국무총리표창 수상
2011. 01. 01	파주시 노인복지관 수탁운영
2011. 04. 05	파주시 문산종합사회복지관 수탁운영
2012. 02. 01	파주시 남부/북부 무한돌봄네트워킹팀 수탁운영
2012. 02. 29	2012년도 장학금지원 [총금액: 5천만원(고교생 50명/1인당 100만원)]
2012. 04. 25	해피월드사회복지포럼 [주제: 교회사회복지와 Social Inovation, 킨텍스]
2012. 05. 25	미소금융중앙재단과 복지지원사업 계약체결 [취약계층 창업지원사업: 13억원]

나. 주요사업

사업구분	사업영역	사업내용
직영사업	광성노인복지센터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
	광성노인요양홈	요양보호 1/2등급 어르신 요양 서비스 제공
	해피뱅크	저신용,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창업(경영개선)자금 지원을 통한 자활 및 자립지원
	해피천사운동본부	고양·파주지역 거주자중 저소득층, 불의사고, 생계의 위기에 처한 대상자에게 긴급 구호 및 구난사업
	장학사업	고양, 파주지역 고교생에게 장학금 지원사업
수탁사업	파주시 노인종합복지관	파주시 거주 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등록: 1만2천명, 일평균 이용자수: 약 1천명)
	파주시 문산종합사회복지관	복지관, 노인 및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청소년문화의 집, 어린이집 등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사역을 수행
	파주시(남부/북부) 무한돌봄 네트워크	지역사회내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는 대상자 및 가족에게 자원연계활동 및 지원사례 관리
	고양시 덕양노인종합복지관	고양시 거주 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다. 조직도



4. 지원 대상 및 절차, 심사과정 등

가. 지원 대상

신청인이 저소득 취약계층 및 저신용 금융소외계층에 해당하나 자활의지가 강하고 사업 성 여부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창업 또는 경영개선자금 지원으로 하되,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 ② 전년도 연간소득이 2,600만원 이하인 저소득계층(신용등급 적용배제)
- ③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에서 평가한 신용 7등급 이하인 저신용자
- ④ 서울시 소재 전통시장 상인중 서울시가 추천한 사업자이며 법인사업자 및 일부업종(금융업, 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유흥 및 주점업, 사치향락 및 오락업 등)에 대하여는 지원 제한이 있다.

나. 지원한도

동일 가구당 최고 4,000만원까지 지원하되, 최초 신청자는 최고 2,000만원범위내로 제한하며 기 지원한 업체 중 신용도 및 사업능력, 사업성이 검증된 업체에 한하여 추가지원에 의한 최고 4,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다. 자금용도

- ① 창업자금 : 신규(예비) 및 재 창업에 따른 임차보증금, 시설비, 운영자금
- ② 경영개선자금 : 기존 사업자로서 경영개선에 따른 시설비, 운영자금
- ③ 전통시장지원자금 : 전통시장내 사업자(예비)로서 시설개선 및 운영자금

라. 대출기간

대출일로부터 1년 거치(유예)기간 포함, 6년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운영한다.

- ① 창업자금 : 6개월 거치 및 5년간 원금균등분할상환
- ② 경영개선자금 : 3개월 거치 및 5년간 원금균등분할상환
- ③ 전통시장상인 지원 자금 : 3개월 거치 및 5년간 원금균등분할상환

* 대출금 상환기간 중이라도 신청인 요청 시 최장 거치(유예)기간 1년에서 기 거치기간을 차감한 잔여기간 동안 분할상환금을 유예할 수 있다.

마. 적용금리

- ①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 연 6.8%
 - ② 전통시장상인 지원 자금 : 연 4.0%
- * 연체율: 각 자금별 적용금리 + 연 3.0% 가산금리 적용 (거치기간은 제외)

바. 상환방법

아래 상환조건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인의 불가피한 사유에 따라 상환기간 중이라도 상환 유예 요청 시 최장거치기간(1년) 범위 내에서 기 거치기간을 차감한 잔여기간 동안 분할상환금을 유예할 수 있다.

- ① 창업자금: 6개월 거치 및 5년간 원금균등분할상환
 - ② 경영개선자금: 3개월 거치 및 5년간 원금균등분할상환
 - ③ 전통시장상인 지원자금: 3개월 거치 및 5년간 원금균등분할상환
- * 상기 거치(유예)기간 중에는 이자만 납입한다.

사. 신청 및 심사절차

우선 관심이 있는자는 ①전화를 통한 기초상담 ②신청절차 안내 ③신청서류 접수(등기우편) ④자격요건 및 서류심사 ⑤현장실사 일정통지 ⑥현장실사 ⑦현장실사 결과 및 평가 ⑧대출선정심사위원회 회부 ⑨선정심사 ⑩선정심사 결과 통지 및 약정서류 안내 ⑪지원약정 및 창업교육 ⑫자금집행 ⑬지원금 사후관리

아. 지원자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지원자선정 심사위원회 6-7명으로 구성하되, 『거룩한 빛 광성교회』 성도로서 사회적으로 인정할 만한 전문가 [진, 창업전문기관(소상공인지원센터) 종사자, 전, 제도 금융권 지점장, 자영업 운영자 등 다양한 사회경험과 전문가적 신견을 갖춘 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자. 대손발생시 처리방안

① 대손발생 사전예방을 위한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부실채권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사업부진, 사업의욕 저하, 가정사정의 어려움, 불의의 각종 사고, 재난으로 인한 상환금 반복체납, 상환의지가 태만할 경우에는 동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경영컨설팅을 통한 신규 및 부가아이템 정보제공, 업종전환, 자활·자립의욕 고취 및 유기적인 관리 등으로 부실화 사전예방을 위한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②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한 정상 상환유도

당초 대출약정 내용에 따른 상환일정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업체별 여건 및 상환능력, 향후 사업현황 등을 예상하여 상환일정 조정 등으로 상환을 향상을 적극 도모한다.

③ 사업부실에 따른 대손상각 처리 방안

사업부실로 인한 상환포기자에 대하여 철저한 재산조사 및 상환여력 등을 파악하고 채권 회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지속 관리하여 상환을 적극 유도하며, 상환능력 및 상환의지가 전무하고 회수가망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지원자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수급자 기준에 따라 재산조사 및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대손상각

처리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 위탁기관인 『미소금융중앙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 으로부터 대손상각 승인을 득한 후 대손처리 예정이다.

5. 사업추진 목표 및 방향

최근 소득양극화 심화에 따른 경제적 취약계층 양산으로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어두운 현실임을 감안할 때 당 재단이 이들의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자활지원을 통한 사회구원의 소중한 사명을 일찍이 깨달아 동 사업을 적극 추진하게 되었다.

당 재단이 동 사업을 적극 추진하던 중 정부에서도 늦게나마 동 사업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고 미소금융지원제도(2009. 9월 시행)가 마련되는 한편, 지금은 점차 확산 추세로 꺾다행스럽게 보이나, 정부의 제도 취지와 현장에서의 추진상황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당 재단은 이러한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심분 이해와 제도운영 등으로 해피뱅크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의 핵심 사항을 충분히 파악하는 한편, 그동안 축적된 경험 및 노하우를 심분 발휘하여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의 본래 취지에 적극 부합하고자 한다.

가. 세부 사업목표

목적	산출목표	성과목표
저소득, 저신용자 취약계층 창업 및 경영개선을 통한 자활 지원	○체계화된 스크리닝을 통한 우수자원 발굴	○우수자원 발굴을 위한 체계화된 종합평가시스템 - 심사기준 및 심사지침에 의거 4단계 평가 (서류심사, 현장실사, 직무능력평가, 선정심사 등) - 당 재단 운영위원을 중심으로 심사위원회 구성
	○현장중심 교육을 통한 취약계층 창업능력 배양	○선정대상자의 교육만족도 90%이상 성취
	○소자본창업으로 수익 창출과 발전 가능한 취약계층의 창업지원 모델 제시	○창업 3년 이후 생존률 95% 이상 유지
		○자금수지표 분석을 통한 매출 및 손익평가
	○경영지도 및 심리·정서적 지지를 통한 경영 활성화	○ORM의 사전·사후관리 및 심리적지지 ○선정 대상자간의 자조모임 형성
	○사업을 통한 대출지원금 상환	○95%이상 달성

나. 사전 및 사후관리 서비스 실시

취약계층의 창업지원을 통한 빈곤탈출 및 자활 목표를 두고 추진하는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의 핵심은 사전 스크리닝과 지속적인 사후관리 서비스의 질에 따라 사업의 성과가 좌우된다고 보며,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 및 제공계획을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① 사전관리 서비스

『해피월드 해피뱅크』 창업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영세자영업자들이 경영개선 또는 업종변경 및 이전창업 등으로 아이템, 사업타당성, 입지선정, 부동산 계약, 인테리어, 개업 마케팅 등의 창업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RM 또는 전문가를 통하여 성공적인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사전 컨설팅을 지원하고 아울러 심리적·정서적 지지를 해주는 서비스를 일컫는다.

② 사후관리 서비스

취약계층이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자립할 수 있도록 창업에서 경영에 이르기까지 금융지원, 창업 및 경영지도, 복지 지원을 통한 경제적 지지, 심리적·정서적 지지, 사회적 지지활동을 행하는 서비스를 일컫는다.

③ 사전·사후관리 서비스

구분	사전관리 서비스	사후관리 서비스
서비스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이템 선정 및 기술전수 지도 ○상권분석 및 입지선정 지도 ○전세점포 임대차 계약 지도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타당성 점검 지도 ○인테리어 지도 ○사업자 등록요령 및 절차 지도 ○개업마케팅 지도 ○창업능력 함양 및 기업가 정신 고취 등의 창업관련 교육 ○기타 창업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해결 능력 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출 점검 및 보완, 판촉방안, 고객관리, 경영전략 등 마케팅 지원, ○경영능력 향상 교육 실시 ○영업부진사업자 경영진단 및 활성화자문 ○지원업체 홍보 및 영업지원 ○상환관리 및 저축 습관 형성 지지 ○지역 소모임 주관 ○지역 내 네트워크 연계 활동 ○자존감 강화를 위한 각종 교육, 정보제공 ○기타 사회성 강화를 위한 격려 및 지지 ○자녀교육 문제, 주거문제, 건강문제, 가정경제문제, 기타 심리·정서적 상황 및 애로사항 청취, 정보제공, 자원연계 활동 ○자활의식 고취 및 자활의지에 대한 격려 ○기타 대표자 독려(empowerment)

④ 사전·사후관리 서비스의 세부 추진내용

구분	사전관리 서비스	사후관리 서비스
지원 방식	○직접 방문 지도 ○유선 지도 (수시)	○직접 방문 지도 ○유선 지도 (수시)
방문 지도	○업종변경 : 사안별 수시 방문지도 ex)아이템보완, 상권분석 등 컨설팅 진행 ○이전창업 : 사안별 수시 방문지도 ex)입지선정, 점포계약, 창업행사 등	○분기별 1회 방문지도 ○필요시 사안별 수시 방문지도
창업 교육	○창업기본교육, 경영실무교육 ○비전교육, 재무설계 등을 통한 미래설계	○창업 업체별 경영지원, 마케팅 교육 ○기술전수 및 보수교육 ○간편장부 및 세무교육
채권 회수	○대출지원금 특성 안내 및 상환의무 안내, 교육 등 사전관리 실시	○방문 및 유선관리를 통한 상환 이행의식 고취 ○채권회수 자문위원의 자문을 통한 적정 채권회수 조치시행
네트워크 구축 활용	<p>○취약계층에게는 창업지원이외의 심리적·정서적 지원, 미래설계 등의 재무 컨설팅 등이 절실히 필요하며, 이러한 총체적인 지원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마이크로크레딧』 지원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p> <p>○각종 지원기관과 업무협력, 제휴 방식 등을 통해 더불어 함께 만들어가는 네트워크를 조직하여 본 사업의 효과를 배가 시키고자 한다.</p> <p>○네트워크 현황: 미소금융중앙재단, 서울시, 서울시상인연합회, 소상공인지원센터, 한국자산관리공사, 타 복지기관(사회연대은행, 신나는 조합, 나눔과 기쁨 등)</p> <p>○네트워크 현황 및 활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소금융중앙재단: 동 사업 추진기관 선정 및 사업자금(지원기금) 배정 - 서울시 및 서울시상인연합회: 서울시 소재 전통시장 상인지원에 대한 추천 - 소상공인지원센터: 지원신청 상담결과 필요시 창업지원전문기관으로 안내 -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원신청 상담결과 채무 상환부담 경감 필요시 안내 - 타 복지기관(사회연대은행, 신나는조합, 나눔과기쁨 등): 정보교환 등 	

6. 지원 실적

가. 연도별 지원현황(2012.7월말기준)

구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계
업체수(건수)	82(82)	70(97)	39(61)	7(20)	198(260)
지원금액	15억원	17억4,500만원	10억5,500만원	3억2,500만원	46억2,500만원

나. 업종별 지원현황(2012.7월말기준)

(단 위: 억원)

구 분	음식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출판업	제조업	기 타	계
업 체 수	48	72	42	4	16	16	198
지 원 액	9.3	18.0	8.8	1.3	5.1	3.8	46.3

7. 사업의 구비여건 및 예산 등

가. 사업의 특성

동 『마이크로크레딧』 대출사업은 제도 금융권에 비해 먼저 지원대상이 가계소득이 낮아 대출 상환여력이 취약할 뿐만 아니라, 주변 여건의 불안정성이 높아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가족 중 질병이나, 사고발생 또는 예상치 못한 사회적인 외부 영향에 따라 사업위험에 노출 될 경우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쉽게 실패하는 취약성을 안고 있다.

나. 사업의 재원(기금)

이러한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는 대상자를 지원하는 사업임에 따라 지속적인 후원금이 뒷받침 될 경우와 외부로부터 위탁사업에 의한 운영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바, 당 재단의 경우 『거룩한 빛 광성교회』가 2007년도부터 성도들의 후원금으로 20가정에 약 1억5천만원 가량의 지원을 해 오던 중 『소액서민금융재단(현:미소금융중앙재단)』 으로부터 『휴먼예금관리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취약계층 지원사업자로 선정되어 현재까지 동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후원금에 의한 지원도 해피천사운동본부를 통해 계속되어 146가정 3억 4천4백만원(2012.6월말기준)에 이르고 있다.

다. 조직운영의 인적자원

당 재단은 『거룩한 빛 광성교회』가 출연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1만 3천여명의 교회 성도들 가운데 창업전문가, 금융권 출신 금융전문가, 자영업 대표 등으로 대출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성과 공정성을 기반으로 운영 중이며, 일선업무 담당자 또한 금융 및 창업 전문가적 소양, 취약계층에 대한 상담 및 케어, 가구부채 등 전반적인 가구 경제상황을 토대로 한 컨설팅 능력 및 소양을 갖춘 인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바, 이에 필요한 인적자원을 다양한 달란트를 가진 교회성도의 인적 풀을 활용하고 있다.

라. 사업운영비

동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제반 운영비는 위탁기관으로부터 지원되지 않고 자체적으로 조달운영 하여야하며, 당 재단의 경우 위탁기관과 협약에 따라 정한 이율(연 6.8% 또는 전통시장지원인 경우 연 4%) 범위 내에서 수취한 이자수입과 『거룩한 빛 광성교회』에서 사회

구원 일환으로 지원되는 자금으로 동 사업 운영비에 충당하고 있다.

마. 수탁절차

먼저 복지사업자로서 사업목적에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의 자활·자립지원사업』 허가(지방자치 광역단체장)를 득하고 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부터 매년 시행하는 복지사업자 모집에 응모하여(매년2-3월중) 위탁사업자로 선정되어야 한다. 단순히 목적만 갖추었다고 선정되기는 쉽지 않으며 수탁기관이 동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가 선정심사의 키포인트라고 보여 지는 바, 향후 관심과 뜻이 있는 기관에서는 먼저 자체적으로 동 사업을 추진하여 동 사업의 경험과 노하우를 충분히 축적한 후 동 운영실적을 토대로 수탁 신청할 경우 한층 선정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해피뱅크지원사례>

- 업 체 명: 21C 오디오마스터 [대표자: 변 종 식 (남/59세)]
- 업 종: 서비스/소매(전자제품수리 및 판매) ☎(010)4696-9109
- 주 소 지: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1128-1(광성노인요양홈 지하)
- 지원금액: 2,300만원(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 지원일자: 제1차(2010.10.29) 제2차(2011.7.29)

저는 처와 자녀(딸) 둘을 두었으며, 큰딸은 출가를 시켰고 부부와 딸 3식구의 가장으로서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소재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자회사에 약 10여년간 근무한 경험을 살려 삼성전자 대리점을 약 7년간 운영하는 등 어엿한 중소기업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으나, 70~80년대 고도성장 과정에서 대기업의 부당한 거래관행 등으로 쓰러린 실패의 아픔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일을 찾던 중 (주)서울양행에서 도서관리 시스템 관련 일에 약 6년간 종사하게 되었고 이를 토대로 1996년도에 또 다시 하나택(도서관리시스템개발) 회사를 창업하여 탄탄한 사업기반을 다져가고 있었습니다.

동 아이템은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전국적으로 규모가 큰 대학 중심으로 약 80개교와 시스템도입 의향을 마친 상태였고 본인의 충분한 경험 및 시장상황을 감안할 때 드디어 사업 성공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확신하여 주변에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총 투자액 약 3억원)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등록을 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으나, 시스템 출시를 앞둔 상황에서 IMF(1997년도말)상황이 도래함에 따라 미리 약속한 각 대학은 당초 배정된 예산이 모두 취소되는 등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하여 사업성공은 한순간에 물거품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기를 해보려고 다방면으로 노력을 해 보았지만 재창업은 엄두를 낼 수도 없었고 하루하루 생활고를 걱정하며 일자리를 찾던 중 서울시 인사동 소재 중앙교회에서 시설관리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도 지난날 사업실패의 아픔을 간직한 채 늘 재기의 꿈을 버리지 않았으며, 수많은 사업구상의 그림만 그리다가 현실로 다시 돌아오곤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기만 합니다. 우리사회가 개인 신용에 한번 흠이 생기면 제도 금융권에서는 아예 접근조차 어려운 현실로 재기를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여 봐도 극복하기란 쉽지 않은 현실임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광성교회가 설립한 해피월드복지재단에서 미소금융 위탁사업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창업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한줄기 빛을 발견한 심정이었으며, 당장 해피월드복지재단을 방문하여 상담한 결과 쉽게 확답을 얻지 못하였으나, 포기하지 않고 일단 지원신청서를 제출해 놓고 보자는 계산과 이제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면밀하게 창업계획을 구상하고 꼼꼼하게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기도하며 기다리기로 하였습니다.

지원신청서 제출 후 담당자의 현장방문을 통해 사업계획에 대한 점검 및 사후 예상문제점 등에 대하여 면밀히 점검하는 등 어려운 과정을 통해 지원결정을 통보 받았을 때는 그 어느 때 보다는 기쁨과 희망으로 가득 찼었습니다.

저희 사업장은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1128-1 광성요양홈 건물 지하에 약 50평 규모의 사업장에 빈티지, 엔틱(진공관,TR), 오디오, 카메라 등 고물품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 이제는 이 광명만 바라만 보고 있어도 부자가 된 듯한 느낌입니다.

그동안 약 15년가량 힘겨운 인생 여정을 되돌아 볼 때, 사업의 성공은 자신의 계획과 의지만으로 달성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며 주어진 여건과 환경을 토대로 위험관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충실히 수행할 때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저희 사업은 일상생활 중 사용하다가 버려진 고물품들을 수집하여 정성껏 수리한후 상품화하여 다시 주인을 찾아주는 일인데 저에게 주어진 남다른 달란트라고 생각하니 심신의 평안은 물론, 생계의 안정도 되찾게 되어 해피월드복지재단 관계자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해피뱅크 사역이 우리사회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금융수혜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을 간절히 기도하며 응원합니다.

★ 『 2010년도 해피월드 해피뱅크 창업지원사업』 지원 창업자: 변 중 식

[사 업 소 개]

★각 가정에서 버리기는 아깝고 그냥 방치되어 애물단지인 진공관 앰프, 장전축, 릴녹음기, 축음기, 영사기, 민속 및 골동품, 기타 이외 고물품 일체를 현장매입·교환·수리하여 기능을 회복시켜 드릴 뿐만 아니라, 옛 추억을 확실하게 찾아드립니다.

희망푸드뱅크센터

- 제 2회 대도시 부문 수상 고척교회 사역보고 -

I. 서론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대부분의 고통이 경제사회의 약자에게로 집중되고 있다. 영국, 미국 등 산업구조조정이 급격히 진행된 국가의 경우도 소득분배 악화가 수반되었으나,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확대로 불평등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그동안 한국의 사회복지는 국가의 복지적 역할을 최소화하고 그 대신 가족과 지역사회, 종교단체, 기업 등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책임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선진국에 비해 사회복지에 대한 투자가 매우 미미한 우리의 현실을 고려할 때, 사회복지부문에 대한 재정의 확대가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먹는 문제를 포함한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는 것이 기본적 권리로 인정되는 사회를 이룩하여야 한다.

최근 세계경제의 불황으로 인해 부의 양극화가 가속화되는 사회현실 속에서 빈곤층의 수적 증가가 뚜렷해지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교회가 앞장서 지역사회의 어려운 빈곤층을 돌보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척교회 실시하고 있는 희망푸드뱅크센터는 이 같은 시대적인 요청에 부응할 수 있는 중요한 사회봉사 프로그램이다. 지역의 대형식당에서 남는 음식들을 큰 교회가 반찬을 가져와서 만들어 주면 작은 교회가 반찬을 어려운 빈곤층에게 나눔으로 같은 지역의 교회 간 연합과 일치를 이룬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II. 본론

1. 고척교회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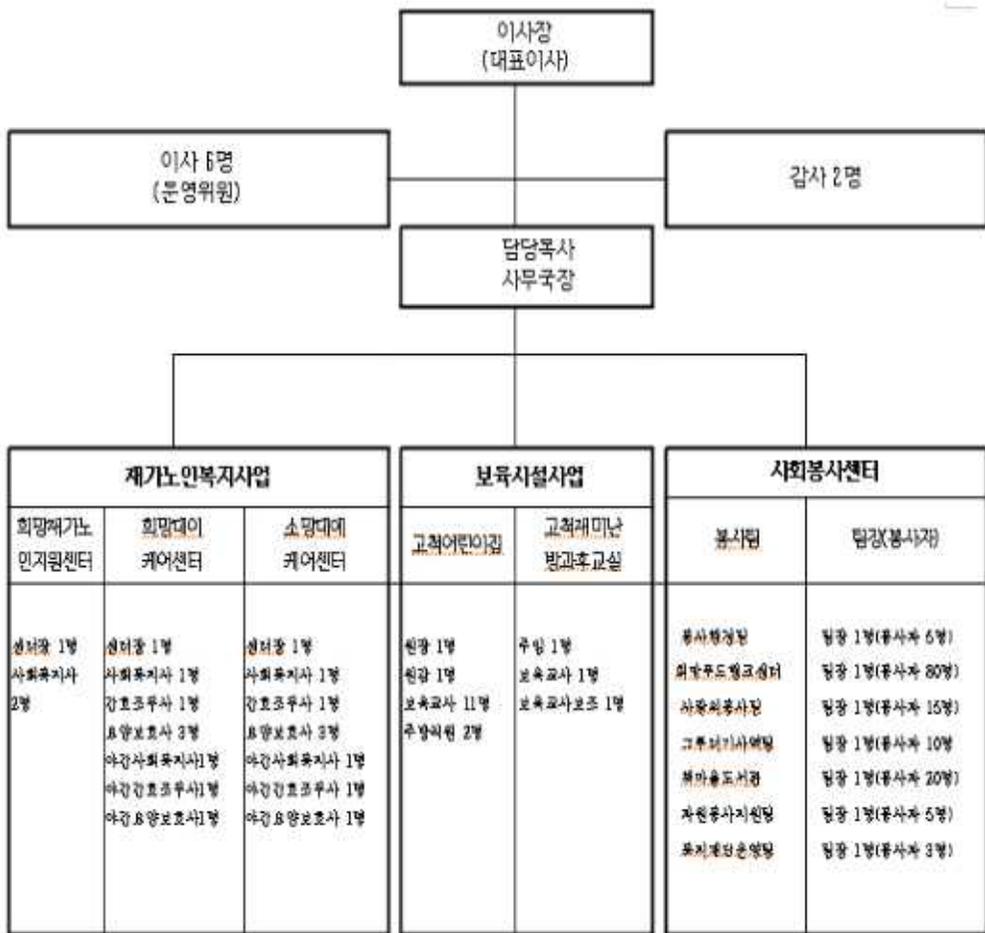
- 1954년 세워진 58년의 역사를 가진 고척교회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안으로는 사랑을 나누고 밖으로는 선교를 실천하는 좋은 교회'라는 목적을 가지고 이 시대와 세계를 밝히는 빛과 소금되는 교회이다.
-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고척교회 담임목사 조재호
- 서울시 구로구 고척로 60길 47(www. kochuck.or.kr)
- 출석교인 3,000명(성인), 1,200(교회학교)

2. 고척교회 사회복지사업 연혁

- 1954. 10. 고척교회 설립
- 1960. 10. 김제건목사 부임(1대)
- 1987. 3. 경로대학(노인교실) 운영 시작(매년 계속)
- 1993. 10. 김제건 목사(원로 은퇴) 조재호 목사 부임(2대)
- 1995. 3. 아기학교 운영(매년 계속)
- 1995. 4. 사랑의 헌혈운동(매년 계속)
- 1995. 11.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매년 계속)
- 1996. 1. 지역사회봉사 시작(매년 계속)
- 1997. 3. 문화교실 운영 시작(매년 계속)
- 1998. 6. 병원 사역팀 운영 시작(매년 계속)
- 2000. 1. 사랑의 간식(어르신대상 공원 간식제공) 사업 시작(매년 계속)
- 2002. 1. 무의탁노인을 위한 월요 사랑의 무료식탁(매년 계속)
- 2003. 5 구립고척어린이집 위탁 운영
- 2003. 6 제1차 천사운동(장애우에게 전동휠체어, 스쿠터 전달)
- 2003. 12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센터 지정(한국사회복지협의회)
- 2004. 1 사회봉사센터 설립
- 2004. 4 고척재미난 방과후교실 개원
- 2004. 5 제2차 천사운동(심장병, 백혈병 어린이 돕기)
- 2004. 7 어린이도서관 책마을 개관
- 2004. 9 문화교실 장애아동을 위한 강좌 개설
- 2005. 1. 월요사랑의 도시락 배달 시작(17가정 23개 도시락)
- 2005. 3. 행복한 나눔가게 개장(매주 수,금 개장)
- 2005. 6. 제3차 천사운동(어려운 이웃 33명 개안수술비 지원)
- 2005. 7. 행복한 나눔가게 1차 수익나무(저소득층 공과금 지원)
- 2005. 7-8. 제1기 해피청소년봉사단 활동 시작
- 2006. 5. 사랑가정봉사원파견센터 개소
- 2006. 6. 제4차 천사운동(저소득가정 생계비 지원)
- 2006. 7. 사회복지법인 희망의 복지재단 설립
- 2007. 6. 제5차 천사운동(난치병 어린이 수술비 지원)
- 2008. 6. 제6차 천사운동(북한주민개안수술비 지원)
- 2008. 7.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사업 시작
- 2009. 6. 제7차 천사운동(희귀병 어린이돕기, 난치병 청년돕기 지원)
- 2010. 2. 희망데이케어센터 개원

- 2010. 1. 희망푸드뱅크센터 개원
- 2010. 6. 제8차 천사운동(푸드뱅크 냉동차량 구입지원, 희귀병 치료비 지원)
- 2011. 2. 소망데이케어센터 개원(서울시 5억원 지원)
- 2011. 4. 희망재가노인지원센터 개원(서울시 위탁시설)
- 2011. 6. 제9차 천사운동(난치병 선교사 가정돕기, 난치병 모자가정 돕기 지원)
- 2011. 7. 힘찬병원 업무협약식 체결
- 2012. 6. 제10차 천사운동(저소득층 2가정 수술비지원 및 새순학교 컴퓨터 지원)

3. 고척교회 조직구성(희망의 복지재단)



4. 고척교회 사회복지사업의 사회적 필요성과 성서적 근거

현대 사회를 흔히 소비향락과 물질만능의 시대라고 한다. 그러나 대량소비와 물질만능의 이면에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심화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소외계층이 점점 확산되어 가고 있다. 더구나 우리 사회는 사회보장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여 최저생활을 보장받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며 이들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안전망도 매우 허술하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에서 교회는 혼자 힘으로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지역사회 공동체 속에서 새로운 삶을 소망할 수 있도록 이들을 적극적으로 돕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또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도록 국가에 촉구하며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일에도 앞장서서 사회문제를 예방하는 일에도 앞장서야 한다. 이러한 사회복지사업에 교회가 우선적으로 관심을 두고 실천해야 하는 이유는 성서 전체에 걸쳐 나타난 하나님의 명령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삶이 보여주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역사, 특히 예언자들을 통해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 또 그의 가르침과 삶은 언제나 가난하고 약한 자를 세우는 섬김의 길이었음을 보여준다.

구약성서는 출애굽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뜻은 가난한 자와 약한 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계약(출20:22-23:33)으로 표현되었고 안식년과 희년에 관한 규정들은 약한 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정신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또한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예언자들은 가난한 자와 약한 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사회정의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예수님은 전 생애를 통해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가까이 했으며 사회적, 정치적 영광과 부귀를 멀리하며 섬김 받는 왕이 되기를 거부하고(요6:15)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요13:5) 섬김의 종의 길을 택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며 최후심판의 비유(마25:31-46)를 통해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길 것을 요구하였다.

부활이후 예수의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체험을 통해 새로운 신앙공동체를 창조하는데 그들은 자기들의 물질을 나누어 궁핍한 자를 돌볼 뿐 아니라 모든 것을 나누며 성령 충만한 공동생활을 실천하게 되었다(행4:32-5:11) 성서 전체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평화를 이루어가는 모습은 오늘날의 교회가 이루어가야 할 모습이다.

5. 고척교회 사회복지사업 프로그램 소개

1) 고척교회 사회복지사업 역사

고척교회는 1954년에 세워진 58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이다. 교회가 위치한 고척동 지역은 교도소와 가까워 주거 환경이 좋은 편이 아니었다. 서울 외곽 지역에 위치한 탓에 복지시설도 부족했고 상대적으로 주민들이 복지혜택도 많이 누리지 못했다. 이런 지역적 환경에서

고척교회는 오래전부터 지역사회를 향한 다양한 지역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해왔다. 1987년부터 시작된 경로대학부터 아기학교, 문화교실에 이르기까지 꾸준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했다. 또한 2003년에는 일반 주민보다 차상위계층을 돕자는 취지에서 사회봉사센터를 세워 독거노인과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에게 본격적으로 무료급식 및 후원사업을 시작하며 점차 사회봉사 활동의 영역에 확대하였다. 교회의 사회봉사 활동이 진행되면서 교회 밖 지역주민의 필요와 욕구들을 더 잘 알게 되면서 지역주민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복지 및 사회봉사활동을 행함으로써 지역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라는 인정을 받았고 그 결과 서울시와 구청으로부터 많은 복지사업을 위탁받을 수 있었다. 2003년도에 구립어린이집을 위탁 받았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맞벌이 부모의 어린이들을 위한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도서관을 상시 운영함으로써 구청 및 지역단체들과 함께 협력하며 지역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게 되었다. 2006년도에 설립한 사회복지법인 희망의 복지재단을 통하여 고척동에 희망데이케어센터, 오류동에 소망데이케어센터 그리고 양천구에 희망재가노인지원센터를 개원하는 등 여러 종류의 사회복지기관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2) 프로그램명 : 희망푸드뱅크센터

(1) 시행동기 및 역사, 시행조건

푸드뱅크는 1967년 미국의 자원봉사자인 John Van Hengel에 의해 세계에서 처음 푸드뱅크 사업이 시작되어 캐나다, 프랑스, 독일, 유럽연합, 호주 등에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1998년에 푸드뱅크를 도입하여 전국의 지자체 별로 푸드뱅크를 운영 중에 있다. 푸드뱅크는 여유 식품을 무상으로 기탁 받아 음식이 부족하여 굶거나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 및 사회복지체계를 통칭하며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희망푸드뱅크센터를 시작하게 된 동기는 필자가 미국의 한 교회를 방문했을 때 주일이면 각종 음식과 옷들을 인근마트나 음식점에서 기부를 받아 교회의 한 곳에 진열해 놓으면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이 부담 없이 가져가는 모습을 보고 한국에 있는 교회에서도 이러한 나눔 사역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희망푸드뱅크센터를 설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2) 목적 및 목표

푸드뱅크는 음·식료품 제조업, 도·소매업자로부터 식품을 기탁 받아 어려운 이웃에게 연결·전달함으로써 이들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최근 환경부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한해 동안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를 돈으로 환산하면 14조7천 억원이고 그 처리비용만도 4천억원에 이른다. 이만한 돈은 연간 자동차 수출액과 맞먹고 서울 상암동 축구장을 70개 이상 지을 수 있는 예산이다. 우리나라에서 버려지는 가정 쓰레기의 약 65% 정도가 음식물 쓰레기이다. 음식들이 대책 없이 낭비되는 우리 사회에 푸드뱅크

의 음식재활용 체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다. 푸드뱅크는 남은 음식을 통해 나눔 문화와 공동체의식을 확산하고 식품자원의 낭비를 줄이는데 있는 것이다. 생산·유통·판매·사용과정에서 남겨진 식품을 어려운 이웃에 전달하여 유용하게 활용토록 연결하는 과정을 통해 이웃을 생각하는 공동체의식을 심어주고, 식품자원을 아끼는데 목적이 있다.

(3) 시설, 인력, 재정

시설 -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희망재가노인지원센터 내 푸드뱅크센터를 설치함으로써 지역사회 여러 기관이 함께 동참 할 수 있는 곳으로 하였다.

인력-고척교회 희망의복지재단에서 주관하여 희망푸드뱅크센터 팀장을 임명하고, 매년 교회 내 자원봉사자 인력을 확보 한다.

재정-희망푸드뱅크센터의 예산은 교회에서 연간 운영비 일천만원을 지원하고, 기업은행에서 오백만원을 푸드뱅크 사업비로 후원하고 있다.

(4) 프로그램 내용

2010년 1월부터 시작된 희망푸드뱅크센터는 고척교회가 주체가 되어 구로구에 있는 작은 교회와 연합으로 사역이 시작되었다. 고척교회에 속한 자원봉사자가 금천구 가산디지털 단지 안에 있는 대형식당에서 그날에 남은 음식을 기탁 받아 냉동차량 2대로 희망푸드뱅크 센터로 가져오면 교회 여전도회에 속한 봉사자분들이 음식을 위생적으로 포장하고, 분류해 놓으면 구로구의 20여 곳의 작은 교회 목사님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음식을 나누어 주고 있다. 처음에는 대형 음식점에서 인식이 부족하여 음식을 추가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거나 별도의 일손이 들어간다고 거절하는 업체도 있었다. 그래서 푸드뱅크는 남아서 버려지는 음식을 가져가는 것이고, 음식물도 냉동차량으로 안전하게 가져오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10여 곳이 푸드뱅크 후원업체로 등록되어 있어서 미리 보내준 빈 반찬통에 후원업체에서 남은 음식을 채우면 영양사의 감독 하에 냉동차량으로 희망푸드뱅크센터로 가져와 재 조리와 위생포장을 하고 각 지역별로 분류를 하면 작은 교회 목회자와 봉사자들이 가져 가서 나눔의 사역을 담당하는 것이다. 푸드뱅크 사역에서 중요한 것은 교회간의 연합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같이 감당하는 것이다. 푸드뱅크에서 흥미로운 것은 고척교회를 중심으로 지역의 작은 교회 20곳이 푸드뱅크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싹틔줄처럼 퍼져 있는 작은 교회들이 지역 사정을 구석구석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뤄진 일이다. 이 때문에 푸드뱅크는 자연스럽게 지역 주민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면서 작은 교회도 도움이 되는 교회연합 봉사사역으로 정착하게 되었다.

(5) 협력기관

- 구로구청, 나눔과 기쁨 구로지부, 가산디지털 단지 구내식당, 푸드뱅크에 참여한 구로

(6) 파급효과

희망푸드뱅크센터를 시작 할 때는 후원식당 1곳과 30가정에서 출발하여 2년 8개월이 지난 지금 후원식당 10곳으로부터 후원받아 한주에 1500여 개의 반찬 도시락을 만들어 400여 가정에 전달하고 있다. 장애인가정을 비롯한 독거노인가정, 소년소녀가정, 다문화가정 등에 푸드뱅크 음식들이 정성스럽게 전달이 된다. 음식 후원업체에서는 법률에 따라 세금감면 혜택을 받고, 희망푸드뱅크센터를 후원하고 있다는 인증서도 받는다.

(7) 평가

고척교회는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사회봉사 활동을 하기 위해 전문적인 평가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사회봉사 활동의 설정, 진행방법, 결과 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를 하는 것은 지역사회 주민에게 도움이 될 뿐만이 아니라 봉사활동 중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의 조기 발견하고 시정 할 수 있으며, 전체 봉사활동의 목적성, 방향성, 그리고 전진성 등 여러 가지 긍정적 결과를 주게 된다.

(8) 지역사회 연계

고척교회는 일반 공공기관, 사회복지 기관과 협력하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교회의 사회봉사는 지역주민, 또는 시민을 중심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이들의 복지 문제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행정 당국이나 사회복지 기관들과 유기적인 협조관계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들의 기관을 통해서 행정적 도움을 받거나, 타 복지 기관에 의뢰를 요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관과의 유대는 교회에서 실시하는 사회봉사를 일반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며, 이러한 기관과의 유대는 결국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체계와 교회의 사회봉사 체계가 융합을 이루어 보다 효과적이고, 지역 주민 모두를 위한 사회봉사가 되는 것이다.

6. 고척교회 사회복지사업 활성화 방안과 전략

1) 일반 교인들을 중간지도자로 세워 사회봉사의 전문 인력을 키우는 운영방식

많은 교회에서 봉사자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반면 고척교회의 사회봉사 프로그램들은 전체적인 지도와 기획은 전담 교역자가 맡지만 개별 사회봉사 프로그램의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모두 평신도이다. 팀장과 사역장 체계로 분야별로 자체모임을 통해 운영되며 중점사업만이 계획수립과 집행단계에서 담당교역자가 결합하는 구조이다. 각 분야별 봉사활동들은 주간, 월 단위로 보고서가 작성되는 보고체계를 갖고 평신도 중심의 봉사구조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있다. 이런 평신도 중심의 구조가 정착될 수 있었던 것은 현재 각 사역과 팀

의 담당자들이 몇 년째 같은 분야에서 봉사를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실무적 훈련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며 사회봉사를 본인의 소명으로 고백하고 교회는 격려하는 분위기가 정착되었기 때문이다.

2) 자원봉사자 교육과 훈련

고척교회는 해마다 연초에 자원봉사자 세미나를 개최하여 사회봉사에 대한 기술과 방법을 습득하고, 복지재단 헌신예배를 통해 봉사자들의 헌신적인 봉사정신을 다지고 있다. 또한 수시로 자원봉사 교육을 통한 자질과 기초 상식을 가르친다. 자원봉사자는 사람들과 직접 접촉하는 일이기 때문에 봉사자의 교육과 훈련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3) 사회복지 전문가 직원 채용을 통한 전문성 강화

고척교회는 사회봉사 활동 자체의 전문성 강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사회복지를 전문한 전문가 직원을 두었다. 또한 지역과 함께하는 교회로서 지역사회복지를 위한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고 있다. 다양한 지역사회 활동에 대해 중심을 잡아주고 각 활동들의 내실을 다지며 장기 발전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꾸준히 교회의 사회복지활동을 고민하고 계획하는 전문가 직원이 필요하다.

4) 일회성 봉사 프로그램들의 지양 및 일대일 보호와 관리를 통한 통합적 서비스

구체 성격을 갖는 봉사프로그램들(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지원사역등)은 일반교회에서 대부분 여전도회나 남선교회에서 물질적 지원에 국한된 봉사가 대부분이며 절기나 특별한 기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고척교회의 프로그램들은 각 사역마다 독자적인 팀이 구성되어 일년 동안 한 봉사자가 한명 혹은 세명 정도의 대상자를 위해 꾸준히 봉사하게 되기에 물질적 영역뿐 아니라 일상적인 건강관리와 필요한 욕구들을 점검할 수 있고 전체적인 논의를 통해 보다 나은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한다.

또한 기본 1년 봉사의 원칙으로 봉사를 신청한 교인은 1년 동안 봉사하는 가운데 대부분 봉사하는 방법과 원칙들을 알게 되고 대상자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되어 지속적인 봉사를 결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시적이지 않은 장기적인 계획 속에 진행되는 활동들이 봉사자들을 봉사의 필요성과 봉사의 기쁨을 충족시켜주게 된다.

5) 사회복지 봉사활동 인증센터 지정을 통한 자원봉사 활동의 전문적 관리

고척교회는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센터 지정을 받고 구로구 자원봉사센터에 봉사단체로 가입되어 정부차원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협력하며 전산관리 및 포상 등을 통해 자원봉사자의 자부심 고취 및 사회적 격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III. 결론

그동안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교회 울타리 안에서의 봉사를 강조하고 교인끼리의 상부상조에 역점을 두어 온 것에 비해 정작 교회 밖의 이웃을 섬기고 그들과 함께 나누는 일에는 미흡했다는 점을 솔직하게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주일에 교회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성 교인이 많은 데 비해 평소 교회 밖에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실행 일치된 균형적 십자가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은 적다. 한국 교회가 교인들의 믿음이나 전도역량에 비해 이웃 사랑 실천이 취약하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는 교회가 성장지향적인 케리그마(말씀선포)와 디아스포라(흩어져 전도)에만 치중하면서 상대적으로 디아코니아(이웃 섬김과 함께 나눔)에 대한 사명의식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사람의 본질을 가장 잘 이해하고 그 본래의 성품을 회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를 따르는 지체들의 모임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가르침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란 뜻이다.

교회는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과 그분의 사역을 이어서 수행해야 할 사명이 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 살리는 일을 하신 분이다. 마땅히 교회도 사람 살리는 일을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이요 본질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회봉사를 부수적인 사업의 하나로 결들이는 것이 아니라, 사회봉사를 교회의 본질적인 실천 사업 가운데 하나로 인식해야 한다. 사회봉사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교회의 사회봉사는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의미한다.

현재 고척교회에서 실시하고 희망푸드뱅크센터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아주 기본적인 의무이자 성경의 가르침을 지키는 것이다. 음식을 나누는 일은 생명을 나누는 일이다. 성경에서도 음식을 나누어 주는 일은 생명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신명기 14장 2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음식을 나눠줄 것을 명하셨고, 가난한 자에게 음식을 나누어주는 이에게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이러한 점에서 푸드뱅크 사업은 반찬을 주는 일 뿐 아니라, 사랑을 주고 생명을 주는 일이다. 따라서 교회는 상호배타적인 자세로 교인들과의 관계만 추구하는 별천지의 집단이 되어서는 안 되며 모든 지역주민과 함께 상호작용하면서 지역사회의 복지수요에 귀 기울이고 지역주민과 함께 나눔공동체, 복지공동체를 이루어나가야 한다. 급변하는 지역사회의 복지 환경은 교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교회는 이러한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여 복지서비스 공급주체가 되어 지역사회를 복되게 변화시키는 노력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임산부 학교

- 제 7회 중소도시 부문 수상 광양대광교회 사역보고 -

시작하는 말

광양 대광교회는 **아쿠아(문화,교육), 아로마(섬김과 나눔), 아가페(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로서 그 꿈을 이루어가고 있다. 이 꿈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교회는 지금까지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여러 부설기관들을 개설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임산부학교, 아가방, 엄마랑 아기학교, 어린이집, 선교원, 꿈샘지역아동센터, 외국인이주여성 도우미센터, 아로마상담센터, 아로마웰빙센터, 장수학교, 아로마제가노인복지센터&요양원, 아로마요양보호사교육원 등 다수의 기관들이 설립되었고,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와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일에 함께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면서 지역사회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동역자이고 자원이며 희망이 되어 주었다. 지역사회가 교회를 향해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꿈을 꾸고, 같이 걸어가고자 하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는 이제 더 이상 교인들만의 교회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교회로 변해가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돌아보면 지금까지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은 교인들 보다 **지역사회 주민들이 더 많았다.** 이는 교회를 향한 지역사회 주민들의 마음이 많이 열려졌다는 것이며, 교회도 **지역사회의 아픔과 필요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는 교회와 지역사회 그리고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고 있다고 확신하다. 바로 이 기쁨의 시작, 첫 번째 프로그램이 임산부 학교이다.

1. 임산부 학교 소개

14년 전 필자가 광양에 내려 왔을 때 교회는 본당건축과 전임목회자 문제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교회였다. 부임 후 처음 인근 마트에 아내와 함께 물건을 구입하러 갔는데, 성경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 마트 주인은 우리 부부에게 '교회 다니세요?'라고 물었고, 필자가 광양대광교회에 담임목회자로 온 사실도 모르고, '광양대광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이니 그 교회만은 다니지 말라'는 진심어린 충고(?)를 받았던 기억이 있다. 아니나 다를까 30대 후반

의 다소 어린나이에 부임한 첫 담임목회 사역지는 그때까지도 매듭지어지지 못한 많은 문제들로 인하여 수많은 좌절과 걱정거리를 안겨다 주었다. 서울에서 내려올 때는 '광양'에 가는 줄 알고 사명에 불타는 마음으로 내려왔는데, '광양'이 아니라 마치 '광야'에 온 것 같은 마음이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 필자의 마음에 허락하신 비전은 '매마른 광야도 물이 있으면 얼마든지 옥토가 될 수 있고, 푸른 초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때부터 필자는 '아쿠아 사역'에 대한 비전을 꿈꾸게 되었다. '지금은 사람들이 광양대광교회는 절대 다니지 말라고 말하지만, 조만간 그들 스스로 교회를 찾게 될 날이 있을것이라고' 꿈꾸면서 교회가 지역사회에 물처럼 스며들어 갈 방법들을 찾게 되었다.

먼저 필자는 교인들에게 1년 동안 물에 관한 설교를 통하여 아쿠아의 비전을 공유하는 한편, 지역사회에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을 찾기 위하여 동사무소와 시청을 찾아가 지역 주민 현황과 지역에 관한 각종 통계 자료들을 구하기 시작했다. 이는 교회가 지역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고, 지역에 행복을 전하며 복음을 전파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지역 상황을 조사해 볼 필요를 느꼈기 때문이다. 그 자료들을 살펴보니 교회 주변 지역이 제철소와 컨테이너 부두를 중심으로 직장인들과 그 가족들이 주 구성원을 이루고 있으며, 결혼 한지 5년~10년 이하의 젊은 층 인구 분포가 매우 높았고, 전국에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가임 인구비율이 최고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하여 이들 젊은 가정들과 접촉점을 찾기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기도하며 목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교인들도 젊은 연령층이 주 구성원을 이루고 있었고, 심방하는 일 중에서도 자녀를 잉태하고, 출산하고, 또 일 년 후에 돌을 맞아 감사예배를 드리는 일이 많았다. 특히 임신 출산의 과정에서 여성들의 호르몬 변화로 인한 우울 증상, 입덧과 함께 찾아오는 식생활의 변화, 출산에 대한 두려움, 출산 후 산후 조리 및 육아 문제. 이런 것들이 목회적 돌봄의 대상으로 주변에 존재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들을 위한 배려가 있어야 했고, 그 방안으로 임신부 학교가 시작되었다.

·광양대광교회 임신부 학교의 주요 연혁 및 사업

- 2000년 3월 제 1기 임신부학교 개교
- 2005년 1월 CTS TV 뉴스와이드 "광양대광교회"편 방영
- 2007년 10월 광양평생학습축제 참가
- 2008년 9월 제1회 교육박람회 세미나 및 홍보부스운영 (서울명성교회)
- 2008년 10월 광양평생학습축제 참가
- 2009년 2월 "결혼한 그리고 결혼을 앞둔 당신에게"-신비한 생명탄생이야기 공개세미나
- 2010년 2월 CTS주최 '출산장려를 위한 영아전담시설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참여
- 2010년 11월 광양시 표창 : "임신 출산 및 양육환경조성에 기여"
- 2010년 9-11월 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선정-"해피맘 스쿨"
- 2011년 9-11월 광양시 교육체육지원과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공모사업 선정
- 2011년 7월 비영리 법인단체 등록 '대광임산부 학교'
- 2011년 8월 보건복지부장관상 표창-"임신 출산 및 양육환경조성에 기여"
- 2012년 3월 '다문화가족을 위한 임신부학교' 실시
- 2012년 6월-11월 광양시 평생학습프로그램 공모사업실시, 여성발전자금 공모사업진행

2. 임신부학교의 필요성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마지막에 주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 최종적인 축복이라 한다면, 임신과 출산의 과정은 최초의 축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기독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누구나 임신과 출산의 신비 앞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임신부 학교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신비 앞에서 자신의 나약함을 겸손하게 고백할수밖에 없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옵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 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태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의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시 139:13-16).

임신과 출산의 과정은 누구에게나 축하받고 지지받아야할 시간이며,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사랑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시간이다. 나아가 임신과 출산의 과정은 한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기대하고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임신부들과 그 가족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게 되며, 더불어 새 생명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창조적 사역에 동참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생명의 잉태와 출산의 과정은 기쁨과 감사의 시간임과 동시에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시간이기도 하며 이러한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누군가의 심리적 지지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간이다.

사실 어느 나라나 임신을 하면 산모뿐 아니라 온 가족이 예전보다 더욱 말이나 몸가짐을 조심하게 되고 다양한 방법으로 태교에 힘쓰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임신부들이 임신과 출산의 과정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지만 잘못된 습관이나 지식 등으로 인하여 유산이나 조산, 우울증, 정서적 불안감, 죄책감 등을 경험하는 안타까운 현실들을 자주 접하게 된다. 더구나 최근 들어 산부인과 병원의 경영악화로 인하여 임신부들이 가까이에서 도움을 받을 만한 기관들도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며, 핵가족화의 영향으로 인하여 부모나 형제로부터의 도움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임신부들의 어려움은 이전에 비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임신과 출산은 신앙적 측면에서도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한다. 임신과 더불어 기존의 거의 모든 교회의 봉사활동을 그만두어야 하고, 교회의 다양한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어려워지며, 제대로 예배를 드리기도 어렵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로 인하여 임신부들은 여러 가지 신앙적 문제에 접하게 되며,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 어린이집 등에 맡겨질 때까지의 2-3년 동안은 신앙의 유예기 또는 정체기를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교회는 임신부학교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임신부들이 임신과 출산의 시기에 신앙적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지하여야 하며, 이를 계기로 오히려 임신부를 포함한 온 가족의 신앙을 한층 성숙시키는 기회로 삼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된다.

임산부 학교가 필요한 또 다른 이유 중의 하나는 임신부 학교가 하나님의 사랑과 신비를

가장 잘 가르쳐 주는 좋은 신앙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임신부 학교는 그 특성 상 모든 과정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는 곳이 될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기존 신앙인들에게는 신앙 성장의 기회가 되는 한편, 비 신앙인들에게는 복음증거의 장으로서 그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임신부 학교는 태어날 자녀들의 입장에서 보면 생애 첫 시기를 교회에서 시작하는 것이고, 이는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다양한 후속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관계망을 가진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아이들과 엄마들은 지속적으로 교회와 관계를 유지하게 되며, 교회의 관련 프로그램인 엄마랑 아기학교, 아가방, 어린이집, 선교원, 교회학교, 무지개 주말학교 등에 계속해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3. 임신부 학교의 가치

임산부학교의 가치는 여러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임산부들에게 생명의 존엄성을 다시 확인시켜 줌과 동시에 어머니로서의 자존감 확립 및 육아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게 하는데 가장 큰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저 출산 고령화시대로 인한 사회계층간의 부조화 및 가족 간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준비되지 못한 임신과 출산 그리고 양육과정에서 비롯된 추후의 문제들을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임신부 학교의 가치를 요약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선교적 측면에서 그 가치가 있다. 임신부 학교 과정을 통하여 많은 임산부들이 태중에 있는 아기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게 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육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보다 깊이 있는 신앙의 수준으로 나아가게 된다. 사실 신앙생활을 잘 하던 사람들도 임신을 하고 부터 출산과 회복의 기간 동안까지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힘들다. 일종의 '신앙의 정체기'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이러한 시기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과정이 바로 임신부 학교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신앙이 없는 임산부들이라 할지라도 임신 기간 동안은 아기를 위하여 무엇이든지 해 주고 싶어 하며, 또한 심리적으로 불안한 시기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어 한다. 이러한 임산부들에게 임신부학교는 좋은 '신앙의 접촉점'이 될 수 있다.

둘째, 임신부학교는 부모 교육적 측면에서 그 가치가 있다. 임산부들을 대할 때 느끼게 되는 것은 의외로 임산부들이 임신과 태교 출산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사실이고, 그 결과 매우 불안해한다는 것이다. 임신부학교는 이런 임산부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그런 불안에서 벗어나게 해주며, 미래의 아기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신앙 안에서의 자연스럽게 부모로서의 역할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지며 태어나는 아기에겐 신앙적인 좋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셋째, 사회 복지적 측면에서 그 가치가 있다. 교회는 산부인과 병원이나 유치원이나 문화센터가 아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지역사회를 위해 열려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교회의 본질인 복음증거의 접촉점을 마련하고, 그 문을 활짝 열어놓아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임신부학교는 그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교회가 찾아가 아파트 문을 두드리고 목소리를 높여 전도를 해도 이제는 관심을 갖는 이들이 적다. 이제 교회는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오는 곳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목적과 필요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필요를 파악하고 그들이 스스로 찾아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안에서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복지는 특별한 것이 아니다. 복지는 그들이 필요한 것을,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돕는 것이다. 또한 복지는 일방적으로 베푸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값싼 동정으로 여겨질 수 있고, 오히려 거부감이나 반감으로 나타날 때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임신부학교는 사회 복지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4. 지역사회와 임신부학교

교회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지역사회와 소통하기를 원한다면 교회의 독특성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위한 지역사회에의 참여, 지역사회와의 수평적 대화 시도, 지역사회와 합의의 과정에의 참여, 지역사회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포용성을 보여주는 일, 지역사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일, 지역사회의 합의에 적극 지지하는 일, 나아가 이러한 지역사회의 공공성에 이바지 하고, 지역사회의 규범과 체제를 공적으로 만드는 일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임산부학교를 비롯한 본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은 교회보다 지역적 현황과 여건을 우선하여 반영한다. 이를 위해 수시로 주민자치센터와 시청 등에서 지역 주민들의 현황과 각종 통계자료를 구해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교인들을 비롯한 지역사회의 필요에 대해 철저하게 분석한다. 광양은 광양제철소와 컨테이너 부두를 중심으로 새로 형성된 신도시인 까닭에 결혼 한지 10년 이내의 비교적 젊은 가정이 많은 편이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교인 또한 젊은 층이 많은 편이다. 그리고 임산부들은 대부분 고향을 떠나 낯선 곳에서 임신과 출산이라는 두렵고 떨리는 현실을 혼자 감당할 수 밖에 없고, 임신과 출산과정 중에 발생하게 되는 우울증이나 입덧 등으로 인한 식생활의 변화나 심리적 불안감은 신앙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으로부터 적절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임산부들의 이러한 어려움은 교인들뿐만 아니라 이 지역 전체의 것이며, 지역사회 전체가 목회적 돌봄의 대상임을 알게 되었을 때 임신부학교도 시작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최근에는 다문화가정의 증가로 말미암아 이주여성들의 임신부학교 참여가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이주여성들은 대부분은 20대 초반에 해당하는 가임 가능한 여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임신과 출산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게 된다. 나아가 이들이 낯선 나라에서 준비 되지 못한 임신과 출산의 과정을 지내오는 경험하게 되는 문제들은 그들의 가정을 넘어 사회문제로까지 확대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처음에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던 임신부학교에 이주여성 임신부들이 함께 참여시키게 되었는데, 2년 전부터는 보다 더 체계적이고 세밀한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을 위한 임신부학교’를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

5. 임신부학교의 목적

“마노아가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가로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의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하사 그로 우리가 낳을 그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삿 13:8)

임산부학교의 목적은 기존 신앙인과 비 신앙인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기존 신앙인에게 있어서 임신부학교의 목적은 임신부학교를 통하여 임신부들이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있다. 기존 신앙인들이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는 기간에는 대부분 신앙의 유예기간을 경험하게 된다. 가장 축복받은 시간에 감사와 소망 중에 태어날 생명을 기다려야 하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여러 가지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신앙적 단절의 시간을 보내게 된다. 대체적으로 생명을 잉태하고부터 어린 이집에 보내기 전까지의 시기는 신체적, 정신적, 신앙적으로 신앙의 침체기에 접어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교회의 봉사를 중단하게 되고, 예배 출석의 어려움을 겪게 되거나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고, 여러 가지 사회적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된다. 나아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도 있고, 심할 경우에는 산 전, 산 후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러한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임신부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교회의 여러 가지 다른 프로그램에 견주어 볼 때 상대적으로 미비했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산모와 아기들에게 있어서 이 시기는 새로운 신앙의 도약을 경험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된다. 나아가 온 가족이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시기이며, 전도의 소중한 기회를 얻는 시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교회는 임신부와 그 가족들에게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러한 노력은 단순히 지역사회나 교회의 영역을 넘어 심각한 저 출산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시대적 요청에 응답하는 것이며, 생명의 근원되신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는 선교적 활동이라 할 수 있다.

광양대광교회의 임신부 학교는 ‘성서적 태교’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교회 임신부

학교에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임산부들이 더 많이 참여하고 있다. 그래서 병원이나 문화센터 같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운영 목적은 '신앙 안에서 태어날 아기를 맞을 최상의 준비를 하는 것'에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신체적, 정신적, 신앙적으로 영적 부모가 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교회 임산부학교에서는 성서적 태교를 통하여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보내주시고, 맡겨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임을 알게 하며(시 22:9-10, 139:13, 렘 1:5, 사 46:3-5, 49:5), 앞으로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돕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이러한 목적을 이루는데 있어서는 건강한 가정의 회복이 필수적이며, 올바른 부모로서의 역할을 이해하고 준비하도록 돕는 일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시키며 이를 위해 태아교육과 더불어 부모교육과 자녀교육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도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임산부학교가 단순히 임산부만을 위한 태교프로그램에 그치지 않고, 가족들과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건강한 가정'과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결국 임산부학교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첫발걸음이 되는 것이다. 오늘날 저 출산의 문제는 한 가정이나 지역사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임산부학교는 그 가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임산부학교는 개인적 측면에서는 한 생명을 천하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는 곳이며, 공동체적 의미에서는 건강한 가정과 지역사회를 넘어 하나님 나라의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곳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교회의 사역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6. 임산부학교 준비과정

임산부 학교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보통 몇 단계의 준비과정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준비과정은 임산부들의 특성상 다른 어떤 프로그램보다 전문적이며 영적인 필요를 반영하는 것이어야 한다.

1) 자료준비 및 교육과정 설정

임신은 신비이다. 우리의 이성과 지성으로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벽찬 현실이다. 따라서 많은 임산부들은 이러한 현실 앞에 불안해한다. 이런 임산부들을 대하는 임산부학교는 당연히 그 준비과정이 포괄적이고 전문적이며 영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임산부 학교 교육과정에 필요한 모든 자료들은 전문성과 영성을 염두에 두고 다방면에서 포괄적으로 준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교회 임산부학교는 임산부와 관계된 서적들과 신문, 잡지, 비디오, 인터넷

등을 통해 자료를 모은 후 정리 작업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임산부들에게 필요한 교육영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고, 임산부 학교 운영의 큰 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 최근에는 기독교적 시각에서 만들어진 임산부들을 위한 좋은 교재들도 구할 수 있고, 공영방송이나 EBS프로그램 등에서도 좋은 자료들을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 나아가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보건소, 산부인과, 산후조리원, 평생교육원 등에서도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을 얻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많은 자료를 모으기 전에 먼저 임산부들의 필요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필요에 부합하는 자료들을 선별하여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2) 교사진 구성 및 교육 (지원.신청→교육→배치→훈련→feedback)

교육내용과 커리큘럼이 정해지면 각 영역별로 봉사할 수 있는 교사들과 봉사자들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교회의 형편에 따라 모든 교사들과 봉사자들을 다 교회 안에서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럴 때 교회는 지역사회로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에는 병원, 사후 조리원, 대학, 건강가정센터, 상담소, 음악학원, 요가학원, 문화센터, 평생교육원 등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들이 있다. 교회는 상황에 따라 이런 지역사회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본 교회는 먼저 교인들 중에서 가정학이나 상담학이나 간호학 등을 전공한 사람들을 찾고, 노래와 체조, 율동 등에 재능이 있는 교인들을 찾았다. 그리고 영상이나 차량, 간식 등을 담당해줄 봉사자들을 찾았다. 그런 후 각 영역별로 임산부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을 준비하게 하였다. 준비된 자료들을 정리하는 동시에, 이미 출산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내용을 준비하게 하였다. 이러한 준비기간은 교회마다 다를 수 있지만, 본 교회는 약 6개월 정도의 준비기간을 두고 준비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전문가의 조언과 교육을 필수적으로 받았다. 왜냐하면 교사들이 임신과 출산의 경험을 가졌고, 관련 영역에서의 풍부한 경험이 있다고 할지라도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있는 임산부들을 가르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임산부들은 지속적으로 병원이나 책자나 많은 관계들을 통하여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있다. 오히려 정보가 지나쳐서 잘못된 정보에 접하거나 혼란스러워할 때도 많다. 이러한 현실에서 교사들도 반드시 그 준비과정에서 전문가의 조언이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본 교회 임산부학교 교사들은 산부인과 의사와 간호사를 초청하여 집중 강의를 받거나 산부인과 병원에서 산모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출산 교육에도 참여하고, 교육내용과 관련된 학과 교수를 초청하여 세미나를 들었다. 이러한 준비 과정을 통하여 교사들은 이론과 현장사이의 공간을 줄여나갈 수 있었고, 임산부들에게 피부로 와 닿는 교육내용을 준비할 수 있었다.

운영 Tip 지역사회 역량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교회는 시설, 인력, 예산 등에서 그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혹 그럴만한 역량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가능하면 교회는 지역사회와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선교적 디딤돌을 마련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임신부학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산부인과, 산후조리원, 보건소, 건강가정지원센터, 영.유아전문 사진관, 어린이집, 영.유아 전문 어린이집, 시청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 인구 늘리기 관련 단체, 병원, 영.유아 용품점 등과 협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준비과정에서부터 이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야 한다. 물론 이럴 경우 교회가 일방적으로 일해 나가는데 제약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교회는 지역사회와 함께 나아가야 한다. 그래야 임신부학교가 단순한 교회만의 프로그램에 그치지 않고 사회의 프로그램이 되고, 교회 또한 지역사회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3) 훈련 및 준비

준비와 훈련기간 중에 임신부 학교에서 사용할 교안을 마련한다. 그러나 교안만으로는 부족하다. 준비된 교안을 잘 가르칠 수 있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는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처음 시작하는 교회는 반드시 먼저 교인들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시범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들을 점검하고 수정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될 때, 교사들은 점차 자신감을 갖게 되고, 프로그램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기회를 갖게 된다.

이런 훈련의 과정이 끝나면 보다 세밀한 부분의 준비가 필요하다. 그것은 수업시간에 사용할 자료들을 정리하거나 만드는 작업이다. 기본적으로는 교재와 영상자료들을 잘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시중에 나오는 자료들은 그 내용이 좋더라도 짧은 수업시간에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임신부들의 신체적 상황이나 수업 시간 등을 고려하여 적당하게 편집하여야 하며, 이런 자료들의 지속적인 개발 및 정리가 필요하다. 자료를 업그레이드 할 시기는 대체적으로 둘째 아기를 가질 때까지의 2-3년이 좋다. 그리고 처음 임신부 학교를 시작하는 교회에서는 교육장소 선정 및 교육 기자재를 확보하는데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임신부학교에 적합한 장소는 쾌적하고 안전한 곳이어야 한다. 많은 계단을 오르거나, 오랫동안 책상에 앉아있어야 한다거나, 수업 중에 많이 이동해야 하는 곳은 피해야 한다. 또한 환기나 조명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바닥이 딱딱하지 않도록 임신부 전용매트를 확보하여야 하고, 앉아서도 몸을 기댈 수 있는 낮은 책상 등도 필요하고, 둘째를 임신한 경우에는 데리고 오는 첫째 아이들을 돌봐줄 놀이방도 갖추면 더 좋다. 물론 기본적으로 영상기자재나 간식이나 요리에 관련한 도구, 야외 활동시 필요한 도구, 그릇류, 행정에 필요한 카메라, 명찰, 노트북 등 필요한 도구나 기자재를 확보하고 그 활용방법도 숙지하여야 한다.

4) 홍보

임산부학교를 지역사회에 소개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교회와 복음이 함께 알려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홍보에 많은 관심과 투자가 있어야 한다. 본 교회는 지역적 특성으로 인하여 임산부들이 많았고, 또 그 분포범위가 넓지 않았기에 초창기에는 주변의 산부인과 대기실 등에 홍보물과 소책자를 만들어 비치하거나, 교인들로 하여금 소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점차 지역 임산부들이 줄어들게 되자, 보다 적극적인 홍보 방법을 찾게 되었다. 그 좋은 방법이 교회에서 임산부를 위한 세미나를 갖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인근 산부인과 병원의 협조를 얻어 각 병원에 다니는 임산부들을 참여시키고, 제대혈 은행이나 분유 회사, 유아전문 업체 등에 연락하여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런 기관들은 이런 기회를 통하여 미래 소비층을 확보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특별한 예산이 없이 장소만 제공하는 것으로도, 각 기관에서 무료로 준비해 온 선물들을 임산부들에게 나눠줄 수 있고, 이 기회를 통하여 임산부 학교를 소개할 수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지역 임산부들의 신상을 파악할 수 있고, 이를 잘 정리하여 임산부 학교 홍보물을 보내주거나 직접 전화를 해서 필요한 인원을 모집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지나치게 상업적인 이미지를 주지 않도록 각 기관들과 시간이나 홍보 내용 등을 미리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홍보 시 교회의 다른 프로그램도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작은 안내문을 제작하여 선물에 넣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최근에는 SNS를 이용한 홍보도 효과적이다. 현재 임산부들의 연령대에서는 대부분 스마트폰을 비롯한 SNS관련 기기들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자유롭게 사용하여 홍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기존의 일방적이었던 홍보에서 쌍방향적인 홍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스토리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기존 행사자료들이나 행정양식, 그리고 간단한 홍보용 동영상을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나아가 SNS는 그 특성상 다양한 사람들과 신속하고, 포괄적인 연결망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홍보 뿐 아니라 프로그램 평가나 이후 지속적으로 연락과 관리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무엇보다도 '입소문 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 특히 아파트 단지나 기업체가 밀집해 있는 지역은 그 효과가 생각보다 크다. 그러므로 먼저 임산부를 위한 특강이나 임산부학교와 관련한 설명회를 통하여 임산부들의 관심을 유도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매 기수 참여하는 임산부들과 그 가족들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임산부학교는 국가적인 문제임으로 각 지자체의 여러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홍보를 할 수도 있다. 시청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 보건소, 건강가정 지원센터, 평생교육원 등 다양한 관련 기관이 있는데 이 기관의 행사나 홍보물에 임산부학교를 동시에 홍보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의 병원, 산부인과, 산후조리원, 영유아용품점, 사진관, 영유아전문 어린이집 등 임산부나 영유아와 관련한 다양한 기관들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결국, 가장 효과적인 홍보는 참여하는 임산부들과 그 가족들을 최고의 서비스로 섬김으로 자연스럽게 좋은 소문이 나는 것이지만, 이와 더불어 위에서 소개한 보다 전문적인 방법들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하여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관계망은 임산부학교 뿐만 아니라 교회와 지역사회를 잇는 중요한 가교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운영 Tip 광양대광고회 임산부학교 모집 및 홍보

1. 모집기간 : 매년 2월(봄학기 3-6월), 8월(가을학기 9-11월)
2. 모집대상 : 임산부, 임신을 기다리는 신혼 부부, 결혼을 준비하는 여성
3. 홍보방법 : 홍보지(병원홍보지, 유아용품 매장, 차량 현수막 부착, 아파트 광고부스) 홈페이지, 모바일 홍보(개강 30일 전) 광양시 각종 홍보물에 첨부 지역신문이나 지역방송을 통한 홍보
4. 홍보기간 : 학기당 30일
5. 홍보장소 : 병원 홍보물 부착 방문 비치, 산후조리원 방문 홍보물 부착 및 방문 비치 보건소 및 관공서에 비치, 지역축제 및 평생교육원 행사시 홍보지 분배 아파트 광고란에 직접 부착, 교회 차량에 부착

지금은 즐거운 추억 (episode)

임산부학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 중의 하나는 찾아가서 배우고, 도움을 요청할 곳을 찾아보기가 어려웠다는 것이었다. 간혹 대형 산부인과나 문화센터, 평생교육원 등에서 부분적으로 임산부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정기적으로 임산부학교를 개설한 기관은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임산부학교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필자는 때로는 산부인과 의사처럼, 때로는 산후조리원 원장처럼 수 많은 자료들을 직접 구해서 연구하고 정리해야만 했었다. 목회하느라 아내의 임신과 출산시에도 좋은 남편이지 못했던 내가 좋은 임산부학교 프로그램을 마련한다고 고심했던 당시의 모습을 생각하면 지금도 웃음이 나온다.

어느 정도 프로그램을 준비해 놓은 다음 그래도 인근의 산부인과 의사선생님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 산부인과를 찾아가간 적이 있었다. 그런데 작은 교회 목사가 임산부학교를 하겠다고 찾아왔다는 말을 듣고 누구도 만나주려 하지 않았다. 지금 필자가 생각해도 그럴 수 있다 여겨지지만 그때는 가슴 아픈 이야기였다. 그때 찾아가던 그 산부인과 의사는 지금은 오랜 동역자로서 임산부학교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저 출산문제나 임산부들을 위한 정책수립에 함께 일하고 있다. 그때 일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임산부학교에 지역사회의 여러 기관들이 함께 동참하고 있다. 시청 담당부서나 보건소, 아이낳기 좋은세상 지역본부, 산부인과, 산후조리원, 지역 대학 등 다양한 기관들과 함께 사역을 만들어 가고 있다. 이제 임산부학교는 이 지역에서 더 이상 교회가 하는 이상한 단체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자랑거리이며 가장 필요한 기관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지금 돌아보니 임산부학교를 시작할 때 여기 저기 찾아다녔던 그 시간들이 참 소중한 즐거운 추억으로 내 속에 자리하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7. 교육기간

본 교회 임신부학교 수업일정은 봄과 가을에 각각 3개월 12주 과정으로 진행된다. 여름과 겨울은 건강에 민감한 임신부들에게 적잖은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에어컨 바람이나 감기 등은 임신부들에게는 많은 고통을 주게 된다. 물론, 교회의 차량이나 시설 등이 충분히 뒷받침 된다면 지속적으로 이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여름과 겨울에는 많은 교회행사로 인한 시간적, 공간적, 인적 자원이 부족하게 되고, 또한 교사들의 교육시간을 따로 마련할 수 없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3개월 과정으로 2-3회 정도가 적당할 것으로 본다.

수업시간표와 일정을 조정하는 일은 임신부들의 형편과 더불어 교회의 형편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본 교회 임신부학교는 설문을 통하여 임신부들의 생활패턴을 분석하여 시작 시간과 끝나는 시간을 고려한다. 그리고 외부강사들의 강의참석 시간과 간식준비 시간 등을 고려하여 일일 수업일정을 정한다. 또한 봄과 가을 강의일정과 교육내용은 많은 부분 달리하고 있다. 왜냐하면, 계절에 따른 임신부들의 심리변화가 다르며 교육활동 장소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8. 교육내용

임산부 학교의 교육내용은 그 대상과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다. 임신부학교의 대상들은 주로 임신 전 단계와 임신 중인 단계 그리고 출산 후의 단계로 나누어 질 수 있고, 임신 중이라 하더라도 초기단계에서 곧 출산을 앞둔 단계에 이르기 까지 다양하다. 그러므로 각각에 맞는 교육내용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실제 운영에서 그렇게 하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전체적인 교육내용은 임신부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고려하되, 수업외의 돌봄의 과정에서는 각각에 맞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교회에서는 임신부학교의 교육내용을 의학적 측면, 교육적 측면, 신앙적 측면에서 준비하고 계획한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내용을 준비하면서 본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찾아내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교회에 다니지 않은 임신부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만들려고 노력한다. 이를 위해, 먼저 임신부들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교육의 영역을 선정하고, 선정된 각 영역별로 다각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결정하고, 결정된 교육 내용과 방법들을 효율적으로 교과과정에 편성하려 노력한다.

1) 몸의 영역

아기의 건강한 몸과 육체를 위해 산모가 해야 할 일이 많다. 그 대부분은 먹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먹지 말아야 할 약물이나 음식이 있고, 그 중에는 흡연이나 음주와 같이 아기에게 치명적인 것들도 있다. 따라서 임신부 학교에서는 먹거리나 약물에 대한 교육 및 실습

시간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영양 강좌나 요리실습 시간을 마련하여 임신 기간 중 엄마와 아기들에게 필요한 영양을 섭취하도록 돕는 것이 좋다. 특히 입덧을 심하게 하는 임신부들에게 알맞은 먹거리와 각 임신기간 중에 필요한 영양소과 음식을 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몸의 태교에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몸에 맞는 운동이다. 아기를 갖게 된 후 유산 등의 이유로 지나치게 활동을 억제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하여 임신부와 아기 모두에게 오히려 해가 될 때가 있고, 출산 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각 임신부들이 자기에 알맞은 운동방법을 찾도록 도와주고, 꾸준히 운동에 임할 수 있도록 점검해 주고, 지지해 주어야 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호흡법이나 분만을 돕는 여러 가지 체조 등을 함께 실시한다. 그러나 임신부들은 보통의 사람들 보다 운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좋지 않다. 따라서 임신부 학교에서 실시하는 정기적인 운동이나 체조 등을 가정에서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영상이나 유인물을 만들어 보급하고, 과제물 노트 등을 통하여 그 실시여부를 점검해 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꾸준히, 재미있게, 그리고 함께 참여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단지 신체적인 운동을 통한 몸의 태교뿐만 아니라 온 가족의 행복과 정서적, 심리적 효과까지 함께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마음(정서, 심리)의 영역

임산부들의 심리상태는 복잡하고 가변적이다. 감정이 쉽게 변하고, 작은 일에도 쉽게 불안과 초조함을 경험하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임산부들의 정서가 아기에게 그대로 전달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임산부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산책태교나 소풍 등을 실시하고, 말씀암송이나 상담 등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도와야 한다. 이를 위하여 매 학기 시작하는 날 말씀카드나 좋은 글이나 시 등을 나누어주고, 이를 암송하도록 하고, 매 시간 QT나 덕담시간에 함께 나누게 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는 비 기독교인을 고려하여 쉽게 접할 수 있으면서도 거부감이 없는, 그리고 아이와 임산부들을 축복하며 위로하는 말씀으로 선정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임산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게 되고, 아기들은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가게 되는 유익이 있다. 나아가 불안할 때, 우울할 때, 병원 갈 때, 출산할 때 등 각 상황에 알맞은 말씀들을 나누어 주고, 암송하게 함으로써 임산부들이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도록 돕고, 그 과정에서 경험한 말씀의 능력을 서로 나누면서 신앙을 접할 수 있도록 돕거나 신앙성장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임산부들의 정서는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남편의 직업 유형이나 가정환경, 그리고 친구나 인간관계 등에 의해서도 그 상태가 많이 다르다. 따라서 임신부 학교에서는 이러한 임산부들의 환경을 잘 파악하고, 임산부들이 주위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예를 들면 각 기수별 모임을 만들고, 그 모임의 리더를 세우고 이들이 수

업시간 외에도 지속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좋다. 또한 리더를 중심으로 수업이 끝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함께 차를 마시거나 서로의 집을 방문하여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는 등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는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만남은 수료이후에도 계속되어 아동들의 발달단계에 따라 엄마랑 아기학교, 어린이집과 교회학교로 이어지게 된다. 그리하여 임신부학교를 통하여 맺어진 관계는 아이들이 동일한 발달단계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들에게는 매우 소중한 관계가 되고, 이러한 관계들은 곧 신앙적 관계로도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된다.

한편으로, 임신부들의 정서적 안정과 유익을 위해서는 보는 것과 듣는 것에 특히 주의하도록 해야 한다. 지나치게 슬프거나, 폭력적이거나, 음란한 하거나, 무서운 영화나 책등을 삼가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임신부 학교에서는 임신부들의 문화생활이나 가정 내 독서와 TV, VTR시청 시간과 내용을 함께 분석하고 그 문제점들을 함께 나누는 것도 바람직하다. 나아가 좋은 영화나 책이나 공연 등을 추천하여 임신부들이 건강한 문화생활을 통해 정서적 태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3) 영혼의 영역

임산부 학교가 추구하는 궁극적 목적은 '영적태교'이다. 태아는 부모가 접하고 있는 모든 환경으로부터 신체적, 정서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큰 영향을 받게 된다. 모든 생명은 영적 존재로서 창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신부학교는 모든 임신부들이 영적태교에 힘 쓸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신앙이 없는 임신부들을 충분히 그리고 신중하게 배려하여야 한다. 본 교회는 참여자 중 신앙인과 희망자들에 한하여 말씀묵상과 찬송 부르기, 아기 축복하기 등을 하고 있으며, 임신부학교 학기 중에 신청자에 한하여 유아세례 교육을 실시하는데, 이를 위하여 별도의 유아세례 교재를 제작하고, 말씀 묵상 노트를 제작하고 있다. 이는 유아세례 교육과정이 단순히 엄마만의 참여가 아닌, 온 가족이 함께 참여케 하고자 함이다. 이 과정에서 가족들은 임신부 학교에 더 관심을 갖게 되며, 신앙에 더욱 적극적인 관심을 표하게 된다.

운영 Tip 세부교육 내용

임산부 학교의 주요 교육 내용은, 임신, 태교, 출산, 출산 후 관리, 자녀교육, 태교의 중요성, 산모의 건강(영양), 태교상담, 임신부 체조, 태교음악, 성경적 태교, 성구암송, 태담, 모유 수유, 흉과 태교(도자기), 차와 태교, 음악과 태교 등이 있으며, 특강 및 야외 수업, 황토길 맨발걷기, 오감산책 등의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 교육은 3개월 간 주 2회 하루 2시간씩, 24회 총 48시간 진행된다.

1. 개강 및 종강예배(2회, 총 2시간)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배를 통하여 경건을 배우게 하는 교육이다.

2. 태교의 중요성(9회, 총 5시간)

태교란 무엇이며 태교는 왜 필요한가? 태아의 뇌 발육, 태담, 마사지 태화, 터칭법, 지적학습 실천 등의 시간이 진행된다.

3. 임신부 심리(2회, 총 2시간)

출산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문제의 사례를 들어 대화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

4. 태교음악(12회, 총 2시간)

바로크 음악 등을 통한 태아와의 대화법, 음악감상, 똑똑하고 정서 풍부한 아이로 기르는 태교 음악 육아법, 함께 부르기 등이 진행된다. 태교음악은 감정, 호흡, 맥박, 혈압, 심장에 그대로 전달되어 산모의 마음과 생각이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게 한다.

5. 임신부 영양(6회, 총 3시간) 및 영양실습(2회, 총 4시간)

임산부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하는 방법, 태아의 뇌 발육에 좋은 음식, 자연과 음식물이 산모에게 주는 영향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영양소 공급을 위한 음식 만들기 및 시식 시간을 갖는다.

6. 성경적 태교(2회, 총 1시간) 및 성경읽기(2회, 총 3시간)

모태에서부터 신앙으로 양육받는 태아가 출생 후 생을 마감할 때까지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춘 아이로 자라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태중의 아이를 위해 기도한다. 태아는 이미 뱃속에서 뇌 세포가 완성되어 있어 이 시기에 엄마가 성경을 암송하면 태아의 영이 말씀 안에서 복되게 자라고, 출산 후에도 언어 능력 및 믿음이 뛰어나게 된다.

7. 임신부 체조(20회, 총 10시간)

임산부 건강을 위한 체조와 순조로운 출산을 돕기 위한 체조를 실시한다. 라마즈체조는 무통분만을 돕는 체조법이며, 호흡법은 태아에게 산소를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돕는 체조법이다. 이와 더불어 소프롤로지(sophrology) 체조 등 임산부를 위한 체조가 진행된다.

8. 모유 수유 교육(4회, 총 2시간)

출산 후 아기에게 모유가 얼마나 중요한 영양을 공급하는지 모유 수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9. 특강(5회, 총 6시간)

산부인과 원장(태교의 신비), 청소년 문화원 원장(자녀 교육의 필요성), 종이 접기 강사(모빌 만들기), 보건대 교수(산모의 건강 관리), 피부미용관리사(임산부의 피부 관리법)등의 특강이 진행된다.

10. 야외 수업

산모의 정신 건강과 태아에의 산소 공급을 위한 두 차례의 야외 수업을 갖는다. 자연휴양림과 야외 동산에서 갖는 야외 수업은 쉽게 지치고 피곤하여 우울증에 빠지기 쉬운 산모들에게 유쾌한 시간이 된다.

9. 임신부학교를 돌아보며

많은 사람들이 임신부 학교의 열매에 대해서 문의해 온다. 그 중에는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로 임신부 학교의 승패를 성급하게 판단하는 분들도 보게 된다. 임신부 학교는 눈에 보이는 열매보다 보이지 않는 열매가 더 많다. 우선 눈에 보이는 열매로는 임신부들과 그 가족들이 교회와 관계를 맺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이다. 임신부 학교를 다니는 동안이 아니어도, 이어지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하여 임신부 학교를 다닐 때 보다는 더 깊은 관계를 맺어 가게 된다. 대부분의 임신부들은 출산을 하게 되면 당분간은 교회에 나오기 어려워진다. 그러므로 임신부 학교는 출산 이후의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하고, 지속적인 프로그램의 변화를 추구하여야 한다. 또한 교회에서는 출산 후 심방과 더불어 임신부간의 지속적인 만남을 지원해야 한다.

임신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회복과 신앙회복의 새로운 기회이다. 임신부 학교는 이 기회를 현실로 연결해 주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그 동안에 신앙생활에 소홀했던 가정이나 관계의 회복이 필요했던 가정, 그리고 교회를 잘 몰랐던 가정까지도, 임신부 학교 프로그램을 통하여 불안과 우울증과 상처들을 치유하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또한 임신부 학교는 결혼을 앞둔 여성들이나 임신을 계획하는 사람들도 참여하게 됨으로써 더 많은 유익을 얻게 된다. 준비된 마음과 몸으로 아기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효과 때문에 유산의 경험이 있거나, 불임여성까지도 임신부 학교를 통해서 마음의 안정과 몸의 회복을 경험하고, 실제로 임신을 하게 되는 은혜를 체험하기도 한다.

이런 임신부 학교의 열매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관계의 형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먼저는 아기와 엄마와의 관계 형성, 엄마와 가족 간의 새로운 관계 형성, 임신부 학교 동기 엄마들 간의 관계형성, 태어날 아기들의 친구관계 형성, 엄마와 교회와의 관계 형성, 엄마를 통한 가족들과 교회와의 관계 형성, 그리고 이렇게 관계된 모든 이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이 바로 임신부 학교의 가장 큰 열매라고 할 수 있다. 관계는 곧 영향력이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관계를 통한 영향력은 대단하다. 임신부 학교는 이러한 영향력을 신앙 안에서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첫 번째 장이 될 수 있다.

<임산부학교를 돌아보며>

임산부학교를 실시함으로 목회적인 많은 열매와 효과를 보게 되었다. 핵가족화 되어 대화의 상대가 부족한 임신부들이 1주일에 두 차례 임신부학교에 참여함으로 서로 귀한 대화의 시간을 가지므로 정신 건강 면에서도 큰 도움을 얻게 된다. 우울증 증상으로 잠을 못 이루던 임신부가 임신부학교에 참여하여 교육을 받고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을 찾기도 하였다. 또한 임신부들 뿐 아니라 결혼을 앞둔 여성들이나 임신을 계획하는 자 등 아기를 가지기 원하는 마음으로 임신부학교에 참여하는 자들은 더 많은 유익을 얻게 된다. 준비된 마음으로 아기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몇 년동안 아기를 갖지 못해 안타까워

하던 가정이 임신부학교에 참여 한 후 임신을 하게 되는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기도 하여 큰 감사를 느낀다.

교회에서 교인들이 봉사할 영역은 주로 주일에 시간을 필요로 하는 성가대나 교회학교 교사 등이었다. 그러나 임신부학교를 비롯한 부설기관들은 봉사자들로 하여금 주중에도 교회를 위해 봉사할 기회를 얻게 하였으며, 봉사할 영역을 찾지 못하던 교인들로 하여금 개인별 재능을 가지고 기쁨으로 봉사할 기회를 얻게 해주었다. 교회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위해 기쁨으로 봉사할 일꾼들이 생겼다는 점이 교회적으로 큰 유익이다.

주민의 90%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지역 환경을 고려해 볼 때 굳게 닫힌 아파트 문을 열고 전도한다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임신부 학교를 비롯한 부설 기관 프로그램들을 통해 쉽게 전도의 접촉점을 찾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믿음 생활을 하지 않던 임신부들이 임신과 출산이라는 새로운 환경이 주는 불안함을 떨쳐 버리고, 보다 더 건강한 아이를 낳고 싶은 바람으로 자발적으로 교회에서 하는 임신부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3개월에 걸친 임신부학교 교육 기간 동안 믿음이 없던 참여자들도 대부분 믿음을 갖게 되고, 교회에 등록하여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임신부학교를 마치고 출산하게 되었을 때 출산 심방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신앙생활과 이어지도록 권할 수 있는 귀한 접촉점을 얻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임신부학교는 물과 같이 지역사회에 스며들어갈 수 있는 귀한 프로그램이다.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역 사회를 섬길 사명을 받았다. 그러므로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 줄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끊임없이 연구 개발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마련된 각종 프로그램들을 통해 믿지 않는 지역 주민들을 신앙 안에서 접촉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마련되고, 스스로 교회에 찾아 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 21세기 전도 전략은 찾아가는 전도가 아니라 스스로 교회에 찾아올 수 있도록 잘 준비된 프로그램들을 통해 신앙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임산부학교에 참여했던 불신자 엄마의 소감>

임산부학교는 여자이지만 엄마로서는 무자격인 나에게 엄마의 자격을 갖추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단계별로 진행되는 수업 과정을 통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태아에겐 애정이 담긴 사랑의 태교가 전해졌다. 처음 임신이라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기쁜 마음도 잠시 그 기쁨이 가시기도 전에 알 수 없는 하혈과 입덧의 시작으로 당황하던 때 마침 임신부 학교가 있다는 소개를 받게 되어 참여하게 되었다. 여러 선생님의 말씀과 다른 임신부들의 조언에 임신 초기를 무사히 잘 넘길 수 있었고, 그리고 성경말씀, 임신부체조, 동요 및 음악감상, 임신부를 위한 영양식 등 책으로 접할 수 없는 많은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었다. 야외 수업 또한 자연과 접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아가에게 자연의 소리를 들려주고 좋은 공기를 마음껏 마실 수 있었다. 임신부 학교 때문에 일주일이 어느새 지나가 나 자신과

태아에게 생활의 활력을 얻게 해 주었다. 임신부학교를 통해 사랑과 정성으로 돌봐주신 선생님들의 모습에서 진정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고, 나 자신도 신앙을 갖게 되고, 아기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얻은 것이 가장 기쁘다.

10. 후속 프로그램

운영 Tip 세부교육 내용

1. 임신부를 위한 예배(월 1회, 주일 오후)
2. 산후조리원(건강가정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산모도우미 교육센터 운영
3. 부부학교, 부모학교와 연계(주말)
4. 엄마랑 아기학교, 어린이집과 연계한 부모교육
5. 임신부 모임(기수별, 지역별 모임)
6. 임신부(비영리 단체인 '광양맘'과 연계)를 위한 영유아 나눔장터(월 1회)
7. 임신부 사진컨테스트, 가족사진 컨테스트, 다둥이 사진전시회 등
(광양시 보건소와 연계)

임산부 학교는 이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그 첫 번째가,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의 개발이다.** 임신부 학교를 마치고 설문을 분석해 보면, 대부분 가족들의 관심과 지지가 부족함에 서운해 하고 있고, 이는 태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혼자 하는 태교는 그 성과가 미비할 수 밖에 없고, 때로는 가정불화의 원인을 제공해 주기도 한다. 따라서 본 교회 임신부 학교에서는 이번 학기부터 가족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늘여가고 있다. 먼저 4주에 한 번씩 남편이 '함께하는 체조', '아빠가 아기에게 말해주기', '임신 중 아내 돕기' 등의 프로그램에 함께 참석하게 된다. 이 날만큼은 오전 시간이 아닌 남편들이 다 퇴근할 수 있는 시간인 저녁시간으로 하며, 믿지 않는 남편들의 참여를 위해 교회 건물이 아닌, 부속건물인 아쿠아 카페에서 진행하게 된다. 또한 수료하는 날에는 온 가족이 함께 참석하여 아기를 위해 축복하고 축하하는 시간을 갖게 하고 있다. 또한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는 임신부들을 위해 예배 후 모임을 만들어 함께 참석할 수 있는 장소와 프로그램도 준비 중이다. 나아가 과제물 노트를 만들어 가정에서도 온 가족이 함께 태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며, 정기적인 점검 등으로 꾸준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평소에 임신부 학교 프로그램에 무관심했던 남편들도 과제물을 통하여 관심을 갖게 되고, 직접 참여하게 됨으로써 가정이 보다 화목해지고, 또한 교회에도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된다.

두 번째는, 교재와 교육자료 개발이다. 임신부학교를 진행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교사와 학생들에게 적합한 교재와 자료를 구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여 필요한 자료들을 준비할 수 밖에 없었고, 그나마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료

들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간의 자료들을 정리하여 임신부학교 교재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동안 여러 방송매체와 전문기관에서 다양한 자료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교육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 협약을 맺거나, 사용허락을 받아 잘 편집된 자료를 만들어 가고 있다. 나아가 이런 자료들은 임신부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지역사회에 보급하는 노력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는, 자료와 정보공유를 위한 SNS와 홈페이지 활성화이다. 현재 임신부학교는 특별하게 교육을 받을 만한 기관이 없는 형편이다. 기존 병원이나 문화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산모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이 대부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임신부학교를 운영하고 있거나, 관심이 있는 교회나 관련 기관들이 연합하여 그 자료와 경험들을 서로 공유하는 모임이 절실한 형편이다. 이를 위해 홈페이지를 운영하거나 SNS를 기반으로 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임신부학교를 널리 보급하는데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 운영 Tip 임신부학교 운영을 위한 주요 지침 】

1. 전도를 하기 위해 하지 말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라.
전도는 자연스런 열매임을 잊지 말라.
2. 교인들만을 위한, 교회만의 프로그램이 되지 않도록 하라.
목적과 대상과 내용 등이 철저하게 지역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기획되게 하라.
3. 지역사회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교회의 한계를 극복하라.
장소, 예산, 인력 등을 완벽히 갖춘 교회는 없다. 있다고 하더라도 지역사회와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 지역사회에는 교회가 가지고 있지 못한 다양하고 우수한 '지역사회 역량'이 있다.
4. 반드시 후속 프로그램을 마련하라.
임산부학교는 출산 후에 당분간은 모임을 가지기 어렵다. 그러면 관계가 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출산 후 지속적으로 모임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산후조리 프로그램이나 부모교실, 엄마랑 아기학교, 기수별 모임 등을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5. 지역사회 내에 있는 임신부와 관련한 기관과 프로그램을 먼저 조사하고, 전략적 만남을 기획하라.
건강가정지원센터, 보건소, 상담소, 산부인과, 산후조리원, 문화센터, 방송국, 유아관련 업체(분유 회사, 제대혈은행, 아동용품점), 시청(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인구관련 분과), 대학교, 기업체, 자원봉사단체, 여성단체, 시민단체,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영아전담 어린이집 등

*남편(가족)과 함께하는 임신부학교 프로그램

*임산부 체험

*새로운 영상, 교육자료 정리

***임산부 프로그램 새로운 홍보방안. 교회의 타 기관과 협력방안 구체화** - 교인들에게도 임신부학교의 중요성을 항상 인식할 수 있도록(늘 주위에 임신부를 관심 있게 찾고, 자료전달, 홍보, 임신부학교에 참여 유도, 지속적인 관심, 임신부학교 교사들 외에도 교우들이 관심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임산부학교수료 후 지속적인 모임, 행사 마련

*임산부학교 수료 후- 신앙적인 접촉 필요시 교구, 교역자와 협력(정보제공, 함께 심방 등)

*임산부학교 자료(보건소, 복지부에 요청하여 저작권과 관련된 임신부학교자료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차원에서 무료로 사용 허락받아) - 임신부들에게 자료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산후조리원 사역(직접, 수료 후 산후조리원 심방 프로그램 등)

*엄마랑아기학교에 .임산부학교 출신들 파악

*임산부학교와 엄마랑아기학교 사이 중간 프로그램 개발

지역사회의 효도 손 빨래방

- 제 8회 농어촌 부문 수상 금산평안교회 사역보고 -

금산평안교회에서는 연탄은행을 운영하다보니 어르신들의 삶의 문제를 발견한 것이 빨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금산평안교회는 동그라미 빨래방을 운영합니다.

빨래방하면 이것이 무엇가하고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한번만 더 생각하면 아 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요즘의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확실히 고령화 사회로 변화되어가는 우리 지역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고령화가 되면 많은 것을 주변에 의지하고 또 포기하고 살아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탁 문제입니다. 특히 이불빨래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냄새의 문제에서부터 위생의 문제 특히 위생의 문제는 건강상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가장 괴로워하는 것이 냄새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빨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나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른 사회단체가 갖추지 못한 것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교회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도라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요즘 같은 세상에 세탁기가 없는 집이 있을까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어르신들은 세탁기의 사용법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탁물이 물을 먹게 되면 그 무게는 상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어르신들이 이 세탁물을 다루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탁소에 세탁물을 맡기에는 비용문제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는 세탁기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의 문제입니다.

또한 문제는 또 있습니다. 연탄을 나르며 보니 연탄은행의 주 수요자인 독거노인이나 소년 소녀가장, 조손 가정은 한겨울에도 손빨래하는 집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교회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의 상황은 이랬습니다. 연탄은행의 도움으로 겨울은 무사히 남겼지만, 이제 겨우내 덮고 있던 이불이 문제였습니다. 겨우내 목은 쾌쾌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자원봉사자들도 냄새가 너무나 심하여 빨래를 포기 할 정도로 냄새가 심하였습니다. 쪽방촌 어르신들은 대부분 세탁기가 없었습니다. 손빨래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다른 빨래도 아닌 무거운 이불을 그것도 노인이 혼자 빨기는 어려웠습니다. 세탁기가 있는 가구도 상황은 크

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세탁기가 있어도 기계를 작동하는데 서툴러 잘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설사 작동할 수 있다 해도 노인이 손수 무거운 빨래를 세탁기에 넣고, 그것을 다시 꺼내서 건조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전도 대상자인 이들과의 관계성 확립을 위한 결정을 하고자 우리 지역의 노인가구와 대상가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금산군의 대상자가구는 1차로 약 680가구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또한 금산군 전역을 대상으로 하기에 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우선 교회 주변의 270가구를 대상으로 사역을 시작하기로 결정 하고 성도를 중심으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였습니다. 드디어 교회의 한 공간에 세탁기2대를 준비하여 세탁물을 교회로 거둬와 세탁해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빨래는 끊임없이 나왔 으며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점점 역부족이었습니다.

실행과정에서 또 발생하는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 1, 세탁의 건조과정이 문제 였습니다. 특히 날씨가 좋은 날이면 건조자체가 불가능하게 됩 니다.
- 2, 자원봉사자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지만 대상자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전문 간사 가 필요한데 인건비가 문제입니다.
- 3, 필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사무실과 작업실이 필요한 문제를 발견하게 되었습 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이 사역을 진행하면 할수록 이 일이 말로 교회가 꼭해야하는 일이고 이 빨래방 사역이 말로 소외계층에게 꼭 필요한 사역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이사역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해나갈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금산군을 사회복지과를 방문하여 우리의 그간 빨래방 사역에 대한 성과와 이사업의 지속을 위하여 공간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을 하고 지원을 요청하였지만 그들은 빨래방 이라는 새로운 복지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 과정에서 군수님을 만나 사업을 설명하고 또 의회 의장님과 의원들 그리고 지 역의 영향력있는 분들을 만나 빨래방의 필요성과 지원을 요청하는 만남을 계속하였습니다. 그러기를 약 6개월 정도가 지나서 금산군 주민복지 지원실장님이 역력이 왔습니다. 만나자 는 것입니다. 빨래방의 문제로 상의 할 것이 있다고 말입니다. 금산군에서는 그동안 우리사 역의 보고를 계속 받고 보니 이 사업이야말로 진정한 주민에게 다가가는 복지라는 판단을 하고 지원하기로 했다면서 장소와 시설을 가추면 1년에 3천만원을 운영비와 사업비로 지원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즉시 우리교회는 금산군 하옥리에 보증금 500만원에 월 20만원을 주기로 하고 약 8평 정도의 공간을 계약하고 세탁기2대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상시 우리 금산연탄은행의 자원봉사조직 가운데 하나인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에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미 한국타이

어 금산공장은 연탄은행을 통하여 많은 부분을 저회와 협조하고 있던 차에 설명을 듣겠다고 역락이 왔으며 저는 그 기업에서 설명회를 통하여 반드시 지역복지를 위하여 빨래방이 필요하다고 피력을 하였습니다. 얼마 후 저는 한국타이어 복지재단으로부터 빨래방 사역에 필요한 세탁기와 건조기 등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한국타이어 복지재단에서 우리 교회 요청을 받아들여 건조기2대 세탁기2대를 지원하여 건조기2대와 세탁기4대를 갖추게 되어 2008년에 전국 최초로 저소득 빈곤층과 독거가정을 위한 복음 실은 동그라미 빨래방을 오픈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 280가정을 대상으로 빨래를 수거하고 건조하여 전달하는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현재는 세탁기 6대와 건조기3대 수거차량 2대(경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차체 지원금 3천만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공공근로 지원 2명 자활사업단 지원4명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오지에 있는 분들은 소외되는 분들의 요청이 쇄도하게 되었고 우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인 '이동 빨래차'를 구상해 공공기관에 사업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 제안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이상한 소리나 하고 다니는 실없는 사람으로 오인 받기도 하였습니다. 더욱이 같은 신앙의 연합체인 기독교연합회에서 조차 협조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고 눈을 돌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사업 제안서를 내면서 담당자를 만나 이동 빨래차량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림을 그려가며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충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는 역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더니 약 4개월 후에 역락이 왔는데 중앙에서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차량은 줄 수 있는데 운영비를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즉시 운영비는 우리교회와 연탄은행이 감당하겠다고 하고 차량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동그라미 빨래방에 이동빨래차를 기증해줬습니다. 이동빨래차는 (2.5T)이동 세탁을 위해 특수 제작된 것으로 세탁기(17kg)3대, 건조기 1대, 자체발전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차량가격은 약 1억7천만원정도입니다. 그리고 1년을 자부담으로 운영하고 충남 도지사님의 금산 방문때에 상황을 설명하고 도차원의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3천만원을 차량운영비로 지원을 약속하였고 또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경사는 또 있었습니다. 방문수거 사업을 위하여 모닝차량 한 대를 한국타이어 복지재단에서 기증을 받았으며 공동모금회에서는 마티즈 1대를 기증 받아 경차량 2대가 빨래수거를 위하여 오늘도 금산의 구석구석을 달리고 있습니다. 빨래방의 가까운 곳에 사시는 어르신들은 빨래를 빨래방으로 가져올 수 있다면 빨래방에서 빨래를 해 가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집이 멀다면 빨래차로 방문해 빨래를 해 줍니다. 빨래방을 이용하는 가구가 한 달에 280가구가 넘으니, 가난한 사람들에겐 연탄 못지 않는 효도 손입니다.

또한 충청남도에서는 저회 교회의 동그라미 빨래방을 모델로 충남 16개 시군에 빨래방을

만들기 시작하였고 현재는 약 70%가 빨래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뜻을 같이하는 전국 목사님을 중심으로 전국 동그라미빨래방연합회를 만들어 서울 은평구, 광명시, 안양시, 부천시, 고양시, 옥천군, 천안시, 세종시, 부여군, 익산시, 인제군, 금산군, 등 전국 19개의 빨래방을 교회에 만들었으며 지역을 위한 자원봉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와서 돌아보면 이 사역이야 말로 하나님이 이 시대 교회를 위하여 주시는 위대한 전도의 도구요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요 교회의 리더쉽과 영향력을 확대하는 전략인 것입니다.

빨래방의 축척된 자료와 정보는 교회로 하여금 새로운 사역에 도전하게 합니다.

우리는 계속 도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태국근로자 사역

- 제 2회 중소도시 부문 수상 낙원교회 사역보고 -

1. 낙원교회와 태국 근로자들과의 만남

낙원교회는 경기도 북단의 중소도시 동두천에 위치한 교회로 25년 전인 1987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현 담임 목사인 공지태 목사, 그리고 몇 명의 성도에 의하여 개척된 교회입니다. 현재 주일 장년 예배 출석 인원 약 400 명 정도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있는 중소형 교회입니다.

장년 예배 출석인원이 200 명 정도이었던 2002년 어느 날 교역자 회의를 하던 중 한 전도 사님이 의외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서울 강북에 소재한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던 태국인 근로자 10여명이 그 교회를 나오게 되었다는 것과 그 분들이 예배를 드릴 공간을 경기 북부에서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들을 지도하시는 아세아 연합 신학대학교 이 교육 교수님이 우리 교회에 의향을 물어오셨는데 가능하겠느냐? 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치도 않은 축복과 인도하심을 이렇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교회는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 시설 중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인 '천사의 집'과 '동두천 천사 푸드뱅크' 도 다 이런 과정을 거쳐 시작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2주 후에 태국인 근로자 10여명이 우리 주일예배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이교육 교수님과 그 때까지 태국인 근로자들을 돌보고 있던 신실하신 한국인 집사님들도 함께 참석을 하셔서 태국인 근로자들을 우리에게 인계해 주셨습니다. 낙원교회의 태국인 근로자 사역은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2. 한마음 태국인 교회의 태동 및 정착

일단 우리 낙원교회와 태국인 근로자들이 함께 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게는 되었지만 곧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치게 되었습니다.

1) 의사소통

의사소통의 문제는 그 어떤 문제보다도 더 심각했습니다.

서울에서 오신 집사님들은 태국 교우들을 우리에게 인계한 후 본 교회로 돌아가셨고, 태국인 근로자들은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지만 그들은 전혀 우리의 말을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매 주일 모여 우두커니 앉아 알아듣지도 못하는 설교를 듣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는 식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통역이 그들 곁에 앉아서 통역을 해 주기도 했지만 별 효과도 없었고, 도리어 곁에서 예배하던 한국 교인들은 조용한 예배에 방해가 되고 신경이 쓰인다고 얼굴을 찌푸릴 정도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한 달 이상 지켜보다가 우리는 중요한 결단을 하였습니다. 태국인들의 예배 및 활동 장소를 우리 낙원교회와 분리시키기로 한 것입니다. 즉, 우리 낙원교회로부터 5분 거리의 가까운 위치에 태국인 전용 교회를 만들어 주어 그들로 하여금 태국어로 예배를 드리고, 그들끼리 교제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을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며, 한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태국 근로자들이 낙원교회로 온지 한 달 만에 태국 근로자들은 교회 가까운 곳에 독채를 전세 내어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태국 선교사로 사역하다 아세아연합신학교에서 제직하고 계시던 이교육 교수님이 주일마다 오셔서 태국어로 말씀을 전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태국 선교사의 비전을 갖고 신학을 공부하던 신학생들도 한두 명 스텝으로 참여하게 되어 태국인 근로자 교회는 독립교회로서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 재정

그 당시 낙원교회의 재정 상태는 썩 좋은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성전 건축을 끝내고 간신히 채무를 정리한 상태였고 교회가 소망했던 양로원, 문화교실 등등 선한 사역을 여기저기서 이제 막 시작할 때였습니다. 즉, 교회 재정은 여유가 없었고 간신히 교회 운영을 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태국인 근로자 사역이 시작이 되니 재정이 사역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당장 필요한 전세금에 태국인 교회 교역자 사례비, 또한 태국인 교회 물품 구입 및 운영비 등등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였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당회는 여러 번 모여서 회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태국인 근로자 교회 사역을 교회 내에 존재하는 하나의 팀 사역으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 낙원 교회의 또 하나의 교회로 격상시키기로 한 것입니다. 즉, 우리 낙원 교회는 하나가 아니라 두 개라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이 모이는 한국인 교회와 태국인들이 모이는 태국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국인 근로자들의 교회 명칭을 “한마음 태국인 교회”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태국인 근로자 교회가 또 하나의 낙원 교회가 되니 우리의 마음도 달라졌습니다. 재정 투입에 감사로 투입할 수 있었고, 또 좀 더 과감하게 투자할 수도 있었습니다.

3) 낙원교회와의 하나 됨

한마음 태국인 교회가 개척이 되고, 그 교회는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교회가 아니라 또 하나의 우리 낙원교회라 결정을 했어도 우리 교우들의 반응은 생각보다 덩덤했습니다. 동시에 태국 근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신들도 우리 낙원교인들이다 해도 그들의 반응도 덩덤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서로 하나” 라는 합치된 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행사를 함께 하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연합예배를 드리고, 우리 청년들과 교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일 식사도 될 수 있으면 낙원 교회로 와서 우리 교우들과 함께 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우리도 태국인 교회를 방문하여 태국 음식을 함께 먹기도 했습니다. 태국인들이 세례를 받게 될 때에 우리 낙원교회에서 우리 교우들과 같이 세례를 받게 하였습니다. 또한 체육대회와 여러 가지 교회의 행사들에 그들을 동참시켰습니다. 특별히 학생, 청년들로 하여금 태국인 근로자들이 가장 크게 관심을 갖고 있는 악기 연주와 컴퓨터를 1:1로 가르치게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것이 언어 문제인 것을 알고는 전 교인을 대상으로 태국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예배 시간마다 태국어를 한두 마디씩 가르치다가 아예 주중에 정식 태국어 강좌를 열었습니다. 주 중에 1-2회씩 모여 태국어를 배웠고, 가장 먼저 담임목사와 교역자들이 그리고 교회의 리더들이 배웠습니다. 그 뿐이 아닙니다. 우리는 1년에 두 세 번씩 태국으로 단기 선교를 떠났습니다. 자의든, 타의든 태국으로 돌아가게 된 근로자들의 집을 방문하여 그들을 심방하고, 또 한국에 있는 우리 태국인 근로자들의 고향집을 방문하여 비디오로 녹화된 영상 편지와 선물들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를 하였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한마음 태국인 교회의 태국인들과 우리 낙원교회 교우들은 하나가 될 수 있었고, 서로를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교인들의 이해 부족

태국 근로자 선교에 대하여 대부분의 교인들은 감사하며 기쁘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성도들이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는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도리어 약간의 불만을 갖고 있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여기도 할 일이 많고, 돌봐 주어야 할 사람들이 많은데 또 교회 재정도 넉넉지 않은데 왜 우리가 태국인 근로자들에게 까지 관심을 갖고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교역자들은 설교 및 성경 공부, 세미나 등을 통하여 왜 태국인 근로자 선교를 해야 하는

것인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대충 우리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첫째로 태국인 근로자 선교는 마 28:18-20절까지의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태국인 근로자 선교야 말로 마 22:39절에 말씀하신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는 너와 이웃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나와 내 가족, 내 교회 밖에 모르는 이 시대 속에서 진정 나 아닌 남과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태국 근로자 선교는 우리가 빛을 갠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외국의 선교사님들과 외국 단체나 교회들로부터 복음을 전달 받아 이렇게 축복된 사람들이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예전의 우리 같은 태국인 근로자들을 섬겨 우리의 빛을 갠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태국 근로자 선교는 우리 낙원교회가 지향하는 하나님 기뻐하는 건강한 교회를 지속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표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 라고 하면서 이를 거절한다면 우리는 건강한 교회의 자격이 없고, 그러므로 이 태국인 근로자 사역은 반드시 우리가 깊어져야 할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국인 근로자 사역은 하나님이 이 시대에 허락하신 가장 효과적인 선교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기 선교란 이름으로 태국을 많이 방문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태국을 방문을 할 때 마다 느낀 것은 태국 선교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사회 전체가 불교화 되어 있는 나라!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사회 구조와 풍토! 매 단기 선교 때 마다 거의 절망 속에서 귀국을 하고는 했는데 이 태국인 근로자들은 제 발로 우리 곁으로 걸어 들어 왔고, 또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고, 주변에 이들을 에워싼 어떤 방해 세력도 없으니 이진 기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멀리 태국까지 나가서 선교하지 않아도 태국인들이 우리 곁에 있고, 단기 선교 10번을 가도 태국인 한 명 결신시킬 수 없었는데 여기서는 몇 번의 간단한 시도만 해도 태국인들을 교회로 데리고 올 수 있고, 또 믿게 할 수 있으니 이 태국인 근로자 선교야 말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허락한 최고의 효과적인 전도방법이라고 설득을 하였습니다.

3. 한마음 태국인 교회의 프로그램

한 마음 태국인 교회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1) 교회사역

하나의 교회로서 태국인들을 위한 예배와 전도, 그리고 섬김의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통역을 세우지 않고 전직 태국인 선교사님으로부터 직접 태국어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였고, 한수 이복에 산재해 있는 태국인 근로자들을 직접 심방 전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곧 믿음이 생긴 태국인 크리스천들로 하여금 직접 태국인들을 전도, 심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전도하고 심방하는 것 보다 태국인들이 직접 자국민을 심방하고 전도하니 효과는 훨씬 배가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각 나라에서 들어 온 외국인 근로자들이 30만 명을 넘고 있었고, 한수 이북 지역인 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 연천 지역에도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한 수 이북에 있는 약 만 명으로 추정되는 태국인들에게만 집중을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태국인들에게만 집중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곳을 목표로 삼다 보면 과시적이고 형식적인 선교가 될 가능성이 많고, 이렇게 한 나라, 한 도시, 한 대상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더 빨리 세계를 복음화 할 수 있는 바람직한 선교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모든 한국의 교회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각 교회의 상황에 맞게 이렇게 한 나라, 혹은 한 도시, 한 교회에만 집중한다면 이 세계는 더 빨리, 더 효과적으로 복음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 교육

태국인 근로자들에게 한글 및 악기를 가르쳤습니다. 말하는 것은 물론이고 읽고, 쓰기 까지 할 수 있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럼으로 한국에 있는 동안 의사소통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장에서의 대화 및 작업이 용이하도록 도왔습니다. 물론 태국사람들은 한글을 배우는 일에 아주 소극적이었습니다. 태국 사람들은 민족적으로 자존심이 강하여 태국어 외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고, 심지어 한글조차 배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태국인들은 한글을 배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생각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매 주 일 오후마다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또한 우리는 악기연주법을 가르쳤습니다. 태국 사람들은 음악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특별히 드럼과 기타연주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학생, 청년들로 구성된 찬양선교팀으로 하여금 이들에게 악기 연주를 가르치게 하였습니다. 찬양선교팀은 매주일 예배를 마친 후에 한마음 태국인 교회를 찾아 갔습니다. 그리고 피아노, 키보드, 드럼, 기타, 바이올린 등을 1:1로 가르쳤습니다.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서 태국인들은 자기들의 예배에 배운 연주로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3) 의료와 이, 미용 서비스

태국 한마음 교회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의료팀 및 이, 미용 서비스를 실시했습니다. 마침 새문안 교회 의료팀이 처음부터 의료선교에 동참해 주셔서 매달 첫째 주에 한마음 태국인 교회에서 정기 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새문안 교회 의료 선교팀은 눈이 오니 비가 오나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정기 진료를 해 주었습니다. 내과 외과 산부인과 치과까지 의료 선교를 해 주었습니다. 그 뿐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 미용 무료서비스팀도 함께 모셔 왔습니다. 그래 매월 첫 주! 의료 선교와 이, 미용 선교가 있는 날이 되면 이 날은 태국인만의 날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태국인 성도들을 통하여 소개를 받은 각 국의 모든 근로자들이 다 모여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병을 치료받고 이, 미용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의료 문제

는 한국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있어서 아주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래 한마음 태국인 교회에서는 주변의 몇 개 병원과 연계를 하였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되면 동행하고 통역 및 의료비를 도움 받을 수 있도록 병원 측의 도움을 구하고, 희년선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의료보험에 가입하게 해서 최소한의 의료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4) 인권 서비스

우리 태국인 근로자들의 직장은 거의가 다 영세한 중소기업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인권침해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 우리 한마음 태국인 교회는 외국인 근로자로서 당하게 되는 인권문제와 임금 체불 문제, 그리고 학대예방을 위하여 공장 사장님 및 직원들과 대화하고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동시에 공장 관계자가 태국인 근로자와의 의사소통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도움을 요청하면 공장회의에 참석하여 회의진행을 돕고, 근로자들이 원활한 직장 생활을 하도록 도왔습니다.

5) 연휴와 명절을 이용한 다양한 서비스

실상 태국인 근로자들은 공휴일, 연휴, 혹은 명절이 되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출입국 관리 사무소 단속반에게 잡힐 것이 두려워 마음대로 거리를 돌아다닐 수도 없었고, 그저 자기들의 열악한 숙소나 기숙사에 갇혀서 잠을 자거나 TV 시청을 하였습니다. 그래 우리 한마음교회에서는 그런 날이 되면 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 영화상영이나 한국 문화체험, 놀이시설 이용, 고궁 및 시내관광, 그리고 휴양지 동행 등의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6) 쉼터 운영

태국 근로자들 중에는 회사 출근을 못하게 되는 근로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출산 전후의 자매들, 그리고 질병에 걸리거나 일자리를 잃어 주거지가 없는 태국인들, 그리고 그 밖의 개인 사정으로 주거지가 필요한 태국인들입니다. 실직을 하여 주거지를 잃어버린 태국인 근로자들에게는 있을 곳이 교회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 이곳 저곳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예배처소로 태국 근로자들이 맘 편히 쉴만한 공간이 못됐습니다. 그래 우리 낙원교회는 문제를 만나 쉬고 있는 태국인 근로자들을 위하여 쉼터를 만들어 주기로 하였습니다. 교회 옆에 작은 단독주택을 구입하여 리모델링을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운동기구와 태국어 책자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보 센터로서의 기능을 추진하기 위하여 컴퓨터를 구입하여 마음껏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많은 어려움을 만난 태국인들이 이 쉼터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쉼터에서 쉬고, 교제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또 필요한 물품을 얻는 장소로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

센터에는 2-3명의 태국인들이 언제나 기거하고 있습니다.

4. 한마음 교회의 성장

1) 양적 성장

처음에 10여명으로 시작된 태국인 교회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담임 교역자들의 활발한 사역으로 말미암아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어느새 70-80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인원이 늘어나다 보니 한마음교회 재정도 풍성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거의 재정이 없어 낙원교회에 전적으로 의지를 하였지만 이제는 십일조를 드리는 태국 성도들도 많이 생기고, 재정적으로도 거의 자립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뿐이 아니라 모이는 인원이 많아지다 보니 한마음 태국인 교회는 자연히 경기 북부에 산재해 있는 많은 태국인들의 중심 센터가 되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뿐 만 아니라 서로가 축하를 해 주고, 서로의 만남이 필요할 때 이들은 다 이 한마음 태국인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한마음 태국인 교회! 태국인들이 함께 모이는 곳, 서로 위로를 받으며, 정보를 주고받는 곳, 태국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2) 질적 성장

태국인 교회는 질적으로도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1) 태국성도들의 성장

태국의 복음화율은 1%도 안됩니다. 그나마 있는 기독교인들도 태국 사람들이기 보다는 방콕에 있는 중국계통의 태국인들과 치앙마이 쪽의 산족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나와 있는 근로자들은 거의다가 태국 중부지역과 태국 동북부의 이산지역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 접촉을 해 보면 예수를 믿는 태국 근로자들은 거의 한 명도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불교도들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여도 다신교 성향이 많았습니다. 예수도 자기들이 믿는 신중에 하나 정도로 믿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을 이루기가 아주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믿음을 갖고 한국에 있는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변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주변에 흩어져 있는 자기 동료들에게 전도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또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여 자기 민족 태국을 복음화 하는 일에 쓰임 받는 사람들이 되려고 합니다. 몇 년 전에는 성경을 깊이 연구해 보고 싶은 태국인들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1년에 3달씩 두 번 6달 동안 낙원교회가 운영하는 수련원에 기숙하면서 성경을 깊이 연구해 볼 사람들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무려 10 명이 넘는 태국인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한국에 온 그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놀라운 질적 성장입니다.

(2) 지도자 배출

한마음 태국인 교회의 역사가 깊어 갈수록 좋은 지도자들을 많이 배출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역자 사역을 했던 태국 선교사 후보생들이 이곳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태국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 태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태국 이산 지역인 코랏에서 현지인 교회 사역하시는 이문기 선교사님과 우돈타니에서 현지인 교회 사역을 하시는 김미현 선교사님은 다 한 마음 태국인 교회 교역자 출신들입니다. 이 외에도 3-4분이 지금 태국 선교사 사역 파송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마음 태국인 교회가 태국 선교사님의 훈련 장소로 아름답게 쓰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교사님만 배출한 것이 아닙니다. 한마음 태국인 교회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크리스천이 된 태국인 교우들 중에 3분이 태국에서 신학을 공부하고는 교회를 개척 시무하고 있습니다. 짬띠, 라웅, 팜 전도사님들입니다. 그 뿐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태국으로 돌아간 태국 교우들! 자기들의 고향 교회에 가서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며 태국 복음화에 힘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3) 캄보디아 근로자 교회 개척

한 마음 태국인 교회는 2007년 깜짝 놀랄 일을 하나 합니다. 캄보디아 근로자들을 위한 교회를 개척했다는 것입니다. 태국과 캄보디아는 전통적으로 서로가 양속의 관계입니다. 서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마음 태국인 교회에 캄보디아 근로자가 한 명 찾아 와 교회 출석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명을 시작으로 캄보디아 근로자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이 때! 태국 교우들이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자기들이 한국 교회의 도움을 받은 것 같이 자기들도 캄보디아 교우들을 품고 그들을 돕자는 것입니다. 그래 그들이 캄보디아 교회의 탄생을 돕습니다. 캄보디아 근로자 교회를 만듭니다. 언어 문제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자 캄보디아 예배 처소를 낙원교회의 수련원으로 옮기고 그 교회 운영에 대한 재정을 지원합니다. 지금 캄보디아 교회는 태국인 교회 보다 더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선교를 원하는 한 이웃 교회와 연결이 되어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민족 감정을 뛰어 넘어 주님을 섬기는 한마음 태국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5. 한마음교회의 사역 확장

현재 한마음교회 사역은 태국으로 까지 확장을 했습니다.

1) 태국인 현지 교회 건축 및 개척

우리 근로자들의 고향 교회인 세까 교회와 반팽 교회는 시골에 위치한 교회 건물을 갖고 있지 못한 교회였습니다. 그래 우리 낙원 교회는 세까 교회와 반팽 교회를 벽돌조로 아름답게 건축을 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마음 태국인 교회 출신이면서 교역자

가 된 찐띠, 라웅, 띵 전도사님이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그 교회들의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2) 태국인 근로자 연합 집회

한마음 태국인 교회는 10년이 지나면서 많은 태국인 교우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태국인 교우들이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물론 돌아간 태국인 교우들을 우리는 정기적으로 심방을 하며 그들의 신앙생활을 관리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멀리 태국에 있는 그들을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돌본다는 것은 불가능했고, 별로 효율적이지도 못했습니다.

기도하던 중 우리는 한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귀국한 태국 교우들을 1년에 한 번씩 태국에서 모이게 하여 자체 연합집회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2006년 드디어 제 1회 태국인 근로자 연합집회를 태국 내 휴양도시인 팍청이란 곳에서 가졌습니다. 근로자들과 가족들 200 명가량이 모여 뜨거운 집회를 가졌습니다. 태국 전국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던 태국인 교우들이 다 차량들을 이용하여 모였습니다. 2박3일 동안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며 교제와 신앙회복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 집회는 지금까지 3회 진행이 되고 잠시 멈춰있습니다. 하지만 태국 코랏에 선교 센터가 완성이 되었으니 이제 곧 다시 진행될 것입니다.

3) 태국 코랏 선교센터

우리는 가장 효과적인 선교는 직접 선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재정과 기도로만 후원하는 선교가 아니라 전 교회가 직접 선교하는 선교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선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도 여러 곳을 산발적으로 선교하는 것 보다는 교회 형편에 맞게 한 나라, 혹은 한 도시, 혹은 한 교회를 집중적으로 선교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선교의 방법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 오랫동안 우리가 선교할 한 나라나 지역을 기도해 왔습니다. 한마음 태국인 교회를 운영하면서도 우리가 영원히 선교할 한 나라와 지역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모든 정황으로 봐서 태국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03년이 시작되는 첫 주에 우리 낙원 교회 당회원 전체가 태국으로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태국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정해 주신 나라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회원들은 태국 여행을 통하여 태국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낙원교회에 맡기신 나라요 태국 중에서도 동북부의 이산 지역이 바로 우리의 선교지역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당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의 영구적인 사역 현장을 태국 이산 지역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영구적인 표어를 만들었습니다. “동두천을 주께, 태국을 주께”입니다. 그 날 이후로 우리 교회는 태국을 주께 드리는 일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 비를 보내는 것으로 만족하는 선교가 아니라 전 교인이 어떻게 하면 영구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태국을 선교할 수 있는가를 연구했습니다. 우리가 내린

결론은 태국 선교를 위한 거점을 태국 내에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그 거점을 중심으로 태국 선교를 시작하고 돕자는 것이었습니다. 태국 사회복지 법인을 2년에 걸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태국 제 2의 도시인 코랏 (라콘 라차시마) 외곽에 5천 평의 땅을 구입했습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님을 선교사 겸 부 목사님으로 파송을 하였습니다. 연합집회를 할 수 있는 장소로 이용하기 위하여 오랜 기간 토목공사를 하였습니다. 태국에 있는 각종 과일나무 수 백 그루를 심고, 대지 주변에 수로를 파서 양어장을 만들어 3천 마리의 물고기 치어들을 풀어 놓았습니다. 또한 수영장을 만들어 동네 꼬마들이 마음껏 수영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2 년에 걸쳐서 센터 건물 겸 고아원 건물을 2층 110 평 규모로 지었습니다. 올해는 이웃교회의 도움을 받아 2층 90평의 교회 건물을 건축하였습니다. 이제 교회 건물 준공이 끝나면 교회와 고아원 사역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코랏 선교 센터! 태국 이산 지역의 작은 태국인 교회와 한국인 선교사님들 그리고 한국 선교 단체를 돕고 그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점이 될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 곳에 모여 훈련을 받고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곳은 우리 한마음 교회 출신 태국 성도들의 영혼의 고향이 될 것입니다. 그 곳을 통하여 태국 복음화의 기치를 들 것입니다.

6. 태국인 근로자 사역의 결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으로 시작된 태국인 근로자 사역은 이제 10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은 우리를 많이 축복해 주었습니다.

1) 순종에 대한 기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기쁨이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넘치고 있습니다. 비록 아직도 미완성의 모습이지만 그래도 한 가지씩 한 가지씩 열매가 맺어지는 모습을 보면 우리를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 모릅니다.

2) 교우들에게 섬김의 기회 제공

섬김이 없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낙원교회는 태국인 근로자 사역을 통하여 섬김의 기회를 제공 받고 있습니다. 태국인 근로자 사역과 태국 코랏 선교 센터 사역은 우리 낙원교회에 백 년 동안의 일거리를 제공해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역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 전에 가는 날까지 즐겁게 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뿐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까지도 이 일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3) 주변 교회에 주는 영향력

낙원교회가 외국인 근로자 사역을 진행하면서 동두천에 위치한 주변 교회들이 함께 외국

인 사역들을 시작해 주셨습니다. 각 교회마다 교회 형편에 맞게 베트남, 캄보디아, 쿠르드족, 스리랑카 등등의 근로자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두천 기독교 연합회에서는 2007년부터 매년 추석을 전후하여 “외국인 근로자 축제 마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때 연합회 회원 교회와 외국인 사역을 하는 교회의 교우들과 외국인들이 모두 함께 모여 자기들의 문화와 사역을 소개하며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런 영향력이 동두천뿐 만이 아니라 전국 모든 교회에게 까지 전해져 열방을 주께 드리는 역사가 있었으면 합니다.

4) 태국 복음화에 기여

태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요, 복음의 씨앗이 이미 180년 전에 뿌려진 나라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세계의 선교사들이 선교의 땀과 눈물을 흘린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복음의 진보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6700만 인구 중에 기독교 인구는 1%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통계는 겨우 0.3%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불교가 국교는 아니지만 전 인구의 91%가 불교도로 국교가 거의 불교처럼 된 나라가 태국입니다. 우리가 국방의 의무를 갖듯 왕을 비롯한 모든 남자들이 절에 들어가 스님이 되어야 사람으로서 인정을 받는 나라가 태국입니다. 태국 기독교 총회는 10년 전 2010 비전을 세웠습니다. 2010년까지 태국 내 968개의 모든 군에 교회를 하나 이상씩 세운다는 목표입니다. 이 목표가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이 목표는 교회가 하나도 없는 군이 태국 내에 산재해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태국 시내를 돌아다녀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교회 건물, 십자가, 볼 수가 없습니다. 교회 건물 보기가 하늘의 별을 보기 보다 더 어려운 나라가 바로 태국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애곡을 하여도 울지 않는 나라가 바로 태국입니다. 그런데 이런 태국 사람들에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한류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에 호의적이고, 태국 사람들이 3년 짜 가장 여행하고 싶은 나라로 한국이 선정될 정도입니다. 이런 태국인들이 취업을 위하여 자기 발로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니 들어오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이 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기회입니다. 한마음 태국인 교회 사역을 통하여 이런 태국인 근로자들을 전도하고 또 이들을 제자화 하여 태국으로 돌려보낸다면, 또 이들을 태국에서도 관리하고 동력화하여 복음의 사역자로 만든다면 태국의 복음화는 훨씬 더 빨라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태국에 임하여 인도차이나 반도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역사회 문화 활동센터

- 제 9회 중소도시 부문 수상 녹양교회 사역보고 -

1. 들어가면서(서론)

우리는 교회의 존재목적이 하나님의 선교 즉 복음 전파에 있다고 말한다. 여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무엇을 하든지 반드시 하나님의 선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교를 어디에서 부터 우선순위로 시작해야 될 것인가? 필자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그 답을 찾아보았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는 말씀은 선교의 지역적인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구약에서의 선교의 개념은 지리적으로 밖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안으로 모여 오는 것이지만 신약 선교의 개념은 예루살렘에서 밖으로 확산되어 나아가는 것이다. 예루살렘=지역사회, 유대=한국, 사마리아=아시아, 땅 끝= 세계라는 관점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선교의 출발점은 지역사회가 되며 최종적인 목적지는 땅 끝 세계가 된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루살렘인 지역사회를 복음전파의 최우선 순위로 정하고 관심을 가지고 복음 전파에 힘써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지역사회를 위한 하나님의 선교로서의 디아코니아 사역의 중요성과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렇다면 세계 제2위의 선교사 파송국이라는 명성을 듣는 한국교회가 말씀을 실천한다고 하지만, 현실의 모습은 하나님 말씀에 충실한 하나님의 선교를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가? 라는 물음 앞에서 우리는 선교의 개념과 방법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선교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8절, 그리고 앞서 언급했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 성경자체에서 명령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그대로 실천만 했지 그 방법과 전략에 대하여서는 연구되거나 체계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부족했다. 필자는 그 방법과 전략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또한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의 제물로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섬김의 모습을 직접 보

여 주면서 사회에 대한 겸손을 바탕으로 하는 헌신적인 디아코니아 사역을 강조하셨다. 그러므로 교회가 하는 모든 사역은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선교이며, 선교의 수단은 봉사 와 섬김 즉 디아코니아가 중요한 방법이자 대안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해 아래 필자는 본 교회에 부임한 이래 꾸준히 디아코니아 사역을 진행하여왔다. 그리고 이러한 사역을 통하여 많은 열매를 맺어왔다.

그러나 경제의 발전과 함께 급변하는 사회적 현상에 따른 사람들의 의식 변화, 교회의 세속화와 정치화 및 물질적 가치관, 교회 분쟁과 갈등, 목회의 권위와 지도력의 상실, 교회의 난립과 과당경쟁등과 같은 교회 내 외적 요인들은 교회 밖에 너무 많은 안티 기독교인들을 만들어 냈고,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가지게 하여 아예 발길도 들이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심지어, 모여든 교인들조차도 교회 밖으로 내 모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에 필자는 제1단계의 과정으로 지역사회 현장으로 찾아가는 교회로서 디아코니아의 사역을 감당했다면, 이제는 2단계로서 교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제고와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 와서 느끼고 배우며 함께할 수 있는 교회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공동의 디아코니아 사역의 필요성을 절감하였고 이러한 사역들을 기도하며 준비하고 실천하여 왔다.

이제 이러한 사역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 방법으로 필자는 본 글에서 필자가 담임하는 녹양교회의 지역적 특색과 역사, 현황, 필자의 디아코니아에 대한 목회 비전과 철학을 먼저 말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시간동안 진행하여온 여러 사역들을 간략하게 열거하며 소개할 것이다.

그러나 지역사회 문화활동 센터로서 지역 내에 본 교회를 세우기 위한 노력들과 결과들은 특별히 자세히 소개하고자 한다. 그것은 제1단계 사역을 통하여 지역 내에 많은 열매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환경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본 교회가 쉽게 발견하여 찾아오기 어려운 교회임으로 인하여 제2단계 디아코니아 사역을 효과적으로 감당하면서 다음 3단계 목표인 교회와 지역사회를 하나로 하는 공동체 사역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지역 내의 모든 사람들이 본 교회를 방문할 수 있는 계기들을 만들어야함을 느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런 사역들을 소개한 후에 몇 가지 제언으로 본 글을 마무리 하고자 한다.

2. 교회가 속한 지역 환경과 녹양교회

1) 교회가 소재하는 지역 환경에 대하여

녹양교회가 속한 의정부 지역은 1963년 시로 승격된 서울시 노원구와 도봉구와 인접한 중소도시이다. 면적은 84,60km²으로 매우 작은 면적이지만, 서울권과 인접한 지리적 여건의 영향으로 인구는 2011년 통계청 자료의 의하면 약 431,300여명에 이른다. 그러나 서울과 인접한 까닭에 대부분의 생활권이 서울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전입과 전출로 인한 인구 이동이 약 20%에 이르는 인구이동이 빈번한 지역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2012년에 발표된 의정부 기독교 연합회에 가입한 현황을 참고하면 교회수 315개, 기독교 단체 33개가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가 인구 이동이 매우 많음으로 인하여 성도의 수가 1000여명을 넘는 대형교회가 2~3곳 정도이고, 500~1000여명의 교세를 이루는 교회 역시 손에 꼽히는 정도이다.

(1)교회 주변 환경

녹양교회가 위치한 주변 지역을 살펴보면 선교 여건은 매우 열악한 환경이다. 녹양교회는 행정구역으로 가능동과 녹양동의 경계지역에 위치하고 있지만, 지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녹양동에 더 가깝다. 녹양동은 2011년 기준으로 8,793세대에 약 23,60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교회가 위치한 지역은 종합운동장을 비롯하여 실내 체육관과 보조 경기장으로 지역 주민들이 생활체육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지역이지만, 교회 바로 전면에 대형 미군 부대가 위치하고 지근 거리에 홍복산과 경증환자를 위한 정신요양시설이 있으며, 출소 전 수감자를 교육하는 갱생보호원과 미혼모를 위한 어린이 집 등이 위치하고 있다. 교회 인근 대부분의 지역은 개발 지역이 아닌 그린벨트 지역으로 주변에 많은 주택이나 아파트와 같은 인구가 밀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

그나마, 주택으로서는 유일하게 작년까지만 해도 건축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건축이 되었지만 입주하지 못한 5층 빌라 8개동이 있고, 약 300여 가구로 구성된 마을이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다. 그러나 그것도 약 1/4 정도는 도시의 외곽지역이라는 특성으로 자동차 수리공장등과 같은 공업시설이 혼재하여 있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은 전통적 영향으로 반 기독교 정서가 아직도 강하게 남아 있는 지역 토박이들이 대다수 이다.

(2)지리적 환경

교회와 가장 가까운 인구 밀집 지역은 교회에서 도보로 2~30분 정도에 모두 위치하고 있다. 그러므로 요즘처럼 편익을 우선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본 교회를 찾아오게 하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특히 교회의 위치가 앞서 말한 사람들의 주 활동무대와 시야에서 벗어난 곳에 위치하여 있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찾아 와야만 가능한 지리적 환경이면서도, 대로에서 벗어나 주변에 언덕과 건물들이 가로막아 쉽게 눈에 띄지 않은 불리함도 가지고 있다.

지역 내 몇 곳에 교회를 알리는 안내판과 함께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만, 사람들의 주 활동 지역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위치함으로 인하여 본 녹양교회의 명성을 듣고 방문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찾지 못하고 찾고 찾다가 전화하여 위치를 찾을 정도이다.

(3)교통 환경

교통상황은 더욱 열악하다. 교회 주변에 오는 버스는 노선버스 1개와 마을버스 1개가 있지만 그것도 배차간격이 약 20~30분이며, 마을버스 정류장은 그마저도 조금 떨어진 곳에 위

치함으로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기가 만만치 않은 지역이다.

그러나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도 녹양교회는 1200여명이상의 교적과 함께 매주 청장년이 평균 600여명 정도 출석하는 중형교회이다.

2) 녹양교회에 대하여

(1) 교회의 역사와 교인현황

① 교회의 역사

녹양교회는 1970년 1월에 故이성춘 권사 개인에 의하여 대지 500여평에 예배당 30평, 목사관 15평으로 지역명에 따라 녹양교회라는 이름으로 녹양동 192번지에서 시작된 42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이다.

목회자는 1대 김기현 전도사로 시작하여 2대 이봉근 목사, 그리고 현재 담임목사인 필자 박귀동 목사가 3대 목회자로 1981년 1월 부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교회의 성장에 따라, 지역을 옮겨서 3번의 건축을 하였으며, 현재의 교회는 2007년 5월에 완공된 건물이다.

② 교회의 교인현황

교세는 현재 전산 상 등록된 교인 수는 약 1200여명인데, 유치부 약 30여명, 아동부 약 50여명, 중고등부 약 70여명, 청년부 약 150여명 장년부가 약 900여명의 구성되어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전체 인구 가운데 기독교 인구가 1300만명이라고 공식석상에서 주장했다. 그러나 2006년의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약 8백 76만명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그동안 교세 통계가 교회에 출석한 교인 수 보다 등록한 재적 교인수를 기초로 하였으며 여기에는 교회를 옮겨서 등록한 교인들과 개종한 교인등과 같은 사람들을 모두 포함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므로 필자는 매년 이사 등으로 인하여 최소 1년간 본 교회에 출석하지 않은 교인들은 일단 본 교회 출석교인에서 제외하고, 1년 이내에 1~2회라도 출석함으로 영성이 회복되어진다면 언제든지 본 교회에 출석 가능한 성도만을 본 교회 제적교인으로 하는 교적 정리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교회 교인 수는 허수가 없음을 자랑스럽게 말하고 싶다. 이런 현황에서 본 녹양교회는 현재 매주 평균 청장년 600여명이 출석하고, 새가족이 등록하면 평균 70~80%의 놀라운 정착율을 자랑하고 있다. 지금도 매주 새로운 얼굴들이 교회를 탐방하면서 교회 분위기를 파악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 볼 수 있고 또한 실제로 등록교인이 되어 지는데, 이는 현재 대부분의 교회가 얼마나 감소 했는가에 대한 통계를 내며 가슴 졸이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본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많은 디아코니아 사역들의 열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③교회의 공간구조와 시설

현재의 건물은 필자의 목회철학에 따라 건축된 교회이다. 그것은 바로 이 글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일들을 진행하기 위하여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였기 때문이다.

교회가 해야 할 기능은 예배, 전도, 교육, 봉사, 친교의 기능을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성전이라는 예배당만을 건축 해왔다. 수십억 혹은 수백억을 들어서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일주일에 한 두번만 사용하고 주중에는 문을 잠가 놓는 것은 거룩한 낭비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지역사회에서 예수님을 믿는 교인들만 필요로 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필요하며 모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열린 교회, 교회가 지역사회 삶의 센터가 되고, 교회가 지역사회를 이끌어 가는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며, 지역사회에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 가야한다”는 필자의 목회철학에 성도들이 공감하면서, 3차 건축의 비전을 일주일에 한번 사용하는 건물이 아니라, 예배와 전도, 교육과 봉사, 친교로 일주일 내내 사용하는 기능위주의 지역사회 선교복지센터 건물로 세우기 위하여 10년동안 기도해 왔다.

따라서 교회를 건축하면서 한 공간을 가지고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는 다목적 기능을 위한 건물을 건축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는 예배의 기능과 대형 홀의 기능을 동시에 감당할 수 있는 콘서트홀과 다목적 공간, 담소와 만남의 공간을 위한 야외 선큰 가든, 식당과 카페의 기능을 위한 로뎀홀, 노인들을 위한 전용 주야간 보호시설, 도서실과 독서실, 상담실, 회의실 및 소교실 등을 만들었다. 또한 건물의 옥상은 체육을 위한 공간과 야외 휴게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계획들을 실질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소프트 웨어로서 콘서트홀에는 무빙라이트 및, 핀 조명등 공연을 위한 조명 시설을 갖추었으며, 음향시설 역시 어떤 공연이라도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또한, 콘서트홀의 좌석은 각종 공연장에서 편하게 관람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안락한 고정된 개인용 극장식 의자를 설치하고, 다목적 교실에는 개인용 의자로 용도에 따라서 수시로 이동하여 사용할 수 있게 시설 하였다.

그리고, 교회에서 실버타운등과 같은 3단계의 디아코니아 사역의 확대를 위하여 미리 구입해 두었던 넓은 공터는 이러한 사역 시에 약 200대 이상의 차량들이 편안하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자연스럽게 주차장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런 건축구조와 환경적 요건으로 인하여 본 교회는 일주일 내내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다가 주일날에는 예배를 위한 공간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2)담임 목회자의 목회 철학

필자는 사회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신학대학에서 지역사회 디아코니아 목회를 배우거나 전혀 접해 보지 못했는데 지역사회 디아코니아 목회에 대한 비전을 가지게 된 동기가 있다. 필자가 서울의 중형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사역할 때, 어느 목사님이 독일 교회를 방문하고 돌아와서 독일교회 방문 기행문으로 본교회가 속한 대한 예수교 장로회(통합) 교단지

인 기독교공보에 연재로 쓴 것을 읽는 중에, 독일 교회 목사는 교회 안에서만 목회의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 지역사회와 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지역사회 개발회의에 참석해서 지도하는 지역사회 지도자라는 글을 읽고 다음에 필자가 단독목회를 하면 필자 역시 교회 밖 지역사회에서도 필요한 지도자가 되겠다고 결심하였다. 또한 목회적 권위를 교인들의 섬김을 받는 것에 두는 모순된 지도자 상을 보면서 섬김을 받는 목회자가 아니라 섬기는 목회자가 되겠다는 다짐을 한 바 있다. 그 후에 3년이 지나 지금의 녹양교회에 부임하여 왔는데 녹양교회가 있는 지역사회는 의정부시 지역 번두리 도농지역으로 대부분 농사를 짓거나 직장 생활을 하는 지역으로 약 120여세대가 있었다.

그래서 우선 전도의 측면에서 지역사회 지도자 군에 해당하는 분들과 접촉을 시도하면서 친해지려고 노력하였으며, 지역주민의 상갓집이나 결혼식 및 잔치 등의 참여, 출산 가정에 선물 전달, 이사 온 가정을 돕거나 방문하여 선물전달, 병원문병, 각종 지역문화 행사 참여 등과 같은 지역의 행사 모임이나 지역주민의 애경사 등에 참여하며 지역주민과의 대면접촉에 우선권을 두고 지역을 위한 디아코니아 사역을 하였다.

하지만, 그들은 필자가 목사인 까닭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기들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이라는 전통적인 인식 때문에 마음을 열어주지 않는 한계를 절감하였다. 그러나 목사가 사심 없이 양심적이며 겸손하고 신실하며 순수한 열정과 희생정신으로 디아코니아 활동을 하는 것을 보면 지역사회 주민들은 목사를 지도자로 인정하며 존경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8절을 통하여 명령하신 선교의 명령이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 끝으로 즉, 안에서 밖으로 나가라는 것이며, 이것은 오늘날 교회가 선교의 지리적인 개념으로 예루살렘(지역사회)으로 유대(한국)로 사마리아(아시아)로 그리고 땅 끝(세계)으로 나아가야 함을 제시하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좌절하거나 실망할 수 없었다. 그리고 이러한 목회 비전과 철학은 필자로 하여금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녹양교회” 슬로건을 만들게 하였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디아코니아 사업을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게 만들었다.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사역을 위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선교적인 사명을 위하여 섬기는데 그 존재의 목적이 있다. 그렇다면 교회 존재의 목적이 되는 하나님 나라 선교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서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가?”에서 찾아야 한다. 사복음서를 주목하여 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섬김의 디아코니아의 행동적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회의 존재 근거가 되는 하나님 나라 선교를 위하여 지역사회에서부터 섬김의 삶을 실천하는 디아코니아의 교회가 되어질 때 오늘 한국교회는 새롭게 거듭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가 되어질 때 한국의 교회는 “아! 가고 싶은 그 교회!”로 많은 사람들에게 새롭게 인식되어 지게 될 것이며, 이는 하나님 나라의 선교가 이루어지는 현장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3)지역사회를 위한 녹양교회의 여러 사역들과 결과들

필자는 이러한 목회적 비전과 철학의 실천을 위하여 지역사회를 위한 여러 가지 디아코니아 사역을 계획하였으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그 사역들을 실천하고 있다. 이제 그 사역들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그 결과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①상갓집 조문, 결혼식과 잔치 참여, 출산한 가정선물, 이사 온 가정에 선물, 병원문병, 독거노인 방문, 지역문화행사 참여 등 - 이 사역들은 필자가 녹양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제일 먼저 교회 밖 지역 주민들에게 사귀을 위하여 다가갔지만 그들은 오히려 마음을 열어주지 않고 오히려 거부반응을 보이며 피하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던 중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가 있을까? 그들과의 접촉점을 찾기 위하여 고민하던 가운데 그들의 애경사에 주목하면서 사랑이 느껴지는 관심을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찾아가는 사역으로 진행하였던 프로그램이다.

현재는 교회의 성장에 따른 많은 업무량등과 함께 지역이 넓어지고 많은 인구가 유입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익명성으로 인하여 과거처럼 활발하게 행하지 못하는 사역이다. 특히 독거노인 방문은 현재 방문요양 및 목욕등과 겹침으로 인하여, 교회 내에 방문 요양 및 목욕센터를 설치하여 교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회와 더불어 복지사역의 한 방법으로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다. 그밖에 다른 사역은 전도 대상자나 지역 내에 어려운 사람들과 같은 꼭 필요한 경우에 필자가 직접 방문하거나 부교역자 및 교인들을 통하여 이 사역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까지 지속된 이 사역은 오늘 녹양동 인근 지역의 토박이 주민들에게 매우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쳐서 지금도 녹양교회에 대한 지역 토박이 주민들은 “녹양교회는 무조건 좋은 교회”라는 인상이 강하게 새겨져있다. 그리고 이것은 지역에 새로 이사 와서 교회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은 자임도 불구하고 “교회 가려면 무조건 녹양교회로 가라”고 안내할 정도로 교회의 긍정적 이미지를 형성하여 놓았다. 실제로 이러한 사례를 통하여 본 교회에 등록된 교인들이 다수 있으며, 그 중에는 현재 본 교회에서 매우 왕성한 디아코니아 사역을 감당하는 교우도 많다.

②과일 바구니 나누기, 사랑의 쌀 나누기, 사랑의 김장 나누기, 사랑의 케익 나누기, 송구 영신의 날 차와 선물 나누기 - 본 교회는 매년 추수감사절이 되면 한해를 돌아보며 각 목장별로 감사의 과일 바구니를 만들어 봉헌하여 봉헌한 과일을 교인들의 추천을 받아서 지역사회 어려운 가정과 기관에 나누는 사역을 한다. 이것이 과일 바구니 나누기 사역이다. 사랑의 쌀과 김장 나누기는 대부분의 교회에서 실시하는 것과 비슷한 방법이다. 다만 본 교회에서는 별도로 교회의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알뜰시장 바자회에서 조성된 비용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디아코니아 사역을 진행하는 점이 타 기관이나 교

회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매년 본 교회 지역 가능동과 녹양동사무소 사회복지과와 연계하여 추천을 받아 진행하여 오고 있으며, 특히 사랑의 쌀은 지역 내 노인정에 우선적으로 전달하는데, 최근에는 동사무소와 노인정에서 그 시기가 되면 먼저 알아서 협조 공문을 발송하여 오고 있다.

사랑의 케익 나누기는 약 3년 전부터 시작하였는데 매년 성탄절이 되면 사회와 교회는 가장 요란스런 축제 분위기 이지만 안 믿는 사람들과 정말 어려운 가정에서는 피부로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민감한 소년, 소녀 가장들에게는 힘겹고 어려운 날임을 고려해 교인들과 동사무소의 추천을 받아서 케익을 전달하는 나눔이다.

송구영신의 날 차와 선물 나누기는 매년 12월 마지막 날 밤에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지역 내 경찰 지구대, 군부대 초소, 관공서 기관초서나, 아파트 경비들 및 주차요원들에게 따뜻한 차와 떡 장갑과 같은 선물들을 담은 선물 꾸러미를 만들어 전달하는 행사로 이는 송구영신예배를 드리기 전에 매년 청년들이 모여 준비하고 전달하는 일을 맡아 담당한다.

③장학회, 알뜰시장 바자회- 다른 기관이나 교회에서 동일하게 진행되어지는 사역이지만, 특별히 본 교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알뜰시장 바자회는 그 규모나 내용이 지역 내의 주민들이 기다릴 정도이다. 디아코니아 사역의 일환이기에 수익이 우선이 아닌 선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알뜰시장을 통하여 참 교회의 모습을 보았다”고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이다. 그리고 이 사역은 다년간 필자의 환경운동의 영향으로 자원활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는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중고물품을 기부하고, 집에서 모아둔 종이봉투를 포장지로 활용하는 등의 환경운동과 연계시켜 20여년 동안 진행하여 오고 있다. 이곳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앞서 제시한 사역들의 모든 경비로 사용된다.

④경로잔치 - 매년 알뜰시장 바자회를 통하여 만들어진 예산을 가지고 지역 내에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들을 초청하여 식사와 선물 및 노래자랑등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하여 노인들을 30여년 동안 섬겨온 행사이다. 그 규모가 있어서 매년 지역 내의 지도자들과 관공서장들 및 지역 국회의원들까지 방문하여 함께하는 지역의 큰 축제가 되었다.

⑤지역사회 평생교육원운영 - 대부분의 교회에서 비슷하게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문화센터, 은빛대학, 도서실과 독서실운영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⑥노인복지센터(은빛 사랑채)운영 - 노인 복지에 대한 교회의 노력과 관심에 따라 경기도와 의정부시의 위탁을 받아 노인 유치원과 같은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좋은 시설과 교육 및 전문 인력들의 헌신적인 수고로 지역 내에서 가장 우수한 기관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런 평가는 많은 노인들의 관심을 받고 있지만 아쉽게도 공간의 제약으로 전체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⑦디아코니아은행, 지역신문 푸른빛 이야기발간 - 디아코니아 은행은 신용협동조합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형태로 시작되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자금의 대출 및 공과금 대납등과 같은 사역을 감당하였으나 카드사용과 자동이체가 생활화 되면서 더 이상 필요성이 소멸되면서 그만 두게 되었다.

지역신문은 지령 100호를 넘긴 장수 지역신문으로 단순한 교회 홍보지가 아닌 8면의 지면으로 지역소식, 문화소식, 각종 정보 및 지역현안을 조명하는 면들을 제공하여 지역주민들이 애독하는 발행부수 일만 부를 자랑하는 지역사회 매체신문이다.

⑧사랑의 밑반찬 나누기 - 이 사역은 본 녹양교회가 디아코니아 사역을 통하여 지역 내에서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었음을 입증하는 사업이다. 지역주민의 요청과 본 교회의 사역 목적 및 방향이 일치하여 시작된 사업으로 교인과 지역사회의 추천을 받아 매주 토요일에 약 2~3끼분에 해당하는 반찬을 준비하여 지역 내의 독거노인들에게 배달하는 사업이다. 최근에는 의정부시나 지역 내 동사무소들에서 그들의 관내에 있는 사람들을 추천하며 배달을 요청하여 오고 있으며, 지역 내의 많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봉사자로 참여하여 이 사업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있다.

⑨지역사회 문화활동 센터 - 최근에 가장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사역이며, 교회를 1년 365일, 24시간 개방하여 지역 내의 모든 사람들이 녹양교회를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회의 문호를 활짝 개방함으로써 교회에서 각종 행사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역이다. 자세한 내용은 제3번에서 설명할 것이다.

이외에도 많은 디아코니아 사역이 있지만 중심으로 진행되어오고 있는 사역들을 설명하여 보았다. 본 교회에서는 이 모든 사역을 30여년 전부터 “사랑의 현장 갖기”라는 이름으로 진행하여 오고 있다. 그러므로 모든 사역이 각 기관과 부서가 참여하고 담당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어지고 있으며, 교역자들이 중심이 아닌 성도들이 중심이 된다. 그래서 교역자가 없거나 바뀐다 할지라도 지속성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계속되어질 것이다.

이러한 사역들은 본 녹양교회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 인근에 방문하여 본 교회에 대한 평가를 받아보면 오늘날 비난받는 교회들이 새롭게 설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쉽게 발견할 수 있게 만들어 줄 것이다. 더불어 이러한 사역들의 결과는 앞서 제시한 열악한 교회의 지역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찾아오는 교회를 만들어 꾸준한 성장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지역사회 문화 활동 센터로서의 녹양교회

1) 목적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는 교회 양적성장을 가장 우선의 목표로 삼고 있다. 하나님 나라의 선교로서 믿지 않은 자들이거나, 타종교 또는 영적 쇠퇴나 신앙을 상실한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들이고 그들을 통하여 교회의 양적 성장을 가져온다면 그보다 바람직한 일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최근 다양한 이론들과 세미나, 토론회, 강의 등을 통하여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교회 현장에서는 복지선교와 같은 간접적인 선교의 방법이나, 초청잔치 등과 같은 직접적인 방법들을 시도해 보지만 교회를 향한 사람들의 발걸음은 미미하고 기존의 교인들에게 피로감만 누적시키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교회를 찾아오게 만들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지역사회 문화 활동 센터로서의 녹양교회가 만들어지게 된 목적이다.

필자는 1995년도에 안식년의 휴가를 맞이하여 3개월 동안 유럽과 미국의 여러 교회를 방문하여 디아코니아 사역에 대하여 연구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다. 이 연구의 기간 동안 문을 닫아버리거나 술집이나 모스크 사원 등으로 팔려나간 수많은 서구의 교회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아직까지는 교회로서 존재하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만 사용되어지는 웅장하고 아름다운 좋은 시설의 교회의 건물을 보면서 필자는 조만간 한국교회의 모습을 그려보았다. 많은 비용을 들여 성전이라는 예배당만을 건축하고 문을 잠가 놓는다면 그것은 거룩한 낭비이며, 서두에서 말한 바처럼 최근의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부정적 인식은 더욱더 교회로부터 그들의 발걸음을 멀어지게 함으로 결국 한국의 교회들 역시 서구 교회와 동일한 쇠락의 길을 걸어갈 것이 자명하다.

그래서 필자는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는 디아코니아 사역을 해오면서 필요에 따라서 건물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먼저 지어놓고 나서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시행착오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건축의 비전을 일주일에 한번 사용하는 성전 건축이 아니라 예배, 전도, 교육, 봉사, 친교로 일주일 내내 사용하는 기능위주의 건물을 세우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기도했다. 그리고 앞서 교회의 현황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교회를 건축하고 시설하였다. 물론, 다른 교회에서 신앙 생활하다가 이명하여 온 지금까지 전통적인 예배당 공간으로서의 고정 관념을 가진 교인들에게는 교회론과 같은 교육 등으로 의식의 전환을 바꾸어야 했다. 목사는 무엇을 하기 전에 “왜 그 일을 해야 되는지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확실하게 정립하도록 교육을 먼저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지역적 환경 즉, 중소형 소극장이 없고, 비싼 비용 등으로 인한 각종 문화 공연 등의 소외감 및 지역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지역 내 공간의 부재 등은 이 사역에 대한 필요성을 더욱더 공감하게 하였고, 그동안 교회에서 진행되어온 여러 형태의 디아코니아 사역을 통하여 형성된 교인들의 교회관과 선교관은 필자의 노력에 적극 협조하였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현재 녹양교회는 계획한 목적대로 가만히 있어도 한 달이면 수천 명의 지역

주민이 스스로 찾아오는 교회가 되었다.

2) 프로그램의 내용들

(1) 문화센터로서의 녹양교회

최근에 어지간한 규모를 가지고 있는 교회나 심지어 소규모의 교회에서도 1~2개의 강좌를 개설하여 문화센터의 이름으로 각종 교양강좌 및 취미 등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본 교회 역시 이와 별반 다르지 않으며 현재 약40개의 강좌가 진행 중에 있으며, 다음 학기 수강생을 약75개의 강좌를 개설하고 모집하고 있다. 각 강좌는 3개월을 기본 과정으로 하며, 지역주민이 신청한 강좌는 모집인원에 미달되더라도 가능한 진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최소의 비용을 수강료로 받고 있다. 그것은 경비의 조달 목적도 있지만 참여자로 하여금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본 1980년대부터 몇 개의 강좌를 개설하는 형식으로 간헐적으로 시행하여 왔던 본 교회 문화센터의 자랑은 수강생 90%이상이 본 교회 교인이 아닌 지역주민이며, 그래서 매일 지역주민들이 교회를 찾고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고정 수강생과 함께 새롭게 수강하는 지역주민이 발생하고, 새로 개설되는 강좌들이 계속하여 생긴다는 점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애초의 목적대로 수강생들이 자신의 강좌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도 교회를 찾아 자연스럽게 교회의 독서실과 도서실을 이용하기도 하고 카페를 이용하며 교회에서 시간을 보냄으로 본 교회 교인들과 접촉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 이때 자연스런 하나님의 선교의 시간이 마련된다.

다만, 아쉬운 점은 지역 내의 주민 자치센터나 백화점등과 같은 조직력이나 자금력을 앞세운 타 기관에서 문화강좌 등이 많이 개설되어 폭발적인 수강생의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며 그 대안을 찾고 있는 중이다.

(2) 교육청 행사와 초등학교 졸업식 장소인 교회

전국적으로 교회에서 초등학교 졸업식이 진행된 경우는 본 교회 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 본 교회 지역에 소재한 녹양초등학교는 개교 역사가 오래되어 전교생이 함께 자리할 수 있는 강당이 너무 협소하여, 매년 방송을 통하여 각 교실에서 졸업식이 진행되었다. 우리는 이 사실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문화 활동 센터의 사역에 참여한 바가 있는 학부모로 하여금 학교에 건의하여 본 교회를 소개하고 학교에서 본 교회를 탐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 그리고 교회에서 졸업식 배너 현수막과 풍선아트 등을 만들어 포토라인을 만들어 주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각종 시설들의 사용을 시연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졸업식을 교회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것은 교회에서 졸업식이 진행된다면 이제껏 한 번도 교회의 문턱을 밟아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스스로 찾아와서 교회의 문턱을 한번이라도 밟아 볼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되어

지며, 또한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교회를 알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원만하게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불신자 및 타 종교인들이 반대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고정관념의 생각을 가지고 있던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조차도 “교회에서 졸업식”이라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기 때문이다. 교회의 권사님이신 해당학교의 교장 선생님의 부인조차도 “거룩한 교회에서 어떻게”라는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고 한다. 더욱더 교회를 힘들게 한 것은 단순한 반대 의견을 넘어서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여 교회에서 계획한 지역사회 문화센터로서의 사역에 적신호가 들어 온 것이다. 그러나 본 교회를 한 번이라도 방문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들과 본 교회를 탐방하여 사전조사하고 교회의 협조 사항들을 확인한 교장 선생님과 관계자들은 한번만 해보자라고 학부모들을 설득하였고 무사히 졸업식이 거행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자연스럽게 다음 해에 계속해서 교회에서 거행되어 이제 초등학교 졸업식장인 교회가 되었다. 더 나아가서 졸업식에 참석한 학교 관계자들에 의하여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여러 행사들이 녹양교회서 진행되어 녹양동지역을 넘어서서 의정부시 전체 학생과 학부모들이 우리 녹양교회를 찾는 계기가 되었다. 그것은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의정부시 초·중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맑고 밝은 동요 가곡 발표회”가 계속해서 본 교회에서 진행되게 된 것이다. 매년 행사 때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 약 일천여명 이상이 다녀갔으니 그야말로 교회 홍보는 자연스럽게 한 셈이다.

그리고 교회를 방문하였던 사람들의 입에서 지역 내의 큰 건물을 가진 교회들이 이런 역할들을 감당하여야 한다. 등의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기 시작하며 교회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남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재는 타종교에서 종교편향이라는 헌법소원을 내면서부터 졸업식을 거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국가의 정책으로 여타의 종교시설에서 국가단체는 행사를 치르지 못하도록 하는 지시가 내려졌기 때문이다. 최근에 본 교회에서 사역하는 부목사가 자녀의 졸업식에 참여 하였는데 그곳에 참여한 학부모들 중 일부가 “좋은 녹양교회 놓아두고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졸업식을 거행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하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지역주민 스스로가 본 사역의 목적인 녹양교회의 모습을 찾아보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더욱더 아쉬운 부분이다. 하지만, 국가기관의 참여가 중단된 상황에서 민간부분에서는 계속해서 지역 문화활동 센터로서의 역할이 요구되어 지고 있는데, 이는 각종 전시장과 공연장의 활용으로 나타났다.

(3) 각종 전시장과 발표회 및 공연장인 교회

의정부 지역은 면적이 협소하고 서울과 인접한 관계로 인하여 각종 전시장과 공연장이 거의 전무 하다. 그나마 있는 예술의 전당과 청소년 회관 등은 그 규모가 크거나 이용 비용 등이 고가여서 소규모의 단체나 어린이집 및 각종 학원 등은 이용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이러한 단체나 교육시설들은 그들의 결과물인 작품들이나 발표회 등을 가질 공간 확보가 매우 힘들고 어렵다. 교회는 이런 부분에 착안하여 그들이 교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그래서 수시로 본 교회에서는 각종 전시회와 발표회 및 공연들이 열리고 있다. 학생들이 직접 그리고, 만든 작품들이 교회의 여러 공간에서 전시되어지고 있으며, 지역 내의 예체능 학원이나 어린이집, 유치원들의 발표회와 공연들이 교회에서 열리는 것이다. 음악계통의 학원들은 정기 연주회로, 체육 계통의 학원 및 어린이집과 유치원들의 정기 발표회들이 그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때에도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고 교회에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의정부 민간 어린이집 협회 등은 정기적으로 연합하여 유괴방지 인형극과 같은 공익적 성격의 인형극을 진행하거나 뮤지컬, 연극등과 같은 문화행사들을 공연하기도 한다. 이 경우에는 비용 및 거리, 시간적 제약등과 같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 문화적 혜택을 누리 못하였던 지역주민들이 문화혜택을 누리는 기회가 되기도 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그야말로 문화 활동의 공간이 되어지고, 본 교회 성도들에게는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게 한다. 교회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와 교회홍보는 자연스러운 현상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가장 최근에는 평화 와 심인이라는 기획사에서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들었노라며 자신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며, 이 요청에 의하여 약 1200여명의 어린이들과 학부모 교사들이 본 교회를 방문하기도 하였다.

(4) 각종 콘서트가 열리고 대중가요가 흘러나오는 교회

서두에서 잠깐 언급하였지만, 교회의 전반적 시설은 콘서트를 열기에 매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 본 교회에서 찬양제와 콘서트 및 노래자랑이 진행되는 이유이다. 찬양제는 매우 빈번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역 내의 타교회 중심의 중고등학생과 청년들이 주를 이루지만 장년들도 다수 참여하여 찬양을 통하여 영적 기쁨을 누리고 있다.

한 예로, 최근에 라이즈 업 찬양팀의 콘서트가 본 교회에서 열렸는데, 우리는 이 상황을 지역 내에 산재한 군부대와 연계하여 보았다. 그것은 군부대에 있는 많은 영적 자원들을 초청하여 이 찬양 콘서트에 참여시키는 것이다. 본 교회에 출석중인 직업군인 청년들을 통하여 부대장에게 찬양 콘서트를 통하여 연계 되는 여러 가지 장점을 설명하고, 교회에서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마침, 신앙인이었던 부대장은 그렇지 않아도 그들에게 신앙심을 심어주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방법을 찾고 있었다며 쾌히 수락하여 군인들이 단체로 참여하여 교회를 접하고 찬양을 통한 영적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때, 교회에서는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삼계탕을 대접하고, 청년들이 함께 식사하고 대화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시간으로 활용하였음은 당연하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100여명의 부대원을 외부에 외출 시키는 것은 매우 힘든 결정이라고

한다. 그것은 도중에 이탈등과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회와 부대가 서로 노력하고 협조하면서 서로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가득 찬 콘서트홀에서 함께 찬양하는 기쁨과 그들을 대접하는 과정에서 찾아온 사람들에게 긴 시간 동안 차분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보았다.

더 놀라운 사실은 시간이 조금 흐른 후에 부대에서 “그런 콘서트가 또 열리지 않은가?”라는 문의가 왔다는 사실이다. 물론 이 물음에 다음 콘서트에 교회는 당연히 그들을 초청하였고 처음과 동일하게 교회는 하나님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이제 3번째로 함께 할 시간을 만들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

또한, 찬양가수들이 초대되는 콘서트가 열리거나, 지역 노인들을 위한 국악 콘서트 등이 가끔씩 공연되어 지기도 하는데 작년에는 본 교회에서 기획하여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노인정 대항 노래자랑을 개최하여 약 350여명의 노인들이 흥겨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때로는 교회가 오락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어지고, 교회에서 자극적인 대중가요가 흘러나오는 것이 과연 한국교회 정서에 맞는 것인가에 대한 예배학적인 질문과 함께 비판적인 의견들에 대하여 필자는 고민하고 있음을 솔직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교회를 지역 주민의 문화활동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디아코니아 사역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한 사역임을 분명히 말하면서 이후 평가와 전망을 통하여 왜 이런 사역들을 진행하고자 하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자 한다.

(5) 지역 내 기관들의 행사와 세미나가 자주 개최되는 교회

앞서 말하였지만 우리 교회 지역에는 출소를 앞둔 재소자들의 쉼터 역할을 하는 갱생원과 미혼모들을 위한 쉼터, 그리고 일탈 청소년들의 임시 휴식공간이자 상담시설인 십대지기과 청소년 쉼터가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 기관이나 시민 사회 단체 기관들은 대부분 소규모일 뿐만 아니라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인하여 필요로 하는 행사나 세미나 등의 개최를 위한 공간 확보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교회는 이점을 주목하였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목적실 등을 이용하여 기관들의 프로젝트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장소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데, 부모님들과의 만남, 집단 상담 프로그램, 후원의 밤, 각종 강연회 및 세미나 등이 그 주된 내용이다. 이는 넓은 의미로 바라볼 때, 교회에서 담당해야 하는 윤리, 도덕적 각성을 통한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들이어야 하지만, 직접적으로 실행하지 못하는 교육적 활동들을 교회가 간접적으로 진행하는 것이기도 하다.

3)평가와 전망

이제까지 본 교회에서 진행되어지는 지역사회 문화 활동 공간으로 활용되어지는 사역의 내용을 5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이러한 사역들의 가장 주된 목적은 두말할 나위

없이 하나님 나라의 선교이다. 이제껏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선교 즉 복음 전파를 위하여 밖으로 나가 한번만 교회에 나와 보라고 외치며 그들을 교회로 오게 만들기 위하여 초청잔치 등과 같은 많은 방법들을 동원하고 많은 비용을 사용하였다. 과연 그 방법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 모을 수는 있었지만, 그것은 매년 일회성의 행사였으며, 대부분은 서로가 마치 품앗이 하듯이 한번 가주는 수평적 방문이거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한번의 방문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심지는 못하였다. 또한, 매년 교회 성도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였음도 인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자는 교회를 향하여 그들 스스로가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였고, 서구교회들과 같이 찾아오지 않고, 심지어 있는 사람마저 떠나는 교회가 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교회가 지역 주민의 삶의 장으로서 1년 365일 동안 계속해서 활동성 있게 사용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교회가 누구나 목적을 가지고 편하고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교회를 과감하게 문화 활동 공간으로 지역주민이 언제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 것이다.

이제 본 교회가 소재하고 있는 인근 지역 주민들은 연극과 뮤지컬등과 같은 문화공연을 관람하기 위하여, 자신의 자녀들이 만든 전시물과 발표회를 보기하기 위하여, 자녀들의 졸업식과 공연을 축하하고 축복하기 위하여 자신들 스스로 교회를 찾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찾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지역주민들의 경험은 확실하게 교회에 대하여 편한 감정을 가지게 되었으며, 긍정적 사고를 형성하게 되었다. 또한, 잘못되고 왜곡된 교회에 대한 인식 개선의 효과를 만들어 주었으며, 그들을 통하여 지역 내에 교회를 홍보하게 만드는 자연스런 홍보자로 만들어 주었다.

최근에는 이렇게 교회를 이용한 후에는 감사헌금으로 감사표시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교회에서는 이 사역의 목적이 영리성과 같은 사회적 이익 아닌 하나님의 선교에 가장 우선으로 하였기에 모든 부분에서 무료이용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여 지역 내 많은 단체나 기관이 언제든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그런데 이용자들이 스스로 교회의 수고에 감사하며 함께 비용을 염려하며 함께 그것을 나누기를 청하여 온 것이다.

물론 소요 경비와 비교하여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함께 이 사역의 지역 사회에서의 기여도를 인정하고 함께 동참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간다는 면에서, 또 하나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교인들에게도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이런 일들이 진행되면서 필요시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여 주차요원, 주방봉사요원, 교회 안내자 및 운전자로서의 봉사를 감당하는 등 교회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고 교회의 사역에 대하여 더 많은 교인들이 애정을 가지고 참여하게 되었다.

우리는 이런 활동을 하면서 교회 내에 교회에 대한 홍보물과 안내문을 부착할 뿐만 아니라 각종 전도지와 복음의 선포와 관련된 인쇄물 등을 준비하여 언제든지 가져가거나 볼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각종 차와 간단한 다과를 준비하여 그들에게 나누어 주며 그들과의 접촉점을 만들고 있으며, 때로는 식사를 준비하여 대접하기도 한다. 거리에 나가 사정하며 그들을 붙들고 교회에 한번 나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찾아온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실 사랑할 수는 없지만 노방 전도등과 같은 특별한 전도 프로그램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계속 부흥하고 있으며, 지역 내에서 “아! 한번 가고 싶은 그 교회!” 라는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사역들이 지역주민들의 시간적 여유가 많은 휴일이나 주말에 집중되는 경향이 많음으로 인하여 사역자들에게는 부담이 되어지기도 하며, 토요일의 경우 너무 늦게까지 진행되는 경우에는 청소문제등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너무 잦은 봉사로 인하여 매너리즘에 빠지는 교인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해결해야 할 숙제이다. 또한 지속적인 전문 인력의 필요와 온 교인들이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게 하는 동기 부여가 필요하고, 전기료등과 같은 직접적인 비용이나 시설의 노후화와 같은 간접적인 비용의 해결 역시 교회가 해결해야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4. 나가면서(결론)

교회는 신학적으로 건물이 아닌 예수를 믿는 무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무엇을 하는 공간이냐가 더 중요하다. 이런 필자의 교회관은 아주 어려운 지역적인 조건과 환경에서도 일주일에 한두 번 모이는 교회 건축보다는 지역사회를 섬기는 디아코니아 사역의 공간으로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목회 비전을 가지게 만들었고, 이것은 필자가 녹양교회에 부임한 약 32년 전부터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1단계 교회가 지역사회에 접근하는 프로그램에서 2단계 교회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시대와 상황에 맞게 단계별로 발전하는 사역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이제 필자는 생각하는 3단계의 디아코니아 사역은 교회와 지역사회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한국 기독교 초기에는 사회에서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높았다. 그것은 교회가 책임져야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부단하게 노력하는 과정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한국 교회가 사회적 신뢰도를 상실하였고 더 나아가 비난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렇게 한국교회가 위기에 직면한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교회에 대한 사회적인 거룩성을 잃어 버렸기 때문이다. 이것은 단적으로 말하면 교회가 매력이 없어 졌다는 뜻이다.

이제 한국교회는 초기 한국교회처럼 신뢰도를 회복함으로 교회와 지역사회가 한 공동체로 만나야 한다. 녹양교회에서는 이를 위하여 3단계 디아코니아 사역으로 거동과 활동이 가

능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복지센터와, 거동이 불가능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요양원을 계획하였고 이중, 노인 복지센터는 이미 교회에서 상근 사무국장을 비롯한 전문 인력들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핵가족화 된 노인들의 안락한 노후를 위한 소그룹 노인 복지주택 사역(실버타운)을 구상하고 있으며, 장례식장과 같은 공동시설을 마련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고기 잡는 기술과 장비와 어장이 있어야 하듯이 지역사회 봉사는 이론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론과 더불어 자원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선교는 고기 잡는 것과 같다. 기술이 없고, 장비가 없다고, 장소가 마땅치 않다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평생 동안 고기를 제대로 잡을 수 없다. 그러나 어려운 환경이라도 무엇인가를 하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필자는 경험을 통해 체험했기에 증거하고 싶다.

녹양교회의 고백은 지역사회에서의 디아코니아 사역은 어느 개인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교이기에 필요한 일을 먼저 시작하면 필요한 사람도 필요한 재정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이다.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이다. 믿음은 곧 교회의 능력이다. 그러므로 지역과 조건과 환경을 탓하고 앉아 있다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교회가 된다. 조건과 환경이 열악하지만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고 실현할 수 있다.

복일노인대학

- 제 4회 중소도시 부문 수상 익산복일교회 사역보고 -

들어가는 말

오래전 일입니다.

복일교회 노인대학생이신 어느 어르신께서 너무 기뻐 흥분된 모습으로 들려주신 말이 저희 교회에 큰 힘이 되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분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신 분으로서 어느 날 자주 가시는 익산 근교의 미륵산을 친구 두 분과 함께 등산을 하게 되셨답니다. 그 친구 분들도 불신자들이셨기에 자연스럽게 교회를 비판하는 얘기를 주고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복일노인대학생도 동감을 표현하며 대화를 진행하는데 얘기가 오가던 중에 한 친구가 이렇게 말하였다고 합니다. “익산에 있는 교회들 다 없어져 버려야 해” 하자 다른 친구도 그 말에 동감 하며 이렇게 말하였다고 합니다. “맞아! 그러나 복일교회는 있어야 돼!” 라고 하는 말을 듣고 너무 기분이 좋아 학교에 와서 저에게 상기된 모습으로 그 말을 전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이야기로 인해 저희는 오랫동안 큰 걱려가 되어왔고 지금도 생각을 할 때마다 저희 교회가 해야 할 일을 돌아보곤 합니다.

우리는 흔히들 하는 표현으로 브랜드 가치로 복일노인대학 사역을 언급하곤 합니다. 기업마다 브랜드 가치가 평가되곤 하는데 저희들이 하는 사역인 복일노인대학 사역을 감히 수억 아니 그 값어치를 매길 수 없을 정도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왜냐면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자한다 해도 익산시 전 지역에 그만큼 영향을 줄 수도 없을뿐더러 교회에 대한 교회 외부의 사람들이 가지는 인식 변화를 가져오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노인대학사역을 시작한 후로 지상의 모든 교회가 바라는 공통분모인 교회 부흥 역시 다른 이들의 이목이 집중 될 만하게 하나님으로부터 허락을 받아 왔으며 예배당 신축 및 기타 받게 된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실제로 돌아가신 어르신들이 자녀들에게 유언적인 말로 복일노인대학이 있어 내 인생이 행복했다고 고백하시고 돌아가셨다는 말들도 외부 유가족들을 통해 심심치 않게 들곤 합니다. 그리고 집안의 어르신들의 삶이 변하자 직접 자녀들이 노인대학을 참관을 하러 와서 진지하게 살피는 것 등 이루 말 할 수 없는 열매들을 접하기에 감히 이 글과 보고를 통해 모든 분들과 함께 저희 복일노인대학 사역을 나누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저 자랑이나 하는 글이 아닌 사역 보고를 듣는 모두 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눔과 동시에 공감대를 가져다주며 유익이 되는 글이 되기를 바라면서 북일노인대학에 대한 사역을 보고하고자 합니다.

1. 북일교회의 지리적 특성

북일교회는 전북 익산시에 소재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익산은 단순한 인구 32만의 지방 중소도시가 아니랍니다. 원불교 세계 총본부가 있고 원광대학교 및 원광대학교 병원 등 원불교가 시작이 되었으며 현재 원불교가 막강한 영향을 발휘하고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원불교의 성지이기도 한 익산이 전국 최고의 복음화율을 자랑한다는 점입니다. 그러기에 원불교와 교회가 지금도 치열한 경쟁구도를 자연스럽게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지역에 저희 북일교회는 원불교 성지 및 중요한 기관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기에 자타가 공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교단을 떠나서 많은 교회들과 교역자들의 격려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아주 중요한 곳에 위치한 연고로 여러 가지 일화가 있었습니다. 일례로 북일교회가 건축을 진행 할 당시에도 미묘한 영적 대립이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로 인해 원불교 총본부의 기가 막혔다는 말을 몇 차례 전해 들었습니다. 건축 완공 후에도 저희를 견제하는 실제적인 일을 시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북일교회 주변 원불교 3개 교당에 상징물을 추가로 설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북일교회는 특별한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에 교회로서의 역할에 대해 늘 깊은 생각을 하는 가운데 사역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2. 북일노인대학의 필요성 인식과 개교

현대사회는 고령화 사회입니다. 노인들의 숫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20년 이 넘으면 평균 수명이 80세 이상으로 높아지고, 고령인구가 전 인구의 17%를 넘을 것이라고 통계청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와 교회에서는 노인들을 편안하게 모실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못합니다. 사회제도뿐만 아니라 친자식마저 부모를 모시려 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노인들은 사회적인 약자로서 소외당하고 있습니다. 사회는 좀 더 소비의 주체인 젊은이를 공략하고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성경적인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북일노인대학은 익산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 즉 우리의 부모님들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며 북일교회가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차에 수십 년 간 전통을 이어 왔던 어린이 선교원이 한계에 이르게 되어 어린이 선교원은 중단함과 동시에 북일교

회 당회가 노인들을 선교의 대상으로 삼고자 마음을 모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노인대학은 제가 복일교회에 10대 담임목사로 부임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02년 9월 3일에 복일노인대학교 개교축하예배를 드리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날 입학생은 학생 박승재 외 75명이었으나 2012년 현재 익산 전역은 물론 인접 시군에서 오시는 학생들로 재적이 1053명 출석인원 800여명(봉사자 포함 900여명)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모든 시간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절대 개입과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현재 61년 역사를 자랑하는 복일교회로 저를 2001년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심장으로 이웃과 세계를 품는 복일교회” 라는 영구 표어 및 비전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러한 비전아래 노인대학도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은 도전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른들보다는 어린이의 교육이 교회 성장 과정 가운데 있어서 더 소중하다는 여론들도 있었기에 시작하는 과정은 그렇게 만만치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도전한 결과 당회원들과 성도님들께서 잘 따라 주셨습니다. 역시 복일교회는 저력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현재는 한마음으로 매주 100여명의 봉사자들과 함께 한마음으로 지역의 노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사역에 대한 성도님들의 자부심도 대단합니다. 농어촌 지방이나 미자립 교회들의 사택이나 예배당을 1주일 만에 건축하여 주므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허람건축선교단 사역과 함께 노인대학은 복일교회를 대표하는 사역으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들도 복일교회 성도라는 자부심과 함께 이 사역을 사명으로 알고 감당하고 있는 모습은 담임 목사를 눈물 흘리게 하고 존경심을 갖게 할 정도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작은 소년의 작은 섬김과 나눔에서 시작되었던 것처럼 작지만 주님은 저희들의 오병이어를 받으시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이 익산시민들로부터 자주 이런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익산에서 노인들을 사랑하는 대표교회가 복일교회이며 이렇게 지역과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라고 오히려 불신자들이 칭찬한다고 고백합니다. 다시 한 번 저희들의 사역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3. 복일노인대학 대상자 범위와 특성

복일노인대학은 익산시와 타 지역에 거주하시는 60세 이상의 종교와 교파를 초월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은 철저한 섬김의 사역이기에 노인 분들의 거주지와 종교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많은 노인들께서 저희 복일노인대학에 찾아 오셨습니다.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섬기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인대학 학생 선정 방법 및 절차도 원서접수는 개강 전에 공고하며 연중 접수 합니다.

누구나 들어오실 수 있도록 교육비를 전액 무료로 하였습니다. 실제로 그 결과 전도의 놀라운 효과로 작용하였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서 복일노인대학 사무실에 제출하면 되고 시험은 없으며 사무실의 안내를 받아서 출석을 하면 자연스럽게 학생이 될 수 있습니다. 학과는 자신이 원하는 과에 지원하여서 배우시도록 하였습니다.

4. 기관 소재 지역 내에서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지향하는 가치

저희들은 어르신들께서 건강한 노년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복일노인대학은 사회적, 정서적 지지를 통한 노인들의 사회 참여를 끌어냄으로써 소외 계층의 최소화와 삶의 질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형식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노인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그들의 실제적인 삶의 필요를 채워 줄 수 있는 있는 프로그램을 연구하며 해당되는 교수진을 세워 나갔습니다.

저희들이 지향하는 가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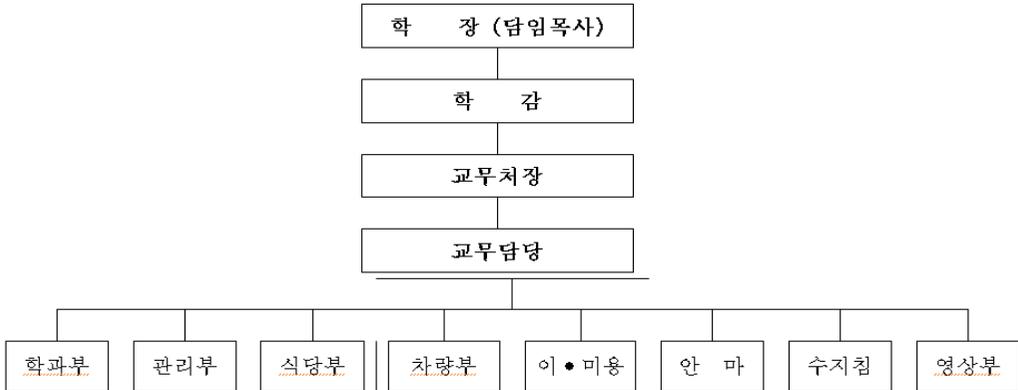
- 행정적 지원에서 미치지 못하는 절대 노령인구를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 노인우울증 예방과 행복 추구권을 만족시킨다.
- 노인들의 교양, 오락, 학습, 문화 습득을 통한 사회적 정서적 기반을 확충한다.
- 노인문맹 퇴치와 다양한 취미생활로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시킨다.
- 경건의 시간과 노인대학 봉사자들의 섬김을 통해 노인대학 학생들이 교회(타 교회)에 등록하고 개종하므로 영적유익을 얻도록 돕는다.

저희 복일교회에서는 노인대학을 앞서 운영하고 있는 교회들을 탐방하였습니다. 지역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노인 복지에 대한 비전을 세우고 수립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희들은 주로 학사일정과 학과 프로그램을 참조하여 우리 노인대학 취지에 맞게 활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외부에서 멀리서 서울에서도 복일노인대학에 벤치마킹을 하러 오게 되었습니다. 10년 동안 한눈을 팔지 않고 달려온 결과 이제 노인대학을 개설하려고 준비 중이거나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곳에서도 많이 방문하시기 때문에 복일노인대학에서는 방문한 이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 직원 및 조직체계

저희 사역은 무엇보다도 저의 노인에 대한 비전과 함께 하기에 유기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조직보다는 실제 사역을 위한 조직으로 운영하기에 모든 의사결정과 진행이 신속하며 각부서의 의견과 결정권을 주고 자율적이며 유기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운데 수많은 봉사자들께서 기쁨과 행복함으로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노인대학 봉사를 통해서 자신의 은사와 재능을 발견하고 교회사역현장에서 활용하시는 분들도 많

습니다. 영혼을 세우는 사역이 우리의 사역의 비전이기 때문입니다.



6. 복일노인대학의 목적과 목표

1) 포괄적 목적

저희 복일노인대학의 목적은 이와 같습니다. “급속한 노령인구 증가로 인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사회적 환경의 중심적 구도에서 밀려난 소외감과 정체성 부재로 인한 노인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 이 지역의 어르신 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섬김과 나눔 그리고 사랑과 봉사로 노년에 필요한 정보 및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가정과 평안하고 아름다운 삶을 가지게 하는데 있다.” 라고 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여러 단계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2) 구체적인 성과 및 단계적 목표

- 학생들의 개종을 도움 (원불교, 불교, 유교, 천주교 무신론자 등)
- 기초 한글 습득을 통한 문맹퇴치를 도움
- 노령 사회에 대한 대처 방안에 따른 정보를 제공함
- 사회적, 정서적 지지를 통한 사회참여 의식을 고취함
- 독거노인들의 열악한 생활환경에 식사제공 및 건강증진을 도움
- 급속한 노령인구 증가로 인한 사회적 소외 문제를 해소함

7. 노인대학 운영 사업과 프로그램

저희 복일노인대학은 일 년 동안 분명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상세한 사역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담임목사인 저의 비전에 맞추어서 일 년 사역일정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폴타임 사역 간사가 있습니다. 전체 사역에 대한 세부 사항을 유기적인 논의가운데서 진행해 갑

니다. 먼저 일 년 동안의 전체 사역일정을 아래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 년 중 사역일정

월별	사 업 명	세부 추진사항
1,2월	*교육사업 *정서적 부양 서비스 *홍보 문서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 1. 대상 어르신들의 안부 전화 2. 생신잔치 및 명절 안부인사 3. 자원봉사자 교육 4. 문해교육사 3급 교육 ◆ 참석인원 : 어르신 800명 정도 봉사자 100명 정도 ◆ 주요내용 : 전화상담, 생활상담, 생신어르신 상차리기, 어르신의 안부인사, 자원봉사자 결의 다짐 교육 등
3월	*교육사업 *정서적 부양 서비스 *민·관 지원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 1. 대상 어르신 접수 및 신청 2. 노인대학 입학식 및 개강식 3. 기관장과 어르신들의 만남 4. 안마, 침술 이, 미용 수지침봉사(김제대목산마을주민) ◆ 참석인원 : 어르신 800명 정도 기관장 5명 정도 ◆ 주요내용 : 노인대학 수강신청 접수, 학생회 총회 기관장과의 현안문제 면담
4월	*교육사업 *정서적 부양 서비스 *전문인 양성 사업 *노인건강 증진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 1. 학과별 모임 2. 의료인 및 교수 초청 3. 생신잔치 및 상차리기 4. 안마, 침술 이, 미용 수지침봉사 5. 요양원방문공연 - 위로잔치(우리 춤 강사 초청)등 ◆ 참석인원 : 어르신 800명 정도 강 사 32명 정도 ◆ 주요내용 : 건강상담, 유명교수 초청 교양강좌, 우리 춤 위로잔치, 생신상차리기 등
5월	*교육사업 *정서적 부양 서비스 *놀이문화 보급 사업 *경제적 부양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 1. 효도관광 2. 유명인사 초청강연 3. 생신잔치 및 상차리기 4. 어버이날 초청행사-자녀초청 5. 스승의 날 기념행사 6. 안마, 침술 이, 미용 수지침봉사 ◆ 참석인원 : 어르신 800명 정도 강 사 : 50명 정도 ◆ 주요내용 : 웃음치료, 건강상담, 문화강좌, 교양강좌, 봄소풍 생신잔치, 스승의 날 꽃 달아드리기 등

<p>6월</p>	<p>*교육사업 *정서적 부양 서비스 *놀이문화 보급 사업 *민·관 활동 지원 사업</p>	<p>◆ 목적 : 1. 학과별 장가자랑 2. 어르신들의 솜씨 대회 3. 생신잔치 및 상차리기 4. 안마, 침술, 이. 미용, 수지침봉사 (덕동마을주민)</p> <p>◆ 참석인원 : 어르신 800명 정도</p> <p>◆ 주요내용 : 위로잔치 및 노래자랑, 우수작품 시상식, 연예인 초청 위로잔치, 생신잔치 및 상차리기 등</p>
<p>7.8월</p>	<p>*교육사업 *정서적 부양 서비스 *홍보 문서사업</p>	<p>◆ 목적 : 1. 대상 어르신들의 안부 전화 2. 방학 중 안부편지 발송 3. 자원봉사자 교육</p> <p>◆ 참석인원 : 어르신 800명 정도 봉사자 100명 정도</p> <p>◆ 주요내용 : 전화상담, 생활상담, 어르신의 안부편지 등</p>
<p>9월</p>	<p>*교육사업 *정서적 부양 서비스 *돌봄지원 사업 *경제적 부양 서비스</p>	<p>◆ 목적 : 1. 어르신 2학기등록 신청 2. 추석명절 선물 챙겨드리기 3. 생신잔치 및 상차리기 4. 목욕봉사 및 가사지원(반찬서비스) 5. 안마, 침술 이, 미용 수지침봉사</p> <p>◆ 참석인원 : 어르신 800명 정도 봉사자 100명 정도</p> <p>◆ 주요내용 : 전화상담, 생활상담, 생필품지원, 가사지원, 생신잔치, 상차리기, 놀이문화 보급 등</p>
<p>10월</p>	<p>*교육사업 *정서적 부양 서비스 *놀이문화 보급 사업 *도구적 부양 서비스 사업</p>	<p>◆ 목적 : 1. 가을운동회 2. 삼세대 건강 지킴이 축제 참가 3. 장가자랑 4. 안마, 침술 이, 미용 수지침봉사</p> <p>◆ 참석인원 : 어르신 800명 정도 봉사자 100명 정도</p> <p>◆ 주요내용 : 위로 잔치 및 노래자랑, 우수 작품 시상식 연예인 초청 위로잔치 등</p>
<p>11·12월</p>	<p>*교육사업 *정서적 부양 서비스 *노인건강 지원 사업 *전문인 양성 사업</p>	<p>◆ 목적 : 1. 학과별 모임 2. 전화상담 및 생활상담 3. 생신잔치 및 상차리기 4. 안마, 침술 이, 미용 수지침봉사 5. 홍보 및 문서보급(방학 중 안부편지 보내기)</p> <p>◆ 참석인원 : 어르신 800명 정도 강사 30명 정도</p> <p>◆ 주요내용 : 건강상담, 가사지원, 차량지원, 식사지원, 전문인 교육, 생신상차리기 등</p>

단순한 사역이 되지 않기 위해서 노인대학 학생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우는 방향으로 사역이 진행됩니다. 화요일 하루만의 사역이 되지 않고 노인대학 학생들의 전체 노인의 삶의 질적인 향상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사역이 진행됩니다. 사역은 주로 화요일에 진행되지만 일주일동안 세심하게 준비되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봉사자들께서 매일 출근하 다시피 교회에 나오셔서 자신의 사역의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담임목사로서 항상 감사한 마음이 넘칩니다.

2) 각 학과 사업의 기대효과

각 학과	사업의 기대효과
우리춤 초.중급	우리나라 문화와 정서에 꼭 맞는 해맞이 체조를 도입 심신은 물론 스트레칭을 통하여서 근골격의 유연성을 강화 하므로 노인들의 체력 증진을 도모한다.
한글 초.중급	노인대학생 대비 약 28% 달하는 문맹률 퇴치를 위해 한글 기초과정을 습득하도록 도우며 기초과정을 통해 한글습득으로 인한 자신감을 얻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영어학과	노인들의 지적 욕구와 글로벌시대의 다양한 정보교육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실현토록 하는데 목적을 둔다.
풍물학과	우리 문화와 소리의 이해를 도우며 풍물학습을 통해 어깨근육 강화와 스트레스 해소는 물론 신명나는 소리로 감각을 깨운다.
서예학과	우리의 예와 지를 겸비하여 더 높은 도덕성과 사회성을 고취 시킨다.
노래학과	지친 심신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마련된 노래학과는 노인 건강은 물론 젊음을 유지하도록 도와준다.
종이공예	반복적인 손의 움직임으로 근육을 이용 치매예방 및 기억력 증진을 위해 종이감기, 접기의 소근육 운동을 증진시킨다.
산수학과	실생활에 적용하도록 쉬운 셈과 전자계산기 사용법 및 은행이용의 제반사항을 습득하도록 돕는다.
에어로빅	경쾌한 음악에 맞추어 스트레칭은 물론 근육 이완으로 건강을 도우며 유산소 운동으로 심폐기능을 강화시켜준다.
성경학과	기독교 교리와 기존신자들의 신앙고취 및 영적지지를 통해 자존감과 긍정적인 사고를 함양코자 한다.
레크댄스 학과	노래와 율동으로 스트레스 해소 및 웃음과 게임을 통한 우울증 예방과 건강한 삶을 즐기도록 한다.
견학과 중식제공	노년에 풍부한 체험과 견문을 넓히도록 여행을 권장하고 저소득층 및 독거노인들이 1주일에 1회의 중식제공을 통해 함께 공동체의 사랑을 나누는데 있다.

다양한 학과는 현장중심으로 노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방향으로 진행되어가고 있습니다. 각 학과를 진행하는 교수진들은 자신의 부모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매주 모여 기도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 분들이 자신의 아들딸보다 어떤 때는 낫다고 웃음으로 말씀하시곤 합니다. 담임목사인 제가 학과를 맡은 교수진들에게 부탁하고 가르치는 것도 이것입니다. 자신의 부모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섬겨달라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입장에서 지식적인 것을 가르치기 보다는 가슴과 가슴이 닿는 교육이 되기를 함께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노년의 기간을 행복하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도록 말입니다.

3) 다양한 프로그램의 적용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절대 노령을 위해 노숙자에게 식사 제공, 건강검진(이동용), 노인들의 불편한 애로사항을 행정 기관에 의뢰하여 수렴해 주며 노인 일자리 알선 제공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다양한 문화 경험을 통해 시정에 참여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화 활동에도 참여하도록 협조하고 있습니다. 익산 시민의 날, 단오행사, 국화축제, 김제지평선, 문해교육 백일장등에 본 교회 노인대학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매우 적극적으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북일노인대학 출신이라는 자부심들도 대단하셔서 본 교회 성도님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희 북일교회를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8. 북일노인대학의 현황

1) 학생 현황(2012년 8월 현재)

학과	성경학과	노래학과	한글(초급)	한글(중급)	산수학과	서예학과	우리춤(난초)	우리춤(백합)	종이공예학과	영어학과	풍물학과	에어로빅학과	레크댄스학과	총계
남	22	112	0	2	1	17	15	4	2	11	13	4	3	206
여	71	481	23	38	4	1	28	54	10	13	18	79	27	847
계	93	593	23	40	5	18	43	58	12	24	31	83	30	1053

수많은 어르신들께서 북일노인대학에 찾아오셔서 제2의 인생을 즐기시고 누리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저희 북일교회가 배출한 노인대학 졸업생 현황입니다.

2) 노인대학 졸업생 현황(2002-2011년)

연 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수료생	58	565	898	893	843	946	1324	650	1101	553
전문대			134	186	109	75	97		223	57
대학과정					69	91	83		135	23
대학원과정										145

3) 교과과정 및 졸업기준

2012년 8월 현재 기준으로 북일노인대학 교과과정 및 졸업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북일전문대학 - 총2년(4학기)을 수료하신 분들로서 한 학기 수업일수 2/3이상을 출석한자
- 북일노인대학 - 총4년(8학기): 북일전문대학의 2년 과정을 졸업한 자에 한합니다.
- 북일노인대학원 - 총3년(6학기): 북일노인대학의 4년 과정을 졸업한 자에 한합니다.
- 평생교육대학 - 북일노인대학원을 졸업한 자에 한합니다.
- 학과별 수강신청은 한 학기 단위로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제 벌써 대학원 과정까지 졸업하신 분들이 계시고 평생교육대학 과정에서 청년 같은 삶을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진급하시지만 그분들의 노인대학을 사랑하는 열정은 더해 가시는 것 같습니다.

4) 노인대학 교육 프로그램 (매주화요일)

10:00-10:20 건강체조, 레크레이션

10:20-11:00 경건회 및 광고

11:00-11:40 특별활동 (특강, 공연, 건강강좌 등)

11:45-12:35 학과별 수업

12:40-13:30 점심식사 및 교제시간

무료안마, 무료침술, 무료 이·미용, 무료급식

연중행사 (소풍, 운동회, 관광명소나 휴양지 견학등)

북일노인대학은 화요일 오전 10시에 학과가 시작됩니다. 오전부터 봉사자들의 섬김을 통해서 800여분의 어르신들을 교회로 모셔옵니다. 시작은 가벼운 체조로 몸을 풀 다음 수업이 시작됩니다. 평상시는 온몸 마디마디가 쭈신다는 어르신들도 건강 체조와 레크레이션 시간만 되면 밝은 미소로 동참하십니다. 마치 소년 소녀들처럼 얼굴들이 환한 미소로 변화되십니다. 어찌나 기쁘게 잘 따라 하시는지 모릅니다. 어르신들의 하나 된 기합소리가 온 예배

당에 가득 찹니다.

강사는 저희 교회 안에서 훈련된 교수진들이 담당하십니다. 이제는 전문 강사를 능가하는 솜씨로 능숙하게 어르신들을 이끕니다. 그리고 담임목사인 제가 경건회를 인도합니다. 말씀은 잠언서를 이제까지 한절씩 강해하면서 어르신들의 삶에 적용시켜 드립니다. 감사하게도 오랫동안 불신자 또는 원불교에 심취하셨던 분들이 잠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예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노인대학을 통하여 본인과 자녀들이 저희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노인대학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축복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에 저는 생명을 담아서 말씀을 전하려 노력합니다. 그리고 특별활동을 가집니다. 저희 북일노인대학을 섬기는 전문행정 간사가 있습니다. 그분께서 일 년 전부터 전문 강사와 팀을 섭외하여서 특별활동이 진행됩니다.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강연을 무료로 맡아주십니다. 여기에는 의사, 정치가, 문학가, 공연팀 등이 해당됩니다.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강연과 공연은 꼼꼼히 체크한 후에 정기적으로 모시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노인대학과도 차별화된 특별활동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노인대학을 섬기시는 봉사자들도 노인대학 덕분에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고 감사의 고백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준비된 학과로 나뉘어서 학과별 공부를 하게 됩니다. 현재는 14개의 학과가 진행됩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참가하는 학과는 청춘노래방입니다. 노래지도 교수님과 함께 신나게 가요와 민요 등을 부르시면서 한주간의 마음에 묵힌 감정과 상처를 털어냅니다. 그러다가 능숙한 솜씨로 찬양으로 인도하십니다. 찬양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인도합니다. 이외에도 성경학과, 한글학과, 춤 다양한 학과를 통하여 어르신들의 지적 감정적 영적인 필요를 채워드립니다. 각 학과를 감당하시는 교수분들은 대부분 본 교회를 섬기시는 성도님들 이십니다. 각자의 달란트를 개발하고 연구하여서 새로운 수업을 창의적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마다 담임목사로서 감사한 마음이 항상 넘칩니다. 저들의 섬김이 의인들을 위한 기념 책에 기록되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이분들은 노인대학만이 아니라 교회안의 다양한 봉사에서도 뒤지지 않고 봉사합니다. 이후 식사를 나누고 어르신들의 집에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립니다.

매년마다 수많은 살아있는 간증들이 넘쳐납니다. 일제 강점 시대에 태어난 어르신들이 우리한글을 못 배워서 글을 몰랐다가 한글학과를 통하여 한글을 깨닫고 삶이 변화되었으면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었다는 간증을 하시기도 합니다.

어떤 어르신은 원불교에 평생 발을 담고 계셨다가 친구의 인도로 북일노인대학을 통하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제는 자녀들을 전도하고 있다는 감동적인 간증도 넘칩니다. 벌써 권사님으로 세워지신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어르신은 오랫동안 마음의 병인 우울증으로 시달렸다가 행복한 노인대학을 통하여 마음을 치유하고 제2의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간증하십니다. 그럴 때 마다 주님이 허락하신 노인대학을 힘들어도 주님 오실 때까지 감당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교회 곳곳에서 섬기는 봉사자들의 따스한 미소

와 사랑에 감동해서 마치 북일교회에 오면 돌아가신 엄마의 품에 온듯하다고 고백하십니다. 눈물을 흘리며 감격해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 역시 시간이 나는 대로 돌아다니며 어르신들에게 인사하며 손잡아드리고 따스하게 보듬어 드리며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감격의 순간을 경험하곤 합니다.

처음에는 식당에서 서로 식사를 하겠다고 줄도 서지 않고 싸우시던 어르신들이 이제 서서히 변화되어 삶의 고백을 하곤 합니다. 신입생들은 처음에는 세상에서 어른으로 행동하신 대로 마음대로 행동을 하십니다. 그러나 선배학생들의 모범적인 모습을 보면서 불과 몇 달 만에 좋은 행동과 모습으로 변화되곤 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노인대학에서 천국을 미리 경험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게 되었다고도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함께 동역해지시는 당회와 성도님들 그리고 봉사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북일교회가 익산 시민들과 노인들에게 목마른 사슴이 찾는 시냇물과 단비가 되기를 더욱 소망합니다. 감사하게도 노인대학을 통하여 익산에서 북일교회가 좋은 인정과 칭찬을 듣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고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는 통로가 되고 있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9. 민간 및 공공 기관과의 네트워크

처음에 노인대학을 시작하였을 때는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학과를 만드는 것조차도 벅찼습니다. 여기에 여러 강사와 공연 팀을 초청하여서 운영하는 것은 쉽지 않은 시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소외되신 노인분들을 섬기길 원하는 저희들의 순수한 마음을 보시고 좋은 분들과의 행복한 만남을 허락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강연과 공연으로 한번 모시려면 많은 물질이 드는 분들이 많으셨지만 부모님을 섬기려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셨습니다. 모두 무료로 섬겨주셨습니다. 지금도 감사한 마음이 진하게 드는 부분들입니다. 저희가 협력하는 민간 및 공공 기관은 엄청나게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강사들께서는 자신의 사비를 털어서 노인들에게 선물과 먹을 것들을 나누는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한 결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열매의 하나입니다. 저희가 네트워크를 하고 있는 기관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문해교육 (익산시), 자살방지, 우울증 예방교육, 혈압당뇨체크, 건강 체조 (익산 보건소, 익산정신 보건센터), 교통안전교육, 소방안전교육 및 응급처치 (익산경찰서 교통 관리계, 소방서), 보이스 피싱, 피해사례 예방교육 (익산우체국, 대한주부클럽연합회소비자교발센터), 건강 강좌 (익산병원, 김제신세계병원, 고운재한의원, 우리들안과, 제일산부인과 등), 재무관리, 노인일자리, 어르신들 봉사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최원규교수, 원광대법학과 최행식 교수, 시니어클럽 취업지원센터), 미술치료 (익산지부 미술협회 최주연사무국장, 전주대학교서양화 김영규 교수), 익산시 노인정책과 보람 있는 노년생활 (배승철 도의원, 익산시 박종대시의원.

전북대 김재형 교수), 정서적부양서비스(공연, 웃음치료, 피부 관리, 건강체조등) 이외에도 도청 신나는 예술버스, 아리아리 인형극단, 한국생활음악협회, 생활체육협회, 보건소, 신명사 물놀이, 헵시바 워십댄스 선교회, 웃음운동문화예술단, 광주 아모레퍼시픽 등

10. 예산

북일노인대학의 자원조달 방법은 다른 노인대학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북일교회에서 정한 본 예산과 익산시의 보조금과 다양한 손길을 통한 후원금과 감사헌금으로 운영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운데 가장 적합하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매년 경험합니다. 물질이 없어서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음과 비전이 분명하다면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을 통하여서 귀한 사역에 축복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역은 하나님께서 물질과 사람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아래는 북일노인대학의 전년도 실제 예산결과와 2012년 예산안입니다.

2012년 북일노인대학 예산

(자부담+시보조금-6,000,000원)

2011년 1월-12월 수입·지출 보고

수 입	지 출	잔 액
교회보조금 30,700,000	행정사무비 4,652,400	
후원금 4,350,000	봉사비(접대비)4,053,790	
감사헌금 3,370,000	봉사비(경조비)2,458,200	
시보조금 6,800,000	차량임대료 7,700,000	
헌신예배헌금 636,750	주식·부식비 13,726,500	
이 자 9,970	잡지출 4,382,600	
	의약품비 141,500	
	교통비 3,444,300	
	비품비 3,415,000	
	교육비 295,000	
	인쇄비 27,000	
	도서구입비 69,400	
	강사사례비 500,000	
총수입: 45,866,720	총지출: 44,865,690	잔액: 1,510,764
(이월금: 509,734)		
합계 46,376,454		

비 목	재 원 별 (단위 : 천 원)	
	자부담	산 출 내 역
계	46,146	
봉사비	27,630	
급식비		주식 200,000원(100kg)×30회 부식 400,000원×30회 =6,000 =12,000
경조비 (행사)		소풍.야외견학 1,500,000×2회 체육대회 1,000,000×1회 소풍.견학차량 임대료 (330,000원(1대)×11대) 졸업식 및 종강식 500,000×2회 어버이날 행사(케이크,떡등) =3,000 =1,000 =3,630 =1,000 =1,000
행정사무비	3,016	
전화통신비		우편물 발송(전자우편)340×1,053=2회 =716
인쇄비(복사)		안내장 및 상장 등 200,000×2회 =400
소모품비		문구류,비품,학과 준비물 200,000원×7회 (종이공예,풍물,놀이놀이,한글학과등) =1,400
의약품비		구급약품및 침술용품 250,000×2회 =500
관리유지비	11,200	
차량임대료		차량임대 400,000원(45인승)×4대×7월 =11,200
교육비	1,200	
도서구입비		도서구입 및 CD =500
세미나비		봉사자 교육 노인대학 세미나 350,000×2회 =700
기 타	3,100	
강사사례비		특강자,공연팀 50,000원×7회 =350
잡지출		사진,심방,간식등 100,000×7회 생신잔치 400,000×6회 =700 =2,400

11. 노인대학의 현안 문제들

노인대학의 특성상 큰 걱정거리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첫째는 식사였습니다.

사실 식사 인원이 1000여명이 되기에 매주 식사를 준비한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 봉사자들도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전라도 특유의 음식솜씨를 자랑하며 교회안의 여전도 회원들 중심으로 40명이 넘는 식당봉사자들께서 매주 천국의 향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남자성도들께서는 노인대학에 나오셔서 수많은 그릇을 설거지 해주십니다. 월요일 날 미리 장을 보고 화요일의 식사를 준비합니다. 넉넉지

않은 재정으로 더욱 좋은 것으로 대접해드리지 못하는 죄송한 마음이 있지만 몇 가지의 소찬에 주님의 사랑을 듬뿍 담아서 천국의 맛을 내고 있습니다. 모든 어르신들이 어떻게 이런 맛이 나는지 모르겠다고 맛있게들 식사하실 때 마다 감사가 넘칩니다. 그리고 너나 할것 없이 미루지 않고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모습은 마치 천국의 섬김을 보는 듯 합니다. 봉사하다 보면 불의의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어떤 봉사자 분들은 급하게 식사를 준비하시다가 2-3도 화상을 입기도 합니다. 그러면 속히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식사 시간을 모두 마치고 병원에 가겠다고 치료를 미루고 봉사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럴 때면 저의 눈에서 슬픔과 감격의 눈물이 교차되기도 합니다.

둘째는 어르신들 수송입니다.

육체가 연약하신 어르신들을 매주 수송하는 것은 쉽지 않은 사역입니다. 익산 일대와 익산 외곽에서 800여명의 노인들을 모셔 와야 하기 때문에 각별하게 신경을 쓰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운데 버스를 저렴한 가격에 계약하여서 4대가 수송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역자들을 포함해서 교회의 전 직원과 수많은 성도님들이 섬겨주십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자신의 차를 이용하여 섬겨 주시면서도 기름 값도 받지 않고 자신의 시간을 내서 봉사해주시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차량을 5인승에서 9인승으로 바꿔서 노인대학 차량 봉사를 감당하시는 분들도 계신답니다. 주님의 마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모습일 것 같습니다. 차량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께서 너무나 친절하게 미소 가운데 봉사 하시는 차량 봉사자들을 볼 때 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다고 고백하곤 합니다. 저는 봉사자들의 마음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며 축복이 부어지길 기도할 뿐입니다.

12. 함께 하나님의 사역의 성공하기 위한 제언

저희 교회의 사역을 보고 많은 교회들이 찾아 올 때마다 공통적으로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성공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성공을 먼저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주께서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시116:12)라는 동기가 먼저 선행이 되고 그리고 오직 예수 십장으로 영혼들에게 다가가면 100% 주께서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영혼들을 세워 주십니다.”라고...

저희들은 이 사역을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직 앞으로 달려가는 마음으로 감당해 왔습니다. 누군가에게 알리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 없이 주님과 영혼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사역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역을 통하여 저희 교회를 높여주시고 계십니다.

이미 복일노인대학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지역사회와 교회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뒤 늦게 알았던 (주) 뉴스피플사에서 발행하는 월간 (News People) 2011년 9월호에는 북일노인대학사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호남 최대의 노인대학으로 성장했다. 13개 세부강좌로 운영되는 북일노인대학 은 익산 전역은 물론 김제, 전주와 충청도에서까지 찾아올 정도로 입소문이 대단 하다. 전국 각지의 교회에서 벤치마킹 차 찾아오는 이들도 부쩍 잦아졌다. 찾아오는 어르신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식당 파트, 수송 파트, 교수진, 사무 파트 등 각 파트별로 봉사하는 교인들의 일손도 무척 바빠졌다.”

무익한 종들이지만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노인대학은 소비하는 사역만이 아니라 이 사역을 통하여 교회에 대한 인식 변화와 함께 교회가 부흥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지역사회를 섬기는 사역인 동시에 지역사회에서 칭찬받고 교회가 사랑받는 사역이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으며 감동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운데서 하나님의 명령인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모든 어르신들을 우리들의 부모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 사역을 주님 오실 날까지 감당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북일노인대학의 교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교가는 북일노인대학 재학생들에게 큰 힘을 주고 있습니다. 교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북일노인대학 교가

1. 힘을 내자 함께 나가자 / 누구나 가는 인생 의미 있게 삶을 살자
나의 이 소망 영원히 변치 않네 / 거듭나고 변화되어 빛이 되리
서로 사랑해 서로 화목해 / 우리 서로 하나 되어 인생 꽃을 피우자.
2. 일어나자 함께 외치자 / 새로운 나의 인생 소망 있는 꿈을 꾸자
나의 모든 삶 다시 새롭게 펼쳐 / 앞을 향해 나가세 천국의 소망
서로 감사해 서로 승리해 / 북일노인대학 안에 부흥의 불씨 되자.

큰사랑 행복한 홈스쿨

- 제 8회 대도시 부문 수상 큰사랑교회 사역보고 -

1. 교회(기관) 현황

큰사랑교회는 2001년 2월 11일에 인천 만수4동 12번지에서 박상철 목사가 개척하였다. 처음 개척할 시는 모교회의 재정지원 혹은 교인지원이 없는 담임목사 부부와 가족 중심의 교회로 출발을 했다. 선배 목사들은 교회 부흥의 비결은 '오직 기도'라는 충고를 하였다. 목사는 새벽마다 통성으로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매달렸다. 3년여 간을 오직 기도와 말씀을 강조하며 기도하다 보니 목이 쉬고 나중에는 설교할 때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목사는 설교를 해야 하는데 소리가 나오지 않으니 이러다가 말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까지 생겼다. 성대결절로 인해서 해마다 겨울엔 감기가 끊이질 않고 기침을 반복하는 약체의 몸이 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그런 체험은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여야 한다는 믿음을 심는 계기도 되었다.

개척 초기에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찾아 주었지만 부담이 있는 상가교회라는 이유로 정착하는 성도는 많지 않았다. 또한 기 신자들이 교회를 찾을 때는 기성교회의 모습을 기대하고 간섭을 하기 일 수였다. '먼저 있던 교회는 통성으로 기도를 했다. 기도원을 다녔다. 구제를 했다. 노상전도를 했다.' 다양한 의견을 내었지만 모두 다 자신들이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불만과 불평으로 전달되고, 교회 공동체에 오히려 화합을 깨는 이유가 되었다. 개척 초기에 일꾼이 없이 기성교회의 모든 것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았다.

개척교회의 매뉴얼이 부족했었기 때문에 목회컨설팅을 찾았다. 목권의 김 목사는 "큰 교회는 몸집이 크기 때문에 큰일을 할 수 있지만, 목표를 바꾸거나 정책전환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작은 교회는 몸집이 작아도 집중을 할 수 있는 정책변환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집중할 수 있는 방향을 정하시고 매진하세요." 그 말에 힘을 얻었다. 마침 담임목사는 '노인의 사회역할 상실에 따른 대안적 교육목회'(한국학술정보) 논문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사모는 도원교회에서 선교원을 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어르신들과 아이들을 중점으로 하는 목회를 계획하였다. 그리고 목사 부부는 고려사이버 대학에서 사회복지사 공부를 하기 시작하며 복지 목회를 준비를 하였다.

기존 교회 설비로는 아동센터 운영에 많은 부족함이 있어서 기존 공간을 아동복지센터로

운영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계획하였다. 리모델링은 재정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교우들과 함께 직영으로 하기로 하였다. 마침 경험이 있는 작은 교회 목사님의 도움으로 설비도 지원되어 온 성도가 합심으로 교회 리모델링을 하면서 교회는 한 마음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2005년에 국제기아대책의 떡과 복음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 국제기아대책 서울 기아대책 본부를 찾아가게 되었다. 원 사무총장을 만나고 함께 떡과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동역자로 만남을 약속하고 큰사랑행복한홈스쿨 개소를 하였다. 개소식 때는 기아대책 정정섭 회장과 이사진들, 지방회 목회자들, 그리고 조동초등학교장, 만수4동 주민센터장 등 지역유지들을 초청하여 큰사랑교회가 지역을 섬기는 일을 시작하는 것을 알리고 큰사랑행복한 홈스쿨 사역을 위해 기도를 부탁하였다.

우리 교회는 '어른을 섬기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교회가치를 갖고 교회 건물에 큰사랑복지센터를 설립하였다. 2004년 3월 8일에는 큰사랑실버라이프를 개강하여 지역의 노인어르신들에게 건강한 노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2005년 11월 25일에 큰사랑 행복한 홈스쿨(지역아동센터)를 개설인가 받았고, 2006년 2월 5일에 전국에서 35번째로 개소식을 하였다. 기아대책 행복한 홈스쿨은 5일 동안 닫혀 있는 교회의 문 열기 운동으로 시작된 사업이다. 인천에는 3천여 개의 교회들이 있는데 지역교회들이 인천 지역사회를 향해 주중에도 문을 개방하고 떡과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큰사랑교회는 개척하는 마음으로 주중에도 교회 문을 여는 모델이 되었다. 큰사랑행복한 홈스쿨에는 현재 시설장(강재현 사회복지사)와 간사(박유준 사회복지사)가 상근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15여명의 비상근 자원봉사자들이 팀을 이루어 봉사하고 있다.

2. 대상

요보호 아동(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아동, 한부모 가정 아동, 조손가정아동, 외탁가정 아동, 방임아동 등)을 대상으로 주 5일 일일 8시간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 2012년 현재 아동수는 24명이다. 아동들을 선정하는 절차로는 인근의 초등학교장의 추천 혹은 지역주민센터의 추천을 받아 요보호 아동의 기준을 확인하고 선정을 한다. 특히 아동들의 보호자와의 면담 때는 큰사랑 행복한 홈스쿨과 교회를 소개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임을 이해시킴으로 행복한 홈스쿨 아이들에게 떡과 복음을 전하는 통로임을 홍보한다.

3. 주제선정

기관소재 지역 내에서 프로그램의 필요성; 교회가 속하고 있는 인천 남동구 만수4동은 임대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다. 아동들이 방과 후 가정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방임, 방치된 환경에서 신체적, 정서적 안정을 누리지 못하는 환경 속에 있다. 이 아동들

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나중에 사회에 악영향을 주는 시한폭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동들을 보호, 관리하는 것이 사회안전망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큰사랑 행복한 홈스쿨은 정상적인 양육보호와 영양제공, 교육적 지지를 제공받지 못하는 빈곤결손가정 아동, 기초수급가정과 한부모, 조손가정, 차상위층, 저소득 맞벌이 가정 등의 아동들에게 학습지원, 특기적성교육, 급식, 문화체험활동 등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아동들이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으로 균형을 이루어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설립되었다.

특히 지역사회 요보호 아동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통합적 사회복지 서비스의 제공을 한다. 통합적 사회복지 서비스로는 첫째, 교육면에서는 학습, 숙제, 위생, 생활지도체험, 견학, 캠프, 특별활동 등을 통해서 지원한다. 둘째, 정서지원에서는 집단지도, 사회성 향상지도, 미술치료, 음악치료, 상담 등을 통해서 정서지원을 한다. 셋째, 건강지원은 중식 및 석식 급식지원과 예방 접종, 스포츠 활동 등을 지원한다. 넷째, 가정지원은 아동보호는 물론 가족기능을 강화한다. 상담과 사례관리, 가족 상담을 통합으로 실제 가정보다도 더 따뜻한 환경을 유지함으로 오고 싶은 시설로 자리 매김을 하였다.

실제로 자원봉사를 하러 온 봉사자에게 “선생님은 어디가 제일 가고 싶어요?” 라고 질문했을 때, 봉사자는 “집이지.”라고 무심코 대답을 했는데, 아이들이 “우리는 큰사랑 행복한 홈스쿨이 제일 오고 싶은 장소.”라는 대답을 듣고 감동을 받았다는 사례도 있었다.

지향하는 가치; 가정 같은 평안함과 학교 같은 전인적 교육을 해주는 종합적인 아동보호시설이 큰사랑 행복한 홈스쿨의 지향하는 가치이다. 특별히 큰사랑교회의 가치에는 9가지가 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체험하는 예배자를 세운다. 2) 성도들을 양육하고 훈련하여 평신도 사역자를 세운다. 3) 지역의 소외된 노인과 청소년들에게 복음과 더불어 사랑을 나눈다. 4) 지역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한다. 5) 모든 삶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원봉사를 하여 주님이 드러나게 한다. 6) 중보기도 사역으로 주님의 몸을 이룬다. 7) 독서나누기를 통한 제자훈련으로 리더를 세운다. 8) 섬김과 예배와 간증이 있는 가정이 천국 되는 교회를 세운다. 9) 땅 끝까지 복음의 빛을 비추는 증인을 세운다.

큰사랑교회의 가치선언문에는 이렇게 기록하였다. ‘우리는 오직 전도와 사람세우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성령의 능력으로 자라나고, 우리의 주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절대가치로 여긴다.’

특별히 큰사랑교회는 교회 개척을 할 당시에 기아대책과 함께 동역자를 세움으로써 팀을 이루는 사역에 중점을 두었다. 큰사랑교회는 장소 및 급식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봉사자등 인적자원을 지원하고, 국제기아대책은 행정 및 운영지원과 프로그램 기획 및 교육, 세미나를 지원하며, 정부와 기업의 후원으로 운영비와 운영활동 물품을 지원하는 팀워크 사역을 기획하였다.

개척교회에는 사역을 하기엔 재정적, 인적 자원이 턱없이 부족하다. 소수의 교인들이 전도를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사역의 일군을 세우는 것도 아득하기만 했다. 목사 둘째 딸이 하루는 이런 말을 했다. “아빠, 사람이 없는 것을 너무 그렇게 크게 생각하고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은 인터넷 시대이니까 정보공유도 쉽고, 얼마든지 훌륭하고 좋은 교회를 세울 수 있어요. 좋은 사역을 하고 가치가 훌륭하면 소문이 나고 일군도 찾아 올 거예요.” 이 말이 목사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다. 우선 딸이 아빠의 사역과 가치를 인정해준다는 것이 천군 만마를 얻은 기분이 들었다. 딸이 인정하고 있다면 그것 자체가 진실하고 선한 열매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지금은 적은 교인들이라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세워지면 반드시 큰일을 해 낼 수 있다는 믿음도 생겼다.

4. 목적, 목표

1) 크고 포괄적인 목적 설정

큰사랑교회의 목적선언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우리 큰사랑교회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자라나고, 큰사랑 행복한 홈스쿨과 큰사랑실버라이프를 통해, 지역 사회를 섬기는 평신도 자원봉사자를 세워서 하나님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다.’

목적선언문을 작성할 때의 일화이다. 담임목사는 해마다 목전에서 주관하는 년 중 목회계획 세미나를 참석하고 있다. 목전의 김 목사는 “교회엔 목적선언문이 있어야 합니다. 단문으로 두 세줄 정도 정리해서 만드세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가치들을 열거해 보았다. 그래서 교육과 훈련, 성령, 큰사랑 행복한 홈스쿨과 큰사랑실버라이프, 자원봉사, 하나님 나라라는 키워드를 찾고 문장을 만들었다. 목적선언문을 작성하고 나가 교인들과 공유하는 것이 필요했다. 목회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설명을 했다. 그리고 사무총회 때에 비전축제 행사를 실시했다. 교회 지도자들에게 교회 가치와 목적선언문과 사역 내용, 교회로드맵을 직접 발표하게 했다. 교회지도자들이 직접 발표를 하게 하니 교회 비전이 자신들의 이야기가 되었다. 지금은 온 교우들이 기도할 때마다 사역의 내용을 열거하며 교회가치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기도에 대한 일화이다. 큰사랑교회는 농촌교회와 함께 격월로 금요기도회를 연합으로 개최하고 있다. 목사와 동기 중 한 분이 인천 영종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 인천과 영종은 차량으로 한 시간 거리이다. 그래서 작은 교회끼리 연합으로 매달 모여 기도하면 어떠냐고 했더니 동기 목사도 흔쾌히 응해주었다. 지금까지 6년째 연합으로 기도하고 있다. 동기 목사님과 우리 부부는 닳은 점이 많다. 둘 다 사회생활을 하다가 늦은 나이에 늦깎이 목사가 되었다. 그리고 부부가 모두 목사이다. 그런 점이 서로에게 위로가 되며 힘도 되었다. 연합으로 기도할 때에 사모 목사들도 설교를 하게 하자고 했다. 한 번은 동기 목사 부인인 백목사가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면서 감동을 전했다.

“큰사랑교회는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항상 교회 사역과 가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인상적이고 감동받았어요.” 우리는 당연히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우리 성도들이 너무도 고맙고 귀중하다고 생각이 들었다.

2) 여러 개의 구체적인 성과 및 단계적 목표 제시

큰사랑 행복한 홈스쿨 사역을 진행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성과와 단계적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떡과 복음 실현

큰사랑 행복한 홈스쿨 프로그램 운영에도 전인적 통합서비스를 통하여 아동들의 변화를 이끌어냄으로 홈스쿨 시설 아동들에게 육적, 영적, 지적, 사회적 전인사역을 주고 있다. 일반 아이들은 보통 대부분의 시간을 동급의 학생들과 어울리며 경쟁적으로 자란 다음에는 청년이 되어야야 군대라는 집단 공동체에서 사회성을 배워나가는 경험을 시작하는데 비하여, 홈스쿨 아이들은 1학년부터 6학년, 심지어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 학생들까지 시설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함으로써 사회성과 전인적으로 자라는 경험적 삶을 체험하고 있다. 실제로는 지적인 면 뿐 아니라 삶의 체험을 통해서 사람관계를 이루는 삶을 체험한다는 것이 소중한 경험이 되고 있다. 또한 전문적인 영양식을 공급받음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으며, 복음을 가까이 할 수 있어 건강한 마음을 심어주고 가정환경으로 인한 사회적인 불씨를 사전에 해소하는 사회건강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2) 행복한 아동과 행복한 가정

아동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가정과 함께 연계하는 프로그램 진행으로 보완적 가정기능을 통해서 교회의 어르신들이 가정의 어르신과 같은 보살핌으로 대응함으로써 확대가족의 기능을 통해서 행복한 아동,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것이 목표이다.

사례 1; 아동변화(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2학년, 고1, 사회성향상, 심리정서 학습능력 개선사례)

대상 아동들은 기초수급 가정 아동으로 4남매이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중이시고 아버지는 알콜 중독병원에 입원 중이며 어머니는 살림을 하고 있다. 개소부터 지금까지 홈스쿨 이용하고 있다. 4남매 모두 낮을 가리고 과격한 행동과 언어로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거나 때를 쓰고 우는 모습이 자주 관찰되었다. 분노가 내재해 있어 한 번 발산하면 감당이 되지 못하였다. 현재는 자원봉사자들의 일관적인 양육과 보살핌, 미술, 음악 치료를 통한 정서지원으로 첫째는 중학교를 모범적으로 졸업하고, 둘째는 중학생역할을 잘하고 있고, 3,4학년 동생들도 홈스쿨을 좋아하며 단 하루도 결석하지 않고 모범적으로 생활하고 있다.

사례 2: 가정변화(초3,4,5년 가족기능 강화개선사례)

대상 아동들은 기초수급 아동들로 초기 때는 아버지가 알콜 중독으로 특별한 직업이 없고, 매일 집에서 술을 먹고 술주정을 하여 아동들이 술 먹고 담배 피는 행동을 모방하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아동들도 매일 홈스쿨에 보내주어야 하는데, 아이들과 함께 다른 곳에 자주 데리고 다녀 아이들은 아버지에게 우호적이거나 어머니는 아이들이 나쁜 영향을 받으니까 회의적이었다. 아버지와 지속적으로 끈질긴 면담으로 홈스쿨에 다녀야 하는 이유를 설득하고 아이들에게도 홈스쿨에서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치료함으로써 아이들이 성적도 오르고 하니까 긍정적인 이해가 생기고 부모와의 관계도 호전되고, 아동들의 역할 놀이에서도 문제행동이 사라지게 되었다. 아동의 어머니도 아이들이 변화되고 아버지도 조금씩 변화된다고 하여 희망적이 되었다고 감사를 하고 있다.

(3)자원봉사자 육성 및 역량강화

큰사랑 행복한 홈스쿨을 운영함에 있어서 처음 자원봉사자 육성과 역량강화를 목적인 것은 큰사랑교회 박상철 담임목사의 마인드였다. 박 목사는 학생시절 자원봉사 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를 한 경험이 있다. 학생시절 장학금이 자원봉사단체에서 후원된 장학금이라는 것을 알고, 후에 자신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겠다는 다짐을 하였었다. 그 마음이 싹튼 것이 목회자가 되어 큰사랑교회를 개척한 후, 제일 먼저 큰사랑 행복한 홈스쿨을 개소하게 된 큰 이유였다. 개소식을 할 때에도 인사말에서 큰사랑 행복한 홈스쿨 아이들이 지금은 도움을 받고 자라지만, 어른이 되어서는 또 다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자원봉사자들이 되라고 권면을 하였었다. 홈스쿨 시설 아동 중에는 5,6년 홈스쿨을 다니는 중학생들이 있는데 이 학생들은 실제로 초등부 행사 때에 행사의 도움미로 자원봉사를 하며 프로그램 운영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2010년 6월 7일에 큰사랑교회는 사회복지 자원봉사 관리지정센터로 큰사랑복지센터로 지정받았으며, 큰사랑 행복한 홈스쿨 이외에도 노인들의 여가지원을 위한 큰사랑실버라이프와 지역주민들을 위한 큰사랑 작은 도서관을 개설하여 지역사회를 섬기며 열린 교회로서 많은 자원봉사자들을 배출함으로써 역량을 강화시키고 있다.

사례3: 지역사회 변화(미술치료 자원봉사자 임 00 일지)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한다는 말은 들었지만 모두 재정상태가 넉넉하거나 알만한 유명한 교회이거나 봉사자도 많이 확보된 그런 곳에서 일어나는 일일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런 조건과 거리가 먼 이 곳에서 일구어내는 조용한 사랑의 시작점을 보았다. 언니처럼, 엄마처럼, 선생님으로의 여러 가지 역할이 지칠 법도 한데, 신앙의 힘은 차력사처럼 이 곳 선생님들을 기운 나게 하는가 보다. 어린이들은 큰사랑 행복한 홈스쿨에서 우정을 키우고, 배려와 용서, 웃음을 가꾸어 가고 있다.

처음 만났을 때 어린이들은 욕심도 부러보고 경쟁도 하고 실력도 발휘하고도 싶어 했다. 그러나 회를 지날수록 어린이들은 서로 돕고, 웃음을 나누어 가지는 모습이 익숙해지고 긴장의 끈을 놓기 시작했다.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도 점차 유순한 여유를 갖기도 했다. 묵묵히 자신의 작품 만들기에 여념이 없는 어린이, 금방이라도 자리를 잡지 못하는 어린이가 있다. 그러나 끝까지 참여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고 결국 자기 몫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시작단계에서는 프로그램을 끝나고 돌아오는 마음이 무거운 날도 많았다. 내가 이 아이들의 마음을 얼마나 헤아릴 수 있을까? 그러나 그것은 쓸데없는 생각들이고 이 어린이들이 오히려 내게 위로를 주었고, 용기와 희망을 갖게 하였다. 주는 것과 받는 것은 하나라고 했던가? 이 어린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큰사랑 행복한 홈스쿨은 잘 알고 있다. 큰사랑...밖에서 찬바람과 외면과 거친 충돌에 상처받기 쉬운 어린 마음들은 이곳에서 위로받고 사랑받으며 건강하고 성장하고 있다. 이 사랑이 물밑 듯이 점차 확산되어 상처를 안은 많은 어린이들에게 세상에 대해서도 신뢰를 갖고 이 세상이 아름답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5. 프로그램 기반

1) 학문적, 이론적 기반 제시

하나님이 뜻하는 구원은 영혼, 육체의 자유이다. 고아와 과부,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사58:6) 마19:14에선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시며 천국은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또한 마18장 5절에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사역방법은 소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빈곤결손 가정 아동이 빈곤으로 인해 겪게 되는 결식문제, 교육기회의 제한, 정서, 문화적 소외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큰사랑 행복한 홈스쿨과 같은 시설을 통하여 통합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결식을 예방하고 학습능력, 사회성을 증진하는 것이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는 데 필요하다.

6. 프로그램 내용

큰사랑 행복한 홈스쿨의 주요사업으로는 외국어 프로그램(영어, 중국어)과 특기적성 프로그램(바이올린, 플룻, 합창, 도자기, 장구, 종이접기, 칼라믹스 등)이 있으며, 보호프로그램, 결식 프로그램, 심리정서 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 문화체험 프로그램, 가족지원프로그램, 지역사회연계프로그램 등이 있다.

1) 지향하는 가치와의 연결성

글로벌 시대에 발맞춰 오감을 자극하는 다양한 영어 교육이 제공되고 있는 시점에서 교육의 빈부격차로 영어교육에 노출되지 못하고 영어권 문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아동들에게 원어민 강사를 통한 즐겁고 체험적인 영어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영어를 소통의 도구로서 자연스럽게 친숙하게 이해하고 경험하게 한다. 아동들이 영어에 대한 자신감과 실력을 쌓아가면서 영어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와 비전 발견의 기회를 갖는다. 중국의 위상이 커지고, 동북아는 물론 세계적인 영향력이 증대되는 시점에 제2외국어로 중국어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아이들에게 국제적인 어휘력을 취득케 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국제적인 일군으로써 준비하고, 세계적으로도 자원 봉사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개발하여 지역과 나라는 물론 어려운 외국에까지 다시 사랑을 환원하는 자원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2) 구체적 성과 목표와의 연결성

떡과 복음에서는 시설 아동들에게 사회인으로서의 외국어 지원을 통한 전문성 강화를 통해서 건강한 성장을 돕고, 행복한 아동과 행복한 가정 목표에서는 특기 적성 프로그램을 통하여 아이들의 정서적인 지원을 통해서 삶을 즐길 줄 아는 건강한 아동 및 가정을 세운다. 자원봉사자 육성 및 역량강화에서는 자아성취감과 공동체성, 긍정적인 자아를 가지게 함으로써 자신이 성장함은 물론 타인에게도 봉사를 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의 자원을 개발하는 효과가 있다.

큰사랑 행복한 홈스쿨을 운영하다보니 차량이 부족하였다. 교인 중에 정집사가 면담을 요청하였다. “목사님, 홈스쿨을 운영하려면 차량이 필요하잖아요. 25인승 차량 제가 후원하고 싶어요.” 정 집사는 공무원이다. 생활도 그리 넉넉지 않은 형편이다. 그런데 25인승 차량을 후원하겠다는 것이다. 25인승은 5천이 넘는 큰 금액이다. 그래서 기도해보자고 했다. 정집사의 감동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혹시라도 마음을 다칠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다. “정 집사님, 아동들이 한꺼번에 움직이려면 25인승이 필요할 경우가 생기지만 항상 차량 이동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행사시에만 필요하죠. 그것보다는 수시로 움직일 수 있는 12인승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정 집사는 “그러죠.” 하면서 12인승 차량을 30개월 할부로 기증을 하였다. 정 집사는 우리 큰사랑교회가 하는 큰사랑 행복한 홈스쿨 사역에 큰 관심을 갖고 자랑스러워하고 있다. 이 일을 통해 다른 성도들도 감동을 받아 교회 사역을 위해서는 형편이 어려움에도 힘써 돕는 전통이 생겼다. 우리 큰사랑교회는 작지만 강한 영향력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었다.

3) 세부 프로그램

(1) 보호 프로그램

지역사회 방임 및 학대 아동 보호, 일반적 보호 등이다. 홈스쿨은 가정보다 더 아늑한 곳이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아이들이 집에 가면 그 집은 돈을 벌기 위해 직장에

간 얼마나 가족으로 인해 텅 빈 공간(space)일 뿐이다. 그러나 홈스쿨은 사랑을 채운 장소(place)가 된다. 아이들이 홈스쿨에 오기 전에 먼저 시설장과 간사는 아이들을 문 앞에서 반갑게 맞는다. 그러면 아이들은 자신을 반겨주는 목사님, 선생님들을 보며 가정보다 더 오고 싶은 사랑의 장소가 되는 것이다.

홈스쿨 아이들의 카드를 보면 참 의미가 깊다. “많은 친구들을 사귀고 건강하고 친하게 지냈던 것, 방학을 만들어 주셔서 쉴 수 있게 해준 것, 지금까지 아프지 않고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좀 힘들긴 했지만 공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2) 급식 프로그램

중식 및 석식제공, 간식제공 등이다. 강 목사(시설장)은 아이들의 식단을 직접 챙긴다. 대부분 시설에서는 식재료 공급업체와 거래하여 식사준비를 하는 데 비해서 강 목사는 아이들의 식사는 가족의 식탁처럼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집에서도 식사를 변변치 못하게 하는데 이 아이들이 어디서 새로 한 따뜻한 밥과 반찬들을 먹겠어요?” 매일 신선한 재료를 시장에서 사다가 맛있는 식탁을 차려주는 것을 아이들은 다 알고 있다.

“홈스쿨에서 맛있는 음식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보다 못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올해 따뜻하게 보낼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아이들을 돕겠다고 홈스쿨에 방문한 봉사자들도 바짝 마르고 근심어린 아이들의 얼굴을 생각하였다가 우리 홈스쿨 아이들을 보면 깜짝 놀란다. “아이들의 얼굴이 무척 밝네요?”

(3) 심리정서 프로그램

개별 및 집단 상담, 집단 활동 등이다. 아동 중에 오민선 아동이 있었다. 하루는 목사님께 면담을 요청했다. 면담을 할 때 이 아동은 이런 말을 했다. “목사님, 엄마가 나보다 더 나은 아이들과 사귀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 홈스쿨에 민용이가 있잖아요. 민용이가 좀 이상한 아이 같아요.” 민용이는 지체아동이다. “민용이가 있으니깐 불편해요.”라고 말하는 것이다. 민선이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다. “민선아, 나보다 나은 아이라는 기준이 뭘까? 공부를 잘하는 거? 아니면 나보다 잘 사는 거?” 우리 홈스쿨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아이들이 모인 곳이란 다. 내가 선택한 어려움은 아니지만 어려운 환경 때문에 이곳에 모여 있어. 큰사랑홈스쿨은 이런 환경을 가진 아동들에게 사랑을 주며 열매를 맺도록 돕는 곳이야. 내가 생각할 때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사랑의 열매야. 목사님은 민선이가 그런 마음을 가지길 바래.” 민선이는 한참 있더니 “생각해보겠어요.” 말을 했다. 지금 민선이는 고등학생이다. 희망은 사회복지공무원이 되어서 지역사회를 돕겠다고 한다. 하루는 중학생이 된 민용이가 홈스쿨을 찾아왔다. “어, 생각나서 찾아왔어요.” “생각이 났어?” “네, 늘 생각이 나요.”

(4) 교육 프로그램

학습지도, 독서지도, 외국어(영어, 중국어), 한자교실, 논술, 합창 교실, 특기적성(도자기, 장구, 종이접기, 칼라믹스), 생활위생지도, 성교육, 안전질서 교육, 예절교육, 기아교육 등이다.

교육프로그램을 짜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다.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교사를 만나야 하기 때문이다. 큰사랑 행복한 홈스쿨은 팀 사역의 마인드를 갖고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인적 자원을 매우 중요시한다. 담임목사부부의 주변엔 늘 인적자원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가동된다. 한번 사귄 사람은 끝까지 관리한다. 복지센터 소식을 전하고, 발행된 책을 발송하며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중국어, 도자기, 장구, 종이접기, 칼라믹스 등 프로그램도 모두 목사부부와 친분이 있는 연고자들이 교회의 가치를 함께 공유하며 자원봉사하게 된 분들이다.

한번은 기아대책으로부터 기부자 가족을 소개받았다. 어머니가 소천하시면서 남긴 재산 오천만원을 기아대책에 기부한 것이다. 그 딸이 자신도 어머니처럼 어려운 이웃을 돕는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고 하였다. 인천지역에 거주하시는 분이라 인천 큰사랑 행복한 홈스쿨과 연계하여 자원봉사를 계획하게 되었다. 딸은 마침 캐나다에 유학한 인재이고 영어에 능통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영어 수업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다. 아이들에게 영어를 재미있게 가르치게 되어 아이들은 영어에 아주 흥미를 갖게 되었다. 아이들이 영어를 좋아하게 되자 아이들에게 영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었고, 게일로부터 원어민 교사 지원도 받고, 영어프로그램을 점차로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

또 다른 아이는 이렇게 썼다. “공부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교회 빠지지 않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친구 사귀게 해주셔서 감사,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5) 문화체험 프로그램

문화체험, 견학, 캠프, 각종 행사 등이다. 문화체험은 기업과 연계하여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게일에서는 큰사랑 행복한 홈스쿨과 원어민 영어교사지원 사업을 통하여 아이들과 가까운 계기가 되었다. 아이들은 게일이 주관하는 송도 굿마켓 베품시장에도 참여하여 자원봉사의 체험도 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회장과 임원들과 기념사진도 찍고, 아이들은 지역에 영향력을 끼치는 기관장들과도 함께 하는 좋은 경험을 하게 되었다. 게일은 나눔의 기쁨이 더 크게 되었다. 회장과 이사들은 큰사랑 행복한 홈스쿨 아이들을 회사에 초청하여 이벤트를 하고 싶다고 했다. 기업에서는 아이들의 이름과 큰사랑 행복한 홈스쿨을 게시판에 기록하여 진심어린 축하이벤트를 해주었다. 인천에서 가장 높은 기업 빌딩(65층)의 스카이라운지를 경험하고, 송도수상택시도 타고, 전통음식 전문가 초청 음식 만들기, 마술사를 불러 매직 행사를 하고, 화가를 불러 아이들의 캐리커처 caricature까지 그려서 제공해 주었다. 섬김을 하는 기업과 사랑을 받은 아이들은 함께 축제를 한 큰 감동을 나누게 되었다. 금년

에는 또 다른 기업에서도 롯데월드, 화천 생태마을 일일교실, 캄보디아 교사와 함께 하는 여름캠프, 물놀이, 홈스쿨 연합체육대회 등 아이들에게 다채로운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6) 가족지원 프로그램

부모상담, 가정방문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분기별로 부모 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보호자들과 간담회를 하는 목적은 우리 큰사랑 행복한 홈스쿨은 팀워크로 하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팀은 전문가들과 교회 사역자들과 또한 아동들의 보호자도 함께 포함되기 때문이다. 가족지원은 아동들이 홈스쿨에서 지내는 정보들을 가족들에게 알려줌으로서 아동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아동들의 가정을 방문함으로써 가정 형편도 살피고 가정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가정방문을 통하여 실제로 형편이 어려운 가정은 발굴하여 기아대책에 CDP 수혜자로 보고하여 물질적으로 돕고, 멘토 지원을 함으로써 건강한 가정으로 지원하고 있다. 아동들의 보호자들은 수혜자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함께 참여하는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다. 보호자들은 집에서 감자, 오이, 가지, 상추 등을 갖고 와서 나누어 먹자고 하며 심지어 집에 있는 책까지도 기증을 하며 아동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참여봉사자가 되고 있다.

(7) 지역사회연계 프로그램

결연후원사업(CDP), 지역자원봉사활동 참여 등이다. 결연후원은 교회 성도들에게 후원자로 가입하게 하고 있으며, 또한 홈스쿨 아동 중에서 후원대상 가족을 발굴하여 기아대책에 보고 하여 지원하고 있다. 큰사랑교회에 큰사랑복지센터를 설립하여 사회복지인증센터로 등록하여 자원봉사자들을 발굴하고 있다. 홈페이지에 자원봉사 내용들을 홍보하여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고 섬김의 기쁨을 나누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교우들에게 자원봉사의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서 6명의 주부들을 대상으로 독서나누기를 통하여 가치를 정의하는 훈련을 하게 하였다. 독서나누기를 통한 나누기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복음은 대체로 인상적이지 않고, 무능력하여 아무 것도 아닌 사람들과 함께 역사합니다. 나아만은 하나님은 참으로 하나님인가? 엘리사는 정말로 하나님의 선지자인가? 의심했지만 그가 내게 시킨 일이나 한번 해보자 한 것이 빛나는 양보가 되었다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순종하는 믿음으로 가면 저에게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늘 결단만 하고 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를 하면서 봉사를 해야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모든 과정을 형식적인 걸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형식 안에서 기초를 다지고 든든한 반석을 세워나갈 버팀목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 자신의 비전과 경험을 버려두고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집을 짓는 멋진 신안인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생각하면서 외식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주님이 바라시는 제자가 되기 위하여 영성을 쌓으며 거룩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저는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걸었습니다. 목사님의 동역자로 쓰임 받고 사명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믿음의 분량대로 최선을 다하여 순종할 것을 다짐합니다.”

사역에 동역하는 일군들에게는 사역훈련을 통해서 책을 통한 의미와 가치를 나누며 자원봉사자를 세워나가고 있다.

7. 타 기관과의 네트워크

1) 민간 및 공공 기관과의 네트워크

큰사랑 행복한 홈스쿨의 운영은 타 기관과의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민간부분은 교회와 국제기아대책, 기업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로는 인천시 남동구가 후원하고 있다. 2012년 큰사랑 행복한 홈스쿨을 후원한 기업으로는 제일인터네셔널의 원어민 강사후원, S-oil의 천연기념물일일교실 후원, 한국인삼공사의 생일잔치 후원 등이 있었다.

한편 큰사랑 행복한 홈스쿨은 국제기아대책에서 후원하고 있는 캄보디아의 해피홈스쿨과도 연계하여 자매결연을 맺고 캄보디아 현지 선교사를 돕는 교사들을 한국에 초청하여 한국교육방법을 후원하고 있다. 캄보디아는 현지 어린이 250여명에게 떡과 복음을 전하는 기아대책의 행복한 홈스쿨 기관이다.

2) 네트워크 내에서의 각 기관의 역할

큰사랑교회는 장소 및 급식, 인적자원을 지원하고, 정부와 기업은 운영예산과 물품을 지원한다. 기아대책은 행정 및 운영지원과 프로그램 기획과 교육, 세미나를 지원한다. 네트워킹은 서울신대 등 외연이 확장되고, 심지어 국내를 넘어 캄보디아의 해피홈스쿨까지 확대되고 있다.

지난 2009년도에는 핑 폴라 교사를 한국에 초청(한국성결신문 715호 2009.7.25.자 기사 참조)하였었다. 한 달간 큰사랑교회 담임목사 집에서 거주하고, 폴라 교사에게 한국의 행복한 홈스쿨 사역의 내용에 참여하게 하고, 한국문화도 경험하게 함으로써 캄보디아 현지에서 훌륭한 교사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

처음 외국인 교사를 초청할 때는 얼굴색도 다르고, 말도 통하지 않아서 이 일을 시도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다. 교우들도 외국인을 가까이하는 것은 처음이라 접근을 꺼리고 구경만 할 정도였다. 그러다가 여름캠프행사도 함께하고 한 달간을 함께 지나다 보니까 외국인도 익숙해지고 스킨십도 할 정도가 되었다. 목사부부도 폴라와 함께 한 달을 한 집에서 거주하는 경험을 통해서 얻는 것이 많았다. 처음에는 낯새도 특이한 것 같고 단지 손님

을 대접한다는 마음이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폴라는 우리들에게 딸이 되어 주었고, 우리가 섬겨준 것보다 더 큰사랑을 우리에게 주었다.

교우들에게도 폴라를 예수님처럼 섬겨주자고 말했는데, 폴라를 한 달 간 섬긴 경험은 성도들에게 우리들이 행한 섬김 사역이 얼마나 큰 사랑의 열매를 내었는지를 체험하게 되었다. 폴라가 인천공항을 떠날 때에는 눈물을 흘리며 진심어린 정을 나누었다. 그 후 캄보디아에서 폴라가 한국아동교육을 받은 교사로 소문이 나고, 현지 선교사의 해피 홈스쿨 사역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자, 현지 선교사는 또 다른 교사를 초청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우리 교회는 2년 전에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온 성도가 함께 믿음으로 기도를 하였다. 기도 중 허 집사님께서 자신에게 감동이 왔다고 하며 자신이 비용을 대겠다고 하였다. 쓰라이 노 교사는 한국에 오게 해달라고 3년 동안 기도를 했다고 한다. 쓰라이 노 선생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는 성도들이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따뜻한 마음으로 자매를 맞이하는 것처럼 온 성도가 반겨주었다. 시라이 노 교사는 큰사랑 행복한 홈스쿨 여름캠프에 참여하고, 한국체험 등 다양한 경험을 하였다. 서울신대(백혜리 교수)도 협력하여 시라이 노 교사에게 서울신대 보육연구소 주관으로 단기 교사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함으로서 교사로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협력을 해주었다.(한국성결신문 863호 2012.8.11.자 신문참조)

시라이 노 교사는 2012년 7월 19일부터 8월 19일까지 한 달 동안 많은 성도들로부터 집중적으로 사랑을 받았다. 한 달 간의 사랑은 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큰 힘인 것을 이번 에 볼 수 있었다. 한 달 교육을 끝나고 담임목사 집에서 마지막 저녁만찬을 하고 난 시간에 시라이 노는 울면서 고맙다는 말을 한국말로 하겠다고 하였다. “목사님, 고마워요.” 라고 말을 하려다가 끝내 시라이 노는 눈시울을 적시고 말았다. “그래 안다. 알아.” 하면서 시라이 노를 다독겨려주었다. “내일 캄보디아에 가지만, 그곳에서 아이들에게 떡과 복음을 전해주고 있다면 우리는 함께 있는 거야. 그러니 슬퍼하지 말아요. 그리고 우리도 언제든지 캄보디아에 방문할 수 있으니까 그 때 또 만나자.” 라며 위로해 주었다. 시라이 노 교사가 울면서 하는 말은 목사부부에게 큰 선물을 주었다. 먼 타국의 교사를 통해서 떡과 복음을 함께 나누는 기쁨은 큰 감동이 되었고, 함께 협력하는 네트워크야 말로 사역을 더욱 행복하게 하는구나. 라고 느끼게 하였다.

8. 프로그램 평가

1) 성과 목표와의 연결성

보호, 결식 프로그램은 방과 후 아동들을 보호하고 결식문제 및 영양 상태를 개선하고 있다. 방임되기 쉬운 아동을 센터로 오게 함으로써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주 5회 급식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결식문제를 해소하고, 영양상태가 호전되어 발육상태도 양호하게 되었다. 아동들은 방학 중에도 아침 일찍 홈스쿨을 찾아 온다. 홈스쿨에는 아이들에

게 필요한 사랑이 있다. 아이들에게 엄마와 아빠의 역할을 하는 큰사랑교회의 교우들과 목사부부는 오히려 이 아이들로부터 큰사랑을 받는 것 같다. '주면 누르고 넘치도록 부어준다.'는 말씀처럼 홈스쿨의 사랑의 사역은 오히려 넘치는 기쁨과 행복을 주는 사역이다.

심리정서 프로그램은 월 1회 이상 개별상담을 통해 사례관리를 하고 연계프로그램 자원을 지원한다. 교육프로그램은 학습지도를 통해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며, 학교적응력을 높이고 학업성적도 중상위권에 오르는 등 많이 향상되고 있다. 문화체험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집단활동을 통해 사회성을 높이고 타인,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폭을 넓히고 있다. 중학생을 위한 논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시인이 지도하고 있다. 시인이 코멘트를 해주었다. "아이들이 굉장히 가능성이 있어요. "무슨 말씀?" "아이들이 글을 쓰면 자신의 이야기에 즐거리가 있어요. 글 숨이 긴 학생이 있어요. 조금 다듬으면 작가로도 가능성이 있어요." 중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시인과의 만남을 통해 글쓰기를 하였더니 아이들에게 뜻밖의 재능을 발견했다. 아이들이 논술시간만 되면 빠지지 않고 출석률이 좋다. 목사는 기분이 좋다. 이 아이들 중에 방송작가가 생겼으면 좋겠다.

가족지원을 통해서도 분기별 생일파티와 큰사랑 행복한 홈스쿨 한마당축제 공연 가족행사를 통해 가족애를 경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있다. 아이들에겐 악기 지원을 통하여 바이올린, 플루트, 장구, 오카리나 등 악기 연주를 하게 한다. 아이들이 악기 연주를 지속하게 되자 아이들 정서도 좋아지고 자신감도 생겼다. 한번은 홈스쿨 아동 중에 동길이라는 아이가 있었다. 늘 조용하고 숙기가 없었는데 자원봉사로부터 오카리나를 배웠다. 학교에서 년말 학예회 발표 때에 동길이는 오카리나 연주를 멋있게 하였다. 그 후로 동길이는 다른 아이들에게 주목을 받게 되었고, 밝은 아이가 되었다. 동길이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목회자가 되겠다고 했다. 큰사랑 행복한 홈스쿨에서도 년 1회 큰사랑한마당 축제 행사공연을 한다. 공연 때엔 가족을 초청하여 함께 관람하며 축하를 하게함으로써 아이들과 가족들이 함께 축하세리모니를 경험하게 하여 자신감과 정서적 지원을 한다.

지역사회연계프로그램을 통하여는 결연후원사업을 연계하여 멘토링 및 물품을 후원하고 있으며, 송도 게일인터네셔널이 개최하는 송도굿마켓 행사에 홈스쿨 아동들이 참여하여 자원봉사의 체험을 하며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건강한 참여를 통해서 이웃과 함께 하는 체험 행사를 돕고 있다. 게일이 송도굿마켓 후원금을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고 싶다고 하여 큰사랑 행복한 홈스쿨 아동들에게 윈어민영어교사를 지원하는 협약식을 하였다. 협약식을 할 때 아이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울동과 노래를 하였다. 회장과 이사들이 행복한 홈스쿨 아이들을 보며 감동을 받았다. 게일 회장은 회사로 초청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였다. 아이들은 인천에서 가장 높은 동북아 트레이드 건물(65층 305M) 전망대에 올라 송도개발도시를 하늘에서 보는 것처럼 감상하며 꿈을 키웠다. 게일은 홈스쿨 아동들을 보며 또한 행복을 선물로 받았다.

2) 자료수집 방법의 타당성과 양적 혹은 질적 평가의 내용 및 과정

2012년도에 지역아동센터 평가센터에서 5가지 부문을 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아동 문서관리 및 권리보장(20점); 아동개인별 파일 배점 10점에 10점 평가, 아동권리 보장 수준 배점10점에 10점 평가를 하여 센터 점수 20점 평가함.

(2) 프로그램 운영(30점); 생활지원(보호)프로그램 배점 10점에 8점 평가, 교육지원(학습)프로그램 10점 배점에 10점 평가, 놀이 및 특별활동(문화)프로그램 배점10점에 10점 평가하여 28점을 평가함.

(3) 시설환경(25점); 내부구조 적절성 배점10점에 10점 평가, 시설위생 환경 적절성 15점 배점에 12점 평가하여 센터 점수 22점을 평가함.

(4) 기관운영기반(20점); 종사자 의무교육 참여율 배점5점에 5점 평가, 연간계획서 체계성 배점10점에 8점 평가, 운영위원회 등 운영기반기구 배점5점에 5점 평가하여 센터 점수 18점을 평가함.

(5) 종합평가(5점); 평가위원회 종합평가 배점 5점에 5점 평가함.

평가 결과 우수기관(총점 93점)으로 평가되었다.

2012년 6월 11일 국제기아대책 경영지도 감사실에서 큰사랑 행복한 홈스쿨의 운영을 점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큰사랑 행복한 홈스쿨 주요프로그램으로는 초등학교 학생대상으로 원어민영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학생 대상으로 주 1회 논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예, 체능 프로그램으로는 종이접기/칼라믹스, 도자기와 무지개 상자 꼬마음악가 지원 바이올린(4명)과 플룻(4명)지도를 하고 있다. 노인실버 자원봉사자가 주 1회 한자지도를 하고 있다.

특별활동으로는 지역본부 연합으로 문화체험과 연합체육대회 행사를 하고 있으며, 센터 자체로 여름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보건소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위생교육 및 지도를 하고 있으며, 학부모 간담회를 상, 하반기 2회씩 실시하고 있다. 건물 관리비 일체는 교회에서 부담하고 있다.

문제점으로는 고유번호증이 기아대책 본부 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시설장 명의로 고유번호증 변경할 것을 요망함. 향후 기업매칭 등을 통해 운영비 재원 확보를 요망함.

3) 중간 평가 및 반성

큰사랑 행복한 홈스쿨(지역아동센터) 우수사항은 행정서류 탁월하고, 인테리어 등 시설 보안을 많이 하여 쾌적한 분위기 제공과 공간이 가정집처럼 아늑하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프로포잘도 잘 활용하고 있다.

보완사항으로는 입구에 교회의 문이 같이 되어 있어 자칫 전용공간이 아니게 보일 수 있음으로 보완이 필요하다.

교회 건물에는 엘리베이터 설비가 있었는데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오랜 세월을 사용하

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리가 필요하였다. 금년에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자고 교우들과 함께 의논을 하였다. 어르신들이 층계를 오르는 일도 안쓰럽고 아이들에게도 힘든 일이니까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는 것이 어떠냐고 하였더니 성도들이 찬성을 하며 합심을 내어 주었다. 십시일반으로 헌금을 내고 그동안 모아진 건축헌금으로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였다. 입구도 새롭게 인테리어를 하여 큰사랑 행복한 홈스쿨 현관은 마치 가정집을 방문한 것 같은 아늑한 공간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금년엔 교회의 표어를 '하나님이 일하심을 체험하는 교회'로 정했다. 교회개척 이후로 어찌보면 사람의 노력으로 하려고 했던 적도 많은 것 같다. 성실히 꾸준히 준비하고 의도적이고 근면하면 최선을 다한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트너로 삼으셔서 협력하고 계시다는 마음이다. 작은 교회에서 큰사랑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교우들을 감동하게 하고, 자원봉사자들을 세워나가며 파트너인 천사들을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큰사랑교회는 지금 그것들을 경험하고 있다.

9. 예산

1) 자원조달 방법

자원조달은 2011년에 법인 보조금(2011년 19백만원), 정부 운영비 보조(2011년 33백만원)과 급식비(2011년 17백만원) 기타(2백만원)으로 71백만원을 조달하였다.

2) 예산 편성

단위: 백만원

수 입		지 출	
항목	금액	항목	금액
법인보조	19	인건비	22
정부보조	33	운영비	7
급식	17	사업비	38
기타	2	기타	3
합계	71	합계	71

전문요양원과 재가노인복지센터

- 제 4회 중소도시 부문 수상 평안교회 사역보고 -

1. 대상

○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대상(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 ▶ 기초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 ▶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 ▶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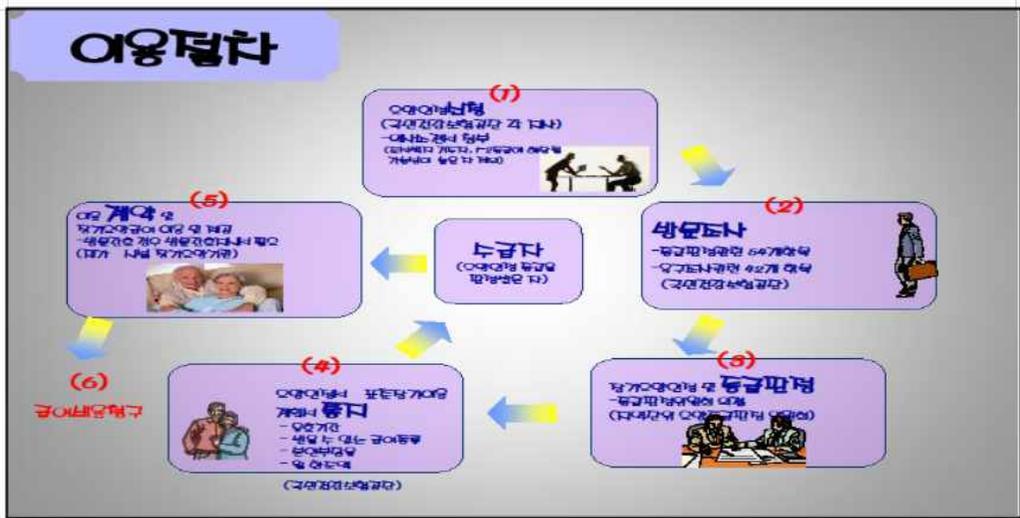
○ 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대상자(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

-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 ▶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방문요양 서비스: 1일중 일정시간 동안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자
 - 주야간보호서비스: 주간 또는 야간 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자
 - 단기보호 서비스: 월 1일 이상 15일 이하 단기간의 보호가 필요한 자
 - 방문목욕 서비스: 가정에서의 목욕이 필요한 자
 - 재가노인지원 서비스: 상담, 교육 및 각종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자

○ 대상자의 범위 및 현황

단위: 명, 2012.03.31 기준

구 분	노인인구수	신청자 수	인정자 수			
			계	1등급	2등급	3등급
전 국	5,721,863	916,429	325,544	39,890	71,669	213,985
제 주	48,024	8,656	3,676	534	770	2,372
서귀포	24,913	3,910	1,624	205	370	1,049



2. 평안전문요양원이 설립하기까지

처음 노인복지시설을 설립한다고 하니 알고 있는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하였다. 먼저 교회 중진 대다수는 아직 교회가 자립하기도 어려운데 요양원을 설립한다고 반대를 하였다. 가장 이해를 먼저 해주어야 할 분들이 왜 교회가 사회복지를 해야 하느냐며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분들을 설득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럼에도 계속적으로 당위성을 이야기하고 비전을 설명하였다.

두 번째로 반대한 사람들은 요양원이 들어설 자리에 위치한 토평동 주민들이었다. 혐오시설이므로 반대한다는 것이었다. 일일이 그들을 찾아가서 요양원이 있어야 할 당위성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교회를 위해서 요양원을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해서, 토평동 주민을 위해서 설립하는 것임을 되풀이해가면서 설득하였다. 그 후 드디어 요양원이 설립하게 되니 지역사회 유지들이 먼저 찾아와 축하를 해 주었다.

세 번째로 반대한 곳은 서귀포시청이다. 평안교회가 평안전문요양원을 설립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다 하면서 설립허가 신청을 받는 것을 보류하였다. 1997년 당시에는 전문요양원이 전국에 다섯 곳 밖에 없었고 제주도에는 처음 있는 일이라 허가신청을 받았다가 잘못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의구심 때문에 허가하는데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 당시 시청 직원들도 양로원, 요양원, 전문요양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 구분하지 못하는 때라서 애로가 많았으나 인내하면서 설득하고 또 설득하여 설립허가서를 제주도청에 제출하게 되었다.

이것이 끝난 것이 아니었다. 제주도청에서 교회가 사회복지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면서 허가를 해 주지 않으려 하였다. 몇 수십 방문하여 교회가 요양원을 해야 할 이유를 조목조

목 설명하기 시작했다.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당위성과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말하였다.

결국 설립신청을 최종적으로 접수하게 되었고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접수되어 결과를 기다리게 되었다. 보건복지부 역시 한 번에 오케이 결정을 내려주지 않았다. 또 수십 번 발품을 팔아가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모든 것을 맡기기로 하였다. 기도하는 가운데 사회복지사업은 개인이나 교회일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사역인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드디어 크고 작은 반대와 난관을 뚫고 전문요양원 설립허가를 받아 오늘에 이르면서 제주도에 있는 지역 교회가 평안전문요양원 설립 후에 사회복지사업을 왕성하게 함으로 지역사회에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3. 주제선정

설립자 고 치환 목사는 복음과 복지를 강조하며 실천하여 온 목회자이다. 교회와 사회복지가 별개의 것이라는 시각, 교회가 사회복지를 해도 되고 아니해도 되는 시각, 세속적이고 외도하는 것이며 거룩한 것에 반대되는 것으로 보는 시각, 교회가 주고 사회복지받는 종으로 보는 주종관계의 시각 등에 아랑곳하지 않고 교회와 사회복지의 부부의 관계이며 새의 양 날개와 같은 관계라고 늘 강조한다.

교회 또는 목회자가 사회복지를 보는 이런 시각들을 재조명하고 지역사회 내 복지의 불모지였던 제주 땅에 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센터 등 복음과 복지를 위해 오직 한길을 걸으며 성공적인 노인복지의 운영과 실천이 밀거름되어 현재는 제주노회 산하의 노인요양시설만 12개소로 그 영역이 확장되었다.

교회가 하는 사회복지가 지역사회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이유는

- ▶ 사회문제 해결로서의 사회복지
 - 지역사회와의 관계 개선
 - 고용창출 확대
 - 경제적 효과
 - 교회와 목회자의 위상 향상
- ▶ 생명구원으로서의 사회복지
 - 요양원 생활 어르신 140여명이 세례를 받으심.
 - 직원들이 세례를 받고 교회에 직분자로 섬김.
 - 이교도 생활자 돌아옴
 - 전도에 용이
 - 장례식 집례
 - 이교도화 방지

▶ 교회 성장차원에서의 사회복지

- 성수주일 하는 직장
- 매일 예배의 생활화
- 교인수의 성장으로 인적, 물적 자원 생성

▶ 교회가 사회복지를 하지 않는다면 타 종교에서 훨씬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사회복지를 실천하여 이교도화 되는 건 시간문제.

이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 사랑으로 헌신하고 정성으로 봉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기관이 지향하는 가치이다. 1992년 평안교회가 설립과 동시에 사회복지를 꿈꾸며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 헌신을 통해 1998년 평안전문요양원(입소정원 108명)이 개원되고 2006년 경천전문요양원(입소정원 80명)이 개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각 시설에 재가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여 지역사회 재가어르신들을 위해 서비스하고 질환의 악화나 보호자의 욕구로 인한 시설급여 서비스 이용 시 논스톱으로 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하고 있다.

4. 우리들의 부모

우리 사회 오늘을 살고 있는 노인들은 참으로 고난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36년간의 일제치하와 6.25의 참극 특히 4.3사건의 비참한 삶을 겪으면서 폐허와 굶주림, 치욕과 수모, 온갖 격동과 혼란 속에서도 한국의 기적을 이룩하고 선진국 문턱에 우리를 서게 하였습니다. 한국 사회의 오늘은 노인들의 피와 땀의 결정체입니다. 우리 노인들의 희생과 꿈이 오늘을 있게 한 것입니다. 노인들은 모든 사회로부터 어르신으로서 존경을 받으며 노후를 편안하고 안락하게 그리고 보람 있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 모두는 노인들을 잘 모셔야 할 책임과 의무를 통감해야 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신성한 권리로써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나 늙어 노인 되고 노인 젊어 나였으니 나와 노인 따로 없다”는 말처럼 노인들의 모습에서 나의 자화상을 찾아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노인을 섬기면 나도 또한 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경로효친의 사상은 하늘이 우리에게 내리신 것이요 이를 실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특히 불우한 노인들을 위한 봉사와 헌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고 국가와 민족을 위한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국가와 우리 모두는 행복한 삶의 근원인 가정을 상실한 무의탁 어르신들과 부득이 노인복지 시설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불우한 노인들을 위해서 합심, 협력을 기울이게 될 때 노인복지 국가와 복된 삶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오는 늙음, 늙음의 끝자락에 가장 서러운 것은 건강을 잃는 것입니다. “노망”이라는 막말을 들어야 하는 “노인성 치매”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병입니다. 치매는

병을 앓는 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고통을 줍니다. 더욱이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쉽게 포기하고 방치하게 됩니다. 또한 중풍을 앓으시는 어르신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장병에 효자가 없다”는 말이 있듯이 이러한 중병을 앓고 계시는 어르신들의 식사를 위하여 시중 들어야 하고 대소변을 받아내야만 하는 중풍병. 이런 병을 돌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저소득층 주민들에게는 더욱 어렵고 힘든 병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질병들은 중산층마저도 저소득계층으로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기고 지역사회에 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고 치환 공로목사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사역의 중심에 자리잡게 된다.

5. 목적

“하나님께 영광, 사회봉사”를 이념으로 창립되었다. 이러한 이념을 실천하기 위하여, 1998년 3월 31일에 평안전문요양원을 개원하였으며 “기독교 성훈에 의하여 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보호 및 케어와 재가노인의 육체적·정신적·영적 안정을 도모하여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사랑으로 헌신·정성으로 봉사·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원훈에 따라 제주도 최초의 전문요양시설로 설립되었다.

○ 성과

2003년 노인복지시설평가 92.4점 우수시설 선정(최고점 92.6점)

2004년 9월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2006년 5월 제주도지사 표창

2006년 12월 2006년 노인복지시설 평가 탁월시설 선정

2010년 2009년 장기요양기관 평가 우수시설

2011년 2010년 재가장기요양기관 평가 최우수시설(주간보호)

2012년 2011년 장기요양기관 평가 최우수시설

1999년~2012년 현재 수세 어르신 140여명

이런 시설의 성과로 인한 지역사회 내 모범적인 운영과 실천으로 지역주민들의 인지도 개선 및 시설 입소 거부 어르신 및 보호자들의 긍정적인 생각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평안전문요양원과 소속 기관의 직원들은 대부분 평안교회의 임직자 및 교인들이며 일부 직원은 타교회 교인들인데, 이로 인해 지역사회의 고용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지역사회에 전파하고 있다.

6. 프로그램의 기반

현재 우리나라는 2011년 현재 노인 인구비율이 11.4%에 달하여 2016년이면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통계청, 2011). 고령사회가 당면하게 되는 문제 중의 하나는 후기 고령노인이 증가함으로써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 있는 대상자는 전체 노인의 5.8%(324,227명)에 달하고 있으나 평균수명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앞으로 그 숫자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반적인 생활수준과 사회여건은 크게 향상되었으나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핵가족화로 인해 노인부양 기능이 크게 저하되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가족의 부양을 사회적 부양으로 보완 대체할만한 사회적인 안전망을 구축하였다. 2011년 말 현재 노인요양 시설에 입소하여 서비스를 받고 있는 대상자는 10만명을 넘었고 재가서비스 대상자도 1만 5천명에 이르고 있는데 이 같은 현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초기보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대부분의 노인은 개인의 일상생활에서 신체적 독립성에 제한을 받고 있으며 만성질환과 장애 등으로 인해 기능적인 활동능력이 저하되어 이에 대한 욕구나 문제를 유발하여 상당수가 현재의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활동에 제약을 받는 노인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점진적으로 낮아짐으로써 우울증세로 이어지고 나아가 신체적 기능장애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현실이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이후 시설의 증가와 이용자 및 보호자의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면서 수요자 중심의 선택권이 강화되었고 여기에 환경의 변화에 미흡했던 기존 시설들이 대상자 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는 개인시설의 환경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제주의 오랜 풍습으로 남아있는 안팎거리 문화는 세대 간에 서로의 생활영역에 대한 간섭이나 통제 없이 독립된 주거생활과 가사운영권을 종속 유지시키는 독특한 문화로 정착되어 있다. 이런 독특한 문화로 인해 제주지역 대부분의 노인들은 독거생활을 하고 있어 장기요양서비스의 필요성이 타 지역에 비해 훨씬 높다.

7. 평가

우리나라 인구 열 명 중 한 명은 65세 이상 노인이다. 2007년 10월2일 노인의 날을 앞두고 통계청은 전체 인구의 9.9퍼센트가 65세 이상 노인이라는 통계를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7.2퍼센트를 돌파해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제주도는 우리나라 전체 평균보다 2년 앞선 1998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바 있다.

평안전문요양원이 1998년 개원 당시만 해도 제주특별자치도 최초이고 전국에서 4번째로 설립된 시설이 최근에는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등록된 시설 수만 4,300여개 시설이 등록되

어 이 나라의 어르신들을 섬기고 있다.

특히 제주 지역 교회들에 사회복지사업을 확산시킨 전도사로 평가받는 고 치환 공로목사(평안교회·평안전문요양원장)는 교회가 사회복지 사업에 적극 참여해야할 이유를 이렇게 강조한다. "교회는 더 이상 복지사업에 머뭇거리서는 안됩니다. 교회가 사회복지 사업을 하는 것은 지역사회를 살리는 것과 동시에 교인과 교회를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 사회의 고령화 현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지속되거나 심화될 것이 확실하고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도 강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사회복지 사업은 더 이상 간접선교가 아니다. 교회가 사회복지 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직접선교에 해당하며 교회가 운영하는 사회복지 시설이 지역사회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교회가 운영하는 사회복지 시설에서 일하는 근로자들과 시설 입소자 가족들이 교회를 좋게 평가하는 것은 간접선교다."라고 늘 강조하면서 복지를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다.

평안전문요양원이 1998년 개원 이후 세계적인 노인 복지 시설로 면모를 갖추게 되기까지는 불과 10년도 되지 못하는 짧은 시간이었다. 하지만 고 치환 공로목사(평안교회)가 준비해 온 시간은 수 십 년이 훌쩍 넘어 간다. 1964년 신학교를 졸업하고, 고향 제주도에서 목회를 계획하면서 교회 안에서나 목회 사역 중에 어떤 생명력을 느낄 수 없어 안타까움이 있었다고 회고하는 고 치환 공로목사는 늦은 나이에 일본으로 대만으로 수년씩 유학길에 오르며 새로운 목회 사역의 돌파구인 '노인 복지'에 눈 뜨게 됐다. 노인 복지의 필요성을 확신 하고, 이 일을 시작하고자 했지만 반신반의하는 보건복지부 관계자를 설득하고 고향에 내려 오니 혐오 시설 운운하는 관할 시청 담당자들의 우려를 들어야 했다. 복지시설을 하고자 했던 이런 어려운 시대적, 지역적 환경 속에서도 큰 목적을 향한 굽히지 않았던 고집과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붙여 주셨던 친구(故 고 인호 장로)와 동역자들의 기도가 지금의 복지사역을 위한 거름들이었다고 회고한다. 친구의 이해와 지원이 유일하였으며 큰 도움이 되었다.

평안교회와 함께 세워진 시설은 △평안전문요양원 △평안어린이집 △평안재가노인복지센터 △경천전문요양원 △경천재가노인복지센터이며 이곳에서 상근하는 직원만 130여명이고 재가 복지 사역자들을 포함하면 150명을 훌쩍 넘어선다. 직원들의 대부분이 평안교회의 임직자와 성도들이라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이 사역에 동참하고 감당하고 있으며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매일 예배와 기도로 서로 협력하며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는 모습들 속에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삶속에서 실천되고 있음에 목회자로서 많은 자부심을 느끼며 또한 뚜렷한 직장이 없었던 성도들의 삶의 일터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경제적인 생활과 더불어 하나님의 교회에 재정 자립을 돕는 등 너무나 큰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음에 감사하며 살고 있다 고백한다.

"보람 있는 일을 하며 함께 교회를 섬기니, 지역에서도 주목하는 기관이 됐고, 노회 안에서 안정된 교회로 자리를 잡게 됐으니, 이 보다 더 큰 은혜가 없다"는 고 치환목사는 사회복지지는 목회의 방편이며, 둘의 관계는 부부वाद 같다는 평소의 소신을 성공적으로 실천해

은 목회자이다. 더구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 노인들과 그들 가족들의 삶의 큰 짐을 덜어주었다는 직접적인 열매만큼이나 소중한 것은 제주도 내 모든 교회들이 교회 사회복지에 대해 눈을 뜨게 하고, 많은 교회들이 이 일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제주노회 산하에만 한림교회 서부종합사회복지관과 한림소망의 집을 비롯해 은성교회의 은성종합사회복지관, 제주영락교회의 영락종합사회복지관, 모슬포제일교회의 남제주요양원, 세화교회의 세화요양원, 애월교회의 주사랑요양원 및 주사랑소규모요양원, 김녕교회의 소망요양원, 제광교회의 제광원, 서호교회의 서호요양원, 위미교회의 위미에덴요양원, 성지교회의 성지요양원, 서귀포제일교회의 제일요양원, 추자요양원 등등 진정 제주도의 교회들은 지역 사회복지를 통한 새로운 선교의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고 있다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일이 가능했던 데에는 목회 현장 경험을 통해 체득한 노인 복지를 강단에서 가르치며, 목회자들의 관심을 이끌어주었던 고 치환 공로목사의 헌신을 빼놓을 수 없다. 사재를 포함해 수십억 원의 정부 지원 예산을 투입해 현대식 노인 복지 시설을 세우고 또 매년 국가와 지방 재정의 지원을 받아 안정적인 운영을 하게 되기까지 총괄국장 오 은숙 권사(평안주간보호센터장)를 비롯해 초창기부터 함께 했던 수많은 사역자들의 남모를 헌신과 수고와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큰 비전을 함께 어려운 환경에서도 섬김으로 사역했던 성도들의 협력으로 2004년 보건복지부가 펴낸 전국 치매 중풍 노인 요양시설에 대한 조사에서 제주도의 총족율이 대표적 위치에 있던 울산을 제치고 93퍼센트로 수위를 차지했으며 시설 평가에서도 동 요양원이 전국 최고에 0.2점 뒤지는 92.4점을 차지할 만큼 대표적인 기관으로 성장하게 됐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된 2011년에는 평안주간보호센터(재가시설), 2012년은 평안전문요양원(30인이상 입소시설)이 장기요양기관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시설로 선정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눈물어린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함께 축하하기도 했다.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은퇴를 생각해야 할 때에 헌신적인 사역으로 귀감이 되고 있는 고 치환 공로목사(평안교회)는 "평생을 신앙생활 하던 교우들은 물론 심지어 목회 사역을 하시던 분들마저도 치매와 중풍에 걸리니 기독교 시설이 없었기에, 타종교가 운영하는 곳에서 기도도 잇고 찬송도 잇은 채 우상에 절하며 지낼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분들을 다시 모셔와 믿음 가운데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헤드린 일"을 가장 큰 감사의 제목으로 꼽는다는 고 치환 공로목사.

'미자립은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과제'라고 낙담하여 벗어날 희망과 용기를 잃고 실의에 빠진 사역자들을 향해 고 치환 공로목사는 "교회사회 복지를 통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고, 지역 사회를 섬기고, 교회도 자립할 수 있는 '상생(相生)의 목회'에 동참할 것"을 거듭 강조한다.

8. 다시 복음을 위하여

복음의 불모지인 제주 땅에서 한 생명이 주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들의 삶을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 도움을 주며 그들이 살아가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을 제공해야만 한다. 생존과 직결된 무언가를 제공해야 복음과 연결이 된다. 그런 측면에서 사회복지사는 더할 나위없는 이 도시에 맞는 도시복음이었다. 마치 남편이 아내를 얻은 기쁨이었고 아내가 남편을 얻은 소망이었다. 그러기에 교회와 사회복지 즉 복음과 복지는 부부요 두 날개가 되는 것이다. 한 몸이요 뿔레야 뿔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된 것이다.

특히 본 전문요양원이 위치한 서귀포는 제주도 전체인구의 0.5%를 차지하는 농가인구가 살고 있는 지역이다. 이런 척박한 곳에서 사회복지 전문요양기관을 세웠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 아닐 수 없다. 소규모 농촌지역에서 전문요양시설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남다른 개척정신이 없으면 안되는 일이었다. 개척자 고치환 목사의 남다른 열정과 헌신과 앞을 내다보는 미래정신이 아니었다면 그것은 단지 꿈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것은 곧 복음에 대한 열정이기도 하다.

제주도 이 땅에 이 도시에 제주도 오랜 전통인 안팎거리 문화로 인한 가족 간 거리, 세대 간 거리, 교회와의 거리 등을 다소 좁히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사회복지라 힘주어 말할 수 있다. 철저하게 마음 문을 열지 않는 황무한 이 땅에 사회복지기관을 통한 접근은 그들에게 삶의 터전을 세워 주게 되었고, 그들이 살아가는 이유가 되었다. 그것이 교회로 복음으로 연결된 결정적 이유가 되었다.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눈물로 섬겨 주신 분들의 헌신과 생명을 향한 열정이 있었기에 지금은 사회복지기관에 들어오는 어르신과 직원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한 것이요 일상생활이 되었다.

우리는 아직 꿈에 목마르다. 여기는 사회복지현장인 동시에 선교현장이다. 사명을 가지고 고국을 떠난 선교사처럼 직접선교를 하는 현장에 서 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역이 1기 시작이었다면 2기는 전문요양원을 통한 복음사역이 될 것이다. 이것은 지역을 넘어 나라와 전세계로 뻗어나가는 비전이 될 것이다. 우리 또 꿈을 꾸다. 세계로 수출하는 사회복지를 통해 개인을 넘어 전문요양원을 통한 선교드림센터가 될 것이다. 내가 곧 교회요 전문요양원임을 인식하고 다시 복음을 위하여 오늘도 사회복지를 위해 아니 나의 삶의 복지, 영혼의 복지를 위해 힘차게 출발해 본다.

효성1004마을축제

- 제 3회 대도시 부문 수상 효성중앙감리교회 사역보고 -

1. 교회 현황

1) 설립연도 : 1957년 설립

2) 교회 연혁

1957년 4월 15일(부활주일) 창립예배

1972년 12월 28일 구역회에서 교회 이름을 효성중앙교회로 개명

1996년 10월 3일 제1회 효성동 주민초청 체육대회(JC 공원)

1998년 1월 12일 효성사회복지관(현 효성중앙어린이집) 개관

1998년 9월 27일 남성합창단 창단(지휘 성기영 전도사)

1998년 효성음악문화원 개설

1998년 효성주니어오케스트라 창단

1999년 10월 12일 목요경로식당 개설

2001년 청소년 문화센터 개관

2001년 2월 18일 효성주니어코랄 합창단 창단(지휘 황혜영)

2003년 10월 3일 제6회 효성동 마을축제 담장 허물기

2004년 10월 3일 제7회 효성동 마을축제 풍산금속 담장 그림 그리기

2004년 10월 녹색가게 개점

2005년 10월 3일 제8회 효성동 마을축제 장애우와 함께

2006년 2월 19일 7대 담임으로 정연수 목사(호명희 사모) 부임

2006년 11월 19일 오후 1시 마을축제(9회) - 효성동 사랑의 네트워크/ 효성고등학교

2007년 6월 2일 근육병 환우를 돕기 위한 사랑의 콘서트/계양문화회관

2007년 10월 3일 2007 효성 마을축제 한마당(효성동 봉화로)

한줄김밥(1천미터) 만들기 세계기록도전 - 1004미터 완성

2008년 4월 29일 제1회 미추홀 봉사상 수상 / 인천시청

2009년 8월6일 효성재가노인지원센터(센터장 : 류인환)개관식

2010년 8월 22일 김수연·임희창 기념 무지개 뜨는 어린이 도서관 개관

2010년 10월 23일~11월 20일 두란노 아버지학교(인천북부 49기)

2011년 10월 3일 제13회 효성1004마을 축제

주제 : 살고 싶은 우리 동네 / 효성중앙교회 및 풍산 담장

2011년 11월 4일 인천광역시 건축상 장려상 수상

2012년 4월 12일 (주)커피밀플러스 인천예비사회적기업 인증

3) 직원 및 조직체계

담임목사 - 정연수

부담임목사 - 박상규, 한광수, 서신천, 김종호

전도사 - 이광호(찬양), 박두현(교육), 장우진(교육), 김다혜(교육)

시무장로 - 이강수, 이상화, 김민경A, 이영식, 박세영, 이철수, 이영순A, 최현묵, 이영호,
박세근, 이병렬

원로장로 - 김윤한, 이용선, 최명선

은퇴장로 - 이상복, 신학구

입교인 : 총 1, 314명

2. 대상

1) 대상자 : 효성동일대의 모든 지역 주민들, 연인원 3000명 이상 참여

2) 특성 : 초등학교 어린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골고루 참여, 가족단위의 참여가 많이 있음

3. 주제 선정

1) 지역 내에서 프로그램의 필요성 :

- 1) 지역사회와 공동체성의 회복
- 2) 교회와 사회와의 화해와 협력
- 3)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애함심 고취
- 4) 지역의 사회단체들의 활성화
- 5) 불우이웃돕기를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 고양
- 6) 각종 문화 활동, 체육활동을 통하여 지역 문화체육 활동 필요
- 7)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창출 및 창업 활동에 기여
- 8) 젊은 세대가 참여 할수 있는 문화예술 콘텐츠

9) 소외계층들을 위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육성

2) 지향하는 가치

- 1) 지역공동체성의 치유와 회복
- 2) 지역공동체의 공공성 강화- 소통과 나눔
- 3) 지역공동체의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3) 유사사업 수행 경험 : 1996년 이후 현재 14회째 마을 축제 진행하고 있음

4. 목적, 목표

1) 목적

효성 1004 마을 축제는 1996년 교회가 지역 주민들을 초청하여 체육대회를 함으로써, 교회와 지역주민들간의 장벽을 허물기 위해 시작되었다. 그렇게 시작한 체육대회는 회를 거듭하면서 조금씩 발전해 나갔고, IMF라는 어려운 상황속에서 단절해 가는 주민들의 마음을 열고, 효성동이라는 마을 공동체를 하나로 묶기 위해, 여러 가지 장벽을 허물어보자는 취지로 해마다 다른 주제를 가지고 준비하게 되었다.

2) 행사의 목표

- ① 즐거운 축제 - 축제는 즐거워야 한다. 지역 주민들이 기대하고 충분히 즐길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야 한다.
- ② 전(全)세대의 참여 - 어린아이부터, 청소년, 성인, 노인, 다문화가정에 이르기까지 소외되는 연령층이 없도록 최대한 다양한 각도의 프로그램으로 만족할만한 축제를 만든다.
- ③ 지역이 함께 준비하는 마을 축제 - 준비과정에서부터 행사 진행에 이르기까지 교회 독자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사회단체, NGO, 사회적 기업, 지역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며 함께 연대하여 준비 함으로써, 교회 행사가 아니라, 지역행사가 되도록 한다.

3)구체적인 성과

맨 처음에는 효성중앙교회의 주민초청체육대회로 시작하였던 행사가 발전하여, 이제는 '마을축제준비위원회'라는 마을의 각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전담기구를 구성하여 종교의 색채를 넘어 온 마을이 참여하는 지역형 문화축제가 되었다. 이 마을축제는 해마다 '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행사를 하였는데 서로간의 막힌 담을 헐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자는 것이다.

1996년부터 2002년까지는 주민초청 체육대회와 마을 노래자랑 등의 행사로 진행하다가 2003

년부터 매년 한가지씩의 특별한 테마를 정하여 행사를 점점 확장시켜왔다.

2003년에는 실제로 효성중앙교회의 담장 50여 미터를 허물고 마을 옛길 어깨동무 걷기대회를 하였다.

2004년에는 마을의 주요기업인 풍산특수금속(주)의 담장에 예쁜그림그리기대회를 하였습니다.

2005년에는 장애인과의 담을 허는 마음으로 “장애인과 함께 마을걷기대회”를 하였습니다.

2006년에는 지역의 어려운 학생들과 후원자를 연결해주는 사랑의 네트워크를 하여 세대간 계층간의 담을 헐었다.

2007년에는 1000미터 한줄김밥만들기에 도전하여 ‘1004미터 한줄 김밥’으로 세계 기네스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2008년에는 “자전거로 하나되는 천사(1004)마을”이라는 주제로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마을을 만들기 위하여 자전거 이용자를 확대하고 편안하고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봉화로에 자전거 거치대를 마련하고, 자전거 도로를 만들기 위한 청원을 내었다.

2010년에는 ‘행복한 마을, 함께가는 세상’이라는 주제로, 이웃돕기 바자회와 여러 가지 문화공연과 각종 체육대회, 각종 체험부스 등으로 마을 주민들의 단합을 도모했다.

2011년에는, 살고싶은 우리동네라는 주제로, (주) 풍산 담장에 담장그림을 그렸다.

2005년에는 ‘지방의제21전국대회’에서 마을공동체만들기 시범사례로 꼽혀 환경부장관상을 받았고, 2008년에는 인천시에서 ‘미추홀 봉사상’을 받았다.

5. 프로그램 기반

학문적 이론적 기반제시 : 이론적 근거는 ‘공공신학’

한국교회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바로 교회의 사회적책임이라고 볼때, 17년째 효성중앙교회가 지역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 마을공동체만들기 실천의 장인 마을축제를 지속해서 주관해오고 있는 점은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공공신학의 주제별 분류

- 1) **소통과 나눔** - 지역공동체의 정체성과 활발한 교류를 위하여 마을축제라는 대중의 소통 방식을 채택, 14회째 진행하고 있다. 다양한 세대와 단체들이 소통하고 있으며 이웃돕기 바자회를 통해 발생한 수익 전액을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고 있다.
- 2) **지역경제 활성화** - 경제민주화의 주요 정책인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그리고 협동조합에 관한 세미나를 유치하고 사회적기업 박람회를 진행한다. 특히 교회는 이를 목표로 설정하고

인천 사회적기업 '커피밀플러스'를 인증받아 교회 1층 로비에서 운영하고 있다.

3) 지역사회 인재양성 - 지역사회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우리마을 인재양성의 필요성을 깨달아 교회는 문화예술 분야로 '계양 필바인 오케스트라'를 육성하고 있으며, 청년 등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인증 받아 '착한소비 1004마을 팀' 5명을 인큐베이팅하고 있다.

6. 프로그램 내용

1) 효성 1004마을 축제만의 특징

몇 년 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에는 이런저런 축제들이 기획되고, 전국에는 수없이 많은 축제들이 생겨났다. 지방의 특산품을 홍보하거나 지방 관광을 위해 기획된 상업성 이벤트와 같은 축제의 홍수 속에서, “효성1004마을축제”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만들어진 특별한 마을 축제이다. 정부나 기관에서 나서서 기획하고 동원하는 관주도의 축제가 아닌, 순수하게 민간단체들이 주도하고 마을사람들의 정성과 노력이 모여져 만드는 “효성1004마을축제”는 그야말로 마을사람들이 만들고, 즐기는 진정한 의미의 ‘마을축제’인 것이다. 모두들 나만 잘 살면 된다고 하는 이 시대에 마을 공동체를 위하여 마을 주민이 함께 힘을 모아 마을 축제를 열수 있다는 것이 효성동의 자량이다.

2) 세부 프로그램

① 개회식(10:00-11:00), 폐회식(5:00-6:00)

- 장소: 비전홀

축하공연 (각종 문화 공연)

② 이웃돕기바자회

- 장소: 교회 앞 인도, 1층 로비, 교회 옆길.

- 판매품목 : 닭꼬치, 식혜, 컵라면, 떡볶이, 김밥, 카스테라, 튀김, 순대, 어묵, 해물전, 가래떡, 육개장, 계란, 쥐포, 각종젓갈류, 김치 및 각종 밑반찬, 계란, 쥐포

- 이윤을 남기기보다 저렴한 가격에 식사를 제공하고 함께 나누는 취지로 저렴하게 판매

③ 탁구대회

- 장소 : 소망홀, 믿음홀, 시간 : 11:00-3:00

- 종목 : 남성,여성 단식, 혼합 복식

- 진행방식 : 토너먼트,

- 각지역 탁구팀 참여 (태산아파트, 성지교회, 신협, 탁구동호회 등)

- 상품 , 트로피 제작

④ (주) 풍산담장 그림그리기

- 지역의 아름다운 환경 조성을 위한 담장 그리기
- 경인여대 아동미술과, 아동보육과 지원
- (주)풍산, 계양구청의 협조 및 지원
- 시간 : 11:00-5:00, 장소 : 풍산 담장 서편, 북편
- 1개팀당 5-6명, 진행협조, 경인교대학생들 지원,
- 심사 : 이민영(경인여대 교수)

⑤ 마을노래자랑

- 매년 마을축제 때 마다 치러지는 전통있는 주민 노래자랑(예선전에 100명 가량 신청)
- 장소,시간 : 본선: 비전홀(03:00-5:00), 예선:아트홀(11:00-2:00)
- 상품 : 1등 상금 50만원, 2등, 3등, 상품
- 예선 : 10팀 선출, 예선통과자 전원 상품.

⑥ 팔씨름 대회

- 장소: 교회 앞 마당 시간 : 01:00-3:00
- 팔씨름 테이블 2개, 남자부, 여자부, 청소년부, 어르신부 진행
- 트로피, 상품
- 인근 헬스클럽, 체육관에 홍보

⑦ 경로잔치

- 장소 : 비전홀 시간 : 11:30-12:30
- 어르신 장기자랑 및 효도공연 및 잔치, 식사대접 등

⑧ 메탈베이블레이드 대회

- 장소 : 비전홀
- 어린이 팽이대회, 메탈베이블레이드 판 4개 설치, 예선전 진행,
- 본선 진출 팀들, 영상 중계,
- 상품 : 메탈베이블레이드 시합판, 팽이 등...
- 인근 초등학교에 홍보

⑨ 체험부스

- 즉석사진찍기, 페이스페인팅, 풍선만들기, 소리크게 지르기, 등등
- 생협 등 사회적 기업 홍보

⑩ 행운권 추첨

7. 타기관과의 네트워크

- 1) 고 문 : 박형우(계양구청장), 신학용(계양갑국회의원), 홍종일(한나라당 계양갑 위원장)
- 2) 공동위원장 : 김대기(효성 새마을금고 이사장), 석지산(덕홍사 큰스님), 황원형(계양신협

이사장), 백용현(북인천 새마을금고 이사장), 정연수(효성중앙교회 담임목사), 신갑식((주)풍산 대표)

3) 준비위원장 : 이상화

4) 효성마을축제준비위원 : 이도형(인천시의원), 한양진(계양구의원), 김석현(계양구의원), 박원기((주)풍산이사), 조원형(효성1동장), 윤광섭(효성2동장), 권영준(효성2동 주민자치위원장), 이강수, 이상화, 김민경, 이영식, 박세영, 이철수, 이영순, 최현묵, 이영호, 박세근, 이병렬, 효성1,2동 각 자생단체장

5) 참여 기구

(공공기관) 계양구청, 계양경찰서, 효성1,2동주민자치센터, 인천효성동우체국, 계양의제21실천협의회교육문화분과, 효성동의제21추진위원회,

(사회단체) 계양구경영자협의회, 내일을여는집, 계양구아파트연합회, 녹색연합계양지부, 효성1,2동통장협의회, 효성1,2동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효성동자유총연맹, 효성1동주민생활복지위원회, 효성1,2동주민자치위원회, 효성1,2동방위협의회, 효성1,2동새마을부녀회, 효성1,2동자율방법대, 효성1,2동청소년지도위원회, 효성1,2동마르게살기위원회, 계양구 모범운전자회

(종교단체) 효성중앙교회, 시민교회, 효성영광교회, 덕홍사, 천주교회 효성동성당, 세광교회, 강성교회, 예담교회

(사회복지기구) 구립)효성노인복지센터, 소망의집, 더불어사는집

8. 프로그램 평가

성과 목표와의 연결성

: 매년 2,000명 이상의 지역주민들 참여가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새로운 축제의 컨셉과 지속가능한 축제준비위 구성의 목표를 새롭게 목표로 설정

자료수집 방법의 타당성

: 축제 참여 인원은 공신력있는 관에서 파악하고 있으며, 향후 더 발전적인 마을축제, 상설화 될 수 있는 아트프리마켓의 구성을 위해서 온라인, 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준비중

양적 혹은 질적 평가의 내용 및 과정

: 2012년 제14회 마을축제는 2,500명 이상 참석, 5,000,000원 이상의 수익금 기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매년 목표는 무난하게 달성되었던바, 금년에도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중간 평가 및 반성

: 올해는 마을축제 준비위원회가 미리 조직되어 원활히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청년 등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팀인 '착한소비 1004마을' 팀이 주관을 맡아 잘 준비하고 있어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더 많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글로컬(Glocal)시대에 지구촌 지역마을과 연대를 하기 위해서는 자발성과 공공성을 갖춘 더 많은 인재들의 참여가 필요

9. 예산

1) 자원 조달 방법

- ① 후원금 : 지역기업 후원금, 지역 사회단체 후원금, 교회성도 후원금, 구청지원금
- ② 이웃돕기 바자회 수익금
- ③ 기념티셔츠 판매
- ④ 이웃돕기 성금 모금

2) 예산편성

수 입		지 출	
효성중앙교회 사회봉사부	9,000,000	준비비	2,000,000
후원금(기업, 구청, 단체)	12,900,000	인쇄비/전단지,포스터,팜플렛	2,000,000
바자회	12,000,000	홍보비/현수막,배너,신문광고	2,000,000
기념티셔츠 판매금	2,000,000	무대/시설비/텐트,테이블,의자대여	2,500,000
이웃돕기 성금	500,000	바자회 준비비	10,000,000
레인보우 체험코스 : 기부천사, 무지개 레이스	500,000	사회적기업 세미나 : 강사비 및 자료집	1,500,000
구청 지역경제과	3,000,000	사회적기업 박람회 : 인천사회적기업 제품전시/판매	3,000,000
폐휴대폰 수익	2,500,000	폐휴대폰 수익 독도 관련 기부	2,500,000
		기념옷 4,000X1,000개	4,000,000
		문화행사	1,000,000
		길거리패션쇼	500,000
		메탈베이블레이드대 회	500,000
		경로잔치	1,200,000
		마을노래자랑	1,200,000
		행운권	1,500,000
		레인보우 체험코스	700,000
		진행비	1,300,000
		소계	11,900,000
			0
		이웃돕기 성금	5,000,000
수입총계	42,400,000	지출총계	42,400,000

1~10회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회상 수상교회 목록

상	교회명	담당목사	복지분야	교인수	지역	분류
1	강북구세군교회	박희범	무료급식, 노인복지	80	서울시	대도시
1	대구신암교회	윤의근	평생교육원	1,500	대구시	대도시
1	대길교회	박현식	무료급식	1,000	서울시	대도시
1	도림교회	유의웅	노인복지, 청소년복지, 문화센터	5,700	서울시	특별상
1	목민교회	김동엽	노인복지	5,800	서울시	대도시
1	봉동시민교회	김광섭	노인복지	100	전북	농어촌
1	산음교회	김태성	노인복지	30	경기도	농어촌
1	안성성결교회	구자영	노인복지	1,000	경기도	중소도시
1	양무리교회	유소숙	청소년복지	107	서울시	대도시
1	예산짚풀교회	김용필	농촌봉사	73	충남	농어촌
2	고척교회	조재호	노인, 아동, 청소년 복지	2,700	서울시	대도시
2	구세군 모산교회	이재오	무료급식	102	충남	농어촌
2	남원살림교회	문홍근	아동, 청소년, 노인복지, 푸드뱅크	320	전북	중소도시
2	대구남산교회	김학노	장애인, 외국인노동자	2,000	대구시	대도시
2	덕수교회	손인웅	노인복지	1,500	서울시	특별상
2	도원동교회	박용경	무료급식	1,500	서울시	대도시
2	동두천 낙원교회	공지태	노인복지	250	경기도	중소도시
2	송전교회	박만규	노인복지, 청소년복지	300	경기도	농어촌
2	순복음푸른초장교회	한영란	노인복지, 청소년복지	90	경기도	농어촌
2	오산침례교회	고명진	노인복지	1,500	경기도	중소도시
2	해인교회	김영선	노숙자 쉼터, 무료급식	125	인천시	특수목회
3	도고중앙교회	이건열	말반찬 나누기	84	충남	농어촌
3	동지교회	신경희	장애우 복지	150	대구시	특수목회
3	새성남구세군교회	김규환	청소년복지	60	경기도	중소도시
3	새터교회	안지성	아동복지	80	서울시	대도시
3	성터교회	방인성	아동복지, 외국인노동자	250	서울시	대도시
3	오중제일교회	박영진	노인복지	70	전북	농어촌
3	일산은혜교회	강경민	암환자 쉼터	1000	경기도	중소도시
3	제천 명락교회	이명선	노인복지	1,743	충북	중소도시
3	창원한빛교회	윤희구	노인복지	1,500	경남	중소도시
3	효성중앙감리교회	조경열	노인복지	1579	인천시	대도시
4	구세군여주교회	남세광	아동복지, 무료반찬, 푸드뱅크	60	경기도	농어촌
4	본향교회	이재철	노인복지	500	충남	중소도시
4	안산제일감리교회	정명기	무료급식	272	경기도	중소도시
4	예수사랑교회	이강평	문화센터	900	서울시	대도시
4	울곡교회	여태권	노인복지	200	전북	농어촌
4	익산복일교회	김익신	노인복지	2000	전북	중소도시
4	일산세광교회	황해국	문화센터	1800	경기도	중소도시
4	장항성일교회	황형식	장애우복지	500	충남	농어촌
4	평안교회	고지환	노인복지	250	제주도	중소도시
4	평창동산교회	음훈정	아동복지, 푸드뱅크	40	강원도	특수목회
5	거진성결교회	김병권	노인복지	250	강원도	농어촌
5	구세군남안성교회	한세종	노인복지	100	경기도	농어촌
5	당진감리교회	방두석	노인복지	6524	충북	농어촌
5	부천밀알교회	박기서	외국인노동자	250	경기도	중소도시
5	살림교회	김봉구	노인복지	50	대전시	대도시
5	세계로교회	김연규	푸드뱅크	100	경기도	농어촌
5	신명교회	김희중	노인복지	450	전남	특별상
5	완도제일교회	김민호	노인복지	1000	전남	농어촌
5	일산예일교회	류우열	아동복지	800	경기도	중소도시
5	하나로교회	김수철	노숙자 쉼터	100	서울시	대도시
5	한무리교회	최주상	아동복지, 노인복지	60	경기도	중소도시

6	남원제일교회	김금용	장애우, 노인복지	1000	전북	중소도시
6	백석교회	신석현	환경	50	경기도	중소도시
6	빛과소금교회	신동식	노인, 아동, 장애인	40	경기도	중소도시
6	울산교회	정근두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우	2500	울산시	대도시
6	전원성결교회	한석봉	지역복지	50	충북	농어촌
6	청주올림교회	고중복	아동, 노인, 문화교실	200	충북	중소도시
6	하남은광교회	손종기	아동, 노인복지	600	광주시	대도시
6	후영순복음교회	김경준	지역복지	54	충북	농어촌
6	희년교회	안수경	아동, 청소년, 여성복지	20	서울시	특수목회
7	거룩한빛광성교회	정성진	마이크로크레딧, 노인주간보호	5100	경기도	중소도시
7	과천소망교회	장현승	노인복지관, 지역아동센터	3500	경기도	중소도시
7	광양대광교회	신 정	이미용봉사, 다문화가정지원센터	1400	전남	중소도시
7	기쁨누리교회	문덕암	연탄나눔, 지역아동센터, 음악회	65	충남	중소도시
7	기성아산교회	조이철	요양교육원, 경로당활성화사업	150	충남	중소도시
7	소사제일교회	이진수	노인 여가, 문화 교실	100	경기도	중소도시
7	신기교회	박승규	노인여가, 목욕 봉사, 반찬나눔	50	전남	농어촌
7	영월 서머나교회	노인국	푸드뱅크, 목욕봉사, 행복한나눔	120	강원도	농어촌
7	전주안디옥교회	박진구	의료, 교도소 선교, 노인대학 등	5000	전주시	특별상
7	포항경동교회	하광락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 청소년	100	포항시	특수목회
7	홍성제일교회	김대경	노인대학, 음악회, 지역아동센터	1000	충남	농어촌
8	강진읍교회	김승봉	노인전문요양원, 노인복지센터	800	전남	농어촌
8	구세군복춘천교회	김기석	지역아동센터, 반찬, 야간보호	35	강원도	중소도시
8	금산평안교회	홍승훈	연탄은행	90	충남	농어촌
8	보길중앙교회	류영구	한글학교, 지역아동센터	35	전남	농어촌
8	세계비전교회	신병식	빈집수리, 방문요양	320	대전시	대도시
8	송탄중앙침례교회	배국순	노인복지관, 재가복지, 아동복지	2000	경기도	특별상
8	예담교회	지인성	호스피스, 정릉종합사회복지관	1430	서울시	대도시
8	완도성광교회	정우겸	어린이, 청소년복지, 노인, 다문화	2943	전남	특별상
8	인천목민교회	류재권	장애인주간보호센터	40	인천시	특수목회
8	충주제일감리교회	소화춘	노인복지	1500	충북	중소도시
8	큰사랑교회	박상철	지역아동센터, 노인문화교실	50	인천시	대도시
8	해성교회	이정구	복지관, 유치원, 아기학교	850	경기도	중소도시
9	강남교회	전병금	개안수술지원, 기장복지관 지원	3000	서울시	대도시
9	녹양교회	박귀동	문화사역, 노인대학, 방문요양	500	경기도	중소도시
9	물금읍교회	윤정배	노인복지, 이미용봉사, 경로잔치	50	경남	농어촌
9	삼산교회	최학무	물리치료, 경로대학, 상담소	110	경남	농어촌
9	영서교회	남상국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지원 등	1345	서울시	대도시
9	온양농아인교회	전경수	지역아동센터, 장애인재활지원, 수화통역, 장애인	58	충남	특수목회
9	인천교회	김진욱	이미용, 문화교실, 한자, 영어교실, 장애인자립프로그램	450	인천시	대도시
9	정자교회	정재기	지역아동센터, 노인대학, 도서관	240	울산시	중소도시
9	주님의교회	김용우	아동, 여성, 장애인복지,	50	전북	특수목회
9	홍천동면감리교회	박순용	환경, 생명 직거래 사업	50	강원도	농어촌
10	구세군진보교회	노성우	노인복지, 밀반찬봉사, 미용봉사	70	경북	농어촌
10	계명성교회	고완철	노인복지, 무료급식, 노인요양센터	200	경기도	중소도시
10	과천교회	주현신	장애인, 노인요양, 공부방 등	6000	경기도	중소도시
10	동련교회	김일원	노인복지, 주야간보호, 무료급식	300	전북	농어촌
10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노인복지, 외국인복지, 호스피스	12000	수원시	특별상
10	열방교회	소병근	장애인, 공부방, 미술치료	1800	서울시	특별상
10	영신교회	이재욱	노인복지, 경로대학	600	서울시	대도시
10	작은샘골사랑의교회	김삼수	경로대학, 장애인, 반찬배달	120	전북	특수목회
10	전주동신교회	신정호	노인복지센터, 경로대학, 반찬배달	2100	전주시	대도시
10	창동영광교회	황성은	장애인복지센터, 경로대학, 이미용	7000	서울시	대도시
10	풍기성내교회	최갑도	경로대학, 무료급식, 목회간호	950	경북	농어촌
10	화전별말교회	강대석	마을청소, 경로잔치, 장학금 지급	75	경기도	중소도시